

연구보고 14-R15

IN

Y

P

II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지역사회 진단·분석

책임연구원

김지경

공동연구원

하헌주 김옥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지역사회 진단·분석

- ▶ 책임연구원 :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옥태(한국방송통신대·조교수)
하현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 집필진 : 신인철(숭실대학교·시간강사)
- ▶ 연구보조원 :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최인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정책개입이 요구되는 시간을 허용하지 못할 만큼 급속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공간 등 청소년들의 근접 생활환경을 청소년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으로서 거주지 중심의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소외 등의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그 속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악화되어 행복한 성장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걱정과 우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에서는 청소년의 생활환경 체계와 생활공간에 대해 깊이 고려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청소년 생활공간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수준 진단 및 정책과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과학적 추진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장기연속 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연구』의 2년차 연구이기도 합니다. 1년차 연구에서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구성과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2년차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과학적·실증적 정책연구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17개 시·도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여건 진단을 위한 지표를 개발·측정하고, 종합지수를 산출·분석하였으며, 동시에 청소년시행계획내용의 분석과 17개 시·도 청소년들의 정책모니터링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더하여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중앙정부와 16개 시·도 지방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지역사회 조성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17개 시·도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여건 진단을 위하여 본 연구는 이의 진단을 위한 지표를 개발·측정하고 정책적 활용에 용이한 종합지수를 산출·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정량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17개 시·도 청소년시행계획내용의 분석과 17개 시·도 청소년들의 정책모니터링 및 지표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정성적 접근을 더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들 스스로가 지역사회 청소년 친화 환경 조성 수준을 진단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소년 친화환경 정책추진의 기본 전제를 충족하였다. 또한 이러한 종합 진단의 결과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와 16개 시·도 지방정부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종합지수 분석 및 공간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나타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16개 시·도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 YHCI)’를 분석한 결과, 7개 지역만이 평균 이상이며, 전반적으로 도지역의 종합지수가 광역시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전국 평균 이하의 지수를 갖는 지역이 가장 많은 영역은 주관적 웰빙이며, 그 다음으로는 안전·교육·관계 영역에서 평균 이하의 지수를 갖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합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 종합지수가 표준편차의 일정범위 이상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와 경남이며, 표준편차의 일정범위에 미치지 못해 종합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경북과 서울로 나타났다.

넷째, 공간자기상관 분석 결과 대전 지역은 경제 영역과 참여 영역에서 핫스팟(Hot Spot)으로 나타났으며, 강원 지역은 교육 영역에서 콜드스팟(Cold Spot)으로 나타나, 권역별 접근을 통해 강화와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구는 안전 영역에서 경남은 참여 영역에서 주변지역에 비해 높은 지수 값을 가지며, 광주-경북-제주 지역은 건강 영역에서 주변지역에 비해 낮은 지수 값을 가지는 부적 자기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접근을 통한 강화와 보완이 필요하다.

여섯째, 공간가중회귀분석 결과, 종합지수-교육 영역, 종합지수-관계 영역 간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은 제주, 전남, 광주이며, 종합지수-참여 영역 간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은 제주, 광주, 전북, 종합지수-주관적 웰빙 영역 간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은 제주, 전남, 광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 영역의 약점을 보완하여 개선해야하는 지역으로 관계와 참여 영역에서는 서울과 인천,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이며, 교육 영역에서는 두 권역들을 포함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종합 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국가정책으로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을 추진하는데 전제되어야 하는 정책추진의 방향이자, 본 연구의 종합 진단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원칙과 같이 지켜져야 할 기본 방향을 5가지(①청소년 중심적 정책, ②증거 기반 정책, ③통합적 정책, ④지역 지원적 정책, ⑤권역별 전략적 정책)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 정책방향 하에서의 3가지 기본 활용의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정책 분석·평가에 기초한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강화'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한 활용' 측면에서 구체적인 결과의 정책적 활용 및 관련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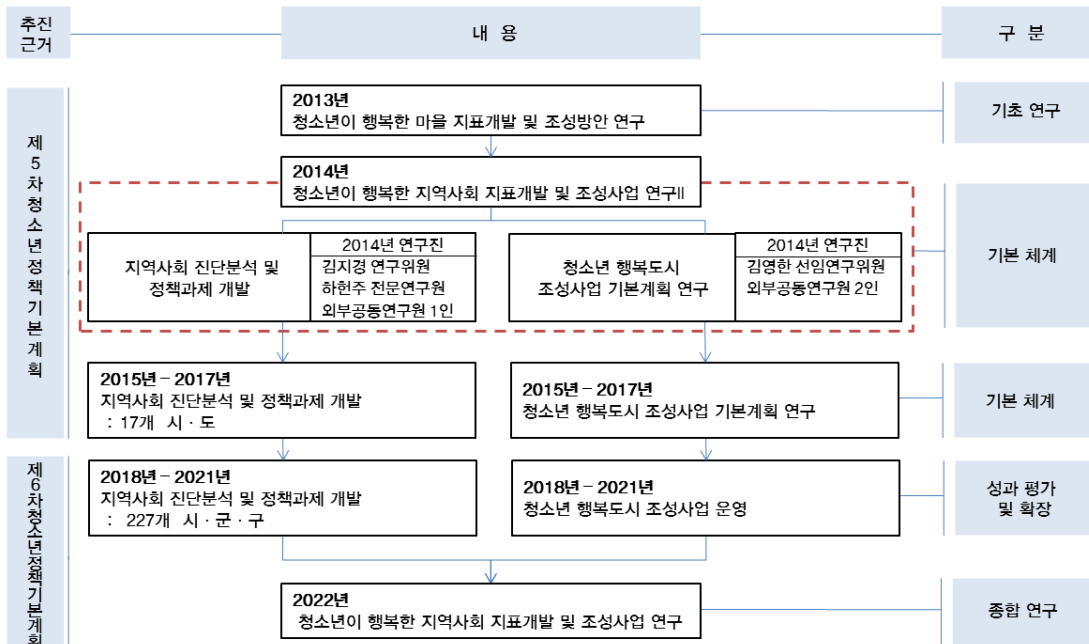
핵심어: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사회 진단,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 지수 (YHCI), 종합 진단, 정책 활용방안

일러두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과학적 추진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 10년간 장기 연속과제로 계획되어 착수된 정책연구이다.

2013년 1년차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개념 및 정의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구성과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201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과학적·실증적 정책연구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년차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크게 두 축, 즉 ‘지역사회 진단·분석’과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으로 설계하고 나누어 추진하였으며, 이들 연구는 별도의 보고서로 각각 작성되었다. 본 연구보고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연구Ⅱ: 지역사회 진단·분석』의 해당 보고서임을 밝힌다.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진단을 위한 지표를 개발·측정하고, 이의 종합지수 산출 및 분석을 통한 정량적 접근과 17개 시·도 청소년시행계획내용의 분석과 각 지역 청소년들의 정책모니터링 및 지표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정성적 접근을 더하여, 시·도 단위의 지역사회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여건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지역사회 청소년의 행복 수준 및 지역사회 환경 여건의 진단과 정책개발의 개념적 틀을 심화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음.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진단하는데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이론과 지역사회 환경 진단 도구인 지표 개발 및 측정과 관련된 기본 원칙들의 개념을 고찰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정책추진여건을 진단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자료들을 통해 17개 시·도의 청소년정책 현황에 대해 고찰함.
- 전문가 자문
연구 내용 구성 및 추진 정책과의 연계방안, 지역사회 지표 구성 및 측정과 영역 지표의 적합도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과 서면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효율적 운영, 수집된 자료의 지수 산출 및 공간계량분석,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활동결과 및 종합지수의 결과의 정책연계방안에 관하여 관련 정책을 개발하거나 연구를 해왔던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관계부처의 정책 전문가, 연구 유사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였음.

○ 면접 조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17개 시·도 청소년 정책담당자를 면접조사하였으며, 조사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관련 담당자 1인을 심층면접조사하거나, 실무담당자 여럿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로 진행하였음.

○ 설문조사 및 2차 자료의 수집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정량적 진단을 위한 지표 및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최종 구성된 8영역의 64개 지표 중 주관적 지표 34개 항목은 청소년, 학부모, 교사 그리고 17개 시·도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객관지표 30개에 해당하는 항목은 2차 자료의 수집을 통해 확보함. 설문조사의 표본 선정은 다단계층화 표집방법을,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에 따라 학급단위 및 개인단위의 자기기입식 집단면접조사, 온라인 자기기입식 방법을 병행하였음. 2차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나 17개 시·도의 행정자료,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 면접조사 등에서 수집되었음.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정책의 주체자이자 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여를 본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이 직접 17개 시·도 지역사회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수준의 진단과 생활 속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공감하는 정책제안에 참여 할 수 있도록 ‘2014년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북을 제외한 16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그리고 울진군 청소년수련관에 의뢰하여 총 204명을 모집하여 운영하였음.

○ 정량 및 정성자료 분석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주관적 지표와 수집된 객관적 지표의 정량적 자료는 행정구역이라는 공간적 단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초통계분석 방법에 더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의 속성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간계량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함. 또한 지역사회 진단 지표에 대한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정성적 평가 자료는 청소년의 의견들 중 의미있는 언어를 도출하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을 수행하였음.

○ 정책협의회

실효성 높은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정책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지자체와 정책실무협의회를 총 8차례에 걸쳐 실시함. 첫 번째 정책협의회에서는 정책연구 내용 구성 및 추진 내용을 검토 및 협의하였고, 두 번째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친화환경 정책 추진 여건 및 계획에 대해, 세 번째 정책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 지표작성 방법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관련 실무자들과 논의하였음. 네 번째 정책협의회에서는 아동정책 기본계획 중 친화적 환경조성 관련 정책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다섯 번째 정책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 지표 및 지수분석의 방향에 대해, 여섯 번째 정책협의회에서는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관련 지역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일곱 번째 정책협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의 실무자를 만나 인천시 청소년정책 계획에 함께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정책실무협의회에서는 본 연구의 종합지수 결과에 기초하여 제안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정책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타진하였음.

○ 콜로키움, 워크숍, 연구결과발표회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여건의 진단·분석과 정책과제 개발에 필요한 기본 이해를 확장하고,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분석방법 등을 심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강연 또는 대담 방식의 콜로키움을 총 3회 개최하였음.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하여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진 워크숍을 총 2회 개최하였으며, 정책당사자로서 정책모니터링을 수행한 청소년을 비롯하여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과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의 공유를 위해 연구결과발표회를 1회 개최하였음.

3. 주요결과

1) 지수 비교 분석 결과에 기초한 종합 진단

- 16개 시·도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를 분석한 결과, 7개 지역만이 평균(100) 이상이며, 전반적으로 도지역의 종합지수가 광역시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 종합지수를 비롯하여 모든 영역의 지수가 평균 이상인 지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지역 (경남, 제주, 대전, 충북)에서는 평균 이상의 지수가 다수임.
- 전국 평균 이하의 지수를 갖는 지역이 가장 많은 영역은 주관적 웰빙이며, 안전-교육-관계 영역의 경우도 평균 이하의 지수를 갖는 지역이 그 다음 순으로 많아, 국가수준에서 이들 영역의 수준을 최소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 추진이 요구됨.
- 각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영역의 지수 값들이 일관성을 보이기보다는 평균 이상인 것과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들이 혼재되어 나타남.
- 각 지역별로 평균보다 크게 상회하거나 크게 낮은 영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 추진 필요

2) 공간분석 결과에 기초한 종합 진단

- 종합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 표준편차가 +1 이상으로 종합지수가 높은 지역은 제주와 경남이며, 표준편차 -1 미만으로 종합지수가 낮은 지역은 경북과 서울
- 공간자기상관 분석 결과 대전 지역은 경제 영역과 참여 영역에서 Hot Spot으로 나타났으며, 강원 지역은 교육 영역에서 Cold Spot으로 나타남.

- 대구는 안전 영역에서 경남은 참여 영역에서 주변 지역들과 상호작용이 있으나, 경남의 경우 주변지역에 비해 높은 지수 값을 가지는 부적 자기상관관계를 가지며, 광주-경북-제주 지역은 건강 영역에서 주변지역에 비해 낮은 지수 값을 가지는 부적 자기상관관계를 가짐.
- 공간가중상관분석 결과, 종합지수는 교육, 관계, 활동, 참여, 주관적 웰빙 영역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공간가중회귀분석 결과, 종합지수와 교육 영역, 종합지수와 관계 영역 간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은 제주, 전남, 광주이며, 종합지수와 참여영역 간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은 제주, 광주, 전북이고, 종합지수와 주관적 웰빙 영역 간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은 제주, 전남, 광주로 분석됨.
- 종합지수에 대한 교육 영역, 관계 영역, 참여 영역, 주관적 웰빙 영역의 공간가중회귀 분석 결과, 해당 영역의 약점을 보완하여 개선해야하는 지역으로 관계와 참여 영역에서는 서울과 인천,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 교육 영역에서는 두 권역들을 포함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으로 분석됨.

4. 정책제언

1) 결과 활용의 기본 원칙

- 종합지수 및 영역지수의 16개 시·도 비교는 지역의 서열화가 아닌, 전국 지역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 활용
- 각 지역 내 영역별 지수의 활용은 강점강화, 약점보완의 자료로 활용
- 전 지역, 전 영역의 낮은 지수의 개선으로 지역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활용

2) 결과의 정책적 활용 및 관련 정책방안

- 정책 분석·평가에 기초한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강화를 위한 활용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시계열 측정 및 17개 시·도 증거 기반 정책수립 강화를 위한 지속적 정보 제공에 활용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의 방향 설정 및 정책추진과제 개발 자료로 활용
 - 신규 정책도입 및 시행 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체계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서비스 전달기관의 설립 및 설치, 서비스 접근성 등 관련 정책수립 시, 지역적 공간을 고려한 과학적 실증분석 방법의 활용 및 체계적 분석 후 시행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한 활용
 - ‘지표·지수경보제(가칭)’ 방식을 통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 지원 및 종합관리 도구로 활용
 - 낮은 영역지수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정책추진과제 개발 유도 및 지원에 활용
 - ‘전략 지역 클러스터제(가칭)’도입으로 주요 영역별 정책 효과 및 확산성이 큰 지역을 전략 추진지역으로 선정, 지역별 강점 강화 및 약점 보완의 지원 정책에 활용
 -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로 우선 선정하고 지원하는데 활용
 - 광역 시/도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기초 시/군/구 진단의 기본 틀로 활용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역 청소년육성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에 활용

목 차

일러두기	i
연구요약	iii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구성	8
1) 연구 내용의 구성	8
2) 연구 방법의 구성	10
3. 연구의 추진체계	23
1) 정책 연구 10개년(2013~2022) 추진 계획	23
2) 2014년 2년차 연구 추진체계	25

제1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기본 이해

II. 지역사회 정량진단을 위한 지표개발 및 측정·분석의 이론적 틀	29
1. 지표 개발의 이론적 모형	31
2. 지표의 구성 및 측정방법	33
1) 지표의 구성	33
2) 지표 작성 및 측정	39
3. 지표 자료의 분석	45
1) 지표나열법	45
2) 종합지수산출	46
3) 공간계량분석	47

Ⅲ. 지역사회 정성진단을 위한 정책추진 여건분석의 이론적 근거	53
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시행계획	55
1)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근거	55
2) 17개 시·도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관련 정책 현황	57
2.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정책추진의 기본 요건	59
1) 정책추진의 기본방향 측면: 청소년 중심과 참여	59
2) 정책추진의 근거기반 측면: 법·제도	62
3) 정책추진의 인프라 측면: 조직 및 예산	64
3.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및 환경 정책모니터링	67
1) 정책모니터링의 개념 및 의의	67
2) 정책모니터링 방법 및 기준	68
3) 모니터링자료의 분석 방법	70

제2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기초분석
--

Ⅳ. 지표 개발·측정 및 수집 자료의 기초분석	75
1. 지표의 작성 및 선정	77
1) 지표작성의 과정	77
2) 최종 지표의 선정	100
2. 지표자료의 수집	104
1) 주관적 지표	104
2) 객관적 지표	112
3. 자료수집의 결과	114

1) 주관적 지표조사 자료의 기초 분석	114
2) 객관적 지표수집 자료의 기초 분석	149

V. 정책추진여건 및 모니터링 활동내용의 분석	165
1.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담당자 면접조사	167
1) 추진 절차 및 내용	167
2) 지역별 면접참여자 및 특성	169
3) 지역별 정책추진여건	170
2.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182
1) 운영 체계	182
2) 운영 내용	186
3) 활동결과 분석	199

제3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 진단 및 분석

VI. 종합지수(YHCI)의 산출 및 분석	219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의 산출	221
2. 전국 시·도 지수의 비교 분석	223
1) 전국 시·도 종합지수의 비교	223
2) 전국 시·도 영역별 지수의 비교	224
3. 각 시·도별 영역지수의 비교	237
1) 서울특별시	237
2) 부산광역시	239
3) 대구광역시	241

4) 인천광역시	243
5) 광주광역시	245
6) 대전광역시	247
7) 울산광역시	249
8) 경기도	251
9) 강원도	253
10) 충청북도	255
11) 충청남도	257
12) 전라북도	259
13) 전라남도	261
14) 경상북도	263
15) 경상남도	265
16) 제주특별자치도	267
VII. 지역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지수(YHCI) 분석	269
1. 지수 기준 수준별 분류 및 비교 분석	271
1) 종합지수에 대한 비교분석	271
2) 영역별 지수에 대한 비교분석	272
2. 공간자기상관지수(Spatial Autocorrelation)를 활용한 비교 분석	281
1) 종합지수의 공간자기상관 분석	281
2) 영역별 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 분석	283
3. 종합지수에 대한 영역지수의 지역별 영향력 차이 분석	339
1) 공간가중상관(Geographically Weighted Correlation) 분석	339
2) 공간가중회귀(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분석	340

Ⅷ. 종합 진단 및 정책방안	347
1. 종합 진단	349
1) 지수 비교 분석 결과에 기초한 종합 진단	350
2) 공간분석 결과에 기초한 종합 진단	352
2. 종합 진단 결과의 정책적 활용 및 정책 방안	357
1) 정책추진 및 결과 활용의 기본방향	357
2) 정책적 활용 및 정책방안	358
참고문헌	367
부 록	375
1. 주관적 지표조사 설문지	377
2. 객관적 지표자료 수집 자료	416
3. 공무원 면접조사 질문지	446

표 목 차

〈표 I-1〉 연구 내용의 구성	10
〈표 I-2〉 연구 방법의 구성	11
〈표 I-3〉 자문영역 및 자문진	14
〈표 I-4〉 면접 조사	15
〈표 I-5〉 설문 조사	17
〈표 I-6〉 정책협의회 개최	21
〈표 I-7〉 콜로키움 개최 횟수별 주요 내용	22
〈표 I-8〉 워크숍 개최 및 주요 내용	22
〈표 I-9〉 연구 결과 발표회의 주요 내용	23
〈표 II-1〉 지표 선정 방법	42
〈표 II-2〉 OECD의 지표선정 기준	43
〈표 III-1〉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75개 세부추진과제	56
〈표 III-2〉 2014년 17개 시·도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58
〈표 IV-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선정과정 요약	79
〈표 IV-2〉 경제 영역의 1,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86
〈표 IV-3〉 건강 영역의 1,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88
〈표 IV-4〉 안전 영역의 1,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90
〈표 IV-5〉 교육 영역의 1,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93
〈표 IV-6〉 관계 영역의 1,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94
〈표 IV-7〉 활동 영역의 1,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96
〈표 IV-8〉 참여 영역의 1,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98
〈표 IV-9〉 주관적 웰빙 영역의 1,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100
〈표 IV-10〉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최종지표	101
〈표 IV-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개요	105
〈표 IV-12〉 청소년 모집단 현황	106

〈표 IV-13〉 2단계 표집에 따른 세부 표본 구성	107
〈표 IV-14〉 설문문항 및 문항작성의 근거	110
〈표 IV-15〉 객관지표 및 출처	113
〈표 IV-16〉 응답자 분포	115
〈표 IV-17〉 청소년 응답자의 구성	116
〈표 IV-18〉 주관적 지표	116
〈표 IV-19〉 객관적 지표	149
〈표 V-1〉 심층면접 주요내용	168
〈표 V-2〉 지역별 면접참여자 특성	169
〈표 V-3〉 지역별 청소년정책 담당조직의 구성 및 위치	170
〈표 V-4〉 지역별 청소년정책 담당인력의 업무순환주기	174
〈표 V-5〉 지역별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관련 조례	176
〈표 V-6〉 지역별 청소년정책전달기관 운영형태	179
〈표 V-7〉 지역별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관련 예산	181
〈표 V-8〉 모니터링단원 선발기준 및 절차	189
〈표 V-9〉 월별 추진일정 예시 (경상남도)	191
〈표 V-10〉 2014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진의 욕구필요 파악 결과	194
〈표 V-11〉 17개 시·도 센터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원 구성현황	197
〈표 V-12〉 17개 시·도 청소년의 생활공감 정책제안	214
〈표 VII-1〉 종합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281
〈표 VII-2〉 경제영역 내 소득/소비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283
〈표 VII-3〉 경제영역 내 복지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285
〈표 VII-4〉 경제영역 내 주거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287
〈표 VII-5〉 경제영역 내 고용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289
〈표 VII-6〉 경제영역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291
〈표 VII-7〉 건강영역 내 건강상태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293

〈표 VII-8〉 건강영역 내 건강결정요인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295
〈표 VII-9〉 건강영역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297
〈표 VII-10〉 안전영역 내 사고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299
〈표 VII-11〉 안전영역 내 범죄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01
〈표 VII-12〉 안전영역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03
〈표 VII-13〉 교육영역 내 교육기회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05
〈표 VII-14〉 교육영역 내 교육의 조건과 과정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07
〈표 VII-15〉 교육영역 내 교육효과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09
〈표 VII-16〉 교육영역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11
〈표 VII-17〉 관계영역 내 미시체계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13
〈표 VII-18〉 관계영역 내 중간체계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15
〈표 VII-19〉 관계영역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17
〈표 VII-20〉 활동영역 내 활동상태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19
〈표 VII-21〉 활동영역 내 활동기반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21
〈표 VII-22〉 활동영역 내 활동인식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23
〈표 VII-23〉 활동영역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25
〈표 VII-24〉 참여영역 내 참여결정요인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27
〈표 VII-25〉 참여영역 내 관용성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29
〈표 VII-26〉 참여영역 내 역능성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31
〈표 VII-27〉 참여영역 내 사회참여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33
〈표 VII-28〉 참여영역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35
〈표 VII-29〉 주관적 웰빙영역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337
〈표 VII-30〉 종합지수 및 영역별 지수의 공간가중상관관계 분석 결과	340
〈표 VII-31〉 종합지수에 대한 교육영역의 OLS 회귀분석 및 GWR 분석 결과 비교	340
〈표 VII-32〉 종합지수에 대한 교육영역의 지역별 영향력 차이 비교: GWR 분석 결과	341

〈표 VII-33〉 종합지수에 대한 관계영역의 OLS 회귀분석 및 GWR 분석 결과 비교	342
〈표 VII-34〉 종합지수에 대한 관계영역의 지역별 영향력 차이 비교: GWR 분석 결과	343
〈표 VII-35〉 종합지수에 대한 참여영역의 OLS 회귀분석 및 GWR 분석 결과 비교	344
〈표 VII-36〉 종합지수에 대한 참여영역의 지역별 영향력 차이 비교: GWR 분석결과	344
〈표 VII-37〉 종합지수에 대한 주관적 웰빙 영역의 OLS 회귀분석 및 GWR 분석 결과 비교	345
〈표 VII-38〉 종합지수에 대한 주관적 웰빙 영역의 지역별 영향력 차이 비교: GWR 분석결과	346
〈표 VIII-1〉 16개 시·도의 영역별 지수 수준 분류	351
〈표 VIII-2〉 16개 시·도의 영역별 4단계 분류 종합	353
〈표 VIII-3〉 정책적 활용 방안	364

그림 목 차

【그림 I-1】 OECD 국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비교	4
【그림 I-2】 2년차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정책 반영 환류 체계	7
【그림 I-3】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체계	19
【그림 I-4】 정책 연구 추진체계: 10개년(2013~2022)	24
【그림 I-5】 2년 차 정책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25
【그림 II-1】 지표 개발의 이론적 모형	33
【그림 II-2】 행복, 삶의질, 웰빙(Well-being)개념 측정의 발전 과정	35
【그림 II-3】 지표 작성의 절차	40
【그림 II-4】 청소년의 행복 측정 방법	44
【그림 II-5】 지표의 층위 : 원자료부터 종합지수까지	46
【그림 II-6】 Moran I 산포도의 해석	51
【그림 III-1】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55
【그림 III-2】 정책모니터링 유형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비교(1)	69
【그림 III-3】 정책모니터링 유형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비교(2)	69
【그림 IV-1】 지표 선정 과정	78
【그림 IV-2】 설문 개발 절차	109
【그림 IV-3】 가정경제만족도 응답 분포	117
【그림 IV-4】 가정경제만족도 평균 비교	117
【그림 IV-5】 청소년의 집단별 가정경제만족도 평균 비교	118
【그림 IV-6】 주관적 건강인지율 및 스트레스 인지율 응답 분포	119
【그림 IV-7】 주관적 건강인지율 및 스트레스 인지율 평균 비교	119
【그림 IV-8】 청소년의 집단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및 스트레스 인지율 평균 비교 ..	120
【그림 IV-9】 아침식사를 및 고카페인 이용량 응답 분포	121
【그림 IV-10】 응답자별 아침식사를 및 고카페인 이용량 평균 비교	121
【그림 IV-11】 청소년의 집단별 아침식사를, 고카페인 이용량 평균 비교	122

【그림 IV-12】 지역사회시설 안전도, 학교시설 안전도, 위기상황대처능력 응답 분포	123
【그림 IV-13】 지역사회시설 안전도, 학교시설 안전도, 위기상황대처능력 평균 비교	124
【그림 IV-14】 청소년의 집단별 지역사회시설 안전도, 학교시설 안전도, 위기상황대처능력 평균 비교	125
【그림 IV-15】 범죄안전도 응답 분포	125
【그림 IV-16】 범죄안전도 평균 비교	126
【그림 IV-17】 청소년의 집단별 범죄안전도 평균 비교	126
【그림 IV-18】 직업교육 훈련기회 응답 분포	127
【그림 IV-19】 직업교육 훈련기회 평균 비교	127
【그림 IV-20】 청소년의 집단별 직업교육 훈련기회 평균 비교	127
【그림 IV-21】 교과과정 만족도,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응답 분포	128
【그림 IV-22】 교과과정 만족도,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 비교	128
【그림 IV-23】 청소년의 집단별 교과과정 만족도,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 비교	129
【그림 IV-24】 청소년의 관계만족도 응답 분포	130
【그림 IV-25】 청소년의 관계만족도 평균 비교	131
【그림 IV-26】 청소년의 집단별 관계만족도 평균 비교	132
【그림 IV-27】 미시체계 일반신뢰도 응답 분포	133
【그림 IV-28】 미시체계 일반신뢰도 평균 비교	133
【그림 IV-29】 청소년의 집단별 일반신뢰도 평균 비교	134
【그림 IV-30】 중간체계 관계만족도 및 일반신뢰도 응답 분포	135
【그림 IV-31】 중간체계 관계만족도 및 일반신뢰도 평균 비교	136
【그림 IV-32】 기관신뢰도 응답 분포	137
【그림 IV-33】 기관신뢰도 평균 비교	137
【그림 IV-34】 청소년의 집단별 기관신뢰도 평균 비교	138
【그림 IV-35】 놀이친구 접근성 응답 분포	139

【그림 IV-36】 놀이친구 접근성 평균 비교	139
【그림 IV-37】 청소년의 집단별 놀이친구 접근성 평균 비교	139
【그림 IV-38】 여가활동의 시간인식, 공간인식, 용돈인식 응답 분포	140
【그림 IV-39】 시간인식, 공간인식, 용돈인식 평균 비교	141
【그림 IV-40】 청소년의 집단별 시간인식, 공간인식, 용돈인식 평균 비교	142
【그림 IV-41】 아동권리 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응답 분포	143
【그림 IV-42】 아동권리 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평균 비교	143
【그림 IV-43】 청소년의 집단별 아동권리 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평균 비교	144
【그림 IV-44】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응답 분포: 존중	144
【그림 IV-45】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평균 비교: 존중	145
【그림 IV-46】 청소년의 집단별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평균 비교: 존중	145
【그림 IV-47】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도 응답 분포	146
【그림 IV-48】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도 평균 비교	146
【그림 IV-49】 청소년의 집단별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도 평균 비교	146
【그림 IV-50】 청소년의 정서경험,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 응답 분포	147
【그림 IV-51】 정서경험,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 평균 비교	147
【그림 IV-52】 청소년의 집단별 정서경험,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 평균 비교	148
【그림 IV-53】 소득/소비 지표	150
【그림 IV-54】 복지 지표(사회복지지출 비율)	150
【그림 IV-55】 주거 지표(통학 소요시간)	151
【그림 IV-56】 고용 지표(경제활동 참가율)	151
【그림 IV-57】 건강상태지표(BMI)	152
【그림 IV-58】 건강결정 요인 지표	154
【그림 IV-59】 사고 지표	156
【그림 IV-60】 범죄 지표	157
【그림 IV-61】 교육기회 지표(학교중단율)	158

【그림 IV-62】 교육의 조건과 과정 지표	159
【그림 IV-63】 활동상태 지표	162
【그림 IV-64】 역능성 지표(청소년 자살률)	163
【그림 IV-65】 사회참여 지표(자원봉사 참여율)	163
【그림 V-1】 면접조사 추진 절차	167
【그림 V-2】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체계	183
【그림 V-3】 17개 시·도 센터 운영형태	185
【그림 V-4】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추진절차	187
【그림 V-5】 모니터링 결과보고 예시(경남지역)	193
【그림 V-6】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제안양식	198
【그림 V-7】 정책시행계획모니터링 활동양식	198
【그림 V-8】 지역사회지표 모니터링 활동지 예시(안전영역)	199
【그림 V-9】 4개 영역(경제, 건강, 안전, 교육) 워드 클라우드(Word-Cloud) 분석 결과	206
【그림 V-10】 4개 영역(관계, 활동, 참여, 주관적 웰빙) 워드 클라우드(Word-Cloud) 분석 결과	210
【그림 VI-1】 16개 시·도 종합지수의 비교	224
【그림 VI-2】 경제영역의 16개 시·도 지수 비교	225
【그림 VI-3】 건강영역의 16개 시·도 지수	226
【그림 VI-4】 안전영역의 16개 시·도 지수 비교	227
【그림 VI-5】 교육영역의 16개 시·도 지수 비교	229
【그림 VI-6】 관계영역의 16개 시·도 지수 비교	230
【그림 VI-7】 활동영역의 16개 시·도 지수 비교	231
【그림 VI-8】 참여영역의 16개 시·도 지수	233
【그림 VI-9】 주관적 웰빙영역의 16개 시·도 지수 비교	234
【그림 VI-10】 종합지수와 8개 영역의 지역별 지수 비교	236

【그림 VI-11】 서울특별시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238
【그림 VI-12】 부산광역시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240
【그림 VI-13】 대구광역시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242
【그림 VI-14】 인천광역시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244
【그림 VI-15】 광주광역시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246
【그림 VI-16】 대전광역시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248
【그림 VI-17】 울산광역시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250
【그림 VI-18】 경기도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252
【그림 VI-19】 강원도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254
【그림 VI-20】 충청북도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256
【그림 VI-21】 충청남도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258
【그림 VI-22】 전라북도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260
【그림 VI-23】 전라남도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262
【그림 VI-24】 경상북도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264
【그림 VI-25】 경상남도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266
【그림 VI-26】 제주특별자치도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268
【그림 VII-1】 지역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의 4단계 분류 비교	272
【그림 VII-2】 지역별 경제 영역 지수의 4단계 분류 비교	273
【그림 VII-3】 지역별 건강 영역 지수의 4단계 분류 비교	274
【그림 VII-4】 지역별 안전 영역 지수의 4단계 분류 비교	275
【그림 VII-5】 지역별 교육 영역 지수의 4단계 분류 비교	276
【그림 VII-6】 지역별 관계 영역 지수의 4단계 분류 비교	277
【그림 VII-7】 지역별 활동 영역 지수의 4단계 분류 비교	278
【그림 VII-8】 지역별 참여 영역 지수의 4단계 분류 비교	279
【그림 VII-9】 지역별 주관적 웰빙 영역 지수의 4단계 분류 비교	280

【그림 VII-10】 종합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282
【그림 VII-11】 경제영역 내 소득/소비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284
【그림 VII-12】 경제영역 내 복지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286
【그림 VII-13】 경제영역 내 주거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288
【그림 VII-14】 경제영역 내 고용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290
【그림 VII-15】 경제영역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292
【그림 VII-16】 건강영역 내 건강상태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294
【그림 VII-17】 건강영역 내 건강결정요인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296
【그림 VII-18】 건강영역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298
【그림 VII-19】 안전영역 내 사고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00
【그림 VII-20】 안전영역 내 범죄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02
【그림 VII-21】 안전영역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04
【그림 VII-22】 교육영역 내 교육기회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06

【그림 VII-23】 교육영역 내 교육의 조건과 과정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I</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08
【그림 VII-24】 교육영역 내 교육효과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I</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10
【그림 VII-25】 교육영역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I</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12
【그림 VII-26】 관계영역 내 미시체계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I</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14
【그림 VII-27】 관계영역 내 중간체계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I</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16
【그림 VII-28】 관계영역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I</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18
【그림 VII-29】 활동영역 내 활동상태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I</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20
【그림 VII-30】 활동영역 내 활동기반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I</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22
【그림 VII-31】 활동영역 내 활동인식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I</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24
【그림 VII-32】 활동영역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I</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26
【그림 VII-33】 참여영역 내 참여결정요인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I</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28
【그림 VII-34】 참여영역 내 관용성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I</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30
【그림 VII-35】 참여영역 내 역능성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I</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32

【그림 VII-36】 참여영역 내 사회참여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34
【그림 VII-37】 참여영역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36
【그림 VII-38】 주관적 웰빙영역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38
【그림 VIII-1】 단계별 종합지수 분석의 추진 과정	349
【그림 VIII-2】 영역별 지역특성 맞춤형 접근으로 정책 효과 높은 지역 종합 진단	354
【그림 VIII-3】 공간자기상관계수를 고려한 권역별 전략적 정책 추진 지역	356
【그림 VIII-4】 정책추진의 기본방향	357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3. 연구의 추진체계

제 | 장 서 |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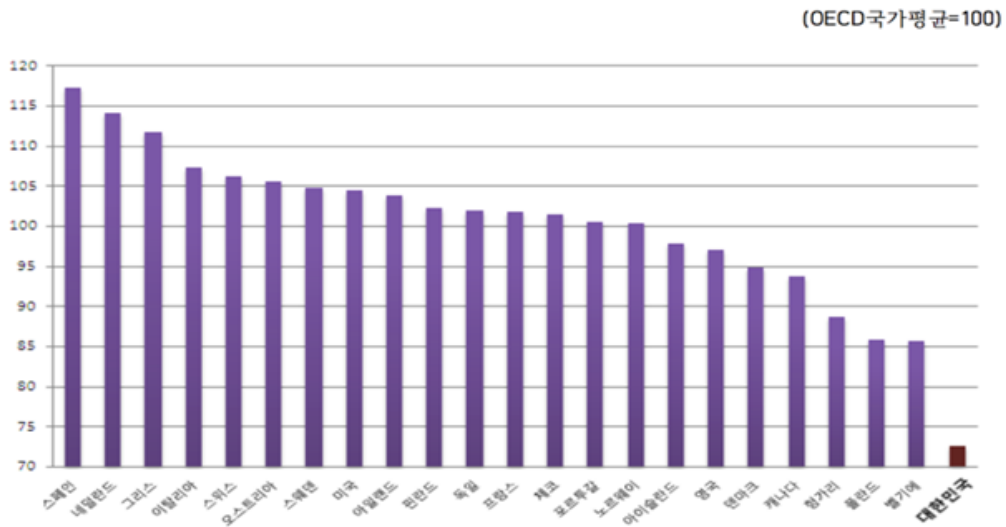
본 연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¹⁾ 수립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의 과학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2013년에 10개년 장기 정책 연구로 시작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의 2년차 과제이다.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2)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을 2017년까지 추진되어야 할 5대 중점영역의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을 세부추진과제로 담고 있다²⁾. 또한 지표를 통하여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친화환경을 점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정책으로서 추진되는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 환경으로서 지역사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2009년 이래로 5년 연속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최하위(한국방정환재단, 2013)라는 사실에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공간 등 청소년들의 근접 생활환경을 청소년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 기인한다.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1)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5조(계획수립의 협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6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점과제 4.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중점과제 4-1의 세부추진과제 「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그림 1-1】 OECD 국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비교

청소년을 둘러싼 거시적 사회·경제적 환경과 미시적 생활환경은 정책개입이 요구되는 시간을 허용하지 못할 만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기구인 유니세프(UNICEF)에서는 1996년 ‘청소년 친화 도시 발의(CFCI: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청소년 친화 도시와 마을(child 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조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인간 정주지에 관한 두 번째 국제연합 회의(the second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에서는 청소년들의 행복(well-being)이 건강한 환경과 민주적 사회의 궁극적 지표임이 선언되었으며, 2002년 5월 국제연합 특별회의에서는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이 청소년 친화 도시와 마을 조성 과 같은 발전 의제 중심에 반드시 청소년들이 위치해 있어야 함이 강조된 바 있다(UNICEF, 2009).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으로서 ‘도시’ 또는 ‘마을’과 같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전 세계 국가에서 빠르게 도시화되고

급격하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빈곤과 소외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악화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걱정과 우려의 문제의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관심과는 달리, 이제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서는 청소년 생활환경의 체계와 생활공간에 대해 깊이 있게 고려되지 못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청소년 생활공간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김기현, 임희진, 장근영, 김혜영, 황옥경, 2011). 그렇다고 하여 청소년을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된 정책영역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정책과제가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7~2012)에서는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핵심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문제는 정책추진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설정이 유해환경³⁾에 한정된다거나 생활공간과 거리가 있는 물리적 환경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정책 주체임과 동시에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낮게 체감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수행된 기초연구(김기현 외, 2011)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며, 특히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책 체감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선도의 단면적 정책 추진 방식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내 민·관 정책서비스 기관 등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추진 방식으로 개선하는 과제들을 담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생활권인 지역사회 내에서 중앙정부와 그 지역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정책과제들을 주요 정책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기본계획에는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와 이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만이 계획되어 있을 뿐,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의 경우도 계획 수립 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지역사회 선정’이라는 세부추진과제로 명시되어 있을 뿐,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 과제를 추진할 것인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실현 가능한 정책 추진의 방법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학대(청소년보호법 제2조 8호)

이에 2013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의 1년차 연구에서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착수에 발맞추어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추진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소년의 행복(well-being)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고, ‘행복’이라는 추상적 용어로 단순화 할 수 없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의 하위 개념과 측정 문항들을 연계 구성하였다. 또한 정책 환경을 16개 시·도 청소년정책시행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을 위해 각 시·도에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모니터링단’을 발족하는 등 장기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1년차 연구는 단순하지 않은 청소년의 행복 개념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행복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개념과 측정 문항을 연계하여 구성하고 지역사회 정책 환경을 가늠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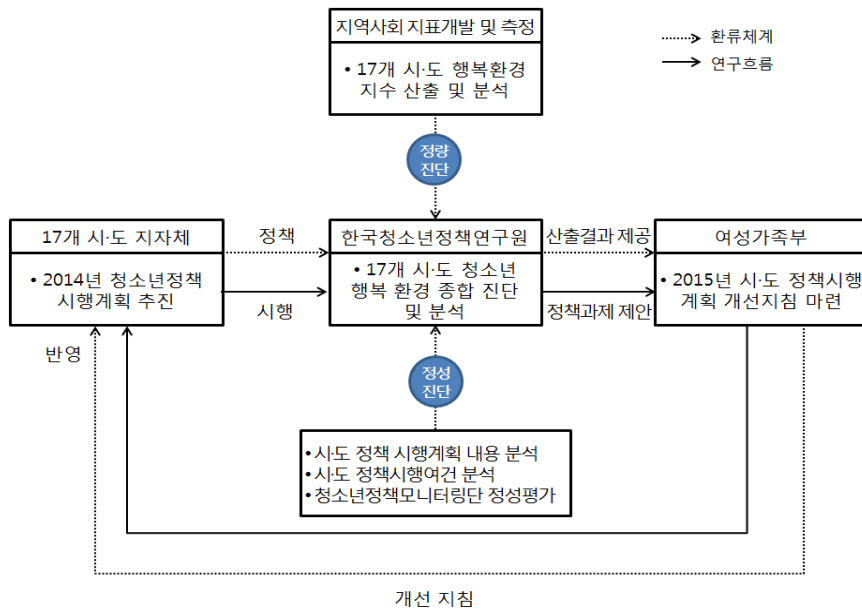
그러나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의 측정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여건을 측정하는 하나의 세부 영역에 해당되므로,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지표로 등치시키기 어려우며, 단순히 정책모니터링단의 구성만으로는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 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1년차 연구에서는 청소년 행복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측정문항을 연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고 측정된 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조성 정책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2년차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1년차 연구에서 기초 작업이 이루어진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표 초안의 검토를 포함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진단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의 측정 및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용이한 지수 산출 등을 통하여 17개 시·도 단위의 지역사회가 청소년 친화적 환경 여건을 어떠한 수준에서 조성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지표 측정 및 분석을 통한 정량적 접근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의 여건과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17개 시·도 청소년정책시행계획 내용의 분석과 각 지역 청소년들의 정책모니터링 및 지표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 정성적 진단의 결과를 더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의 수준에 대한 종합 진단을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도출된 17개 시·도에 대한 종합 진단의 결과는 분석·평가에 기초한 증거기반의 청소년정책 추진 및 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하는데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시행계획 수립 지침’ 등을 통해 본

연구의 진단 결과가 각 시·도의 청소년정책의 개선되고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달되고, 17개 시·도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차년도 청소년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류체계의 마련과 환류체계를 통한 본 연구의 종합 진단 결과의 활용은 지역사회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의 정비에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정부가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증거기반 정책 추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림 1-2] 2년차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정책 반영 환류 체계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종합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중앙정부가 17개 시·도 중 상대적으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수준이 낮은 지역을 일정 수준만큼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근거 마련과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며, 동시에 각 17개 시·도 지자체가 각 영역별로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해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

1) 연구 내용의 구성

본 연구는 17개 시·도 지역사회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의 수준을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을 모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각 시·도 지자체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제1부에는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로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론 및 방법의 내용을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정량적 진단을 위해 지표개발의 이론적 모형에 관하여 고찰하고, 국내·외 지표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과 지표의 영역 구성 및 측정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라는 지리적 공간 정보의 속성을 고려하여 정책추진의 실증적인 기초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을 함께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17개 시·도 정책시행계획의 작성 근거 및 체계,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친화환경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 전제조건을 국제사회 권고 사항과 해외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시행 정책에 대한 정책당사자의 모니터링이 어떠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어떠한 방법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가를 본 연구의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활동의 의미 및 내용과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제2부에는 지역의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량적 진단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 및 최종 지표의 도출과정, 그리고 구성된 지표 중 청소년, 교사, 학부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하는 주관적 지표조사와 2차 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통해 얻어야 하는 객관적 지표 수집의 개요를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한 주관적 지표 자료와 객관적 지표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의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정책 추진 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질문으로 이루어진 면접조사의 내용을 제3장에서 고찰하였던 정책 추진의 전제 조건, 즉 조직역량, 법·제도, 추진체계, 예산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17개 시·도에서 선발된 200여명의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활동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제3부에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다 활용도 높은 정책 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지수를 산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사회를 종합 진단한 후 그 결과를 활용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6장에서는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수준의 종합 진단을 위해 주관 및 객관 지표를 바탕으로 지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종합 지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 수준을 지역별 및 영역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지역사회라는 지리적 공간정보의 속성을 고려하여 16개 시·도의 종합지수를 비교하고, 공간자기상관지수(Spatial Autocorrelation)와 공간가중상관계수(Geographically Weighted Correlations) 및 공간가중회귀분석(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을 활용하여 지역의 지리적 공간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종합 진단지수에 주요 영역의 지수가 각 지역별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8장에서는 지표를 통한 정량적 진단 내용과 정책시행계획 분석 결과, 정책 추진 여건 분석결과, 그리고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활동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16개 시·도 지역사회를 종합 진단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및 16개 시·도 지방정부가 본 연구의 종합 진단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안하였으며, 관련정책을 추진해 나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정책들을 본 연구의 종합 진단자료의 정책적 활용을 통해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로 제안하였다.

표 | -1 연구 내용의 구성

구분	해당 장	내용
서론	제1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구성 • 연구의 추진체계
제1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기본 이해	제2장~제3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정량적 진단을 위한 지표 개발 틀, 측정, 분석 방법 관련 이론 고찰 • 지역사회 정성적 진단을 위한 정책시행계획 내용 및 정책 추진의 기본 요건 고찰 • 정책모니터링의 개념, 자료 분석방법 고찰
제2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기초 분석	제4장~제5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진단 지표개발 · 측정, 수집자료 분석 • 17개 시 · 도 정책 추진 여건 분석 • 17개 시 · 도 정책모니터링 활동 내용 분석
제3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 진단 및 분석	제6장~제8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종합 진단을 위한 지수산출 • 지역별, 영역별 종합지수 분석 • 종합 진단 및 결과의 정책적 활용 방안 제안

2) 연구 방법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광역 시·도 단위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 수준을 진단·분석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과 시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자료의 제공이라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내용에 맞추어 적절한 연구방법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친화적 환경 조성 수준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진단하는데 있어 정책당사자인 청소년의 설문조사 참여와 정책모니터링 참여가 연구 방법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연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유니세프 연구윤리 가이드라 할 수 있는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Project’(UNICEF, 2013b)의 내용을 준용하여 각 단계에 반영하였다.

우선, 연구 설계 시,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이 청소년에게 필요한지 또는 잠재적 피해는 없는지 등 청소년의 참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잠재적 이득을 최대화(Harms and Benefits)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 청소년 개개인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이므로, 지표설문조사 응답자 또는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형태로 연구에 참여하기 전,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과 더불어 연구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며(Informed Consent), 서면 동의를 얻었다.

표 1-2 연구 방법의 구성

구분	연구 내용 구성별 연구 방법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지수 진단분석	2.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 추진의 여건 분석	3. 지역사회 청소년의 참여와 정책모니터링 활동 내용 분석
① 문헌연구	○	○	○
① 전문가 자문	○	○	○
② 면접조사	개별 심층면접(IDI), 초점집단면접(FGI)	○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 면접조사	-
	2차 자료 수집·분석	○ 객관적 지표	○ 17개 시·도 정책시행계획
③ 설문조사	설문조사 (총13,500명)	○ 청소년(10,000명), 교사(350명), 학부모(3,000명), 공무원(150명)	-
	④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	○ 17개 시·도 (총204여명)
⑤ 정량 및 정성 자료 분석	○ 기술통계 + 공간계량분석	○ 내용 분석	○ 기술통계 + Word Cloud분석
	⑥ 콜로키움	○ 1회, 2회	○ 3회
⑦ 정책실무협의회	○ 여성가족부, 통계청, 기재부,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서울, 인천)	○ 여성가족부, 17개 시·도,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17개 시·도
	⑧ 워크숍	-	○ 2회(상반기, 하반기)
⑨ 연구 결과 발표회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원 및 연구의 직·간접 참여자 등 (총250여명)		

셋째, 지표설문조사와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과정에서 얻게 되는 청소년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범위, 그리고 비밀유지 등에 관해서도 동의를 구하였다

(Privacy and Confidentiality).

넷째,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답례품이나 청소년모니터링단 활동 시, 제공되는 간식 등 참여자의 연구에의 기여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의미의 적절한 현물지급에 대해서도 동의과정에서 명확하게 명시하였다(Payment and Compensation).

이상과 같이 청소년이 참여하거나 대상이 되는 연구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문헌연구

지역사회 청소년의 행복 수준 및 지역사회 환경 여건의 진단과 정책개발의 개념적 틀을 심화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서 제시하는 유기체(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의 상호작용 모형을 기초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진단의 도구인 지표를 개발하고 선정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의 구성 그리고 측정 방법과 관련한 기본 원칙과 개념을 고찰하였으며,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개발한 지표들을 비교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 차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 수준을 비교 진단하기 위하여 OECD 가입국 행복수준 지수를 비교 및 검토하였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친화적 정책 여건을 진단하기 위하여 17개 시·도 정책추진의 근거와 체계, 그리고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추진의 기본 전제 조건을 문헌자료들을 통해 고찰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연구 내용 구성 및 추진 정책과의 연계,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효율적 운영, 지역사회 지표 구성 및 측정, 내용 및 영역의 적합도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와 서면 자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집된 지표 자료의 지수산출 및 공간계량분석,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활동결과의 정책과제와의 연계 방안 및 종합지수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도 이루어졌다.

연구 내용 구성 및 추진 정책과의 연계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정책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연구 구성을 최종 확정하는데 반영하였으며,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운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사업을 기획하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고,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운영 체계를 확정하였다.

지역사회 지표 구성 및 측정과 관련한 자문은 관련 연구의 수행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와 유사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자, 실제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 경험이 있는 지역의 공무원, 유사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더불어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서면자문의 방식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지표 자료의 지수 산출 및 공간계량분석과 관련해서는 지표 관련 연구 및 공간계량분석 방법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와 지표의 정책적 활용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지표의 지수산출 방법을 확정하는데 반영하였으며, 분석 방법 역시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수집된 지표 자료에 대한 공간계량분석 방법을 확정하였다.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활동결과의 정책과제와의 연계 방안에 관한 자문은 청소년정책모니터링과 같은 유사 사업의 수행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수행하였으며, 정성적 자료의 효과적 분석 및 정책과제 개발과의 연계를 위해 유사 분석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와 함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지수의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하여 지표의 정책적 연계 및 활용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와 공무원의 자문을 구하였으며, 자문내용을 종합 진단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에 반영하였다.

표 1-3 자문영역 및 자문진

차수	자문 내용	자문진	개최 시기
1차	정책연구 부분 내용 관련 정책 현황 자문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 1인	3월 19일
2차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관련 자문	청소년모니터링단 운영 유경험 현장 전문가 2인	3월 21일
3차	연구 추진 내용 검토 및 자문	학계 1인	3월 25일
4차	지역사회 지표 구성 및 조사관련 자문	학계 1인	3월 31일
5차	지역사회 지표 구성의 기본 틀 및 영역 관련 자문	학계 7인	4월 10일
6차	지표 구성 및 내용의 적합도 평가(서면 자문)	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55인	3월 31일~4월 21일
7차	지표 구성 틀 및 영역 확정 관련 자문	학계 7인	4월 23일
8차	설문 초안 총 4종 검토(서면 자문)	학계 7인 및 현장 전문가 5인	5월 15일~5월 20일
9차	정량 지표 지수 산출 및 공간계량분석 관련 자문	학계 5인	6월 16일
10차	객관지표 수집 방안 및 지수화 관련 자문	공무원 및 학계 3인	7월 4일
11차	청소년정책모니터링 정성데이터의 분석방법 관련 자문	학계 1인	7월 18일
12차	지역공간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진단분석 관련 자문	학계 1인	8월 25일
13차	청소년정책모니터링 활동과 정책과제 개발의 연계 방안 자문	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7인	9월 2일
14차	권역별 청소년정책모니터링 활동의 육성·복지·보호 분야의 정책과제 연계방안 자문	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7인	9월 15일~10월
15차	종합지수 결과에 관한 검토 및 관련 정책 연계방안 자문	공무원 및 학계 6인	11월 5일

(3) 면접 조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에 따라 청소년 정책시행계획 또는 청소년정책담당자 1인이 심층면접조사에 응한 경우도 있었으며, 청소년정책 담당 국장, 과장, 또는 계장 및 실무담당직원들 여럿이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의 형태로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연구진은 지역별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체계가 상이하고, 분장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응답자 편의를 우선으로 하고, 면접조사 참여자 수와 범위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면접조사는 반 구조화된 질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① 조직 역량 측면(담당조직의 구성, 인력, 자치단체장의 관심 및 의지), ② 법·제도적 측면(청소년 친화 환경 조성 관련 조례 등 법적 기반 유무, 관련 지역 특화사업 유무), ③ 추진체계 측면(지역사회 청소년정책관련 위원회 등 운영, 청소년정책전달 기관의 운영), ④ 예산 측면(정책 추진 예산의 충분성)으로 구성하였다. 면접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정성적 분석과 동시에 자료 중 일부는 정량화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여건 진단을 위한 데이터에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여 본 연구보고서에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 1-4 면접 조사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참여자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	지역별 정책시행계획 담당자 및 청소년정책담당 부서장(계장, 과장, 국장)
면담참여자 수	17개 시·도 평균 2.7명	서울(1), 인천(6), 대전(2), 광주(5), 대구(4), 부산(1), 울산(2), 세종(2), 경기(3), 강원(2), 충남(2), 충북(4), 전북(3), 전남(2), 경북(2), 경남(3), 제주(2)
면담방식	반 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한 집단 면접	총 4개 영역 13문항
면담 시간 및 횟수	1시간 30분~2시간 정도, 1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녹취 및 응답지 기록	
면담자	연구진	

(4) 설문조사 및 2차 자료의 수집

설문조사 및 2차 자료의 수집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정량적 진단을 위한 지표 및 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진단 지표는 총 8개 영역(① 경제, ② 건강, ③ 안전, ④ 교육, ⑤ 관계, ⑥ 활동, ⑦ 참여, ⑧ 주관적 웰빙)의 64개로 최종 구성되었다. 지표 중 주관적 지표에 해당되는 34개 항목은 청소년, 학부모, 교사 그리고 17개 시·도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30개의 객관적 지표는 2차 자료의 수집을 통해 확보되었다.

① 객관적 지표 확보를 위한 2차 자료 수집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환경 조성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 중 30개의 항목은 객관적 지표로서, 사회지표와 같이 통계청자료나 행정자료 등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차 자료를 비롯하여, 17개 시·도의 행정자료와 청소년정책시행계획서 상에서 파악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 면접조사 등 다양한 채널과 정보 원천을 통해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객관적 지표를 6월 한 달 동안 수집하였다.

② 주관적 지표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 모집단

지역사회의 친화적 환경 조성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총 64개 지표 중 34개 항목은 주관적 지표에 해당된다. 주관적 지표에는 청소년과 이들을 둘러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된다. 이 때문에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의 ① 청소년(초4~고2 재학생), ② 교사, ③ 학부모(초4~고2 자녀가 있는), ④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수준을 진단하는데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공무원까지 포함되는 것은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안하는 지역의 청소년 행복 측정의 방법을 준용하는 것이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요인들을 측정하고 종합하여 지수화 하는데 있어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정책대상자로서 청소년의 연령이 만 9세~24세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초4~고2로 한정하여 19세 이상 후기청소년이 제외되게 된 것은,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을 정의하고 구성하는 영역과 요소가 18세 이하 학령기 청소년들과 19세 이상 고교 졸업 후기청소년들 사이에 매우 상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표 구성과 측정 상의 차이로 인해 주관적 지표조사에는 후기청소년의 참여가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활동에는 후기청소년들의 참여를 열어두었다. 또한 표집 상의 제한으로 학교 재학생만을 청소년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함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모집·선발 시, 동일 연령대 비진학 청소년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을 우선 할당하였다.

㉠ 표집 틀, 표본 수, 표집방법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2013년 교육통계 연보'를 표집 틀로 하여 '학교'를 기본 단위로 한 다단계층화표집 방법에 따라 표본을 선정하였다.

청소년 10,000명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략 350여개 초·중·고 학교가 선정되었고, 표본 학교 350여개교의 조사대상 학급의 담임교사 350여명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학생들은 표본 학교의 선정 학급 전원이 해당된다.

학부모조사는 표집 틀 없이 비확률표집 방법으로 지역별 표본 수를 할당 하고, 전국 단위 지표를 산출하는데 최소 필요 표본수를 고려하여 첫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가 초4~고2인 총 3,00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사회 공무원 조사는 전수조사로 2014년 6월 현재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 약 150여명 전원을 조사하였다.

표 1-5 설문 조사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17개 시·도 초4~고2 재학생(청소년)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교사 •전국 17개 시·도 초4~고2 자녀가 있는 학부모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 					
표집 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및 교사: 2013 교육통계 연보 •학부모: 비확률 표집 방법으로 표집 틀 없음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 전수조사 					
표본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청소년 10,000명, 학부모 3,000명, 교사 350명, 공무원 150명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명)</p>					
	전체	청소년	학부모	교사	공무원	
	13,500	10,000	3,000	350	150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집방법: 모수추정을 위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 유의표집, 전수조사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집단 면접 - 교사: 개인 단위 자기기입식 - 학부모: 온라인 자기기입식 - 공무원: 개인 단위 자기기입식 					
	전체	청소년	학부모	교사	공무원	
	조사방법	집단면접조사	온라인자기기입식	자기기입식	자기기입식	
	표집방법	층화표집	할당표집	층화표집	전수조사	
조사 시기	2014년 6월 2주 ~ 7월 2주					

㉔ 조사방법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본 조사에 앞서 1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설문초안에 대한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학급단위 집단 설문조사로 표집절차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 조사원이 방문하고, 한 학교에 학년별 1개 학급씩 해당 학급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대상 설문조사는 해당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의 조사 대상 학급 담임교사가 대상이며,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 조사로 진행되었다.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조사는 공문으로 설문 협조 요청을 구한 후, 설문지를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응답 완료된 설문지도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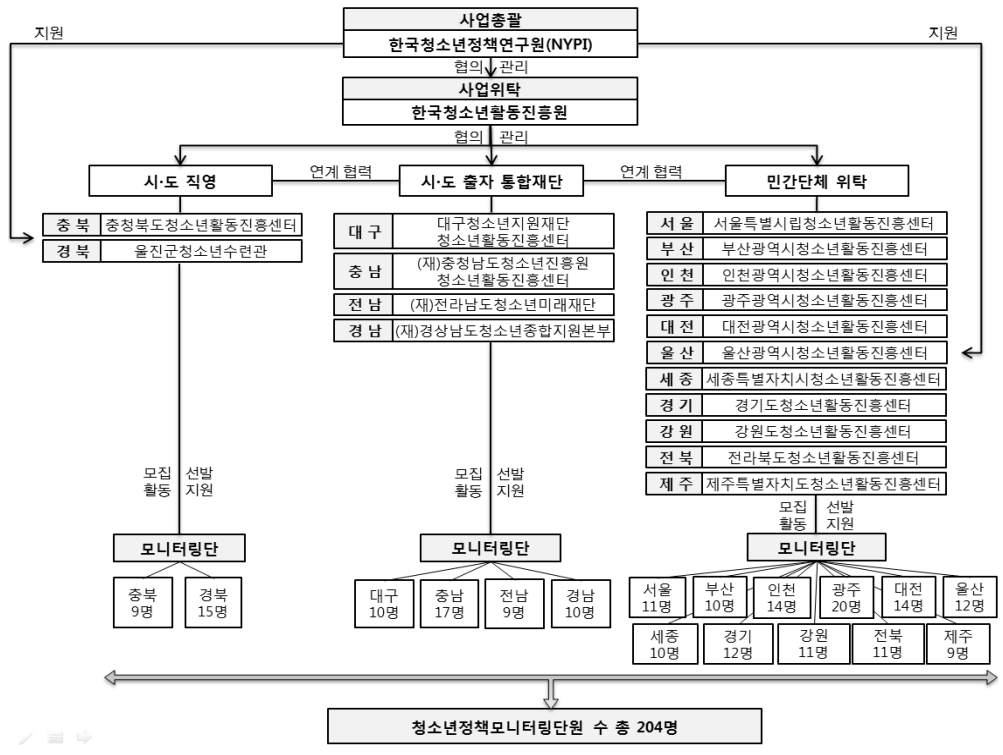
조사에 앞서,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설문조사의 참여를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설문 응답에 대한 소정의 답례품(필기구)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명시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사과정에서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5)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정책주체이면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참여’이다(The Children’s Society, 2013).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 요건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구성과 선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소극적 반영에 그치지 않고, 17개 시·도 지역사회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수준의 진단에 직접 참여함과 동시에 생활 속에서 청소년들 스스로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제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2014년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북을 제외한 16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그리고 울진군 청소년수련관에 의뢰하여 총 204명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각 17개 시·도에서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선발·모집 시, 위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범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각 지역 청소년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이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활동을 겸할 경우, 중복활동에 따른 부담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는 등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의 각 단계에서도 청소년이 참여하는 연구가 갖추어야 할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그림 1-3】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체계

(6) 정량 및 정성자료 분석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주관적 지표와 수집된 객관적 지표의 정량적 자료는 기초 통계분석 방법에 더하여 ‘공간계량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도시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학 연구의 경우, 대체로 행정구역을 단위로 집계 또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들 자료는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이는 공간 상 한 지역의 속성 또는 사건이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속성 또는 사건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희연, 노승철, 2013). 광역 시·도 행정구역 단위로 자료를 조사·수집하는 본 연구의 경우도 행정구역이라는 집합적 공간단위에서 수집되는 자료로서의 속성, 즉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속성을 피해갈 수 없으므로 자료가 갖는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 분석 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간자기상관지수(Spatial Autocorrelation)와 공간가중상관분석(Geographically Weighted Correlations)과 공간가중회귀

분석(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의 공간계량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진단 지표의 자료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 진단 지표에 대한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정성적 평가 자료는 Word Cloud분석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언어를 도출하였다.

(7) 정책협의회

본 연구의 추진 내용이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정책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지자체와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실무협의회는 본격적인 연구 착수와 동시에 정책 밀착성이 높은 본 연구의 내용 구성 및 추진 내용이 정책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인가를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함께 검토하였다.

두 번째 정책실무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의 경험 또는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4월 24일~6월 12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17개 시·도 각 지자체와 순차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 정책실무협의회는 지역사회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구성 및 측정이 국가 정책 자료로서 지표를 작성하는 규칙에 어긋남이 있는가를 통계청 정책지표 작성 실무자들과 함께 타진하고 논의하였다.

네 번째 정책실무협의회는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아동정책기본계획 중 친화적 환경조성과 관련된 정책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다섯 번째로는 청소년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17개 시·도 영역별 지표 및 종합 진단지수 분석의 방향에 관한 정책실무협회가 이루어졌다.

여섯 번째 정책실무협의회는 청소년 친화환경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를 작성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실효성이 있는지와 지역사회 정책 자료로서 지표의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실무자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일곱 번째 정책실무협의회는 중장기 청소년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의 실무자를 만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 분석의 결과를 인천시에 전달하고, 인천광역시의 청소년정책 계획에 관하여 함께 논의하였다.

여덟 번째 정책실무협의회는 본 연구의 종합지수 진단결과의 정책적 활용에 관하여 제안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효율적·효과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 1-6 정책협의회 개최

차수	주요내용	관계부처	개최 시기
1차	정책연구 내용 구성 및 추진 내용 검토 및 협의	여성가족부	3월 19일
2차	지역사회 청소년정책(친화환경정책) 추진 여건 및 계획	17개 시·도 지자체	4월 24일~6월 12일
3차	17개 시·도 지표작성 방법 및 관리 방법	통계청	4월 29일
4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중 친화적 환경조성 관련 정책	보건복지부	5월 16일
5차	17개 시·도 지표 및 지수분석의 방향	여성가족부	7월 4일
6차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관련 지역사회의 정책	지역발전위원회	7월 24일
7차	인천시 청소년정책 계획의 방향	인천광역시	10월 24일
8차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진단 결과의 정책적 활용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11월 7일

(8) 콜로키움, 워크숍, 연구결과발표회

○ 콜로키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여건의 진단·분석과 그 결과에 기초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 이해를 확장하고,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요구되는 분석방법들을 심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강의 또는 전문가와의 대담 방식을 중심으로 한 콜로키움을 총 3회 개최하였다.

첫 번째 콜로키움에서는 광역 시·도 진단 결과를 효과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로서 공간계량분석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하여 학습하였고, 두 번째 콜로키움에서는 지역사회 지표 조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산출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전문가의 경험을 공유한 후 본 연구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세 번째 콜로키움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의 경험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유사사례 정책전문가와 의 대담을 통해 논의하였다.

표 1-7 콜로키움 개최 횟수별 주요 내용

횟수	주요내용	발표자	개최시기
1회	STATA를 활용한 공간계량분석방법의 활용	신인철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3월 27일
2회	지역사회 지표 작성	이희길 (통계청, 통계개발원)	4월 29일
3회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 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홍우석 (서울시청, 아동청소년담당관)	5월 26일

○ 워크숍

17개 시·도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정책시행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하며, 청소년 스스로가 공감하는 생활공감정책을 제안하는 ‘2014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4/16일~17일 양일간 개최된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및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활동이 전체 연구에서 어떠한 역할과 의미가 있는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사업 운영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7/3일~4일 양일간 개최된 두 번째 워크숍은 사업운영에 관한 중간점검 및 보고를 위한 워크숍이다. 중간워크숍에서는 상반기 운영 결과의 검토와 각 지역의 운영 사례의 공유, 그리고 이를 통한 하반기 모니터링단 활동 방향의 제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표 1-8 워크숍 개최 및 주요 내용

횟수	주요 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17개 시·도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진 워크숍	연구진 및 17개 시·도 담당자 등 총 50여 명	4월 16일~17일
2회	17개 시·도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진 중간워크숍	연구진 및 17개 시·도 담당자 등 총 30여 명	7월3일~4일

○ 연구 결과 발표회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는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그리고 정책당사자로서 참여한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활동 청소년 등을 비롯하여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함께 공유하였다. 무엇보다도 연구 결과 발표회의 개최는 본 연구가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단원으로서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활동 내용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정책 자료로 분석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청소년 중심적 연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상으로 포함하는 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윤리 준수를 지향하는데 따른 것이다.

표 | -9 연구 결과 발표회의 주요 내용

횟수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연구결과 발표회	연구진 및 연구의 직·간접적 참여자들 250여명	11월 8일

3. 연구의 추진체계

1) 정책 연구 10개년(2013~2022) 추진 계획

2013년에 시작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연구」는 10개년 장기연구로 계획되어 착수되었다. 1년차 연구 시, 2013년~2022년까지의 연간 추진 내용이 계획되었으나⁴⁾, 정책연구로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당시 수립되지 못하여, 2년차 본 연구에서 본격적인 정책연구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연구가 추진된 배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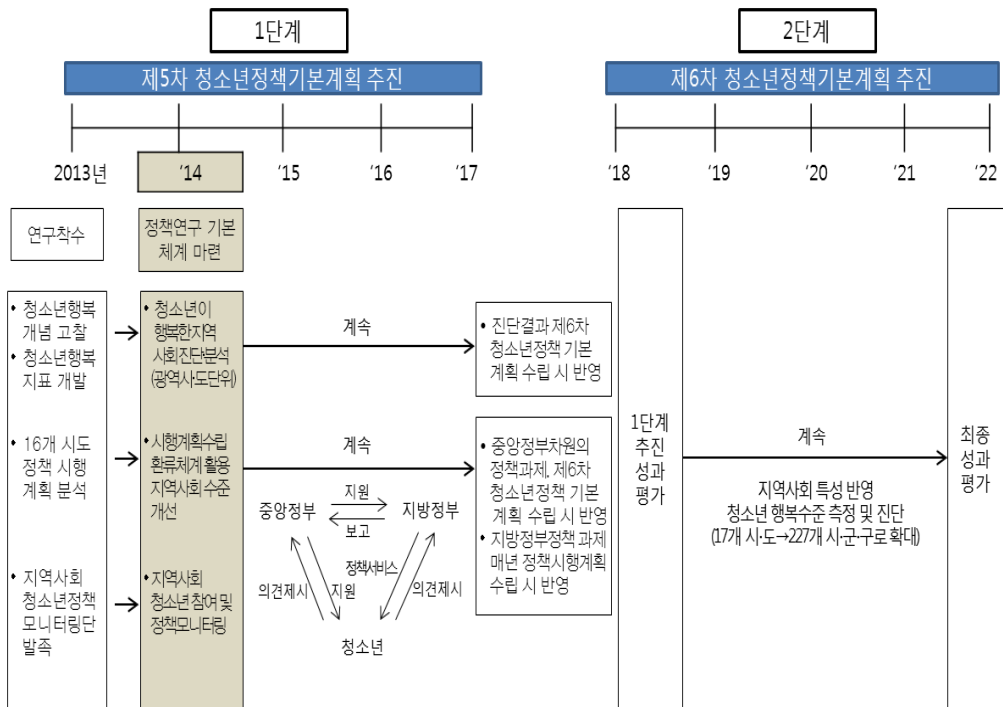
우선,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세부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 마련에 있음을 전제로, 10개년 정책 연구 설계의 기본 틀을 두 단계로 나누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5년 기간을 1단계로 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5년 기간을 2단계로 설정하였다.

1단계 기간에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수준을 광역시·도를 기본 단위로 하여 비교 분석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 단위 지역사회의 수준을 청소년 친화적으로 한 단계

4) 10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3년 연구보고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연구 I : 총괄보고서」 p.5~8의 연간계획 내용 참조

높일 수 있는 정책과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에서는 광역 시·도 지역사회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의 수준을 진단·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매년 그 결과를 환류체계를 활용하여 개선하고 실행함으로써 광역 시·도 단위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단계 기간에는 지역사회 진단·분석을 광역시·도에서 227개 기초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며,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개발된 지표들에 더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수준과 여건,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들의 추가 개발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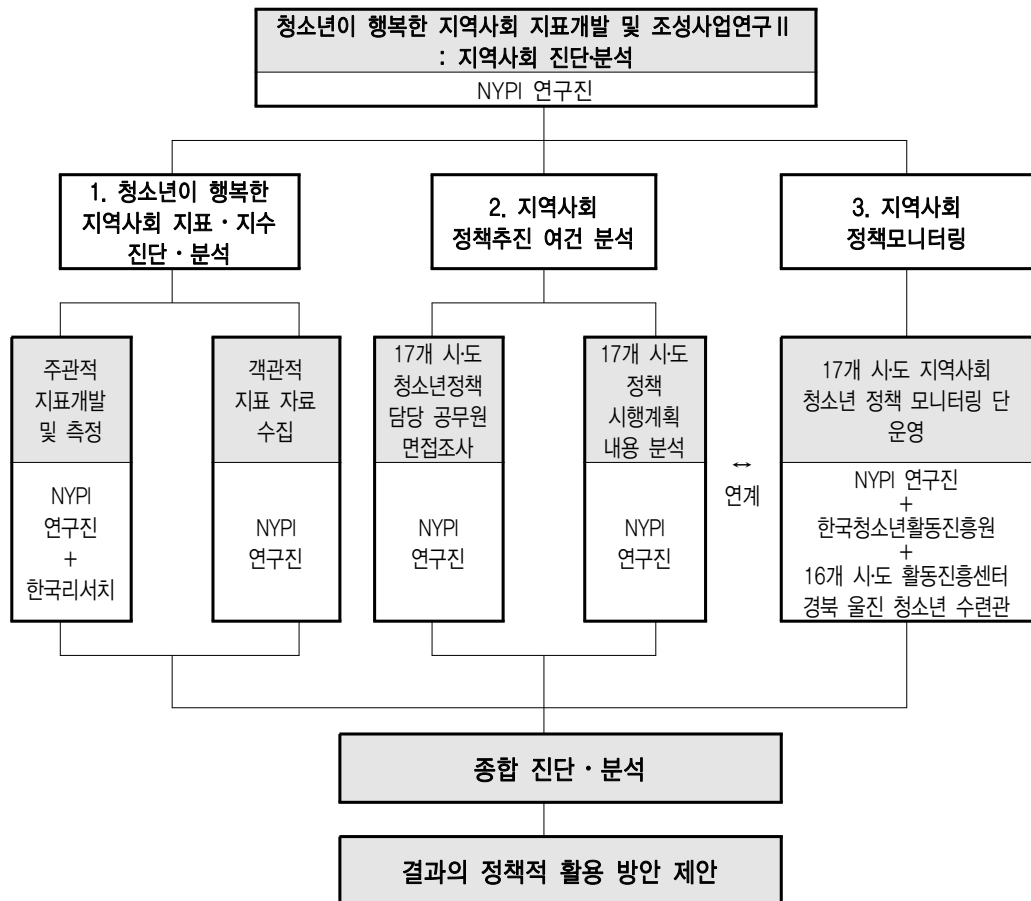
【그림 1-4】 정책 연구 추진체계: 10개년(2013~2022)

다시 말해, 1단계에서 광역 시·도를 진단·분석의 기본단위로 하여 개발된 지표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항목들로 구성된 기초 지표로 설정하고, 이에 더하여 기초 지역 단위의 특성과 한계 등을 반영한 추가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의 진단·분석은 지역 비교에 있어서 기본 단위의

문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현실적 한계 상황 하에서 체계적 정책적 개입을 가능케 한다.

2) 2014년 2년차 연구 추진체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연구』의 2년차 연구인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여건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정책 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추진 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림 1-5】 2년 차 정책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제1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기본 이해

제 II 장

.....

지역사회 정량진단을 위한 지표개발 및 측정·분석의 이론적 틀

1. 지표 개발의 이론적 모형
2. 지표의 구성 및 측정방법
3. 지표 자료의 분석

제 II 장

지역사회 정량진단을 위한 지표개발 및 측정 · 분석의 이론적 틀*

1. 지표 개발의 이론적 모형

2013년 1년차 연구에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조작적으로 정의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란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적의 생활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사회(마을)(장근영, 이혜연, 배상률, 성은모, 이용교, 홍승애, 2013, p.29)”이다. 청소년의 행복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정의하는데 있어 환경과의 상호과정 속에서 청소년이 인식하는 만족에 초점을 두는 것은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인식되는 행복은 정적인 것이 아닌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Bronfenbrenner, 1979; 허승연, 2009; 장근영 외, 2013).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청소년의 행복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청소년 중심의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적절한 틀이 된다. 청소년의 행복을 이슈로 하는 연구들과 청소년 친화 도시와 마을을 조성하는 서구의 연구들에서도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중요한 개념적 틀로써 제시되고 있다(The Children’s Society, 2013).

이 이론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다섯 가지 체계,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s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그리고 시간체계(chronosystem)로 분류하는데, 이는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근접 환경에서부터 환경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원거리 환경까지의 영역 층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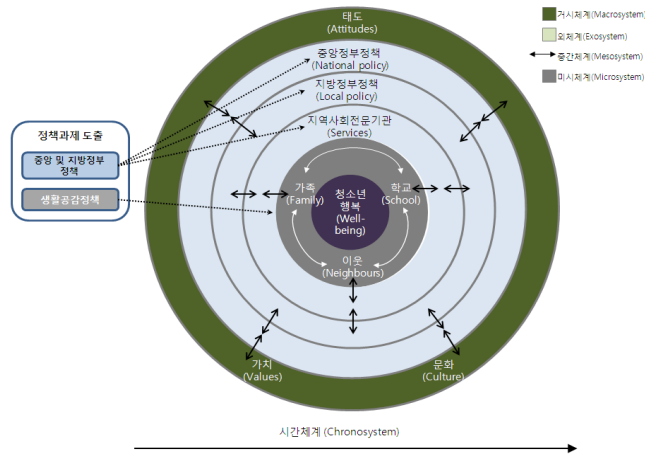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하현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신인철(숭실대학교 시간강사)이 집필하였음.

청소년과 가장 근접한 미시체계에는 가족, 친구, 집, 학교, 이웃 등이 포함된다. 이 체계 내에서는 청소년과 환경 구성요인들 간에 대체로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내의 환경들 간의 관계가 중심이 된다. 즉, 청소년의 부모와 학교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 또래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외체계에는 청소년의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이 포함된다. 외체계를 구성하는 환경의 예로는 정부기관, 정책 및 제도, 매체 등이 있다. 거시체계는 관습 및 신념, 태도와 같은 문화적 환경을 포함한다. 거시체계는 미시체계부터 외체계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가장 넓은 영역에서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시간체계에는 동태적 시간 변화를 포함하는데, 전 생애 걸쳐 일어나는 개인사적 사건과 변화 등, 사회역사적 환경이 반영된다(정옥분, 2002;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2013년 1년차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5가지 체계를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세 가지 수준(I 수준: 개인 내적 특성, II 수준: 가정, 학교, 지역사회, III 수준: 제도, 환경)으로 분류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정책연구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2년차 연구인 올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표 개발뿐만 아니라 연구의 개념 모형을 [그림 II-1]과 같이 도출하고 연구의 내용 구성에 개념적 틀로 설정하였다. 청소년을 둘러싼 미시체계와 중간체계를 통합하여 가족, 학교, 이웃으로 단순화하고 이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공감하는 생활 공감 정책을 행복 지표 조사 결과와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을 통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외체계와 거시체계는 정책 전달 체계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정책서비스 전문기관 영역(예: 국공립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과 지방정부 정책 영역(예: 시청, 도청, 군청, 구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의 정책 및 서비스 포함), 그리고 중앙정부 정책 영역(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관련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개념 구성 체계에 따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에 기초한 종합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이의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하는데 필요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출처: Bronfenbrenner(1979), The Children's Society (2013), The Good Childhood Report 2013 p.31 내용 재구성

【그림 II-1】 지표 개발의 이론적 모형

2. 지표의 구성 및 측정방법

1) 지표의 구성

(1) 지표 구성의 형태

‘행복’과 ‘웰빙’ 지표의 구성 및 측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쟁점은 크게 주관적 지표로의 접근과 객관적 지표로의 접근 그리고 개인 수준의 접근과 사회 집합적 접근으로 나뉜다.

주관적 지표는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의 다양한 견해와 체감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이희길, 심수진, 박주언, 배현혜, 2013). 그러나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사회 집합적 수준의 행복과 웰빙을 측정하는 것은 사회적 현실보다는 개인의 기대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객관적 지표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으며(한준, 강석훈, 김석호, 서은국, 홍종호, 이희길, 심수진, 2011), 객관적 삶의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표의 정책적 활용에도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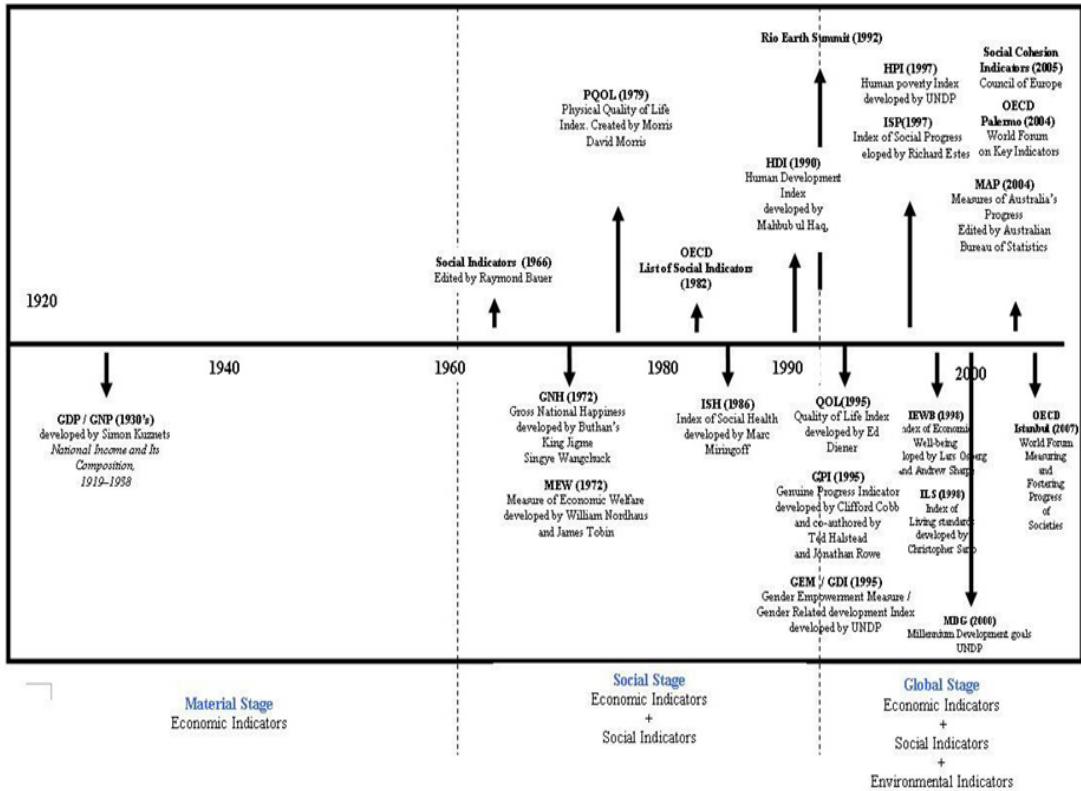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기구(OECD) 및 단일국가(호주, 캐나다, 부탄, 일본 등)에서는 이를 혼합하여 지표체계를 구성한다(이희길 외, 2013). 유니세프의 ‘청소년 친화도시 지표(Child Friendly City Index)’는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의 구축을 위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주관적 목소리를 듣는 것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함께 진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객관지표를 중심으로 영역별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는 절충주의 접근이 국제적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객관적 조건의 측면과 주관적 느낌의 만족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함께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 절충주의 접근을 통해 지표를 구성하였다.

(2) 행복, 삶의 질, 주관적 웰빙 관련 지표구성의 동향

일반적으로 행복, 삶의 질, 주관적 만족감, 웰빙 등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정의되지만, 이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 것으로 취급되어왔다(Veenhoven, 2007; Donnelly, 2004). 다만 측정의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경제적인 요소를 강조하기도 하고(UNDP, 2006; EIU, 2005), 주관적 느낌(subjective well-being)을 강조하는 연구(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그리고 환경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연구(Marks, Abdallah, Simms & Thompson, 2006)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행복, 삶의 질, 웰빙과 같은 개념을 사회지표의 형태로 측정하려는 연구는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대공황 시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지표조사는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국민총생산(GDP)나 국민계정 등과 관련한 영역들이 주로 측정되었다.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 경제적 번영의 시대였던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는 새로운 ‘사회지표 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이 등장하였는데, 사회지표의 주요개념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나 사회발전 등 경제 성장 지표 보다는 복지과 웰빙과 같은 사회영역이 강조되었다. 1990년대 이후 사회지표에는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지속가능성’이 주요 개념으로 편입되었다. 이는 사회지표 영역으로서 경제 및 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 영역이 추가되어 전 지구적 환경문제, 사회의 질, 그리고 사회자본 등 전체사회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반영된 것이다.



출처: OECD (2008). OECD Statistics Directorate 이희길 (2014). 콜로키움 II :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지표 작성방법. p.3 재인용

【그림 II -2】 행복, 삶의 질, 웰빙(Well-being)개념 측정의 발전 과정

삶의 질과 관련한 대표적인 국제비교 연구로는 먼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가 있다. 이 지수는 수명(평균수명지수), 교육수준(교육지수), 생활수준(GDP)이라는 세 가지 차원(차원지수)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지표수가 지나치게 적고 단순하여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삶의 질이나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로 보기는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삶의 질 지수(How's Life Index)를 측정하고 있다. 이 지수는 물질적 생활조건, 삶의 질, 그리고 웰빙의 장기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소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거버넌스, 건강, 생활만족도, 안전, 일-생활 균형의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국내의 초기 연구로는 객관적 척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인의 삶의 질(이현송, 1997)'

연구가 있다. 이 지표에는 사회참여나 환경과 관련된 영역은 제외되어 있어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의문이 있다.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과 임지영(2003) 및 김명소와 한영석(2006)은 우리나라 성인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들을 주관적 지표로만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하는 공식을 개발하였다. 이 지표는 주관적 척도로만 구성되어 있어 국가 간 비교에 있어 보편성이나 일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 청소년의 행복 관련 기존 연구에서의 지표구성

어린이-청소년의 행복,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의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을 시작으로 유니세프에 의해 1979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는 '세계아동실태보고서(State of the World's Children)', 1989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등을 통해서 국제적 관심과 연구가 확대되었다.

근래에는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웰빙을 이해하는 규범적 모형이 되고 있는데, 이 협약에서는 웰빙을 아동의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만 아니라 건강과 영양을 포함하는 포괄적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Bradshaw, Hoelsher & Richardson, 2006), 아동-청소년의 단순한 생존 수준이 아닌 아동의 발달과 삶의 질을 강조하고, 성인기의 전단계로의 접근이 아닌 아동기 자체로의 삶의 질을 중시한다(Ben-Arieh, 2008).

유니세프(2006)의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연구는 유엔아동인권협약에 근거하여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이 지표는 물질적 행복(Material well-being), 보건과 안전(Health and safety), 교육(Education), 가족과 친구관계(Peer and family relationship),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 건강관련 행위(Behavior and risk)의 6가지 영역과 18개의 구성요소, 40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이후 등장하는 다수의 지표들의 모범이 되고 있으나, 지표의 작성 목적이 선진국(OECD) 청소년들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었으므로(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을 위한 연구에서는 개별지표보다는 영역구분만 참고하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유니세프는 1996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친화도시 지표(Child Friendly City Index: 이하 CFCI)를 개발하였다. CFCI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청소년친화도시측정도구(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 Tool)'와 정부의 행정조직, 예산, 아동권리옹호시스템 등을 측정하는 '청소년친화도

시 정책평가도구(Child Friendly City Assessment Tool)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측정 도구는 일·놀이·여가, 지역사회 유대관계, 안전과 보호, 건강과 사회 서비스, 교육자원, 주거환경의 6개 영역, 8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정책평가 도구는 행정기관의 아동·청소년정책 이행과 특정 분야에서의 아동권리 보호의 두 개 영역과 11개 하부영역, 총 68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UNICEF, 2011a, 2011b; 홍승애, 2013, 장근영 외, 2013에서 재인용).

이 지표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8~18세의 아동과 청소년, 아동·청소년의 부모 그리고 지역 전문가를 조사대상자로 하여 각 지표의 측정값을 비교·통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미시체계 뿐만 아니라 중간체계까지 측정할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측정도구의 영역구분은 청소년이 직접 접촉하는 지역환경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정책적 활용도가 높으며, 아동친화정책평가도구 역시 지역 정부의 아동·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지표의 정책적 활용도가 높다. 다만, 이 지표는 개발도상국가 아동·청소년의 주거 및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 아동·청소년의 환경을 측정하기에는 지표의 측정내용이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청소년이 성장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환경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도시에서 성장하기(Growing Up in the City: 이하 GUIC)’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직접 조사하고 성장환경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GUIC 지표는 사회 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두 가지 영역, 23개 지표로 구성하여 각 지표를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로 나누어 측정하였다(Chawla, L, 2002, 홍승애, 2013, 장근영 외, 2013에서 재인용). 이 지표 역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상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와 관련한 국내연구로는 먼저, 한국청소년 발달지표(최인재, 임지연, 김형주, 2008)가 있다. 이 지표는 배경, 투입, 과정, 결과의 4개 대영역, 20개의 핵심영역, 55개 세부영역, 10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지표항목은 청소년정책의 주요 영역과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청소년정책지표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 지표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과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다(임지연, 최인재, 김형주, 2008).

한국아동청소년지표(2011, 2012)⁵⁾는 5개의 핵심영역(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

5)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통계수집체계와 인권지표의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권고: 1차 1996년, 2차 2003년, 3·4차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2003년) 등), 한국아동청소년지표(2011, 2012)가 개발되었다.

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과 23개 하위영역, 그리고 13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지표는 청소년 직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주관적 지표와 행정통계 등의 객관적 자료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나, 인권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청소년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양상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황옥경, 김영지, 2011)는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을 5개 영역(누구나 건강한, 누구나 안전한, 더불어 활동하는, 배움을 누리는, 함께 참여하는 마을)으로 구분하여 19개의 세부영역, 총 84개의 지표로 제시함과 동시에 청소년 친화마을의 실제적 조성과정 및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연구의 청소년 친화마을 지표는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체계 제안을 중심으로 객관적 지표만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행복, 삶의 질 지표를 바탕으로 종합지수를 도출한 연구로는 2013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한국방정환재단, 2013)와 한국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Yoo, 2013)를 들 수 있다.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의 6영역과 세부영역 격의 18개 구성요소, 36개 지표를 가지고 종합지수를 산출하였으며, 한국아동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는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의 8개 영역, 47개 지표의 직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산출하였다. 특히, 한국아동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는 산출된 지수의 16개 시·도별 비교를 통해 아동의 발달에 지역 간 편차를 확인하고, 전인적 아동 복지수준의 불균형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개발을 촉구하였다(이봉주 외, 2013).

이상의 청소년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지표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와 그 측정방법에 대한 합의는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의 행복, 삶의 질에 관한 지표 연구들이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관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차원적 지수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의 삶의 질, 행복의 측정에 있어서 물질적 조건(경제), 보건(건강) 및 안전, 교육, 관계, 참여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2) 지표 작성 및 측정

(1) 지표의 기능 및 요건

지표는 지역사회의 현 상태를 반영하는 정보체계로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통계청, 2013). 지표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과거의 동향(trend), 현재의 실태(realities), 미래 방향(direct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정체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 지표는 정책 및 자원배분 과정에 지역사회가 초점을 두어야 할 영역을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성과를 측정하고 책무성(accountability)을 확보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이희길, 2014).

지표의 작성 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제도적·지역적 맥락에 적합하여야 하며, 둘째, 정부, 학계, 시민사회,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자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의미있고 유용하여야 하며, 셋째, 비용이 적정해야 하고,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해야 하며, 넷째, 지표의 작성목적이 명료해야 함과 동시에 그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지표의 선정과 활용, 보고서 검토의 모든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밀접한 협력이 이뤄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표는 정교화된 비전과 목적에 연계되며,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맞추어 작성된 지표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계획수립담당자(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비영리단체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표는 정책의 결정과 그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통계청, 2013; 이희길, 2014).

(2) 지표의 작성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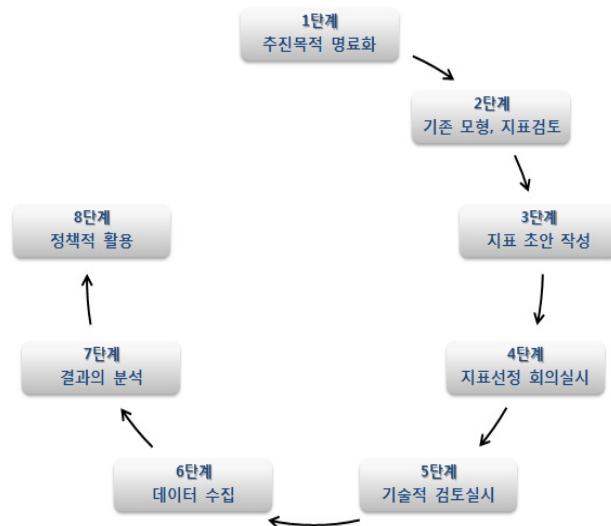
① 작성절차

작성된 지표의 결과가 정책의 결정과정 및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표의 작성절차는 중요하다. 지표의 작성절차는 다음과 같이 8단계를 거치게 된다.

1단계는 추진목적의 명료화이다. 지표의 활용 목적에 따라 수집 대상 및 지표의 선정과정, 자료의 결과 제시 및 결론도출 방향이 달라진다. 정책적 활용을 감안한다면 지표는 해당 사회를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이희길, 2014).

2단계는 기존 모형 및 지표검토의 단계로 지표 선정에 앞서 관련된 다양한 지표 보고서

및 모형을 검토함으로써 어떠한 것이 이미 측정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지표 선정의 방향과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을 준다(통계청, 2013).



출처: Redefining Progress(2002). Sustainability Starts in Your Community: A Community Indicators Guide. 이희길 (2014). 콜로키움 II :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지표 작성방법. p.12 내용 재구성

【그림 II-3】 지표 작성의 절차

3단계는 지표 초안 작성 단계로 지표의 작성 목적 및 기존 자료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지표를 선정한다. 지표 초안의 경우 앞서 논의한 작성요건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지표의 선정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통계청, 2013).

4단계인 지표선정 회의 실시는 지표의 타당성 및 적합성 확보에 중요한 단계로, 지표 결과를 통해 영향 받는 정책대상자들의 참여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단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지표와 관련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학계, 공무원, 현장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

다음 5단계는 기술적 검토의 수행단계로 바람직한 지표체계는 실제로 측정 가능한 지표여야 하며, 6단계는 데이터 수집으로 이 단계에서는 지표의 실제 이용가능성 측면과 관련하여 지표의 유지와 제외를 판단하게 된다(통계청, 2013). 지표는 이 과정에서 수집이 불가하거나 유보되기도 하며,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표를 발견하기도 한다.

7단계는 결과의 분석 단계로 분석은 수집 결과의 단순 나열이 아닌 지표의 작성 목적에 맞추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마지막 8단계는 정책적 활용단계로 지표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주요 이슈는 계획수립담당자(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비영리단체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담당자는 정책 결정과정에 이를 활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8단계의 지표 작성절차에 따라 지표를 작성·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조성과 관련된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10개년 정책 연구 추진체계 중 기본체계를 마련하는 2년차 연구라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적된 시계열적 자료는 향후 국가정책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정책의 핵심적 정책 자료가 될 것이다.

② 작성방법

지표의 작성방법은 지표 선정의 주체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표의 선정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즉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 혼합식 접근(Hybrid approach)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희길, 2014).

하향식 접근은 전문가가 설정한 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서 국가나 국제단위 지표선정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 위주로 선정된 지표는 지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체감도가 낮고,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상향식 접근의 경우 시민, 지역사회 지도자,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지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향식 접근 방법과 달리 주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지역사회에서 지표를 선정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지표의 논리적 일관성 결여나 지속가능한 발전 등과 같은 큰 이슈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하향식 접근 방식을 통해 지표를 선정하되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혼합식 접근이다. 국가단위의 지표에서 상향식 선정방식은 실제 활용이 어려우나, 상향식 선정방식과 하향식 선정방식에서 나타나는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 절충적 접근을 통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표 II-1 지표 선정 방법

국가	지표명	지표선정방법	주체			
			통계청/통계기구	정부기관	학자/전문가	NGO/시민
OECD	Better Life Index	Top-down	√		√	
한국	삶의 질 지표	Top-down	√		√	
호주	MAP	Hybrid	√	√	√	√
캐나다	CIW	Hybrid	√	√	√	√
부탄	GHN	Top-down		√		
일본	Measuring National WB	Top-down		√		
영국	Measuring National WB	Hybrid	√	√	√	√

출처: 이희길 (2014), 콜로키움 II :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지표 작성방법, p.18

본 연구에서는 정책주체이자 당사자인 청소년이 지역사회 진단 지표의 선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으나, 하향식 지표선정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목소리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 진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선정기준

지표의 선정 기준은 선정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료의 질, 타당성, 중립성의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선정 원칙들이 존재한다(이희길 외, 2013).

대표적으로 자료의 질 측면에서는 신뢰성, 인구집단별 분해가능성, 시계열 축적, 국제비교, 시의성, 이용가능성이 고려되고 있으며, 자료의 타당성 측면에는 타당도, 기준타당도, 이해용이성, 방향의 명확성, 객관/주관, 일관성 및 포괄성, 사회/정책 민감성, 산출에 초점을 둔다. 중립성에는 정치적 편견 없음과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자문검토절차를 통해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희길, 2014) 등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례로 OECD는 BLI(Better Life Index)의 선정기준의 경우, 자료의 질 측면에서는 시계열로 축적되는 자료인지, 국제비교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자료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해당 지표가 작성 목적에 따른 측정에 있어 타당한 지표인지, 지표의 증감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한지, 일관성을 가짐과 동시에 전체를 포괄하는지, 정책이나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투입이 아닌 산출(outcome)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선정 하고 있다(이희길 외, 2013).

표 II-2 OECD의 지표선정 기준

자료의 질	시계열 축적, 국제비교
자료의 타당성	타당성, 기준타당도, 방향의 명확성, 일관성 및 포괄성, 사회/정책 민감성, 산출에 초점
중립성	-

출처: 이희길 (2014), 콜로키움 II :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지표 작성방법. p.20

(3) 청소년 대상 행복지표의 측정

① 지표 측정의 기본 방향

청소년의 행복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측정에서도 중요한 점은 청소년 중심의 접근(child and youth-centred approach)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의 생활과 관심에 관련된 적절한 내용으로 행복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행복과 관련한 연구들이 대체로 성인을 중심으로, 또 단일 항목으로 측정되었던 내용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적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대상 측정 내용이 청소년에게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많은 경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The Children's Society,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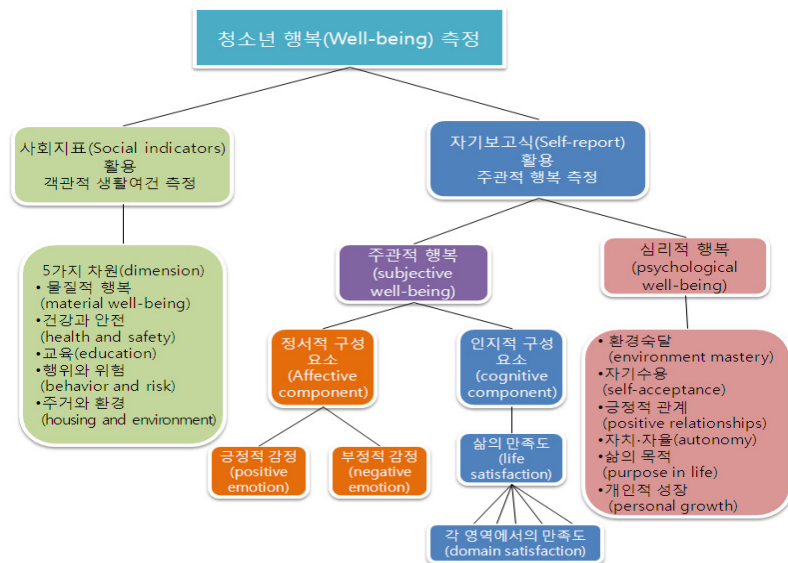
② 지표 측정의 방법

행복을 측정하는 연구는 청소년들 보다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self-report) 방식으로 이루어져왔으며, 같은 방식으로 20여 년 전부터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행복 측정이 확대되어 왔다. 미국의 Hubner(1994)와 오스트레일리아의 Cummins와 Lau(2005)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보고 방식의 행복 측정 방법을 발전시켜 왔으며 방법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확인해 왔다. 20여년 간 이들이 발전시킨 측정 방법은 청소년들의 이해 수준(literacy) 또는 인지발달 수준으로 인하여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현재 10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으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가 받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The Children's Society, 2013).

본 연구과제의 1년차 연구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행복을 측정하는데 있어 객관적 사회 지표와 주관적 조사 지표들이 행복 지수 또는 행복 지표의 개념 안에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연구의 목적과 관심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행복을 측정하는 방식과 구성 요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데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II-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즉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를 활용하여 객관적 생활 여건을 측정하는 방법과 설문조사를 통한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출처: The Children's Society (2013). The Good Childhood Report 2013 pp.7~8 내용 재구성

【그림 II-4】 청소년의 행복 측정 방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니세프 등과 같이 국제비교 자료를 산출하는 국제기구나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에서는 대체로 사회지표를 활용하여 산출된 지표로 행복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많은 학문적인 연구들에서는 자기보고 방식의 설문조사를 통해 주관적 행복 수준을 측정하였다.

주관적 행복은 측정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어떠한 내용에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 나뉘는데, 개인의 내재적 특성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심리학적 접근을 우선한다면 심리적 행복(psychological well-being)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반면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행복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정서적 감정과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구성요소로 하여 주관적 행복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진단하기 위한 최종 지표 선정을 위해 청소년의 행복을 측정한 관련 연구들에서 사용한 두 가지 방법, 즉 객관적 지표자료로서 사회지표와 주관적 조사지표 모두를 고려하였다.

3. 지표 자료의 분석

1) 지표나열법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지표의 수집결과는 주로 ‘지표나열법’이나 ‘종합지수화’ 방법을 통해 제시된다(이희길, 2014). 지표나열법은 지표결과를 그대로 표나 그래프를 통해 개별 지표들을 나열하며 설명하는 방식이며, 종합지수화는 여러 지표들을 단일 수치로 종합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표나열법은 사용자들이 관심사에 따라 직접 지수를 작성하거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자가 지수 생산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GDP가 지배적인 지표로 남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사용자는 종합지수화와 같이 이해 및 활용이 쉬운 단일 수치의 제공을 선호하는 경향(이희길 외, 2013)이 있으나, 종합지수의 경우, 여러 지표들을 단일 지표로 지수화 되는 과정, 즉 지표의 합산 방법이나 가중치 사용 등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표 나열법과 종합지수화의 장단점으로 인해 OECD의 BLI는 각 국가의 11개 영역별 지표 값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사용자가 각 영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면 가중치에 따라 각 나라별 종합지수 값을 산출·제공한다(이희길 외, 2013). 이러한 가치중립성 문제로 단일국가의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지표의 경우 지수화 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주로 민간기관들에서 종합지수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나열법과 종합지수를 모두 사용하여 제4장에서 각 지표의 결과를 지표나열법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제6장에서는 종합지수를 산출 후 산출된 지수를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종합지수의 경우 가치중립성의 손실을 줄이고자, 아동-청소년 관련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지수를 산출하며, 각 지표들을 표준점수로 환산한 후 지수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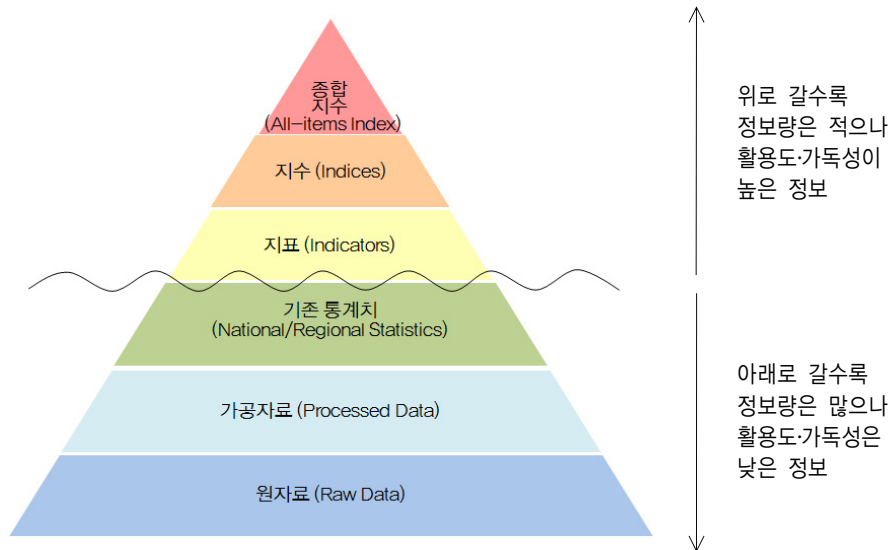
2) 종합지수산출

(1) 종합지수 산출의 의의

지표(indicators)는 현상이나 방향, 목표달성도를 수치화하여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말한다. 지수(index)는 지표들의 집합된 형태로 지표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국토연구원, 2011). 지표(indicator)들을 표준화하고 결합한 값인 지수는 현상이나 상태에 대해 간결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수는 종합지수와 개별지수로 나뉘는데 종합지수는 여러 영역의 통계를 비교·통합하는 지수이며 개별지수는 단일한 영역의 통계를 비교하는 지수를 의미한다. 종합지수는 다시 작성방식에 따라서 단순지수와 가중지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순지수는 각각의 요소(지표)를 동등한 단위로 취급하여 가중치를 주지 않은 지수이며, 가중지수는 각 요소(지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국토연구원, 2011).

따라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진단·분석하기 위해 산출된 종합지수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행복한 정도를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을 종합하여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한 정도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 할 수 있다.



출처: 이희길 (2014). 콜로키움 II :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지표 작성방법. p.8 내용 재구성

【그림 II-5】 지표의 층위 : 원자료부터 종합지수까지

(2) 종합지수 산출 방법

개별지표를 바탕으로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먼저 개별지표를 표준화하여 지표 측정 단위의 이질성을 해소하는 과정과 이후 각각의 지표에 적용할 가중치를 결정하여 종합지수 산출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표준화 방법에는 z-score 방법, HDI(Human development index)표준화방법, 변화량 표준화방법 등이 있는데, z-score 표준화 방법⁶⁾은 각 변수와 평균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눔으로써 구할 수 있다. HDI 표준화 방법은 해당지표의 수치에서 최소값을 제외하고, 다시 이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나누어주는 방식이다(국토연구원, 2011).

변화량 표준화는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peoples's life indicator)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기준 연도를 설정한 후 개별지표의 변화량을 표준화한 후 연도별로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심수진, 이희길, 2010). 개별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개별 지표 혹은 영역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단순지수를 산출하는 방법과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가중치 부여 방법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일반인 대상의 조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AHP, ANP, 우선순위 부여방법, 종합척도 방법(점수할당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국토연구원, 2011).

한편 통계적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주로 주성분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얻은 계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다양한 방법들 중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한 z-score 표준화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과정의 내용은 제6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3) 공간계량분석

17개 시·도 단위 지역사회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여건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관적·객관적 지표자료는 행정구역을 기본 단위로 하여 수집되며 이들 자료에는 공간적 위치 정보가 포함된다.

6) $z\text{-score} = (\text{변수} - \text{평균}) / \text{표준편차}$

공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 공간분석을 통해 개별 수준의 자료를 맥락정보와 연결시켜 공간적 비교를 가능케 하고(조동기, 2009), 공간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자료들에 비해 보다 많은 정보를 효과적이고 입체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도시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정구역을 단위로 집계되거나 수집되는 자료는 불가피하게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을 갖게 된다. 이는 공간 상, 한 지역의 속성 또는 사건이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속성 또는 사건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희연, 노승철, 2013).

본 연구의 지표 자료로서 수집되는 정보들은 행정구역이라는 집합적 공간단위에서 수집되는 자료로서의 속성, 즉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한 적절한 분석 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간가중행렬에 따른 공간계량분석(Spatial Econometrics) 방법을 활용하여 지표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공간자기상관의 개념 및 산출 방법

공간자기상관지수는 크게 전역적 공간자기상관(Global Spatial Autocorrelation)과 지역적 공간자기상관(Local Global Spatial Autocorrelation)으로 구분된다.

먼저,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지수에서 '전역적(global)'이라 함은 하나의 분석으로부터 일련의 결과들이 산출되고, 그 결과들은 연구 지역 전체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됨을 의미한다. 또 공간적 자기상관은 한 지역이 가지는 속성값은 그 지역과 이웃하는 다른 지역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다(Pfeiffer et al., 2008). 따라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 지수는 연구 지역 내 단위구역들(areal units)의 속성 값이 그 이웃 지역(neighborhood)의 값들과 유사한 평균 정도를 일련의 표준 수식에 의해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인 Moran의 I 는 아래와 같이 공분산 개념을 사용하여 속성 값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것이다(Moran, 1948).

$$I = \frac{\sum_{i=1}^N \sum_{j=1}^N w_{ij} Z_i Z_j}{S_0 m_2}$$

여기에서 w_{ij} 는 위치쌍 (i, j) 에 대한 공간가중행렬 W 의 원소이고, $Z_i = Y_i - \bar{Y}$ 로서 Y_i 는 지역 i 의 관심변수 Y 를, \bar{Y} 는 전체 지역에 대한 Y 의 평균을 나타낸다. 그리고 $S_0 = \sum_i \sum_j w_{ij}$ 와 $m_2 = \sum_i Z_i^2 / N$ 으로 정의된다.

또 다른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지수로 아래의 식과 같이 Geary(1954)가 제안한 c 가 있다. Moran의 I 와는 달리 c 가 1보다 크면($c > 1$), 변수 Y 의 전체 분포는 부적인 공간자기상관을 갖는 것으로 각 지역 i 에서 Y 값은 그곳과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Y 값과 다른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1보다 작다면($c < 1$), 변수 Y 의 전체 분포는 정적인 공간자기상관을 갖는 것으로 각 지역 i 에서 Y 값은 그곳과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Y 값과 유사한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 = (N-1) \frac{\sum_{i=1}^N \sum_{j=1}^N w_{ij} (Z_i - Z_j)^2}{2NS_0m_2}$$

마지막으로 Getis와 Ord(1995)가 제안한 G 지수는 위의 두 지수와는 다소 다른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으로 Y 는 양의 값만을 가질 수 있고, w_{ij} 는 $w_{ii} = 0$ 인 비표준화된 대칭이산가중행렬(nonstandardized symmetric binary weights matrix)의 원소를 나타낸다. G 가 기대값보다 크다면, 값이 높은 군집들(high-values clusters)이 많은 정적인 공간자기상관을 가짐을 나타내며, 기대값보다 작으면 정적인 공간자기상관을 갖고는 있으나, 값이 낮은 군집들(low-values clusters)이 많은 경우를 말한다.

$$G = \frac{\sum_{i \neq j} w_{ij} Y_i Y_j}{\sum_{i \neq j} Y_i Y_j}$$

전역적 공간자기상관계수는 관심 있는 변수의 평균적인 공간 분포를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들 간에 유사성 또는 이질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한 방법이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계수이다.

이러한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계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래의 식에 제시된 바와 같이 Moran의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계수 I_i 이다.

$$I_i = \sum_{j=1}^N w_{ij}^{std} \left(\frac{y_i - \bar{y}}{\sigma_y} \right) \left(\frac{y_j - \bar{y}}{\sigma_y}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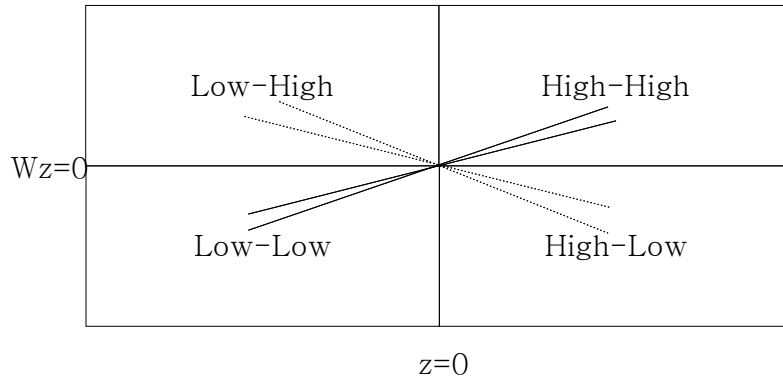
위의 식에서 σ_y 는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 Y 의 표준편차이며, 특히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전역적 공간자기상관계수와 달리 행-정규화 공간가중행렬(row-normalized spatial weights matrix)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만약 지역 r_i 의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계수가 기댓값 보다 크다면 $[I_i > E(I_i)]$, 이것은 지역 r_i 가 변수 Y 에 대해 r_i 와 유사한 지역들로 둘러싸여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경우, 정적 자기상관(positive autocorrelation) 관계에 있다고 하며, 만약 $(y - \bar{y}) > 0$ 이면, r_i 를 핫스팟(hot spot)이라고 하며, 반대로 $(y - \bar{y}) < 0$ 이면, r_i 를 콜드스팟(cold spot)이라고 한다. 반면, 지역 r_i 의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계수가 기댓값 보다 작다면 $[I_i < E(I_i)]$, 이것은 지역 r_i 가 변수 Y 에 대해 r_i 와 다른 지역들로 둘러싸여 있음을 나타내며, 부적 공간자기상관(negative spatial autocorrelation) 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공간자기상관관계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Moran I 에 대한 산포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제시된 Moran I 공식은 아래와 같이 선형회귀모형의 회귀계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I = \frac{\sum_i^n \sum_j^n w_{ij} (y_i - \bar{y})(y_j - \bar{y})}{\sum_i^n (y_i - \bar{y})^2}$$

위의 식에서 $\sum_j^n w_{ij} (y_i - \bar{y})$ 는 지역 i 에 대한 공간시차(spatial lag)를 나타내는데, 실제로 I 값은 이러한 공간시차를 종속변수로 두고 지역 i 의 값을 독립변수로 했을 때 산출되는 선형회귀식의 회귀계수값과 동일하다. 따라서 I 의 값이 아래의 그림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회귀계수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공간자기상관관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울기에 따라 그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6】 Moran I 산포도의 해석

(2) 공간가중 피어슨 상관계수 및 공간가중회귀 분석

산출된 종합지수와 각 영역별 지수와의 연관성, 그리고 종합지수에 대한 각 영역별 지수의 영향력이 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간가중 피어슨 상관계수 (Geographically Weighte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이하 GWPC)와 공간가중회귀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이하 GWR)의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기존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평균적이고 전역적인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면, GWPC는 지역적 또는 국지적 차원에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요약통계량이다. GWPC의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GWPC_i = \frac{\sum_{j=1}^n w_{ij}(x_j - \bar{x}_i)(y_j - \bar{y}_i)}{\sqrt{\sum_{j=1}^n w_{ij}(x_j - \bar{x}_i)^2} \sqrt{\sum_{j=1}^n w_{ij}(y_j - \bar{y}_i)^2}}$$

위의 식에서 $GWPC_i$ 는 인접지역들의 변수 x 와 변수 y 값들을 가중시켜 지역 i 에서 변수 x 와 변수 y 에 대한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w_{ij} 는 커널함수(kernel function)를 따르는 공간가중행렬을 말한다(Fotheringham et al., 2002).

다음으로 GWR은 공간상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자료들에 대해 서로 다른 회귀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비정상성(non-stationarity)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다(김진희, 박일섭, 정진혁, 2011). 전통적 회귀분석은 공간적으로 안정된(stationary), 즉 지역의 위치 또는 인접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 독립변수의 효과가 연구대상 지역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GWR은 회귀계수를 상수가 아닌 위치의 함수로 간주하여 회귀계수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공간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도록 모형화한 것이다(조동기, 2009). GWR의 기본 모형식은 아래와 같다(Gollini et al., 2014).

$$y_i = \beta_{i0} + \sum_{k=1}^m \beta_{ik} x_{ik} + \epsilon_i$$

위의 식에서 y_i 는 지역 i 의 종속변수를 말하며, x_{ik} 는 지역 i 에서 k 번째 독립변수의 값, m 은 독립변수의 수, β_{i0} 는 지역 i 의 상수, β_{ik} 는 지역 i 의 k 번째 독립변수의 국지적 회귀계수, ϵ_i 는 지역 i 의 확률오차를 나타낸다.

자료가 공간적으로 가중됨에 따라 지역 i 와 멀리 있는 지역의 값들에 비해 가까운 지역들의 값들이 국지적 회귀계수를 추정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를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hat{\beta}_i = (X^\top W(u_i, v_i) X)^{-1} X^\top W(u_i, v_i) y$$

여기서 X 는 상수가 1번째 열인 독립변수 행렬이고, y 는 독립변수 벡터를 나타낸다. 그리고 $\hat{\beta}_i = (\beta_{i0}, \dots, \beta_{im})^\top$ 는 상수를 포함한 $m+1$ 개의 국지적 회귀계수이며, W_i 는 회귀점 i 의 관찰 값이 지역 (u_i, v_i) 에서 공간적으로 가중되었음을 나타내는 대각행렬이다. 이러한 공간가중행렬은 공간거리 측정방식, 커널함수 및 대역폭(bandwidth)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우시안 커널함수(Gaussian kernel function)를 이용하되, 분석에 이용되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따라서 CV 점수(cross-validation score)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커널 대역폭을 찾은 후 고정 대역폭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Ⅲ 장

지역사회 정성진단을 위한 정책추진 여건분석의 이론적 근거

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시행계획
2.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정책추진의
기본 요건
3.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및 환경
정책모니터링

제 III 장

지역사회 정성진단을 위한 정책추진 여건분석의 이론적 근거*

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시행계획

1)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근거

국가정책으로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근거, 5년 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며, 동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서 협조를 동법 15조에 근거하여 요청할 수 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중앙정부)	청소년정책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1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15조 (계획수립의 협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기본법 제1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1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6조 - 청소년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III -1】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계획의 구체성 측면에서 구분하여 볼 때, 중앙정부가 매 5년 마다 수립하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정책시행계획의 기준이 되며, 정책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 집행계획, 세부계획 또는 상세계획이라 할 수 있다(김재호, 2007, p.55).

표 III-1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75개 세부추진과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75개 세부과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역량지수 개발 •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 활동 강화 • 청소년희망카드 도입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 •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 •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 남북한청소년교류기회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이해증진 •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체계 강화 • 청소년 언어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미디어매체활용 참여확대 •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및 모니터링제 강화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 청소년 체력 강화 •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 •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체계구축을 통한 건강지원강화 •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적절개입 프로그램 개발·운영 •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 교육 강화 • 건전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 청소년 연연인 기본권 보호 강화 • 미디어컨텐츠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권리보호 강화 •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문화 조서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 • 저소득·장애·농산어촌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 •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강화 • 정서적·행동적장애청소년 치료재활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 후 자립 기능 강화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 •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지원 • 소년원 출원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강화 • 학대피해아동·청소년 예방 및 보호지원 확대 •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자립역량 강화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 •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 청소년(청년) 창업, 취업지원 • 청소년(청년) 주거지원 •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기반 직업훈련 도입 등 직업체험 환경 여건 강화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중심의 지역사회 이동 및 청소년종합안전망구축 •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 지표 개발 및 선정 • 도시계획 수립 시 유해업소 최소화 확대 추진 •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 아동 및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 비행 청소년 예방적·회복적 사법제도 구축 •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및 홍보강화 • 유해환경 접촉 피해청소년치료·재활지원 및 선도·보호강화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3.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14.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 위상 및 성과 평가 체계 강화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 강화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전담과 설치 및 청소년전담 공무원제 추진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 청소년정책 재정 기반 확충 • 정책분석·평가에 기반한 정책수립

2014년 현재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의 5대 영역(①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②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③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④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⑤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 15대 중점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립된 17개 시·도의 시행계획이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 여성가족소위에 계류 중인 「청소년기본법」 개정 법률안(2014.08.25. 제출, 의안번호 11464) 제14조에는 이제까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정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였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관부처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제3항)하며, 분석·평가의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제4항)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의 추진이 정책 분석 및 평가에 근거한, 즉 증거에 기반한 정책추진이 강화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류체계의 작동으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17개 시·도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관련 정책 현황

지역사회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15대 중점과제의 하나에 해당된다. 기본계획 상, 이 정책과제의 하위에 구성된 세부추진과제는 ①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②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③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 제고로,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으로서 미시적 환경체계와 물리적 환경체계를 넘어 거시적 매체환경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의 시행계획으로 수립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관련된 정책 사업의 수는 총 126개 사업이고, 지역별로는 경북과 제주가 12개, 강원 10개, 대구, 경북, 충남이 9개 순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유사사업을 분리하였는지 또는 묶어 제시하였는지 등에 따른 차이가 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으며, 관련 사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 III-2

2014년 17개 시·도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단위 : 건)

지자체	사업수	주요 사업 내용	
서울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날,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 지원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
부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운동,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및 지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대구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통합금지구역 순찰활동 청소년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태조사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학교폭력근절 추진단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움터 지킴이 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청소년 선도·보호대책 추진평가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
인천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제12회 청소년금연건강 마라톤 대회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치료 사업
광주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가족 및 위기청소년 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관찰청소년 멘토프로그램,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청소년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대전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
울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활동 지원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
세종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 가해·피해청소년과 부모대상 상담 및 교육 강화 폭력 피해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예방 상시 상담체계 마련 생애주기별로 미디어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유아·아동·청소년 인터넷 생활지도 위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운영 강화
경기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소방안전체험교육 및 소방경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및 지원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강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CYS-Net) 청소년 성문화 센터 운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예방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및 광역협의회 운영 청소년 인터넷 쉼터 캠프 운영
충북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협의회 운영 청소년 성가치관교육시설 운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진단, 치료 등 지원
충남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협의회 운영 성범죄 등으로 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행청소년예방적·회복적사법제도구축 청소년흡연·음주예방및홍보강화 유해환경 접촉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지원 및 선도·보호 강화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
전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전남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공감을 위한 부모-자녀 한마음 교육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학교폭력 등 청소년 폭력 추방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청소년 성 문화센터 운영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경북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부모교육 운영 청소년 성문화센터, 찾아가는 성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범도민가정회복운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활성화 OUT Reach 사업 인터넷중독 예방
경남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가정 세대 상담지원사업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지원 및 연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사업
제주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제주사랑 야영대회 지원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 청소년 사이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합계	126		

이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질적인 측면인데,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으로 제시된 정책 사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청소년보호법 상의 유해환경과 청소년의 생활에서 보호와 개입이 필요한 영역의 환경으로만 한정되어 있음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 인터넷 중독 예방,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통합 지원체계(CYS-Net)운영, 문화센터운영 사업을 중심으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중점과제 하위의 15개 세부추진과제들 상당수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청소년 환경과 관련한 정책 수립이 보호적 시각과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권고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특히 도시나 마을과 같은 거주지 중심의 지역사회 환경 조성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중심적이고 권리기반의 통합적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정책적 접근 방식에서의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중앙 및 국가 단위에서의 청소년 환경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방향과 접근이 청소년을 중심에 위치시키고 이들의 권리 기반적 그리고 정책영역 및 분야의 통합적 관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정책추진의 기본 요건

1) 정책추진의 기본방향 측면: 청소년 중심과 참여

국제연합(UN)과 유니세프(UNICEF)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각국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항은 모든 과정이 ‘청소년 중심적 접근(youth-centered approaches)’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UNICEF, 2013a).

이는 청소년 삶의 다양한 미시적·거시적 환경 체계의 측면들이 청소년 스스로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시적으로 청소년정책이 존재하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환경 하에서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이 쉽게 조성되지 않는 것은 정책수립과 추진의 기본 방향이 청소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성인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구 선진국가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를 살펴보면, 작은 정책의 추진에서부터 청소년 중심의 접근과 청소년 참여가 전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노르웨이(Norway)의 ‘아이들의 풍경(Children’s Ladscape)’이라는 웹사이트 구축과정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운동장과 기관 등 지역의 공간을 수정하기에 앞서 아이디어 공유 공간으로서 ‘아이들의 풍경(Children’s Ladscape)’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웹사이트를 계획하는 전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웹사이트 내용을 구성하였다. 현재 이 웹사이트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비롯한 타 국가에서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는데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http://childfriendlycities.org>, 2014.6.10. 검색).

청소년 중심 접근의 사례 1: 노르웨이 ‘아이들의 풍경(Children’s Ladscape)’ 웹사이트 구축

- 웹사이트 구축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이해에 초점을 맞춤
- 아동과 청소년들의 실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 기관 및 인근도시지역 수정 아이디어 제공
- 주요 이슈: 교육을 위한 건축(Architecture for Education), 친환경 학교(Green Schools), 야외 교육(Outdoor Education)

2002년 아동에 관한 UN 특별 세션에서는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이 개발과 관련한 아젠다(agenda)를 논의하는데 있어 아동·청소년을 반드시 그 중심에 두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정책, 법, 사업과 예산에 현실적으로 모두 반영되어야 하고, 그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된 바 있다(UNICEF, 2009). 이와 같이 청소년 중심의 기본 원칙이 강조되는 것은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의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청소년 권리보장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사회가 각국에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권고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중심 접근과 더불어 정책 추진의 중요한 기본 방향은 청소년 참여(children’s participation)이다(UNICEF, 2013a). 유니세프는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Children Friendly Cities) 구축에 필요한 기본 틀로서 아홉 가지의 기본 원칙(① 청소년의 참여, ② 청소년 친화적인 법체계, ③ 청소년 권리전략, ④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 ⑤ 청소년 영향평가, ⑥ 청소년관련 예산 확보, ⑦ 정기적인 청소년 실태보고, ⑧ 청소년 권리 알리기, ⑨ 청소년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을 발표(UNICEF, 2004)하였고, 여기에 한 가지(⑩ 청소년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이들 사항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선정의 10가지 원칙으로 알리고 있다(UNICEF, <http://www.unicef.or.kr>, 2014. 6. 9검색).

정책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여는 다른 어떠한 여건들보다도 청소년정책에서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청소년은 대상화되기 쉬우며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위원회 등 공식적인 참여 기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제안이 반영되는 통로가 있기는 하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별도의 청소년 참여의 기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2009년~2011년까지 3년 간 캐나다 오타와 주정부가 추진한 ‘오타와 청소년 친화적 커뮤니티 이니셔티브(OYFCI: Ottawa Youth Friendly Community Initiative)’에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의 도시에서 의미 있는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13세~19세의 오타와 지역 거주 청소년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재학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포커스 그룹 세션에서 활동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청소년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편의를 청소년 스스로가 정의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오타와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의 친화적인 공간과 서비스를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목적은 3개년 프로젝트의 결과를 토대로 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현재 오타와 주정부는 수립된 정책계획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여가 활동의 욕구에 정책적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복수의 접근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http://childfriendlycities.org>, 2014.6.10. 검색).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례1 : 캐나다 ‘오타와 청소년 친화적 커뮤니티 이니셔티브(OYFCI)’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2011년 3년 동안 오타와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 • 13~19세 청소년들이 본인의 학교와 지역사회에 포커스 그룹 세션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시민 참여의 기회를 가짐 • 세 가지 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의 관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편의를 스스로 정의 ② 오타와에서 아동·청소년의 친화적인 공간과 서비스를 식별 ③ 3개년 프로젝트의 결과를 중심으로 장기계획 수립

또 다른 사례로, 미국의 덴버시의 경우 2006년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지역사회 의 의사결정자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강화하며,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계획하였는데, 구상단계에서 부터 청소년을 참여위원으로 포함하였다(<http://childfriendlycities.org>, 2014.6.30. 검색).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례2 : 미국 ‘덴버시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성’
(Denver's Child & Youth Friendly City Initiative)**

- 2006년 6월 13일 아동 교육 부서와 콜로라도 청소년을 위한 자산(Assets for Colorado Youth, ACY),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구성 계획 시작
- 덴버시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성에 청소년을 참여위원으로 포함
- 목표
 - ①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도시에 의사결정자임을 보장
 - ② 덴버시의 사람들과 덴버시의 장소들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가치 강화
 - ③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장

2) 정책추진의 근거기반 측면: 법·제도

청소년 중심의 정책적 접근과 청소년 참여가 기본이 되는 정책추진의 방향의 설정에 이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법적 근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선정의 10가지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청소년의 참여’ 이외에 그 다음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사항은 청소년 친화적 법체계(A child friendly legal framework)이다. 또한 법체계와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청소년 권리 전략을 개발하고(③ 권리전략),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⑤ 영향평가)해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UNICEF, <http://www.unicef.or.kr>, 2014. 6. 9검색).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 친화적인 법체계는 비단 청소년 친화적 물리적 환경 공간 조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선정 원칙에서의 법체계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며 보호하는 관련 조례 또는 규정의 마련으로 포괄적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의 법령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법령들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조례의 상위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조례가 없더라도 청소년

친화적 법체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접근이 아닌, 청소년 친화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이들 법령들이 국제사회에서 기본 전제로 하는 청소년 권리 보장과 증진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근거 기반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모든 상위법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또는 인권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조례와 규정을 마련하기도 한다.

2000년 12월에 제정된 일본 가와사키시의 '아동권리에 관한 조례'는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일본 최초의 지역 조례이다. 가와사키시 조례 제정 사례는 준비과정에서 전문가위원회 뿐만 아니라 심의와 조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에 주민과 아이들이 수차례 개최된 회의와 협의에 참여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 조례는 지역의 청소년, 학교 및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프로그램,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관계, 그리고 공공 개발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http://childfriendlycities.org>, 2014.6.10. 검색).

청소년 친화적 법체계 마련 사례1 : 일본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가와사키시(Kawasaki City)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권리 조례 초안 관련 지역사회 시민, 학계와 공무원 등과 수많은 회의와 토론을 함 • '아동권리조례전문가위원회'와 '아동권리조례심의조정팀'이 2년 동안 200회 이상의 아동 및 주민과 회의하고 협의를 통해 제정됨 • 조례는 크게 아동의 권리와 이념에 대한 정의와 아동권리보장의 메카니즘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구성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와사키시의 조례와 유사한 청소년인권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2012년 11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가 바로 그 사례이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지원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시의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4.6.12. 검색). 조례에는 청소년의 생활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성장환경에 관한 권리(제8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제11조), 놀이 및 쉼 권리(제17조),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간의 확보와 관리(제37조) 등 청소년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친화적 법체계 마련 사례2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인권조례’

- 대한민국 헌법,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실현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추진위원회에 어린이·청소년 위원이 포함됨
- 인권 조례 추진 과정에서 인권조례 추진위원회에 속한 어린이·청소년들 외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 기본적인 아동의 인권 및 권리에 대한 내용과 일반아동 외 취약계층(빈곤, 장애,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인권 교육 및 종합계획 등도 수립 명시

3) 정책추진의 인프라 측면: 조직 및 예산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기반의 마련과 더불어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인력, 그리고 예산 등이 요구된다.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선정 기준에서는 청소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④ 전담기구)하도록 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를 분석(⑥ 예산확보)하도록 권고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책 추진의 정부조직으로서 행정조직, 정책서비스 전달을 위한 정책사업 기관,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위원회 등 추진체계와 필요 예산을 갖는다. 우리나라 경우, 청소년정책의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담당 부서, 중앙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역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상담복지지원센터 등의 정책서비스 전달 기관의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된 청소년정책예산을 확보하여 정책 추진에 사용한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도 우리의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2000년에 설립된 호주 퀸즐랜드 주의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보호자를 위한 위원회(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Child Guardian: CCYPCG)’를 들 수 있다.

2000년에 설립된 호주 퀸즐랜드 주의 위원회는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국가차원의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의 관리와 아동·청소년의 특정문제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 법·정책 등의 검토와 모니터링,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의 고용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체계 사례1 : 호주 퀸즐랜드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보호자를 위한 위원회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Child Guardian: CCYPC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위원회는 퀸즐랜드 18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의 웰빙과 권리보호를 위해 2000년에 설립 •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관리, 어린이와 청소년과 관련된 특정문제를 관찰하고 조언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설립, 아동과 청소년의 서비스 체계와 관련된 법률·정책·사례의 검토 및 모니터링, 아동 관련 고용 심사 등의 역할 수행

같은 해 구성된 런던의 ‘아동·청소년권리위원’은 유니세프가 런던을 아동·청소년 친화적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구성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권리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위원회는 시장과 시의회 대표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아동·청소년자문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되고, 아동·청소년관련 협회 등의 보조금 및 모금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http://childfriendlycities.org>, 2014.6.10. 검색).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체계 사례2 : 영국 런던 아동 권리 위원(The London Children's Right Commissio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3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청소년 권리 향상을 목적으로 런던을 아동·청소년 친화적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협력 과정에서 구성됨 • 시장과 시의회 및 관련 영역(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건강 등)의 대표, 아동·청소년 자문위원 • 영국아동권리연합(CRAE: Children's Right Alliance for England), Save the Children(UK), the NSPCC (영국아동학대예방협회), The Children's Society, The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Bridge House Estate Trust Fund에서의 보조금과 공동 모금을 통해 재정 지원 받음

영국의 사례와 같은 위원회 형태와는 달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서 독일의 뮌헨에서는 ‘뮌헨 어린이 사무소’를 설립하였다. 뮌헨 시는 UN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정책시행의 중심에 청소년의 웰빙을 위치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시 행정의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집중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추진 체계 및 조직으로서 어린이 사무소를 설립하였다(<http://childfriendlycities.org>, 2014.6.30. 검색).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체계 사례3 : 독일 '뮌헨 어린이 사무소'(Muenchen - Stadt fuer Kinder)

- 뮌헨은 독일에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서명하고, 공식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로의 이행을 시작한 첫 번째 대도시임. 뮌헨에서는 젊은 시민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어린이와 청소년 또한 그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정에 지원하고자 함
- 뮌헨 어린이 사무소(The Munich Kinderbüro) : 어린이와 청소년에 보다 더 집중하고 어린이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됨
- 독일의 다른 도시들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뮌헨은 처음으로 행정 프로그램의 핵심에 어린이의 웰빙을 그 중심에 두고, 어린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경청함

이상과 같은 행정조직 체계를 비롯한 위원회는 청소년 친화적 환경, 특히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며, 이 체계에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전달 주체의 개입과 그들 간의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황옥경, 김영지, 2011).

정책 추진체계에 더하여 예산의 확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정책의 계획과 시행의 수준과 적용 범위의 규모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에 따라 좌우될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예산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자원의 배분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예산의 규모 또한 정부 총예산의 1% 남짓(김지경, 정윤미, 2013)으로 매우 작으며, 그나마 작은 규모의 예산도 전년도 대비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2013년 대비 2014년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편성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 및 인권증진과 관련한 예산은 동결되었고, 청소년참여활동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인권 및 시민권적 권리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예산들은 축소되거나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참여연대, 2013).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예산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의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지경, 정윤미, 2014). 이와 같은 현실은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3.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및 환경 정책모니터링

1) 정책모니터링의 개념 및 의의

정책모니터링(Policy Monitoring)은 정책 평가에 있어, 정책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활동의 하나로 설명(정정길, 성규탁, 이장, 이윤식, 2006; 노화준, 2008; 한성수, 윤문구, 정병국, 2009; 홍형득, 조은설, 2010; 장명림 외, 2010)되기도 하고, 평가 활동과는 별개로 정책이 개개의 목표와 관련해 특정 시점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실 기술의 행위로 설명(박홍운, 2012)되기도 한다. 또 과정평가와는 다른 다양한 평가 모형 중 하나⁷⁾로 정책 모니터링을 설명(Chelimsky, 1985)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의 이루어지는 정책모니터링이 2014년 17개 시·도 청소년정책시행계획의 내용을 분석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정책, 그 중에서도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영역의 정책 사업들을 해당 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관찰하고 개선의 의견을 제안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활동은 정책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활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책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기법의 하나로서의 정책모니터링은 정책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초기 설계와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적절한 집단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계획된 대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한성수 외, 2009). 따라서 정책집행 과정을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다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즉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의 문제, 정책 대상자들의 인식 및 시민참여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통해 단편적인 판단과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홍형득, 조은설, 2010).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가를 점검한데 따른 결과는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들을 보다 더 훌륭히 성취하기 위한 정책 조정에 이용된다(이양재, 김선웅, 1997, p.10). 예컨대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정책의 정책주체이자 당사자이므로, 이들은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았을

7) Chelimsky는 평가모형을 6가지로 분류: ① 착수전평가(Front-end analysis), ②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 ③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④ 효과성평가(effective or impact evaluation), ⑤ 정책 모니터링(program or problem monitoring), ⑥ 평가종합(meta-evaluation or evaluation synthesis)

때,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자원과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달되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할 것이고, 그 평가 결과는 이듬해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목표를 보다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과 방법의 궤도 수정에 이용될 수 있다.

이처럼 정책모니터링은 정책 시행을 통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얻고 있는지(책무성),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영향평가), 그리고 해당 정책을 지속시키거나 확대시킬 것인지 또는 중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수단(정책 효용성 점검)이 될 수 있다(황성원, 김용훈, 2004; 정정길, 성규탁, 이장, 이윤식, 2006; 장명림, 이재연, 김영옥, 안동현, 박수연, 김홍희, 2007; 노화준, 2008).

정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의 책무성은 네 가지, 즉 적용범위, 서비스 전달, 재무, 법적 책무성으로 구분된다(황성원, 김용훈, 2004; 장명림 외, 2007; 노화준, 2008; 한성수 외, 2009).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재무적 책무성(fiscal accountability)과 정책 추진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주요 이슈로 하는 법적 책무성(legal accountability)은 정책모니터링 보다는 감사(audit)의 영역에 해당된다(노화준, 2008).

그 외 적용범위 책무성(coverage accountability)에서는 정책대상의 수와 성격은 어떠한지, 정책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서비스를 받지 않아야 될 대상자는 없는지, 그리고 도중에 탈락한 이들은 얼마나 되는지가 주요 문제로 다루어 지고, 서비스 전달의 책무성(service delivery accountability)에서는 적절한 양의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지, 전달하기로 되어 있던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지, 유자격 담당자들에 의해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노화준, 2008, p.149~150). 이들 두 가지 책무성은 정책모니터링의 주된 기능이 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을 통해 추진하는 17개 시·도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시행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적용범위 책무성과 서비스 전달의 책무성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 정책모니터링 방법 및 기준

정책모니터링은 그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집행모니터링과 결과모니터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홍윤, 2012, p.148~149).

집행모니터링은 정부 개입(government intervention) 전에 문제와 상황을 기술하고, 활동과 중간 결과에 대한 벤치마크 및 자료 수집을 하며, 투입한 양과 산출된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등 효과성 문제보다는 행정, 집행, 관리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결과모니터링은 정부 개입 전의 문제와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 기준 또는 기준선 (benchmark or baseline)을 제시하고, 결과 평가를 위한 지표를 구성하여 산출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결과에 기여했는지, 기여했다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제시하며, 정책의 이해관계자 간 변화에 대한 인지수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 더 많은 질적·양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고한다(노화준, 2008; 박홍윤, 2012).

집행모니터링	vs	결과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개입 전의 문제와 상황 기술 ◦ 활동 중간 결과에 대한 벤치마크 및 자료 수집 ◦ 행정, 집행, 관리 문제에 대한 정보 보고 	v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개입 전의 문제와 상황 기술을 위한 기준 마련 ◦ 결과 평가 지표의 구성 및 기여도 평가 ◦ 정책이해관계자 간 변화에 대한 인지수준에 관심

【그림 III-2】 정책모니터링 유형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비교(1)

이와 유사하게 정책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과정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결과에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 모니터링의 방법을 프로그램모니터링과 성과모니터링 방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프로그램모니터링은 처음에 기획된 의도대로 정책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인데, 집행에 소요된 자원의 투입과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활동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당초 설계되었던 것과 비교함으로써, 정책 프로그램이 처음 의도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반면, 성과모니터링은 정책 프로그램의 집행이 목표했던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투입과 성과를 측정하고, 그 정책 프로그램의 성과를 설계되었거나 기대했던 성과와 비교하여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원인을 찾아 시정함으로써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황성원, 김용훈, 2004; 한성수 외, 2009; 이익섭, 신은경, 이승기, 이준일, 유동철, 2009).

프로그램모니터링	vs	성과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 자원의 투입과 실제 프로그램 활동 측정 ◦ 측정 결과와 설계 내용과 비교 ◦ 초기 의도대로 충실하게 집행 되었는지가 관심 	v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과 성과 측정 ◦ 성과와 초기 설계와 비교, 문제 발생 시 원인 시정 ◦ 정책집행이 목표했던 결과를 가져왔는가가 관심

【그림 III-3】 정책모니터링 유형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비교(2)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이, 좋은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최소의 기준과 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 우선, 좋은 모니터링은 제대로 된 설계에 의해 결정되고, 결과와 함께 후속 조치에 초점을 두며, 그 후속 조치에 관심을 가지는 관련 정책의 관리자 및 주요 의사 결정자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현장을 방문해야한다. 또한 명확한 기준과 지표에 의해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더 잘 평가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지속적이어야 한다(UNDP, 2002; 박홍운, 2012, p.15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좋은 모니터링의 최소 기준과 원칙은 본 연구의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에서 준수되도록 하였으며, 2년차 연구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후속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3) 모니터링자료의 분석 방법

정책모니터링의 활동 내용은 모니터링 방법에 따라 정량적 또는 정성적 자료로 수집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 및 주관 지표를 통해 분석되는 양적 연구방법의 편향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균형 있는 지역사회 진단 및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정책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정성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17개 시·도 지역사회 정책모니터링단은 3가지(① 청소년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제안, ② 17개 시·도 정책시행계획모니터링, ③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지표에 관한 정성 평가)⁸⁾ 로 구성된 모니터링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활동에 따라 개인 단위에서 작성된 모니터링 자료와 그룹 단위의 모니터링 자료가 수집되었다.

지역사회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정책에 대해 학습하고 알아 가는데 초점을 둔다. 모니터링단 청소년들이 현장 방문 및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 후 함께 논의한 내용이 활동기록지 형식으로 자료화 되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정책화 되었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생활공감정책 제안 형식으로 기록하여 자료화 되었다. 또한 설문조사로 수집되는 주관적 지표에 관하여 정성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한 자료가 정성적 분석 자료로 수집되었다.

이들 수집된 자료 중 정책시행계획모니터링 활동기록지와 생활공감정책 자료는 정리하여 지역사회 정책추진 여건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지역사회 환경 지표에 관한

8) 2014년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보고서의 “제6장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지역사회 환경 및 정책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참조

주관적 의견 기록지는 질적 분석 자료로 정리하고 구조화 한 후, 질적자료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핵심 단어들을 도출하고 시각화하였다.

질적자료 분석 방법으로서의 키워드 분석은 자료의 어휘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을 수행하여 어떤 개념들이 많이 제시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단순한 기법이다. 그러나 빈도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분석된 결과 자료를 설명하는 것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빈도 분석 결과의 제시 방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시·도의 지역사회 환경 지표에 관한 정성 평가 결과자료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이 각 영역별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의미 있는 핵심 단어들을 도출하였다.

제2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기초분석

제 IV 장

지표 개발 · 측정 및 수집 자료의 기초분석

1. 지표의 작성 및 선정
2. 지표자료의 수집
3. 자료수집의 결과

제 IV 장

지표 개발·측정 및 수집 자료의 기초분석*

1. 지표의 작성 및 선정

1) 지표작성의 과정

(1) 전 과정

본 연구의 지표의 작성은 제2장에서 논의한 작성절차에 따라, 지역사회와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 수준 진단이라는 지표의 활용 목적 하에 1차 년도에 개발된 157개 지표를 검토 및 수정·보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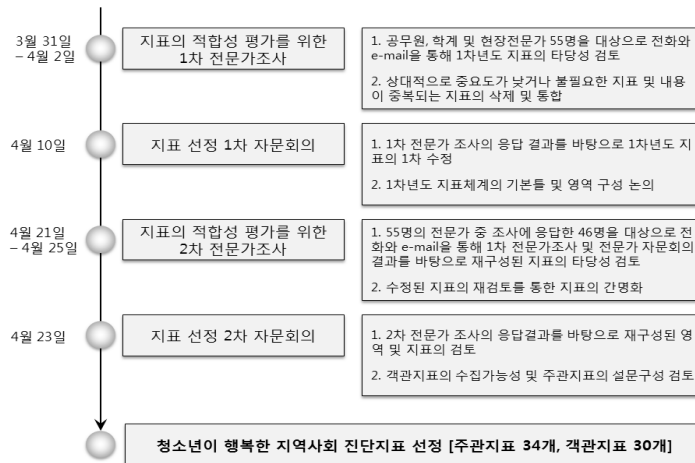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1차년도(2013년) 지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지표의 적합도 및 중요도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두 차례의 적합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견조사 종료 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기존 지표와의 연속성, 간명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표 타당도의 재점검 및 지표 체계 구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1차 전문가 조사는 2014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5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중 4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전문가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 전문가의 선정은 연구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차년도 연구 시, 지표 타당도 평가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100명⁹⁾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학계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옥태(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수), 하현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 연구원)가 집필하였음.

9) 1차년도 연구에서는 전문가 선정 시 학계 전문가는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를,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청소년관련 시설 종사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 한지를, 중·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우수 교사로 표창 받은 경험과 출간한 책의 내용을 고려하였다.

전문가 16명, 청소년정책 관련 부처 공무원(중앙·지방 포함) 12명, 청소년관련 시설 종사자 10명, 중·고등학교 교사 8명을 포함하였다. 조사는 사전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구한 후, e-mail로 조사지를 전달하고 회신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문가 의견조사 후 2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가 이루어졌다.



【그림 IV-1】 지표 선정 과정

1차 전문가 조사는 1차년도 연구의 157개 지표 각각에 대해 적합도를 평가(1점 매우 부적합 ~ 5점 매우 적합)하여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중복지표들을 정리하였으며, 각 영역별 필수 지표들로 간명화 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1차 자문회의는 1차 전문가조사의 적합도 평가결과 타당도가 높은 지표를 재검토함으로써 기존 지표를 간명화 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진단지표의 기본 틀 및 영역 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시에 기존 지표와의 연속성, 국제비교 가능성, 관계영역 강화 등을 고려한 신규 지표의 작성을 논의하였다.

2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적합도 평가 결과 및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반영한 지표(경제영역 7개, 건강영역 11개, 안전영역 10개, 교육영역 6개, 관계영역 7개, 활동영역 13개, 참여영역 7개, 개인특성 7개)들에 대해 적합도를 평가(1점 매우 부적합 ~ 5점 매우 적합)하였고, 이를 통해 1차 전문가 조사와 1차 자문회의를 거쳐 수정된 지표들에 대해 재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차 자문회의는 이전의 지표선정 과정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수정한 지표의 구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주관적 지표의 설문 구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주관적 지표는 CFCI(Child Friendly City Index)의 문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앞서 논의한 바¹⁰⁾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친화환경 측정을 위해서는 지표의 내용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관적 지표에 대해서는 기존 지표와의 연속성과 지표 항목에 적합한 설문 구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학령 및 응답자를 고려한 질문 구성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선정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각 단계에서 제외된 지표는 'X' 표시하였고, 계속 유지·진행되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표 IV-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선정과정 요약

영역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1차 자문 회의	2차 적합도 평가	2차 자문 회의	최종 지표 반영	최종지표명	성격
경제	①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	유지	→	수정	→	O	가정경제 만족도	주관
	② 한부모 가정 비율	유지	→	유지	이동	X		주관
	③ 실업률	수정	→	유지	→	X		주관
	④ 학교에서 수업에 필요한 수업자료와 보충 자료를 제공받는지 여부	X				X		주관
	⑤ 무상급식지원 예산	X				X		객관
	⑥ 방과 후 교육 지원 예산	X				X		객관
	⑦ 아동 빈곤율	수정	→	유지	→	O	지니계수	객관
	⑧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X	수정	X		X		객관
	⑨ 근로청소년비율	X				X		객관
	⑩ 대상별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유지	X			X		객관
	⑪ 총인구대비 청소년 인구 구성비	X				X		객관
	⑫ 청소년 1인당 청소년 예산	유지	X			X		객관
	⑬ 청소년 담당 행정공무원 1인당 청소년 수	X				X		객관
	⑭ 청소년 담당 공무원의 평균 청소년 담당 근속연수	X				X		객관
지역 경제 만족도	-	추가	수정	→	신규	지역경제수준	객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신규	사회복지지출 비율	객관	
통학소요시간					신규	통학소요시간	객관	
경제활동 참가율					신규	경제활동 참가율	객관	

10) CFCI는 개발도상국가 아동·청소년의 주거 및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 아동·청소년의 환경을 측정하기에는 지표의 측정내용이 다소 적합하지 않다.

영역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1차 자문 회의	2차 적합도 평가	2차 자문 회의	최종 지표 반영	최종지표명	성격
건강	① 주관적 건강만족도	유지	→	수정	→	0	주관적 건강인지율	주관
	②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정도	수정	→	수정	→	0	스트레스 인지율	주관
	③ 집 주변의 화장실 청결 정도	X				X		주관
	④ 집 주변에 쓰레기 더미와 고여 있는 더러운 물이 있는지 여부	X				X		주관
	⑤ 각종 약물(마약, 본드, 대마초 등) 이용 여부	유지	→	수정	→	0	고카페인 이용량	주관
	⑥ 일주일간 평균 운동시간	유지	→	수정	→	0	평균운동시간	객관
	⑦ 주중 평균 수면 시간	유지	→	유지	→	0	평균수면시간	객관
	⑧ 정상체중률	X				X		객관
	⑨ 일주일간 아침식사 결식 비율	수정	→	수정	→	0	아침식사율	주관
	⑩ 청소년의 흡연율	유지	→	유지	→	0	청소년 흡연율	객관
	⑪ 청소년의 음주율	유지	X	-	추가	0	청소년 음주율	객관
	⑫ 학교 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	유지	X			X		주관
	⑬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만족도	X				X		주관
	⑭ 학교 식수대에 대한 만족도	X				X		주관
	⑮ 학교 냉난방이 잘 되는지 여부	X				X		주관
	⑯ 학교에서 안전한 성관계의 중요성을 배우는지 여부	X				X		주관
	⑰ 학교 화장실이 깨끗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X				X		주관
	⑱ 연간 개인 위생, 흡연, 음주 교육경험률	X				X		객관
	⑲ 성교육 경험률	X				X		객관
	⑳ 동네에서 피임기구(콘돔, 피임약 등)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X				X		주관
	㉑ 필요시 상담센터에서 각종 질병(빈혈, 감기, 우울증, 에이즈 등)에 관한 정보 및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	X				X		주관
	㉒ 동네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안전한 정도	X				X		주관
	㉓ 집 근처공기가 담배연기 악취가 나지 않는 정도	X				X		주관
	㉔ 동네 환경이 깨끗하며 동네에서 놀이를 해도 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고 인지하는 정도	보류	X			X		주관
	㉕ 청소년 자살률	유지	→	이동	→	0	청소년 자살률(참여영역)	객관
	㉖ 청소년 사망률	유지	X			X		객관
	㉗ 신체 및 정신건강(건강검진, 흡연, 음주, 성교육, 각종 중독, 우울, 자살 등 정서문제) 관련 상담센터 수	유지	→	유지	X	X		객관
	㉘ 신체 및 정신건강(건강검진, 흡연, 음주, 성교육, 각종 중독, 우울, 자살 등 정서문제) 관련 상담센터 이용률	X				X		객관
	㉙ 청소년 발달관련 부모교육 및 상담센터 수	X				X		객관

영역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1차 자문 회의	2차 적합도 평가	2차 자문 회의	최종 지표 반영	최종지표명	성격
	㉔ 청소년 발달관련 부모교육 및 상담센터 이용률	X				X		객관
	㉕ 응급의료시설의 수	X				X		객관
	㉖ 응급의료시설 이용률	X				X		객관
	과체중(키, 몸무게) 여부	-	추가 수정	-		신규	BMI	객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률	-	추가 수정	-		신규	미디어 중독률	객관
안전	① 혼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수정	통합	유지	-	0	지역사회시설안전도(통합)	주관
	② 가정 내 사고(화재, 가스누출 등)로부터 안전한 정도	X				X		주관
	③ 불량주택비율	X				X		객관
	④ 학대, 방임 발생률	유지	-	유지	수정	0	아동 학대 피해 경험률	객관
	⑤ 학교에서 실제적 체벌을 가하지 않는지 여부	X				X		주관
	⑥ 학교 학생들이 피부색, 종교, 문화에 상관없이 존중받는 정도	유지	-	이동	-	0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참여영역)	주관
	⑦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하는 정도	X				X		주관
	⑧ 학교의 건물이나 교실, 화장실, 복도, 책상, 걸상 등 학교의 시설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수정	-	유지	-	0	학교시설 안전도	주관
	⑨ 혼자 학교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유지	통합	유지	-	0	지역사회시설안전도(통합)	주관
	⑩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유지	통합	유지	-	0	유해환경(통합)	주관
	⑪ 학교폭력 발생률	유지	-	유지	-	0	학교폭력 발생률	객관
	⑫ 배움터지킴이 운영단 수	X				X		객관
	⑬ 고화질 CCTV 설치 비율	X				X		객관
	⑭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대 받거나 구타를 당할 때 동네 이웃 어른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X				X		주관
	⑮ 종교, 인종, 문화에 상관없이 이웃들로부터 존중 받는 정도	X				X		주관
	⑯ 내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	X				X		주관
	⑰ 동네 나쁜 어른이나 동네 나쁜 형들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정도	유지	통합	유지	-	0	범죄 안전도(통합)	주관
	⑱ 혼자 집 밖에 나가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유지	통합	유지	-	0	지역사회시설안전도(통합)	주관
	⑲ 집 밖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동네 어른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X				X		주관
	⑳ 동네의 도로와 보도, 신호등, 건널목 등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유지	통합	유지	-	0	지역사회시설안전도(통합)	주관
	㉑ 만약 위험에 처해있을 때, 그 상황을 알리고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아는 정도	유지	수정	유지	-	0	위기상황 대처능력	주관
	㉒ 동네 어른들이 청소년을 위해 동네 환경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X				X		주관

영역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1차 자문 회의	2차 적합도 평가	2차 자문 회의	최종 지표 반영	최종지표명	성격
	㉓ 동네가 각종 유해환경(유해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유지	유지	수정	→	0	유해환경(통합)	객관
	㉔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기에 안전한 정도	X				X		주관
	㉕ 동네를 밤에 걸어 다녀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유지	통합	유지	→	0	범죄 안전도(통합)	주관
	㉖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수	X				X		객관
	㉗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단속 실적	X				X		객관
	㉘ 청소년 교통사고 발생률	X	유지	0		0	청소년 도로사고율	객관
	㉙ 청소년 성폭행피해 발생률	유지	X			0	청소년 범죄 피해율(통합)	객관
	㉚ 청소년 성매매 발생률	유지	X			0	청소년 범죄 피해율(통합)	객관
	㉛ 청소년 범죄율	유지	→	유지	→	0	청소년 범죄율	객관
	㉜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률	보류	X			X		객관
	㉝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이용 건수	X				X		객관
	㉞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수	X				X		객관
	청소년 안전사고사망율					신규	청소년 안전사고사망율	객관
	교육	① 책 보유비율(200권 이상)	X				X	
② 매체(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망 등) 활용정도		X				X		주관
③ 매체(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망 등) 보유 여부		이동	X			X		객관
④ 교육비(사교육비) 지출비용		보류	X	-	수정	0	사교육비 지출액	객관
⑤ 학교의 전문적인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여부		유지	→	수정	→	0	직업교육 훈련기회	주관
⑥ 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수정	→	유지	→	0	교과과정 만족도	주관
⑦ 장애 청소년 취학률		X				X		객관
⑧ 학업중도 탈락률		유지	→	수정	→	0	학교중단율	객관
⑨ 학교급당 학생 수		유지	→	유지	→	0	학교급당 학생수	객관
⑩ 교사 1인당 학생 비율		유지	X			X		객관
⑪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수		X				X		객관
⑫ 학교 내 상담소 설치 학교 수		X				X		객관
⑬ 학교 내 설치된 도서관 수		X				X		객관
⑭ 대안학교 수		X				X		객관
⑮ 동네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는지 여부		X				X		주관
⑯ 청소년의 교육활동을 위한 자원(공부방, 지역 아동센터, 책 나눔, 교육 장소제공 등) 정도		유지	X			X		주관
⑰ 도서관 수		X				X		객관
⑱ 도서관 이용률		X				X		객관
⑲ 지역아동센터 수		X				X		객관
⑳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유지	X			X		객관

영역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1차 자문 회의	2차 적합도 평가	2차 자문 회의	최종 지표 반영	최종지표명	성격	
	㉑ 방과후아카데미 수	X				X		객관	
	㉒ 방과후아카데미 이용률	X				X		객관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신규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주관	
	학업성취도					신규	학업성취도	객관	
관계	①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X				X		주관	
	②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수정	→	→	→	O	가족 관계 만족도	주관	
	③ 가족(부모, 형제자매)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수정	X			X		주관	
	④ 일주일 평균 가족과의 식사 횟수	수정	X			X		주관	
	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정도	X				X		주관	
	⑥ 학교에 나의 문제나 고민을 털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담임선생님 이외)이 있는지 여부	X				X		주관	
	⑦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 정도	X				X		주관	
	⑧ 학교 친구들이 서로를 따돌리지 않고 존중하는 정도	수정	→	→	→	O	교우 관계 만족도	주관	
	⑨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정도	X				X		주관	
	⑩ 일주일간 교사와 평균 대화 시간	X				X		주관	
	⑪ 학생 1인당 평균 단짝 수	X				X		주관	
	⑫ 학교에서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는지 여부	유지	X			X		주관	
	⑬ 친구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X				X		주관	
	⑭ 친밀한 유대감을 맺고 있는 이웃이 있는지 여부	X				X		주관	
	⑮ 이웃 사람들의 친절도	X				X		주관	
	⑯ 외국인 혹은 다문화 가족의 친구와도 친하게 지내는 정도	X				X		주관	
	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른들이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는 정도	X				X		주관	
	⑱ 이웃과의 모임(공부방, 종교단체, 조기 축구회, 지역사회 동호회 등) 참석 횟수	X				X		주관	
	청소년-교사 관계 만족도	-	추가	수정	→		신규	교사 관계만족도	주관
	청소년-이웃(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	추가	→	→		신규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주관
부모-교사 관계 만족도	-	추가	→	→		신규	부모-교사 관계만족도	주관	
부모-이웃(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	추가	→	→		신규	부모-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주관	
교사-이웃(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	추가	→	→		신규	학교-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주관	
미시체계 일반 신뢰도						신규	미시체계 일반신뢰도	주관	
거시체계 일반 신뢰도						신규	거시체계 일반신뢰도	주관	
기관 신뢰도						신규	기관신뢰도	주관	

영역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1차 자문 회의	2차 적합도 평가	2차 자문 회의	최종 지표 반영	최종지표명	성격
활동	① 놀이 및 휴식 시간의 충분도	수정	→	수정	→	0	여가활동 시간 인식	주관
	② 학교 내 놀이와 휴식을 위한 공간의 충분도	유지	통합	→	→	0	여가활동 공간 인식(통합)	주관
	③ 교과 외 문화예술활동 참여 시간	유지	→	수정	→	0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객관
	④ 동네에 실외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여부	유지	통합	→	→	0	여가활동 공간 인식(통합)	주관
	⑤ 동네에서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지 여부	유지	→	수정	→	0	놀이친구 접근성	주관
	⑥ 동네의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유지	수정	X	수정	0	녹지 접근성	주관
	⑦ 동네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공원, 산, 들, 바다, 녹지 공간 등)이 가까운 곳이 있는지의 여부	수정	X			X		주관
	⑧ 학교이외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취미나 여가를 위한 그룹 활동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여부	유지	X			X		주관
	⑨ 청소년 동아리 활동 참여율	유지	→	유지	→	0	동아리활동 참여율	객관
	⑩ 청소년 단체활동 참여율	X				X		객관
	⑪ 청소년 수련시설 경험률	X				X		객관
	⑫ 인구 1인당 녹지, 공원 면적	X				X		객관
	⑬ 도서관 수	X				X		객관
	⑭ 도서관 이용률	X				X		객관
	⑮ 체육시설 수	X				X		객관
	문화여가 지출비용					신규	문화여가 지출비용	객관
	문화예술시설 수					신규	문화예술시설 수	객관
	청소년활동시설 수					신규	청소년활동시설 수	객관
	여가활동 용돈인식					신규	여가활동 용돈인식	주관
참여	① 가정 중요사 결정시 부모님은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X	유지	수정	X	X		주관
	② 진로 및 상급학교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유지	수정	유지	X	X		주관
	③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유지	수정	유지	X	X		주관
	④ 학교에서 아동권리에 대해 배우는지 여부	유지	→	유지	→	0	아동권리 인지	주관
	⑤ 학교 공식 매체(학교 방송, 학교 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의사 표명 정도	X				X		주관
	⑥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학생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	X	유지	유지	→	0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도	주관
	⑦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지 여부	유지	→	유지	→	0	징계소명권	주관
	⑧ 교칙 재개정 학생 참여 허용 여부	유지	→	유지	→	0	학칙개정권	주관
	⑨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	유지	X			X		객관

영역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1차 자문 회의	2차 적합도 평가	2차 자문 회의	최종 지표 반영	최종지표명	성격
	⑩ 우리 동네를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유지	X			X		주관
	⑪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나 정책 계획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유지	X			X		주관
	⑫ 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들은 정도	X				X		주관
	⑬ 청소년이 시 의회에서 열리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본 경험 유무	X				X		주관
	⑭ 청소년이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는 도시,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유지	X			X		주관
	⑮ 우리 동네는 문화, 종교 등 다양한 교류를 위해 축제나 이벤트에 참가하는 정도	X				X		주관
	⑯ 자원봉사 참여율	X	유지	유지	수정	0	자원봉사 참여율	객관
	⑰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율	X				X		객관
	⑱ 국제교류활동 참여율	X				X		객관
	⑲ 청소년자치활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수	X				X		객관
개인 특성	① 자아존중감	유지	→	→	X	X		주관
	② 자아탄력성	유지	→	→	X	X		주관
	③ 자기효능감	유지	→	→	X	X		주관
	정서경험					신규	정서경험	주관
	삶의 만족도					신규	삶의 만족도	주관
	유데모니아					신규	유데모니아	주관

(2) 영역별 과정

지표선정의 전체 과정에 대해 상술한 바와 같이 각 지표들은 2차례의 전문가 조사와 2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선정 과정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제 영역

지표 선정과정 중 1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주로 영역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지표들이 정리되었다. 경제 영역에서는 1차년도 지표의 경제적 웰빙영역과 지역의 예산과 관련성이 높은 제도영역의 14개 지표 중 4개 지표(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 아동빈곤율, 대상별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청소년 1인당 청소년 예산)의 적합도가 80%이상으로 나타났다.

자문회의에서는 본 연구의 지표 작성목적에 적합한 경제영역의 지표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영역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개념에 부합하는 지표를 재선별하였다.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이라는 틀에서 경제 영역은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을 준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 영역 지표는 아이들의 진로 및 미래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지표(지역경제수준, 사회복지지출 비율, 통학소요시간, 경제활동 참가율)를 선정하였다. 또한 예산 관련 지표는 주로 시·도의 규모 및 청소년 수에 비례하므로 경제 영역 지표로 선정하기보다는 본 연구의 17개 시·도 공무원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에 관한 정성적 자료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여 경제 영역 지표에서 제외하였다.

2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수정된 지표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2차 자문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 지표의 내용을 전문가나 일반인이 보기에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도록 지표명을 수정하였다. 또한 객관지표의 경우 장기적 수집 가능여부에 따라 지표를 유지·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가정경제만족도'로 지표명을 변경하였고, '아동빈곤율'은 지속적인 자료수집이 어려움에 따라 '지니계수'로 변경하였다.

경제 영역의 지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객관지표 5개(지니계수, 지역경제수준, 사회복지지출 비율, 통학소요시간, 경제활동 참가율), 주관지표 1개(가정경제 만족도)의 총 6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표 IV-2 경제 영역의 1,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2차 적합도 평가		지표 성격	선정지표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①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	0	0	0	0	주관	가정경제 만족도
② 한부모 가정 비율	X	X	X	0	주관	삭제
③ 실업률	X	0	X	0	주관	삭제
④ 학교에서 수업에 필요한 수업자료와 보충 자료를 제공받는지 여부	X	X	-	-	주관	삭제
⑤ 무상급식지원 예산	X	X	-	-	객관	삭제
⑥ 방과 후 교육 지원 예산	X	0	-	-	객관	삭제
⑦ 아동 빈곤율	0	0	X	0	객관	지니계수
⑧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X	0	X	0	객관	삭제
⑨ 근로청소년비율	X	0	-	-	객관	삭제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2차 적합도 평가		지표 성격	선정지표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⑩ 대상별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O	O	-	-	객관	삭제
⑪ 총인구대비 청소년 인구 구성비	X	X	-	-	객관	삭제
⑫ 청소년 1인당 청소년 예산	O	O	-	-	객관	삭제
⑬ 청소년 담당 행정공무원 1인당 청소년 수	X	X	-	-	객관	삭제
⑭ 청소년 담당 공무원의 평균 청소년 담당 근속연수	X	X	-	-	객관	삭제
신규지표					주관	-
					객관	지역경제수준 사회복지지출 비율 통학소요시간 경제활동 참가율

② 건강 영역

1차년도의 건강 영역(보건)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나누어 각 차원에서의 건강 관련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그 지표와 내용이 가독성을 높이기보다는 중복 표기로 건강 영역의 지표체계의 간명성을 떨어뜨리며, 건강 영역을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요인과 결과가 아닌 환경요소(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지표들이 분절되어 영역 내 지표 간의 관련성을 낮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작성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어 있는 지표들을 삭제함과 동시에, 건강을 건강의 상태와 건강의 결정인자로 나누어 접근함으로써 건강 영역 지표의 가독성과 관련성을 높이고, 지표체계를 간명화 하였다.

건강 영역에서는 1차년도 지표의 보건영역 32개 지표 중 11개 지표의 적합도가 80%이상으로 나타났다. 1차 전문가 조사에서 80% 미만의 지표들을 모두 삭제하였으나, 주관적 건강만족도는 건강영역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관지표이므로 건강영역의 선정지표로 포함하였다.

자문회의를 통해 성장발육의 기본 정보보다는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을 파악할 수 있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추가로 선정되었으며, 건강행동에 포함되는 음주와 흡연과 같은 지표에 추가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포함하는 '미디어 중독'을 선정하였다. 또한 1차 전문가 조사에서 학교 급식 질의 만족도 지표는 적합도가 80% 이상이었으나 건강상태와 건강행동의 차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지표로 삭제하였고, '청소년의 사망률' 역시, 안전영역과 참여영역에서 그 의미가 일부 중복되어 삭제하였다.

2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신체 및 정신건강 관련 상담센터 수를 제외한 적합도가 80% 이상의 지표들이 선정되었다.

건강 영역에서 지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변경한 지표명은 다음과 같다. '주관적 건강만족도'는 '주관적 건강인지율'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정도'를 '스트레스 받는 정도'로, '일주일간 아침식사 결식 비율'을 '아침식사비율'로 변경하였다. '각종 약물의 이용여부'는 청소년의 발육과 관련하여 약물보다는 올바른 섭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고카페인 이용량'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청소년 자살률'은 역능성 차원의 지표로 참여영역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건강영역의 2차 선정지표에서는 제외되었다.

건강 영역의 지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객관지표 6개(BMI, 평균운동시간, 평균수면시간,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미디어 중독률), 주관지표 4개(주관적 건강인지율, 스트레스인지율, 아침식사율, 고카페인 이용량)의 총 10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표 IV-3 건강 영역의 1,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2차 적합도 평가		지표 성격	선정지표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① 주관적 건강만족도	X	O	O	O	주관	주관적 건강인지율
②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정도	O	O	O	O	주관	스트레스인지율
③ 집 주변의 화장실 청결 정도	X	X	-	-	주관	삭제
④ 집 주변에 쓰레기 더미와 고여 있는 더러운 물이 있는지 여부	X	X	-	-	주관	삭제
⑤ 각종 약물(마약, 본드, 대마초 등) 이용여부	O	O	O	O	주관	고카페인 이용량
⑥ 일주일간 평균 운동시간	O	O	O	O	객관	평균운동시간
⑦ 주중 평균 수면 시간	O	O	O	O	객관	평균수면시간
⑧ 정상체중률	X	O	-	-	객관	삭제
⑨ 일주일간 아침식사 결식 비율	O	O	O	O	주관	아침식사율
⑩ 청소년의 흡연율	O	O	O	O	객관	청소년 흡연율
⑪ 청소년의 음주율	O	O	O	O	객관	청소년 음주율
⑫ 학교 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	O	O	-	-	주관	삭제
⑬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만족도	X	O	-	-	주관	삭제
⑭ 학교 식수대에 대한 만족도	X	X	-	-	주관	삭제
⑮ 학교 냉난방이 잘 되는지 여부	X	X	-	-	주관	삭제
⑯ 학교에서 안전한 성관계의 중요성을 배우는지 여부	X	X	-	-	주관	삭제
⑰ 학교 화장실이 깨끗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X	O	-	-	주관	삭제
⑱ 연간 개인 위생, 흡연, 음주 교육경험률	X	X	-	-	객관	삭제
⑲ 성교육 경험률	X	X	-	-	객관	삭제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2차 적합도 평가		지표 성격	선정지표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㉔ 동네에서 피임기구(콘돔, 피임약 등)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X	X	-	-	주관	삭제
㉕ 필요시 상담센터에서 각종 질병(빈혈, 감기, 우울증, 에이즈 등)에 관한 정보 및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	X	O	-	-	주관	삭제
㉖ 동네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안전한 정도	X	X	-	-	주관	삭제
㉗ 집 근처공기가 담배연기 악취가 나지 않는 정도	X	X	-	-	주관	삭제
㉘ 동네 환경이 깨끗하며 동네에서 놀이를 해도 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고 인지하는 정도	X	X	-	-	주관	삭제
㉙ 청소년 자살률	O	O	O	O	객관	참여영역으로 이동
㉚ 청소년 사망률	O	O	-	-	객관	삭제
㉛ 신체 및 정신건강(건강검진, 흡연, 음주, 성교육, 각종 중독, 우울, 자살 등 정서문제) 관련 상담센터 수	O	O	X	O	객관	삭제
㉜ 신체 및 정신건강(건강검진, 흡연, 음주, 성교육, 각종 중독, 우울, 자살 등 정서문제) 관련 상담센터 이용률	X	O	-	-	객관	삭제
㉝ 청소년 발달관련 부모교육 및 상담센터 수	X	X	-	-	객관	삭제
㉞ 청소년 발달관련 부모교육 및 상담센터 이용률	X	X	-	-	객관	삭제
㉟ 응급의료시설의 수	X	O	-	-	객관	삭제
㊱ 응급의료시설 이용률	X	X	-	-	객관	삭제
신규지표					주관	-
					객관	BMI 미디어 중독률

③ 안전 영역

1차년도 안전 영역 지표들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차원 분류를 바탕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의 지표가 많은 영역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 영역을 지역사회가 안전사고나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정의하고, 사고와 범죄의 측면에서 지표 체계를 구성하였다.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34개의 안전영역 지표 중 적합도가 80% 미만인 지표들을 모두 삭제하였으나, '학교의 건물이나 교실, 화장실, 복도, 책상, 걸상 등 학교의 시설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청소년 교통사고 발생률'은 청소년의 안전 중 사고와 관련된 주요지표로 안전 영역의 선정지표에 포함하여 총 17개의 지표가 1차로 선정되었다.

자문회의에서는 안전 영역 17개의 1차 선정지표 간의 중복도가 높아 유사지표들을 하나의 지표로 통합·정리 하였다. 즉 '학교 주변에 유해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동네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유해환경’의 객관지표로 통합하였으며, ‘동네 나쁜 어른이나 동네 나쁜 형들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정도’와 ‘동네를 밤에 걸어 다녀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범죄 안전도’의 주관지표로 통합하였다. ‘혼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와 ‘혼자 집 밖에 나가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지표는 안전 영역의 세부영역인 사고나 범죄의 범주로 분류하기에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동네의 도로와 보도·신호 등·건널목 등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사회 시설 안전도’로 통합·정리하였다. ‘청소년 성폭행피해 발생률’과 ‘청소년 성매매 발생률’은 ‘청소년 범죄 피해율’의 지표로 통합하여 다차원의 범죄 피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학생들이 피부색, 종교, 문화에 상관없이 존중받는 정도’는 청소년의 차이 혹은 다름에 대한 관용성의 항목으로 안전 영역에 적합하지 않아, 참여 영역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학대, 방임 발생률’은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로, ‘학교의 건물이나 교실, 화장실, 복도, 책상, 걸상 등 학교의 시설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학교시설 안전도’로, ‘만약 위협에 처해있을 때, 그 상황을 알리고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아는 정도’는 ‘위기상황대처 능력’으로 ‘청소년 교통사고 발생률’은 ‘청소년 도로 사고율’로 지표명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지표체계를 간명화 하였다.

건강영역의 지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객관지표 7개(유해환경, 청소년 도로사고율,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 청소년 범죄피해율, 아동 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폭력 발생률, 청소년 범죄율), 주관지표 4개(지역사회시설 안전도, 학교시설 안전도, 위기상황대처 능력, 범죄 안전도)의 총 11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표 IV-4 안전 영역의 1,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2차 적합도 평가		지표 성격	선정지표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① 혼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	○	○	○	주관	지역사회시설 안전도(통합)
② 가정 내 사고(화재, 가스누출 등)로부터 안전한 정도	×	×	-	-	주관	삭제
③ 불량주택비율	×	×	-	-	객관	삭제
④ 학대, 방임 발생률	○	○	○	○	객관	아동 학대 피해 경험률
⑤ 학교에서 실제적 차별을 가하지 않는지 여부	×	○	-	-	주관	삭제
⑥ 학교 학생들이 피부색, 종교, 문화에 상관 없이 존중받는 정도	○	○	×	○	주관	참여영역으로 이동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2차 적합도 평가		지표 성격	선정지표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⑦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하는 정도	X	O	-	-	주관	삭제
⑧ 학교의 건물이나 교실, 화장실, 복도, 책상, 걸상 등 학교의 시설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X	O	O	O	주관	학교시설 안전도
⑨ 혼자 학교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O	O	O	O	주관	지역사회시설 안전도(통합)
⑩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O	O	O	O	객관	유해환경(통합)
⑪ 학교폭력 발생률	O	O	O	O	객관	학교폭력 발생률
⑫ 배움터지킴이 운영단 수	X	X	-	-	객관	삭제
⑬ 고화질 CCTV 설치 비율	X	X	-	-	객관	삭제
⑭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대 받거나 구타를 당할 때 동네 이웃 어른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X	O	-	-	주관	삭제
⑮ 종교, 인종, 문화에 상관없이 이웃들로부터 존중 받는 정도	X	X	-	-	주관	삭제
⑯ 내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	X	X	-	-	주관	삭제
⑰ 동네 나쁜 어린이나 동네 나쁜 형들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정도	O	O	O	O	주관	범죄 안전도(통합)
⑱ 혼자 집 밖에 나가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O	O	O	O	주관	지역사회시설 안전도(통합)
⑲ 집 밖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동네 어른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X	O	-	-	주관	삭제
⑳ 동네의 도로와 보도, 신호등, 건물목 등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O	O	O	O	주관	지역사회시설 안전도(통합)
㉑ 만약 위험에 처해있을 때, 그 상황을 알리고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아는 정도	O	O	X	O	주관	위기상황대처 능력
㉒ 동네 어른들이 청소년을 위해 동네 환경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X	O	-	-	주관	삭제
㉓ 동네가 각종 유해환경(유해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O	O	O	O	주관	유해환경(통합)
㉔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기에 안전한 정도	X	X	-	-	주관	삭제
㉕ 동네를 밤에 걸어 다녀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O	O	O	O	주관	범죄 안전도(통합)
㉖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수	X	X	-	-	객관	삭제
㉗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단속 실적	X	X	-	-	객관	삭제
㉘ 청소년 교통사고 발생률	X	O	O	O	객관	청소년 도로사고율
㉙ 청소년 성폭행피해 발생률	O	O	-	-	객관	청소년 범죄피해율(통합)
㉚ 청소년 성매매 발생률	O	O	-	-	객관	청소년 범죄피해율(통합)
㉛ 청소년 범죄율	O	O	-	-	객관	청소년 범죄율
㉜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률	X	O	-	-	객관	삭제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2차 적합도 평가		지표 성격	선정지표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㉓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이용 건수	X	X	-	-	객관	삭제
㉔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수	X	X	-	-	객관	삭제
신규지표					주관	-
					객관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

④ 교육 영역

교육 영역의 체계는 투입(교육 기회)과 과정(교육의 조건과 과정)을 통한 산출(교육효과)이라는 접근을 통해 기존의 환경(가정, 학교, 지역사회)적 접근으로 인한 지표의 중복과 투입위주의 지표들을 재구성하였다.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22개의 교육 영역 지표 중 적합도가 80% 이상인 지표는 ‘학교의 전문적인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여부’, ‘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학업중도 탈락률’, ‘학교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비율’, ‘청소년의 교육활동을 위한 자원(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책 나눔, 교육 장소제공 등) 정도’,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의 7개 지표이다.

1차 자문회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황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교육비(사교육비) 지출비용’이 유지되었고,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은 현재 한국사회의 인구 감소율을 감안하여 삭제되었으며, ‘청소년의 교육활동을 위한 자원(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책 나눔, 교육 장소제공 등) 정도’와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은 지역사회의 교육요소만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청소년의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를 신규로 추가하여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교육지표 체계에 맞추어 산출 측면의 주요 지표인 ‘학업성취도’를 추가하였다.

2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수정된 지표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2차 자문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표명을 간명화 하였다. ‘학교의 전문적인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여부’는 ‘직업교육훈련기회’로, ‘학업중도 탈락률’은 ‘학교중단율’, ‘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교과과정만족도’로 지표명을 수정하였다.

교육 영역의 지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객관지표 4개(학교중단율, 학급당 학생수, 학업성취도, 사교육비지출액), 주관지표 3개(직업교육 훈련기회, 교과과정 만족도,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의 총 7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표 IV-5 교육 영역의 1,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2차 적합도 평가		지표 성격	선정지표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① 책 보유비율(200권 이상)	X	X	-	-	주관	삭제
② 매체(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망 등) 활용정도	X	X	-	-	주관	삭제
③ 매체(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망 등) 보유 여부	X	X	-	-	객관	삭제
④ 교육비(사교육비) 지출비용	X	X	-	-	객관	사교육비 지출액
⑤ 학교의 전문적인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여부	O	O	O	O	주관	직업교육 훈련기회
⑥ 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O	O	O	O	주관	교과과정 만족도
⑦ 장애 청소년 취학률	X	O	-	-	객관	삭제
⑧ 학업중도 탈락률	O	O	O	O	객관	학교중단율
⑨ 학교급당 학생 수	O	O	X	O	객관	학급당 학생수
⑩ 교사 1인당 학생 비율	O	O	-	-	객관	삭제
⑪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수	X	O	-	-	객관	삭제
⑫ 학교 내 상담소 설치 학교 수	X	O	-	-	객관	삭제
⑬ 학교 내 설치된 도서관 수	X	X	-	-	객관	삭제
⑭ 대안학교 수	X	X	-	-	객관	삭제
⑮ 동네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는지 여부	X	O	-	-	주관	삭제
⑯ 청소년의 교육활동을 위한 자원(공부방, 지역 아동센터, 책 나눔, 교육 장소제공 등) 정도	O	O	-	-	주관	삭제
⑰ 도서관 수	X	O	-	-	객관	삭제
⑱ 도서관 이용률	X	O	-	-	객관	삭제
⑲ 지역아동센터 수	X	X	-	-	객관	삭제
⑳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O	O	-	-	객관	삭제
㉑ 방과후아카데미 수	X	X	-	-	객관	삭제
㉒ 방과후아카데미 이용률	X	X	-	-	객관	삭제
신규지표					주관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객관	학업성취도

⑤ 관계 영역

1차년도 관계 영역의 지표는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부모, 지역사회의 각 차원이 비체계적으로 혼재되어 있어 지표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지표의 정책적 활용에도 부적합하며, 사용자의 직관적 이해도도 떨어진다. 또한 관계 영역은 그 특성상 주관적 지표로 구성 되는데, 주관적 지표는

지표 개발·측정 및 수집 자료의 기초분석

제 IV 장

응답자의 상황에 따라 질문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따라서 그 대답도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만족도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체계인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에서의 관계만족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재구성하였다.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적합도가 80% 미만인 지표는 전체 18개 지표 중 8개 지표였으나, 1차 자문회의를 통해 중복적 지표들을 모두 삭제하고, 관계만족도를 청소년-가족, 청소년-교사, 청소년-청소년, 청소년-이웃, 그리고 청소년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나 청소년의 친화환경에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교사, 부모-이웃(지역사회), 교사-이웃(지역사회) 차원으로 나누어 청소년을 둘러싼 미시체계와 중간체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재구성하였다.

2차 전문가 조사는 1차 자문회의를 통해 정리된 '관계만족도'의 7개 지표(가족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부모-교사 관계만족도, 부모-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학교-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에 대해 재검토하였으나, 미시체계의 4개 지표는 모두 적합도가 75% 이상으로, 중간체계 3개 지표는 모두 적합도가 75%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자문회의를 거쳐, 연구의 이론적 체계와 지표작성 목적에 따라 중간체계 지표 역시 최종 지표에 추가하였다. 또한,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에 신뢰도 지표(일반신뢰도, 기관신뢰도)를 추가하여 주관적 지표인 관계만족도를 보완하였다.

관계 영역의 지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시체계 4개(가족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 중간체계 5개(부모-교사 관계만족도, 부모-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학교-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 기관신뢰도)가 주관지표로 총 9개가 선정되었다.

표 IV-6 관계 영역의 1,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2차 적합도 평가		지표 성격	선정지표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① 부모님과과의 관계 만족도	0	0	-	-	주관	삭제
②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0	0	0	0	주관	가족관계만족도
③ 가족(부모, 형제자매)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0	0	-	-	주관	삭제
④ 일주일 평균 가족과의 식사 횟수	0	0	-	-	주관	삭제
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정도	0	0	-	-	주관	삭제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2차 적합도 평가		지표 성격	선정지표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⑥ 학교에 나의 문제나 고민을 털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담임 선생님 이외)이 있는지 여부	0	0	-	-	주관	삭제
⑦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 정도	0	0	-	-	주관	삭제
⑧ 학교 친구들이 서로를 따돌리지 않고 존중하는 정도	0	0	0	0	주관	교우관계만족도
⑨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정도	0	0	-	-	주관	삭제
⑩ 일주일간 교사와 평균 대화 시간	X	X	-	-	주관	삭제
⑪ 학생 1인당 평균 단짝 수	X	X	-	-	주관	삭제
⑫ 학교에서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는지 여부	0	0	-	-	주관	삭제
⑬ 친구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X	X	-	-	주관	삭제
⑭ 친밀한 유대감을 맺고 있는 이웃이 있는지 여부	X	X	-	-	주관	삭제
⑮ 이웃 사람들의 친절도	X	X	-	-	주관	삭제
⑯ 외국인 혹은 다문화 가족의 친구와도 친하게 지내는 정도	X	X	-	-	주관	삭제
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른들이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는 정도	X	X	-	-	주관	삭제
⑱ 이웃과의 모임(공부방, 종교단체, 조기 축구회, 지역사회 동호회 등) 참석 횟수	X	X	-	-	주관	삭제
신규지표					주관	교사관계만족도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부모-교사관계만족도 부모-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학교-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미시체계) 일반신뢰도(중간체계) 기관신뢰도
					객관	-

⑥ 활동 영역

청소년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행위인 활동의 지표에는 주로 문화와 여가가 포함된다. 청소년의 휴식, 활력의 공급, 재충전 등을 위한 활동 및 여가를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의 자유시간과 질적 측면의 여가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활동 영역을 활동상태, 활동기반, 활동인식의 지표들로 접근하였다.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15개의 활동영역 지표 중 적합도가 80% 미만인 지표(청소년 단체활동

참여율, 청소년 수련시설 경험률, 인구 1인당 녹지, 공원 면적, 도서관 수, 도서관 이용률, 체육시설 수)를 모두 삭제하였으며, 1차 자문회의를 통해 '학교이외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취미나 여가를 위한 그룹 활동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여부'와 '동네의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항목이 추가로 삭제되었다. 특히 '동네의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의 경우, 다른 영역에서도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표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삭제하였다.

2차 전문가조사에서는 1차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된 지표 중 '동네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곳에 있는지의 여부'의 적합도가 75%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자문회의를 거쳐, 청소년의 활동을 위한 자연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객관지표인 '녹지접근성'으로 수정하여 최종지표에 포함하였다. 또한, 활동영역의 지표체계 중 활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지표인 '문화여가 지출비용,' '문화예술시설 수,' '청소년 활동시설 수'를 신규로 포함하여, 청소년 활동 환경의 조성 정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표명의 간명화와 관련해서는 '놀이 및 휴식 시간의 충분도'를 '여가활동 시간인식'으로, '학교 내 놀이와 휴식을 위한 공간의 충분도'와 '동네에 실외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여부'를 통합하여 '여가활동 공간인식'으로, '교과 외 문화예술활동 참여 시간'은 '문화예술활동 참여율'로, '동네에서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지 여부'를 '놀이친구 접근성'으로 수정하였다.

활동 영역의 지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객관지표 5개(문화예술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 동아리활동 참여율, 녹지접근성, 문화예술시설 수, 청소년 활동시설 수), 주관지표 4개(놀이친구 접근성, 여가활동 시간인식, 여가활동 공간인식, 여가활동 용돈인식)의 총 9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표 IV-7 활동 영역의 1,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2차 적합도 평가		지표 성격	선정지표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① 놀이 및 휴식 시간의 충분도	0	0	0	0	주관	여가활동 시간인식
② 학교 내 놀이와 휴식을 위한 공간의 충분도	0	0	0	0	주관	여가활동 공간인식(통합)
③ 교과 외 문화예술활동 참여 시간	0	0	0	0	객관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2차 적합도 평가		지표 성격	선정지표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④ 동네에 실외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여부	0	0	0	0	주관	여가활동 공간인식(통합)
⑤ 동네에서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지 여부	0	0	X	0	주관	놀이친구 접근성
⑥ 동네의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0	0	-	-	주관	삭제
⑦ 동네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공원, 산, 들, 바다, 녹지 공간 등)이 가까운 곳에 있는지의 여부	0	0	X	X	객관	녹지 접근성
⑧ 학교외의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취미나 여가를 위한 그룹 활동을 하거나 프로그래밍에 참여하는지 여부	0	0	-	-	주관	삭제
⑨ 청소년 동아리 활동 참여율	0	0	0	0	객관	동아리활동 참여율
⑩ 청소년 단체활동 참여율	X	0	-	-	객관	삭제
⑪ 청소년 수련시설 경험률	X	0	-	-	객관	삭제
⑫ 인구 1인당 녹지, 공원 면적	X	X	-	-	객관	삭제
⑬ 도서관 수	X	X	-	-	객관	삭제
⑭ 도서관 이용률	X	X	-	-	객관	삭제
⑮ 체육시설 수	X	0	-	-	객관	삭제
신규지표					주관	여가활동 용돈인식
					객관	문화여가 지출비용 문화예술시설수 청소년활동시설수

⑦ 참여 영역

유니세프는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의 기반요건으로 의사결정과정의 모든 단계에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참여 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참여지표를 선정하였다.

1차 전문가 조사에서 1차년도 참여 영역 19개 지표 중 80% 이상인 4개 지표(‘진로 및 상급학교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지 여부,’ ‘교칙 재개정 학생 참여 허용 여부’)가 선정되었으며, 청소년의 참여권의 중요성의 측면에서 필수지표인 ‘학교에서 아동권리에 대해 배우는지 여부’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학생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를

각각 ‘아동권리 인지,’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도’로 지표명을 간명화하여 참여 지표에 포함하였다.

2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1차 전문가 조사와 지문회의를 통해 선정된 지표들에 대해 검토하여 모든 지표가 적합도 75% 이상으로 최종지표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2차 지문회의를 통해 ‘진로 및 상급학교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와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지표는 관계영역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중첩되어 최종지표에서 제외되었다. 건강 영역의 ‘청소년 자살률’은 청소년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청소년의 태도나 인식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역능성 지표로서 참여영역에 포함하였다. 또한, 안전영역의 ‘학교 학생들이 피부색, 종교, 문화에 상관없이 존중 받는 정도’와 ‘종교, 인종, 문화에 상관없이 이웃들로부터 존중받는 정도’는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의 지표로 참여영역으로 포함하였다.

참여 영역의 지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객관지표 2개(청소년 자살률, 자원봉사 참여율), 주관지표 5개(아동권리 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도)의 총 7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표 IV-8 참여 영역의 1,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2차 적합도 평가		지표 성격	선정지표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① 가정의 중요사항 결정시 부모님의 청소년 의견 반영 정도	X	O	-	-	주관	삭제
② 진로 및 상급학교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O	O	O	O	주관	삭제
③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O	O	O	O	주관	삭제
④ 학교에서 아동권리에 대해 배우는지 여부	X	O	X	O	주관	아동권리 인지
⑤ 학교 공식 매체(학교 방송, 학교 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의사 표명 정도	X	X	-	-	주관	삭제
⑥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학생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	X	O	O	O	주관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도
⑦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지 여부	O	O	O	O	주관	징계소명권
⑧ 교칙 재개정 학생 참여 허용 여부	O	O	O	O	주관	학칙개정권
⑨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	X	O	-	-	객관	삭제
⑩ 우리 동네를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X	O	-	-	주관	삭제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2차 적합도 평가		지표 성격	선정지표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⑪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나 정책 계획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X	X	-	-	주관	삭제
⑫ 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들은 정도	X	X	-	-	주관	삭제
⑬ 청소년이 시 의회에서 열리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본 경험 유무	X	X	-	-	주관	삭제
⑭ 청소년이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는 도시,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X	X	-	-	주관	삭제
⑮ 우리 동네는 문화, 종교 등 다양한 교류를 위해 축제나 이벤트에 참가하는 정도	X	X	-	-	주관	삭제
⑯ 자원봉사 참여율	X	O	O	O	객관	자원봉사 참여율
⑰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율	X	O	-	-	객관	삭제
⑱ 국제교류활동 참여율	X	X	-	-	객관	삭제
⑲ 청소년자치활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수	X	O	-	-	객관	삭제
신규지표					주관	소수집단에 관용적 태도(존중)
					객관	청소년 자살률

⑧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은 청소년 개인의 수준에서의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정도를 나타내며, 일상에서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경험 정도를 나타낸다. 생활에 대한 만족은 행복에 대한 종합 지표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지표들의 합만으로는 요약되기 어려운 삶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관적 웰빙영역과 관련하여 1차년도 연구에서는 개인차원의 지표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의 3개 지표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지표 작성방법(OECD, 2013)에¹¹⁾ 따라 정서 경험,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의 세 가지 지표로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였다.

11) OECD에서는 주관적 웰빙(SWB: Subjective Well-Being)을 (과거) 정서경험,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미래) 유데모니아(eudaimonia)로 3차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서 삶에 대한 만족은 현재의 삶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이며, 정서 균형은 과거에 경험한 긍정/부정적인 정서 경험의 균형을, 유데모니아는 미래에 대해 삶의 가치와 목적 및 낙관성을 의미한다(이희길, 2014).

표 IV-9 주관적 웰빙 영역의 1,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	1차 적합도 평가		2차 적합도 평가		지표 성격	선정지표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80% 이상 (4점)	75% 이상 (3.75점)		
① 자아존중감	0	0	0	0	주관	삭제
② 자아탄력성	0	0	0	0	주관	삭제
③ 자기효능감	0	0	0	0	주관	삭제
신규지표					주관	정서경험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
					객관	-

2) 최종 지표의 선정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진단을 위한 지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표 작성 과정의 각 단계를 진행하였다.

첫째,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차년도 지표를 수정·보완 하되, 주로 개인의 만족을 정하는 주관지표와 지역 조성 상태에 관한 현황인 객관지표의 비율을 고려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둘째, 1차년도의 지표체계는 각 영역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나누어 개별지표(총 157개)를 구성하여 중복되는 지표가 많으며, 지표명 또한 자료수집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자의 직관적 이해가 어렵다. 이에 중복 지표를 정리하고 핵심지표들로 각 영역을 구성하여 지표수를 대폭 줄였으며, 지표명 또한 간명화하여 사용자의 직관적 이해를 도모하고, 정책적 활용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셋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선정과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질적이고 과학적인 지표체계를 통해 16개 시·도를 비교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쳐 선정이 되는 하향식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을 통해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과정에는 정책 주체인 청소년의 참여가 제외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 진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지표작성 과정을 거쳐 선정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최종지표는 주관지표 34개와 객관지표 30개, 총 64개 지표이다. 주관지표는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이며, 객관지표는 각종 행정통계를 포함한 2차 통계 자료이다.

주관지표의 측정문항은 1차적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응답하는 것은 물론 교사, 학부모, 공무원이 각각 청소년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가정경제만족도'에 대해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우리 집의 경제적 생활형편에 만족한다'로 각 대상이 청소년의 입장이 되어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집단의 응답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중심의 문항은 아래의 표에 '✓'로 표기하였다. 또한 몇 가지 지표 조사 문항은 교사, 학부모, 공무원 본인의 입장에서 응답해야 하는 문항도 있다. 이러한 문항별 응답대상자의 차이는 아래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최종지표에 [✓ 청소년, ▲ 학부모, ■ 교사, ★ 공무원]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객관지표는 '●'로 표기하였다.

선정된 64개 항목의 최종지표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최종지표

영역	세부 영역	지표	주관지표 (조사 측정문항)				객관 지표 수집 자료 (SI)	출처
			청소년 (✓)	학부모 (▲)	교사 (■)	공무원 (★)		
경제 6 (1,5)	소득/ 소비	가정경제만족도	✓	▲				YHCI Q19. 1)
		지역경제수준					●	한국의 사회동향(2012)
		지니계수					●	한국의 사회동향(2012)
	복지	사회복지지출 비율					●	사회복지비중(2014)
	주거	통학소요시간					●	인구주택총조사(2010)
	고용	경제활동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조사(2013)
건강 10 (4,6)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인지율	✓	✓	✓	✓		KCWI 2013 Q27. 1)
		스트레스인지율	✓	✓	✓	✓		KCWI 2013 Q33
		BMI					●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2013)
	건강 결정 요인	아침식사율	✓	✓	✓			KCWI 2013 Q34. 2)
		고카페인 이용량	✓	✓	✓			YHCI Q8. 3)
		평균운동시간					●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2013)
		평균수면시간					●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2013)
		청소년 흡연율					●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2013)
		청소년 음주율					●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2013)
		미디어 중독률					●	인터넷중독 실태조사(2013)

지표 개발·측정 및 수집 자료의
기초분석

제 IV 장

영역	세부 영역	지표	주관지표 (조사 측정문항)				객관 지표 수집 자료 (SI)	출처
			청소년 (✓)	학부모 (▲)	교사 (■)	공무원 (★)		
안전 11 (4,7)	사고	지역사회시설 안전도	✓	✓	✓	✓		YHCI Q1.1)
		학교시설 안전도	✓	✓	✓	✓		YHCI Q2.4)
		위기상황대처 능력 유해환경	✓	▲	■	★	●	YHCI Q3.6) 도소매업조사(2012)
		청소년 도로사고율					●	지역별교통사고통계(2012)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					●	사망원인통계(2012)
	범죄	범죄 안전도	✓	✓	✓	✓		KGSS 2008 Q5
		청소년 범죄피해율					●	범죄피해조사(2012)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2013)
		학교폭력 발생률					●	청소년유해환경점검 종합실태조사(2012)
			청소년 범죄율				●	대검찰청 내부자료(2013)
교육 7 (3,4)	교육 기회	직업교육 훈련기회	✓	✓	✓			YHCI Q14.2)
		학교중단율					●	2013초중등학교 주요공시정보 분석보고서(2013)
	교육의 조건과 과정	학교급당 학생수					●	유초등통계(2013)
		학업성취도					●	2013초중등학교 주요공시정보 분석보고서(2013)
		사교육비 지출액					●	사교육비조사(2013)
	교육 효과	교과과정 만족도	✓	✓	✓			YHCI Q14. 1)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	✓	✓			YHCI Q15. 2)	
관계 10 (10,0)	미시 체계	가족 관계만족도	✓	✓	✓			KGSS 2007 Q73. 1)
		교우 관계만족도	✓	✓	✓			
		교사 관계만족도	✓	✓	✓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	✓	✓			
		일반신뢰도		✓	▲			
			✓	▲				사회통합실태조사(2013)
			✓		■			
	중간 체계	부모-교사 관계만족도		▲	■	★		KGSS 2007 Q73. 1)
		부모-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		★		
		학교-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	★		
일반신뢰도				▲	■	★		2013
				▲	■	★		사회통합실태조사(2013)
기관신뢰도	✓	▲	■			2013	사회통합실태조사(2013)	

영역	세부 영역	지표	주관지표 (조사 측정문항)				객관 지표 수집 자료 (SI)	출처
			청소년 (✓)	학부모 (▲)	교사 (■)	공무원 (★)		
활동 10 (4.6)	활동 상태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	2013 사회조사(2013)
		문화여가 지출비용					●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2012)
		동아리활동 참여율					●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1)
		녹지 접근성					●	국토교통비 내부자료(2012)
		문화예술시설 수					●	한국의 사회지표(2012)
		청소년 활동시설 수					●	2012 청소년백서(2012)
	활동 기반	놀이친구 접근성	✓	✓	✓	✓		YHCI Q16. 4)
	활동 인식	여가활동 시간인식	✓	✓	✓	✓		KGSS 2007 Q69. 1), 2), 5)
		여가활동 공간인식	✓	✓	✓	✓		
		여가활동 용돈인식	✓	✓				
참여 7 (5.2)	참여 결정 요인	아동권리 인지	✓	▲	✓	✓		YHCI Q18. 4) 11)
			✓	✓				
		징계소명권	✓		✓			YHCI Q18. 7)
	학칙개정권	✓	▲	✓			YHCI Q18. 8)	
	관용성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	✓	✓	✓		YHCI Q3. 2)
	역능성	청소년 자살률					●	사망원인통계(2012)
사회 참여	학생대표의 운영위참여도	✓	▲	✓	✓		YHCI Q18. 6)	
		자원봉사 참여율					●	2013 사회조사(2013)
주관적 웰빙 (3)	정서 경험	✓	▲	■			OECD, 2013	
		✓	▲	■			OECD, 2013	
		✓	▲	■			OECD, 2013	
	삶의 만족도	✓	▲	■			OECD, 2013	
	유데모니아	✓	▲	■			OECD, 2013	

출처: YHCI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1년차), KCWI (방정환재단, 2013),
 KGSS (한국사회 종합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OECD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2013)

2. 지표자료의 수집

1) 주관적 지표

(1) 조사 설계 및 추진 절차

① 주관지표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수준 진단을 위한 64개 지표 중 34개의 주관지표의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의 2014년 6월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초4~고2에 재학 중인 첫째 자녀가 있는 학부모, 조사 대상 학급의 교사 및 동일 학급의 교사,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표집절차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를 조사원(초등학교 2명, 중고등학교 1명)이 방문하여 학교별로 지정된 학년의 1개 학급 전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청소년 조사가 진행되는 학급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만약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학급의 담임이 부재할 경우, 같은 학년의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학부모 조사는 조사기관 온라인 패널DB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각 시·도 청소년 담당 공무원에게 공문으로 설문 협조 요청을 구한 후,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 발송한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표 IV-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개요

	청소년 조사	교사 조사	학부모 조사	공무원 조사
조사모집단	전국 17개 시·도의 초4~고2 재학생 전체	해당 학급 담당교사 전체	초4~고2 학생을 첫째 자녀로 둔 성인남녀 전체	17개 시·도 청소년 정책담당 공무원
표본 수	10,000명	300명	3,000명	150명
조사기간	2014년 6월 12일 ~ 7월 28일			7월~8월
조사방법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개인단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개인단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기타		청소년대상 조사표본 학급담당 담임교사, 같은 학년 담당교사 순으로 표집	비확률 표집 방법으로 표집률 없음	전수 조사

② 표본설계: 표집방법과 표본 할당 기준

본 조사의 표본은 ‘학교’를 기본단위로 한 다단계층화집락표집 방식에 따라 선정하였다.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일반적인 학교와 특성이 다른 과학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은 일반계 고등학교로 분류하여 모집단 분석하였지만, 표본추출에서는 제외하였다.

전체 조사모집단 학생 수는 5,171,747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 수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이 1,474,255명, 중학생 1,804,189명, 고등학생 1,893,303명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이 1,470,698명, 특성화계 고등학생은 422,605명이다.

표 IV-12 청소년 모집단 현황

(단위 : 명)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합계
			계	일반계	특성학교	
서울	246,921	304,251	334,123	281,398	52,725	885,295
부산	86,588	110,454	122,060	91,592	30,468	319,102
대구	73,899	94,394	103,666	82,779	20,887	271,959
인천	83,452	100,776	105,310	83,155	22,155	289,538
광주	52,193	65,124	67,374	53,382	13,992	184,691
대전	49,304	59,997	62,812	51,792	11,020	172,113
울산	35,727	45,860	49,863	40,427	9,436	131,450
세종	3,598	3,797	3,528	2,772	756	10,923
경기	385,382	458,220	460,580	360,558	100,022	1,304,182
강원	44,849	54,755	56,601	33,450	23,151	156,205
충북	47,367	57,623	58,950	40,262	18,688	163,940
충남	60,822	72,867	75,837	56,139	19,698	209,526
전북	57,031	70,602	74,621	49,857	24,764	202,254
전남	53,743	67,888	71,790	49,931	21,859	193,421
경북	72,042	89,128	95,018	67,642	27,376	256,188
경남	100,854	124,566	127,457	109,010	18,447	352,877
제주	20,483	23,887	23,713	16,552	7,161	68,083
전국	1,474,255	1,804,189	1,893,303	1,470,698	422,605	5,171,747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본 조사의 1차 표본추출 단위는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층화집락추출방법으로 1차 추출단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고, 2차 추출단위는 학급이다. 표본설계에서 고려한 층화변수¹²⁾는 시·도 구분, 각 시·도 내 (시부, 군부) 구분, 학교급 구분으로, 17개 시도별 지표 비교가 가능하도록 우선적으로 시도 구분을 층화변수로 이용하였고, 도 지역에서는 시부와 군부로 세부 층화¹³⁾하였다. 각 시도별 표본배분은 17개 시·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 시·도에 대해서 12개의 표본학교를 우선 할당한 후

12)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3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시도 구분과 학교급 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13) 서울시의 경우는 전체 인구 규모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4개 지역(북동, 남동, 남서, 북서)으로 세부 층화하였다. 학교급 구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계와 특성화계로 층화하였다.

나머지 표본은 학생수에 따라 비례배분하는 우선할당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각 시·도에서 시부와 군부, 학교급 등에 따른 표본배분은 학생 수 기준의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각 세부 층별 표본학교 현황은 <표 IV-13>과 같다.

표 IV-13 2단계 표집에 따른 세부 표본 구성

(단위: 학교)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일반계	특성계	
서울	12	12	10	3	37
부산	7	7	5	2	21
대구	6	6	5	2	19
인천	7	6	5	2	20
광주	6	6	4	2	18
대전	6	6	4	2	18
울산	5	5	5	2	17
세종	4	3	2	1	10
경기	16	15	12	5	48
강원	6	5	3	2	16
충북	6	5	4	2	17
충남	6	6	4	2	18
전북	6	6	4	2	18
전남	6	5	4	3	18
경북	6	6	6	2	20
경남	8	7	6	2	23
제주	5	4	2	2	13
합계	118	110	85	38	351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③ 가중치 적용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이며, 각 층에서 1차 추출 단위인 학교는 전체 학급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였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 학급 내 전체 학생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표본추출 과정은 층화2단집락추출법이며 표본추출률을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 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급 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한 학급 수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표본학교에서 한 학급씩을 표본으로 추출함에 따라 $n_{hi} = 1$ 이다.

설계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또한 17개 시·도 및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성별($k=1, 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조정계수는 다음 식과 같다.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설계 가중치의 성별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사후층화 조정계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2) 조사 대상 및 방법

① 조사대상

본 조사의 대상은 ① 청소년(초4~고2 재학생), ② 교사, ③ 학부모(초4~고2 첫째 자녀가 있는), ④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청소년 외에 교사, 학부모,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안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측정의 방법을 준용한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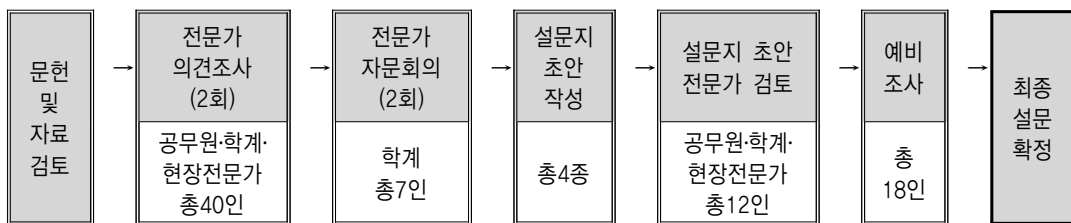
이를 종합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환경요인들을 지수화 하였다.

② 조사도구

주관지표 측정을 위한 설문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자료와 청소년을 포함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의 설문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3 사회통합실태조사)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환경요인의 문항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 연구의 설문조사지 등을 검토하였다.

문헌자료 검토 후 우선 주관지표 구성에 대해 청소년 및 지표개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 및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 및 자문회의에서는 2차년도 연구에 추가된 초등학교 중에서도 초등 4학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청소년 설문지를 초등학교용과 중고등학생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초안 작성 후 설문문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최종 설문문항을 확정하기 전 초등학교 6명, 중학생 7명, 고등학생 5명으로 총 1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 응답태도 및 설문문항의 난이도 등을 체크하였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약자 이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은 문항의 응답방식에 대해 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혼란은 중학생의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웰빙의 응답시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사 때 면접원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문항임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그림 M-2】 설문 개발 절차

(3) 조사 내용

설문조사 내용은 지표의 총 8개 영역(① 경제, ② 건강, ③ 안전, ④ 교육, ⑤ 관계, ⑥ 활동,

⑦ 참여, ⑧ 주관적 행복)을 청소년, 교사, 학부모, 공무원의 각 입장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 각 대상이 청소년의 입장이 되어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몇 개 문항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의 경우 ■, 학부모의 경우 ▲, 공무원의 경우 ★로 표시하였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설문문항과 문항작성의 근거는 <표 IV-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V-14 설문문항 및 문항작성의 근거

영역	세부 영역	지표	설문문항 (중고등용 기준)	지표조사 측정문항				출처
				청소년	교사	부모	공무원	
경제	소득/소비	가정경제만족도	나는 우리집의 경제적 생활형편이 넉넉하다고 생각한다	문8	■문9	문8 ▲문14	-	YHCI Q19. 1)
건강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인지율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문1-1	문1-1	문1-1	문1-1	KCWI 2013 Q27. 1)
		스트레스 인지율	나는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문1-2	문1-2	문1-2	문1-2	KCWI 2013 Q33
	건강 결정 요인	아침식사율	나는 아침 등교하기 전에 밥을 먹는다	문2-1	문2-1	문2-1	문1-3	KCWI 2013 Q34. 2)
		고카페인 이용량	나는 고카페인 음료(예: 콜라나 커피, 핫식스, 박카스 등)를 마신다	문2-2	문2-2	문2-2	-	YHCI Q8 .3)
안전	사고	지역사회시설 안전도	우리 동네의 건물, 체육 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문10-2	문12-2	문17-2	문3-2	YHCI Q1. 1)
		학교시설 안전도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문10-1	문12-1	문17-1	문3-1	YHCI Q2. 4)
	범죄	위기상황대처 능력	나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	문10-4	■문12-4	▲문17-4	★문3-4	YHCI Q3. 6)
		범죄안전도	나는 우리 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걸을 때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10-3	문12-3	문17-3	문3-3	KGSS 2008 Q5

영역	세부 영역	지표	설문문항 (중고등용 기준)	지표조사 측정문항				출처
				청소년	교사	부모	공무원	
교육	교육 기회	직업교육 훈련기회	나는 학교에서 여러 직업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문11-1	문13-1	문18-1	-	YHCI Q14. 2)
	교육 효과	교과과정 만족도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재미있다	문11-2	문13-2	문18-2	-	YHCI Q14. 1)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만족도	1)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나요? 2) 나는 방과후에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 활동들이 재미있다	문12 문12-1	문14	문19 문19-1	-	YHCI Q15. 2)
관계	미시 체계	가족관계만족도	나는 평소에 가족과 지내는 생활에 만족한다	문9-1	문10-1	문15-1	-	KGSS 2007 Q73. 1)
		교우관계만족도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에 만족한다	문9-2	문10-2	문15-2	-	
		교사관계만족도	나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문9-3	문10-3	문15-3	-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문9-4	문10-4	문15-4	-	
		일반신뢰도	부모-자녀 신뢰도	문15-1	-	▲문22-1	-	2013 사회통합 실태조사
	청소년-청소년 신뢰도		문15-2	-	▲문22-2	-		
	교사-청소년 신뢰도		문15-3	■문17-1	-	-		
	중간 체계	부모-교사 관계만족도	부모-교사 관계만족도	-	■문11-1	▲문16-1	★문2-1	KGSS 2007 Q73. 1)
			부모-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	-	▲문16-2	★문2-2	
			학교-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	■문11-2	-	★문2-3	
일반신뢰도		부모-교사 신뢰도	-	■문17-2	▲문22-3	★문6-1	2013 사회통합 실태조사	
		부모-이웃 신뢰도	-	-	▲문22-4	★문6-2		
	교사-이웃 신뢰도	-	■문17-3	-	★문6-3			
기관신뢰도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기관들입니다. 이 기관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1) 지역사회전문기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	문16	■문18	▲문23	-	2013 사회통합 실태조사		
활동	활동 기반	놀이친구 접근성	우리 동네에는 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문14-4	문16-3	문21-4	문5-3	YHCI Q16. 4)
	활동 인식	여가활동 시간인식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문14-1	문16-1	문21-1	문5-1	KGSS 2007 Q69. 1), 2), 5)
		여가활동 공간인식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문14-2	문16-2	문21-2	문5-2	
여가활동 용돈인식	나는 놀고, 쉬고, 즐기는데 필요한 용돈이 충분하다	문14-3	-	문21-3	-			

영역	세부 영역	지표	설문문항 (중고등용 기준)	지표조사 측정문항				출처
				청소년	교사	부모	공무원	
참여	참여 결정 요인	아동권리 인지	나는 학교에서 나의 권리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문13-1	문15-1	문20-1 ▲문20-4	문4-1	YHCI Q18. 4) 11)
			나는 학교 이외의 곳에서 나의 권리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문13-2	-	문20-2	-	
		징계소명권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징계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문13-3	문15-2	-	-	YHCI Q18. 7)
	학칙개정권	학교에서 교칙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문13-4	문15-3	▲문20-6	-	YHCI Q18. 8)	
	관용성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나는 나와 다른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 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문13-5	문15-5	문20-3	문4-3	YHCI Q3. 2)
사회 참여	학생대표의 운영위참여도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학생대표(학생회장, 반장, 부반장)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문13-4	문15-4	▲문20-5	문4-2	YHCI Q18. 6)	
주관적 웰빙 (3)	정서경험		나는 어제 행복했다	문5	문5 ■문21	문5 ▲문11	-	OECD, 2013
			나는 어제 근심 또는 걱정이 많았다	문6	문6 ■문22	문6 ▲문12	-	OECD, 2013
			나는 어제 우울했다	문7	문7 ■문23	문7 ▲문13	-	OECD, 2013
	삶의 만족도	나는 요즘 내 생활 전반에 만족한다	문3	문3 ■문19	문3 ▲문9	-	OECD, 2013	
	유데모니아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은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일이다	문4	문4 ■문20	문4 ▲문10	-	OECD, 2013	

2) 객관적 지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객관지표는 총 30개 항목으로, 본 지표의 목적이 청소년과 관련된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산출에 있기 때문에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예를 들어, 평균운동시간, 평균수면시간,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등은 전국 조사자료가 있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객관지표 자료를 작성하였다.

객관지표는 1차년도 연구에서 도출한 최종지표의 출처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최종지표 도출 과정에서 통계청 조사결과를 대폭 반영하기로 하였다. 객관지표의 자료 수집은 본 연구의 특성에 따라 ‘연구 대상인 청소년의 지표통계에 포함 여부’와 ‘17개 시·도 단위의 통계자료의 추출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객관지표의 경우, 해당 객관지표의 통계가 16개 시·도 단위로 구성 되어 대체가 어려운 지표가 많아 30개의 객관지표 중에는 17개 시·도 단위의 통계와 16개 시·도 단위의 통계가 혼재한다.

표 IV-15 객관지표 및 출처

영역	세부 영역	지표	출처
경제	소득/소비	지역경제수준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2012)
		지니계수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2012)
	복지	사회복지지출 비율	재정고, 사회복지비중(2014)
	주거	통학소요시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0)
	고용	경제활동 참가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
건강	건강상태	BMI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2013)
	건강결정 요인	평균운동시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2013)
		평균수면시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2013)
		청소년 흡연율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2013)
		청소년 음주율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2013)
		미디어 중독률	인터넷진흥원, 인터넷중독 실태조사(2013)
안전	사고	유해환경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12)
		청소년 도로사고율	도로교통공단, 2012년 지역별교통사고통계(2012)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12)
	범죄	청소년 범죄피해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 2010년 기준 범죄피해조사(2010)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2013)
		학교폭력 발생률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경접촉 종합실태조사(2012)
		청소년 범죄율	대검찰청 내부자료(2013)

영역	세부 영역	지표	출처
교육	교육기회	학교중단율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3초중등학교 주요공시정보 분석보고서 (2012.03.01~2013.02.28)
	교육의 조건과 과정	학교급당 학생수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2013 유초등통계(2013)
		학업성취도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3초중등학교 주요공시정보 분석보고서(2013)
		사교육비 지출액	통계청, 사교육비조사(2013)
활동	활동상태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통계청, 2013 사회조사(2013)
		문화여가 지출비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2012)
		동아리활동 참여율	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1)
		녹지 접근성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내부자료(2012)
		문화예술시설 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12)
		청소년 활동시설 수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백서(2012)
참여	역능성	청소년 자살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12)
	사회참여	자원봉사 참여율	통계청, 2013 사회조사(2013)

3. 자료수집의 결과

1) 주관적 지표조사 자료의 기초 분석

(1) 응답자 분포 및 구성

청소년, 부모, 교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주관적 지표조사의 최종 응답자의 분포는 <표 IV-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청소년 9,822명, 부모가 3,000명, 교사가 342명, 공무원이 139명이다. 청소년 응답자는 고등학생이 3,660명, 중학생이 3,339명, 초등학생이 2,823명으로 구성되었다. 지역별로는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도와 서울의 응답자 수가 가장 많다.

표 IV-16 응답자 분포

(단위 : 명, %)

지역	청소년				부모	교사	공무원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서울	1,173	323	409	441	510	40	15
부산	580	183	206	191	183	21	11
대구	606	165	210	231	156	20	10
인천	425	119	136	170	168	17	10
광주	534	140	194	200	107	17	6
대전	540	150	190	200	101	19	6
울산	524	107	180	237	76	18	6
세종	271	102	86	83	7	11	5
경기	1,244	378	464	402	760	41	21
강원	385	103	126	156	91	14	6
충북	489	170	144	175	95	18	6
충남	499	146	179	174	122	18	7
전북	439	123	174	142	118	16	7
전남	474	154	131	189	112	15	7
경북	626	182	190	254	149	22	5
경남	647	158	232	257	205	22	6
제주	366	120	88	158	40	13	5
전 체	9,822	2,823	3,339	3,660	3,000	342	139

청소년 응답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IV-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청소년의 비중(53.6%)이 여자청소년(46.4%)에 비해 다소 많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37.3%), 중학교(34.0%), 초등학교(28.7%) 순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전반적으로 도 지역(52.6%)의 청소년 비중이 시 지역(47.4%)에 비해 높고,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5대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주/제주권, 경상권)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경상권(30.4%)에서 가장 높은 분포 비율을 보였다.

표 IV-17 청소년 응답자의 구성

(단위 : 명, %)

구분		표본수	비율
전 체		9,822	100.0
성별	남자	5,267	53.6
	여자	4,555	46.4
학교급	초등학교	2,823	28.7
	중학교	3,339	34.0
	고등학교	3,660	37.3
도시규모	시	4,653	47.4
	도	5,169	52.6
학교소재지 권역별	수도권	2,842	28.9
	강원권	385	3.9
	충청권	1,799	18.3
	전라/제주권	1,813	18.5
	경상권	2,983	30.4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진단을 위해서 주관적 지표를 총 8가지 영역(경제, 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활동, 참여, 주관적 웰빙)에서 살펴보았다.

표 IV-18 주관적 지표

영역	세부영역	지표명
경제	소득/소비	가정경제만족도
건강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인지율, 스트레스 인지율*
	건강결정 요인	아침식사율, 고카페인 이용량*
안전	사고	지역사회시설 안전도, 학교시설 안전도, 위기상황대처 능력
	범죄	범죄 안전도*
교육	교육기회	직업교육 훈련기회
	교육효과	교과과정 만족도,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관계	미시체계	가족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
	중간체계	부모-교사 관계만족도, 부모-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학교-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 기관신뢰도
활동	활동기반	놀이친구 접근성
	활동인식	여가활동 시간인식, 공간인식, 용돈인식
참여	참여결정요인	아동권리 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관용성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 존중
	사회참여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도
주관적 웰빙	정서경험	정서경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	유데모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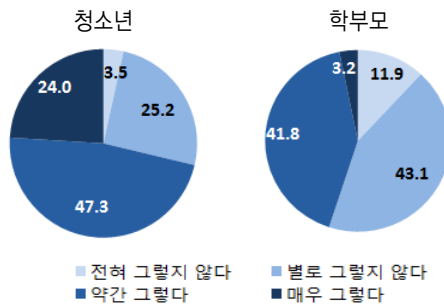
주1) * 지표는 역척도로 구성

(1) 경제

경제와 관련한 영역은 4개 세부영역에서 6개의 지표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주관적 지표는 가정경제만족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소득/소비 영역의 가정경제만족도를 제외한 지표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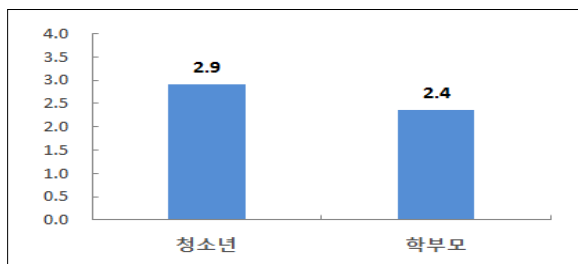
① 소득/소비

조사응답자들의 가정경제만족도는 청소년의 경우 47.3%가 '약간 그렇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3.1%로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청소년(3.5%)에 비해 학부모(11.9%)가 3배에 가까웠다.



【그림 IV-3】 가정경제만족도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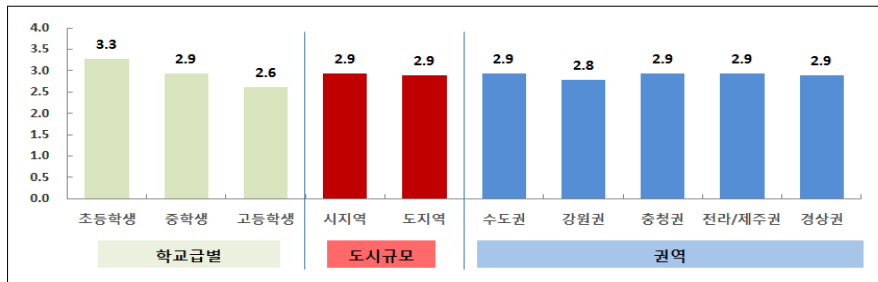
가계경제에 대한 청소년(2.9점)과 학부모(2.4점) 평균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34.298^{***}$)¹⁴⁾.



【그림 IV-4】 가정경제만족도 평균 비교

14) * $p<.05$, ** $p<.01$, *** $p<.001$ (이하 내용 동일)

청소년의 가정경제만족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3.3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중학생(2.9점), 고등학생(2.6점)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 규모로 살펴봤을 때는 시지역과 도지역이 동일한 수준(2.9점)을 보였으며,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권(2.8점)을 제외한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이 동일한 만족도(2.9점)를 보였다.



【그림 IV-5】 청소년의 집단별 가정경제만족도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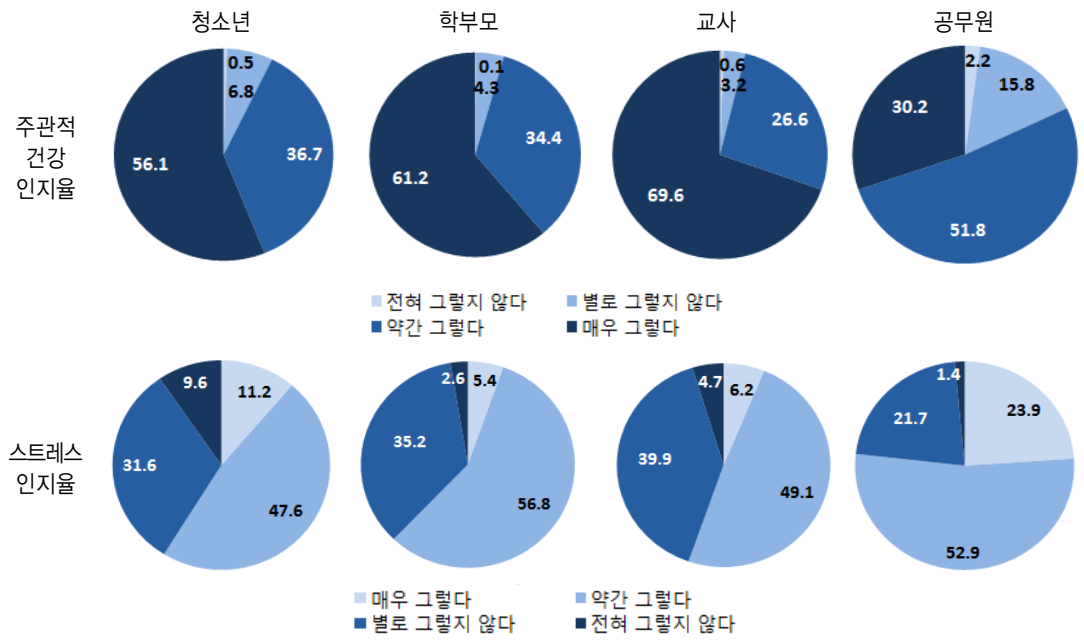
(2) 건강

① 건강상태

조사대상자 유형에 상관없이 주관적 건강인지율에서는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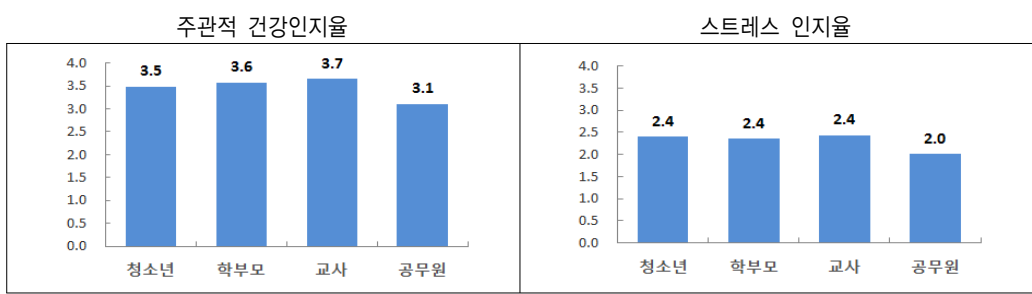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청소년(56.1%), 학부모(61.2%), 교사(69.6%)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공무원의 경우 30.2%만이 매우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약간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1.8%).

조사응답자들의 과반수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약간 그렇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간 그렇다’고 인지하는 학부모가 56.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이 52.9%, 교사가 49.1%, 청소년이 47.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6】 주관적 건강인지율 및 스트레스 인지율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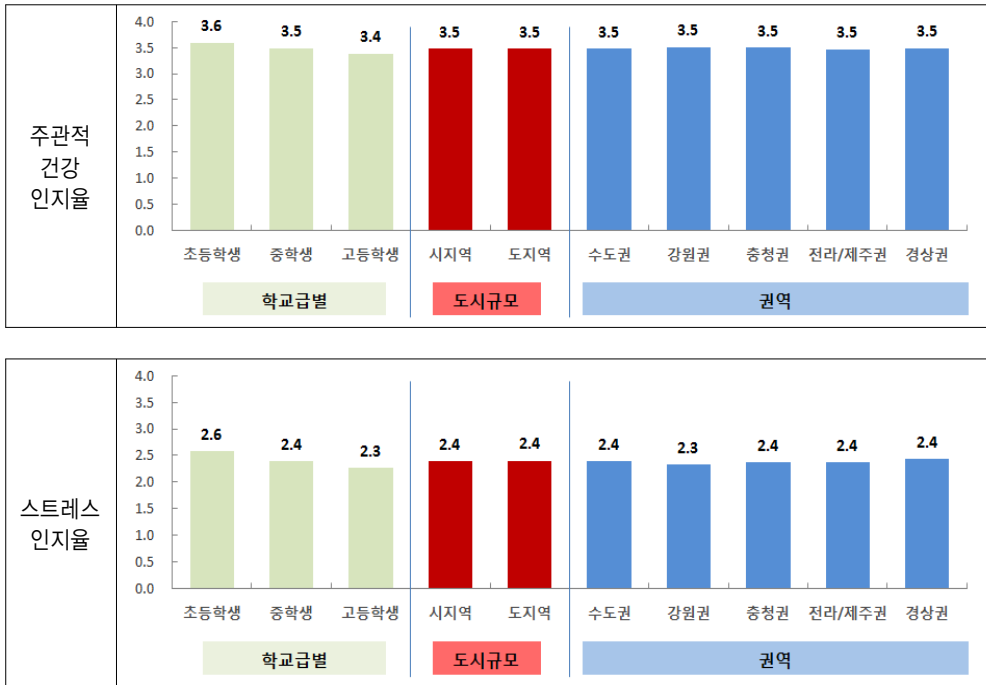
평균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율에 있어서는 교사(3.7점)가 가장 높고, 학부모(3.6점), 청소년(3.5점), 공무원(3.1점)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F=38.754***). 이와는 달리 스트레스 인지율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자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IV-7】 주관적 건강인지율 및 스트레스 인지율 평균 비교

주관적인 건강인지율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3.6점), 그리고 중학생(3.5점), 고등학생(3.4점) 순이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82.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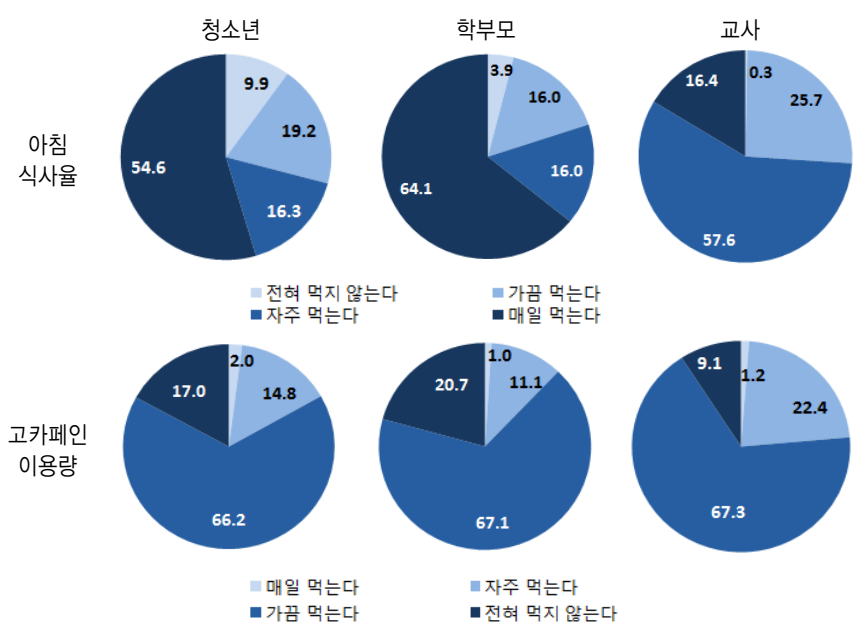
스트레스 인지율에 대하여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스트레스가 낮았으며(2.6 점), 다음으로 중학생(2.4점), 고등학생(2.3점) 순이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17.718^{**}$).



【그림 Ⅳ-8】 청소년의 집단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및 스트레스 인지율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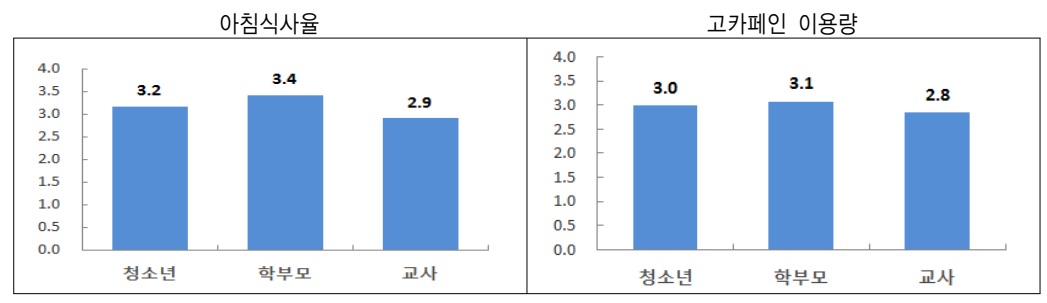
② 건강 결정요인

건강 결정요인으로서 매일 아침을 먹는 비율은 학부모(64.1%)의 비율이 청소년(54.6%)이나 교사(16.4%)에 비해 높고, 청소년들 중에서는 10명 중 1명(9.9%)은 아침을 전혀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카페인 이용량은 청소년(66.2%), 학부모(67.1%), 교사(67.3%) 모두 '가끔 먹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IV-9】 아침식사율 및 고카페인 이용량 응답 분포

조사응답자들의 아침식사에 한 응답대상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학부모(3.4점)가 청소년(3.2점)이나 교사(2.9점)에 비해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분석되었다($F=75.046^{***}$). 고카페인 이용량은 교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8점),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3.0점), 학부모(3.1점)가 낮으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37.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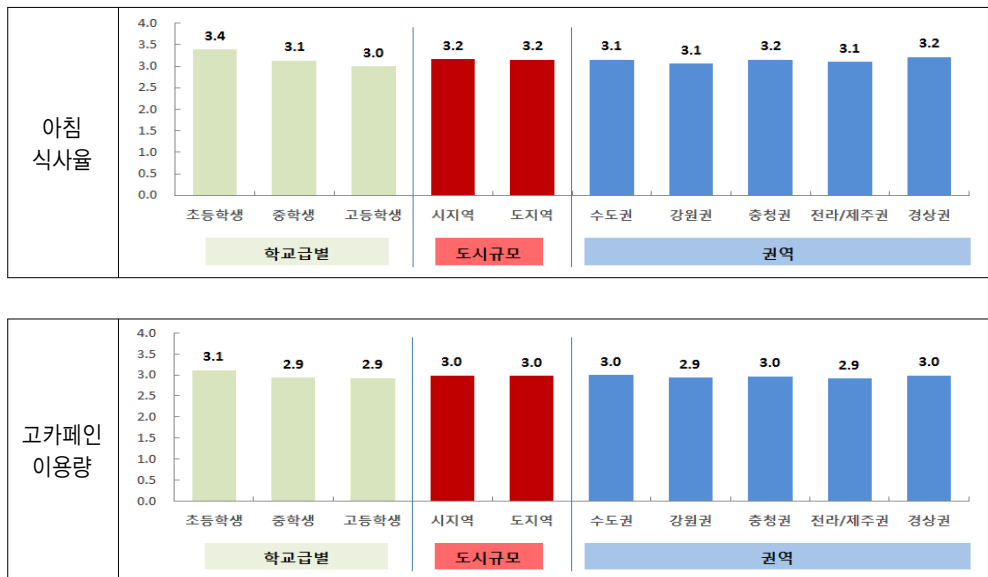


【그림 IV-10】 응답자별 아침식사율 및 고카페인 이용량 평균 비교

청소년의 아침식사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3.4점), 다음으로 중학생(3.1점), 고등학생(3.0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F=111.656^{***}$), 권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 경상권

(3.2점)이 수도권, 강원권, 전라/제주권(3.1점) 보다 아침식사율이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4.035^{**}$).

청소년의 고카페인 이용량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낮고(3.1점), 다음으로 중학생(2.9점), 고등학생(2.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F=93.167^{***}$), 권역별에서는 강원권, 전라/제주권(2.9점)이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3.0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F=5.447^{**}$),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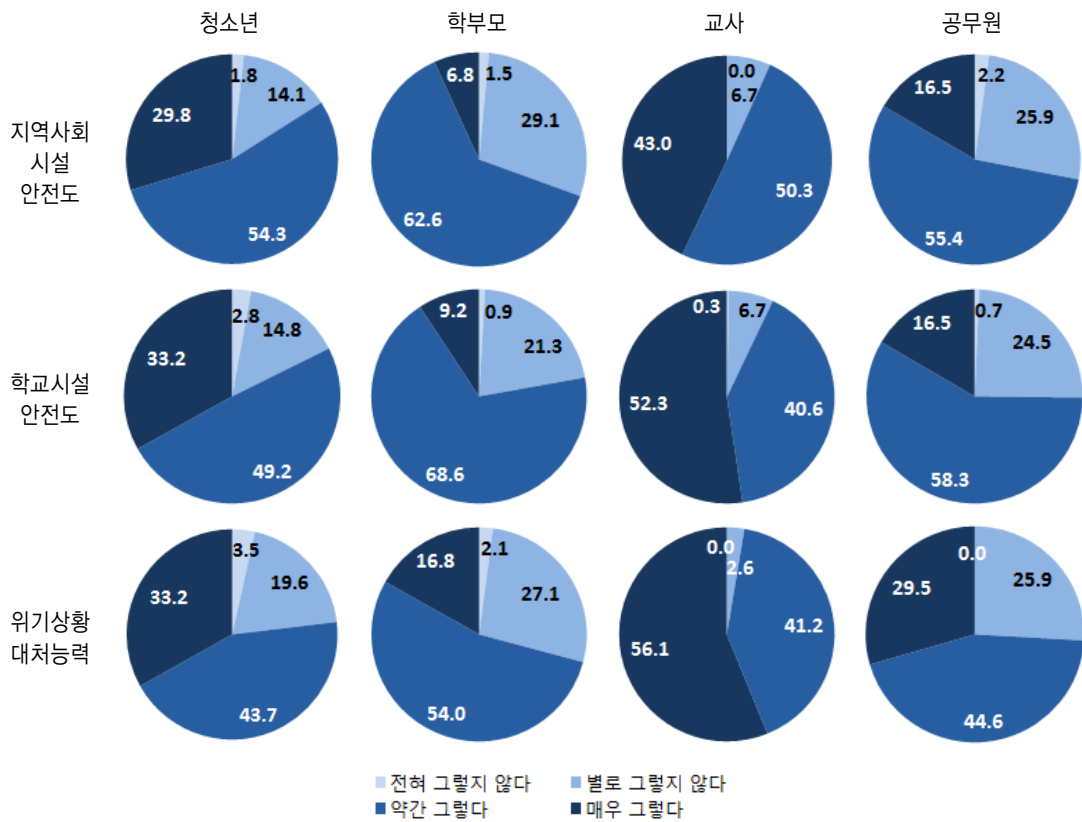
【그림 IV-11】 청소년의 집단별 아침식사율, 고카페인 이용량 평균 비교

(3) 안전

①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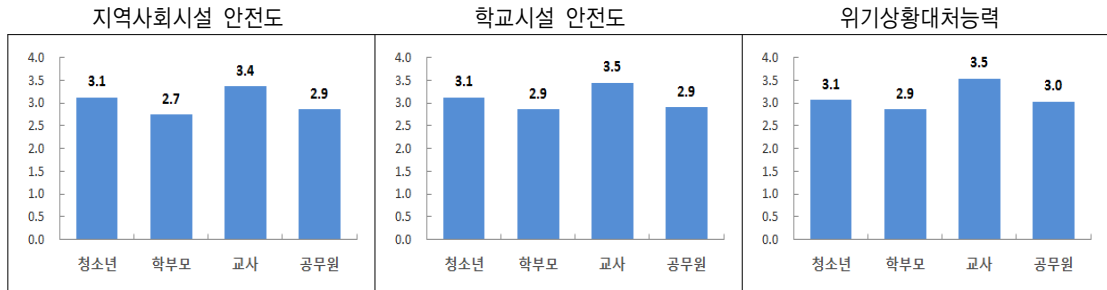
조사응답자들의 지역사회 시설의 안전에 대한 신뢰에서는 교사가 '매우 그렇다'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43.0%), 다음으로는 청소년과 공무원이 각각 29.8%, 16.5%로 응답하였으며, 학부모는 6.8%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시설의 안전에 대한 신뢰에서도 교사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으며(52.3%), 청소년은 33.2%, 공무원은 16.5%이었으며, 학부모는 지역사회 안전도에서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9.2%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조사응답자들의 위기상황 대처 능력에 대해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70.0% 이상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잘 알고 있는 경우는 교사가 56.1%로 가장 높았으며, 학부모가 1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약간 알고 있다는 응답은 학부모가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12】 지역사회시설 안전도, 학교시설 안전도, 위기상황대처능력 응답 분포

지역사회시설 안전도에 대한 교사(3.4점), 청소년(3.1점), 공무원(2.9점), 학부모(2.7점)의 평균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43.936^{***}$).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교사(3.5점), 청소년(3.1점), 공무원과 학부모(2.9점)의 평균 만족도 차이($F=135.927^{***}$)와 위기상황대처능력에 대한 교사(3.5점), 청소년(3.1점), 공무원(3.0점)과 학부모(2.9점)의 평균만족도 차이($F=92.483^{***}$)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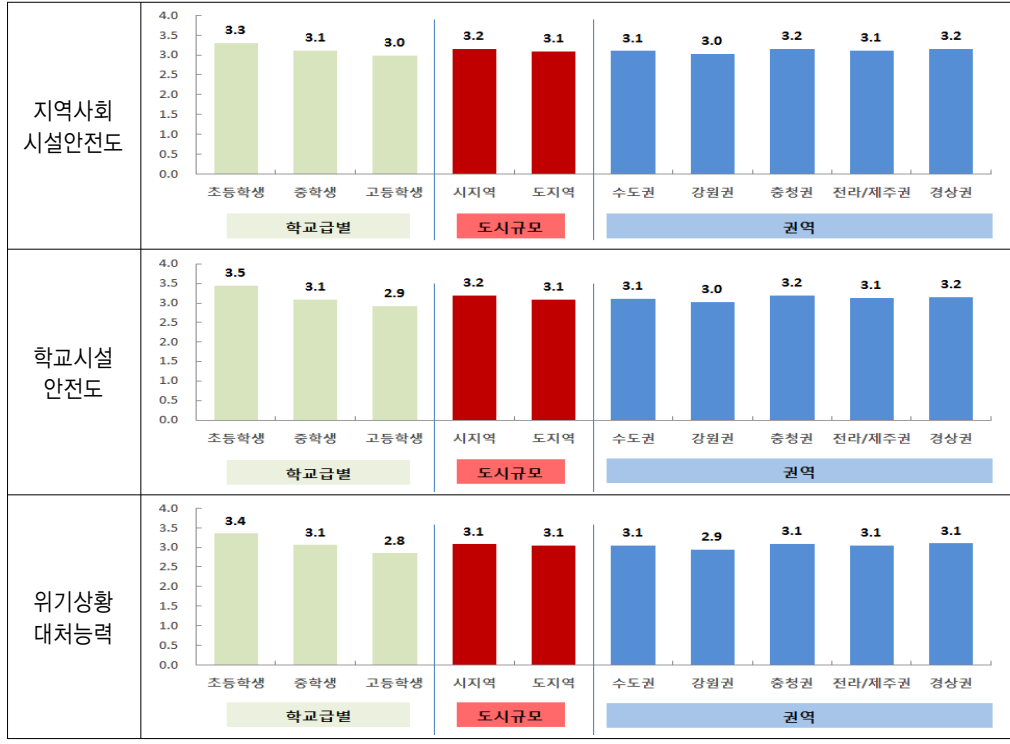


【그림 IV-13】 지역사회시설 안전도, 학교시설 안전도, 위기상황대처능력 평균 비교

청소년의 지역사회시설 안전도에 대하여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안전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3.3점), 다음으로 중학생(3.1점), 고등학생(3.0점)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역사회 시설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146.663^{***}$). 도시 규모로 살펴봤을 때, 시지역(3.2점)이 도지역(3.1점)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t=4.150^{***}$), 권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과 경상권이 지역사회시설의 안전도를 가장 높게 인지하며(3.2점), 다음으로 수도권과 전라/제주권(3.1점), 강원권(3.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F=4.980^{**}$).

학교시설 안전도에 대하여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안전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3.5점), 그리고 중학생(3.1점), 고등학생(2.9점) 순으로 나타나($F=407.605^{***}$), 지역사회 시설 안전도와 유사한 차이를 보였다. 도시 규모에서도 시지역(3.2점)이 도지역(3.1점)보다 더 안전하다고 신뢰하고 있었으며($t=6.262^{***}$), 권역별로는 충청권과 경상권이 학교시설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3.2점), 다음으로 수도권과 전라/제주권(3.1점), 강원권(3.0점) 순으로 나타났다($F=5.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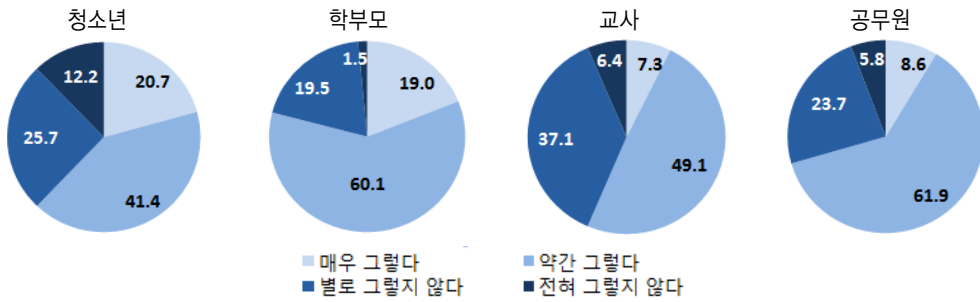
위기상황 대처능력에서도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이 가장 높으며(3.4점), 중학생 3.1점, 고등학생 2.8점 순으로 나타났다($F=263.079^{***}$).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3.1점)에서 위기상황 대처능력이 동일하였으며, 강원권(2.9점)이 가장 낮았다($F=3.914^{**}$).



【그림 IV-14】 청소년의 집단별 지역사회시설 안전도, 학교시설 안전도, 위기상황대처능력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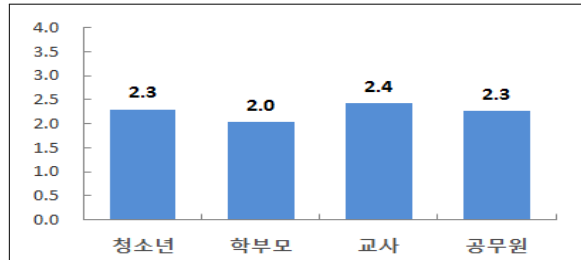
② 범죄

조사응답자들의 범죄 안전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은 청소년이 가장 높고(12.2%), 교사(6.4%), 공무원(5.8%), 학부모(1.5%) 순으로 조사되었으나, 매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 역시 청소년이 가장 높아(20.7%) 청소년들은 범죄피해에 대해 매우 안전하거나 매우 불안전하다는 인식으로 양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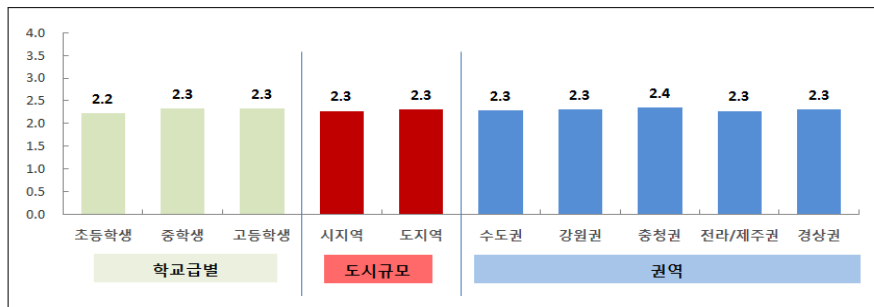
【그림 IV-15】 범죄안전도 응답 분포

범죄에 대한 안전도의 교사(24점), 청소년과 공무원(23점), 그리고 학부모(20점)의 평균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73.660^{***}$).



【그림 IV-16】 범죄안전도 평균 비교

청소년의 범죄 안전도의 평균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2.2점)이 중학생과 고등학생(2.3점)보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13.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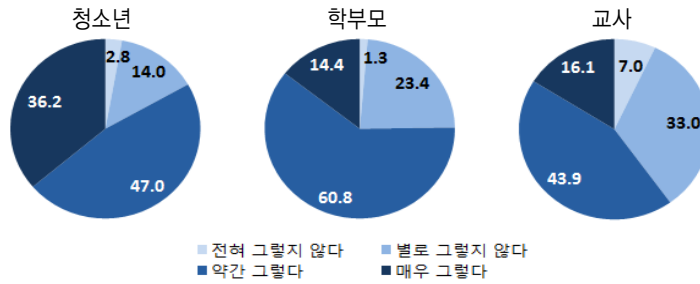


【그림 IV-17】 청소년의 집단별 범죄안전도 평균 비교

(4)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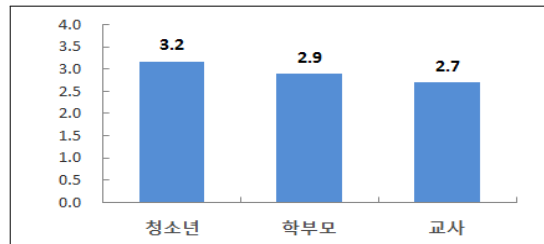
① 교육기회

조사응답자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훈련 기회를 살펴보면, '다양한 직업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청소년(36.2%)이 가장 많았으며, 교사(16.1%)와 학부모(14.4%)가 뒤를 이었다. 직업교육에 대한 훈련기회가 없다는 응답은 교사가 40.0%, 청소년 16.8%로 청소년 보다 교사가 직업 교육 훈련기회가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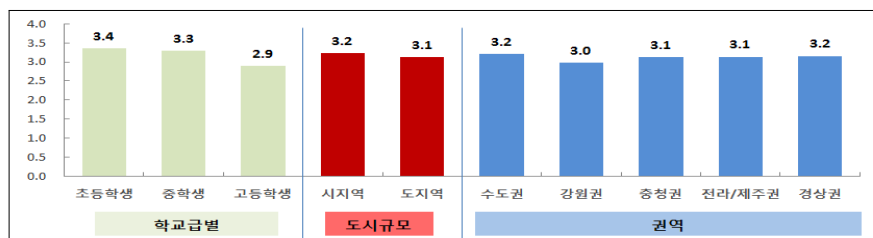
【그림 IV-18】 직업교육 훈련기회 응답 분포

직업교육의 훈련기회의 평균 차이는 청소년(3.2점)이 가장 높았고, 학부모(2.9점), 교사(2.7점) 순으로 나타났다($F=181.945^{***}$).



【그림 IV-19】 직업교육 훈련기회 평균 비교

청소년의 직업교육 훈련기회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3.4점), 중학생(3.3점), 고등학생(2.9점) 순으로 나타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직업교육의 훈련기회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F=328.221^{***}$). 도시 규모로는 시지역(3.2점)이 도지역(3.1점)보다 높으며($t=6.720^{***}$),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경상권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3.2점)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9.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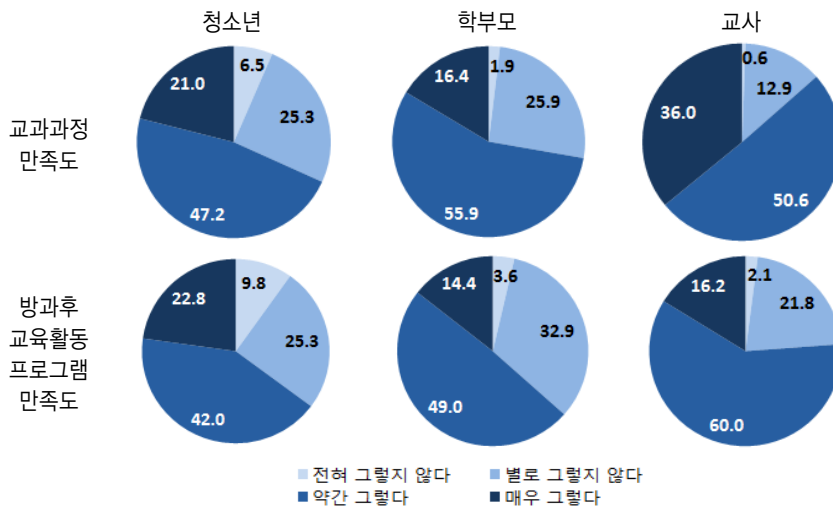


【그림 IV-20】 청소년의 집단별 직업교육 훈련기회 평균 비교

② 교육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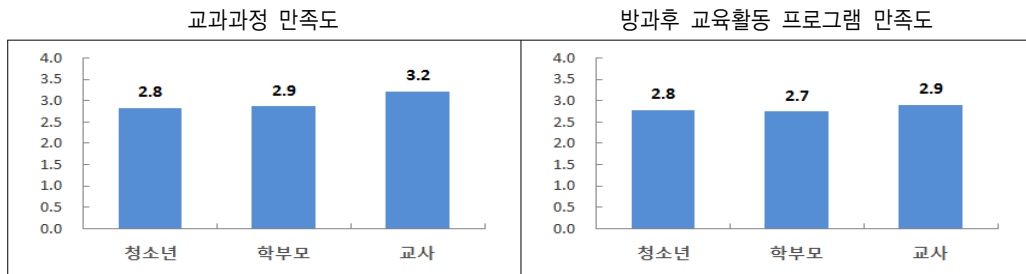
조사응답자들의 교과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사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6.0%).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은 청소년이 6.5%, 교사 0.6%로 청소년과 교사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역시 교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 혹은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76.2%이며, 청소년이 64.8%, 학부모가 63.4%로 나타났다.



【그림 IV-21】 교과과정 만족도,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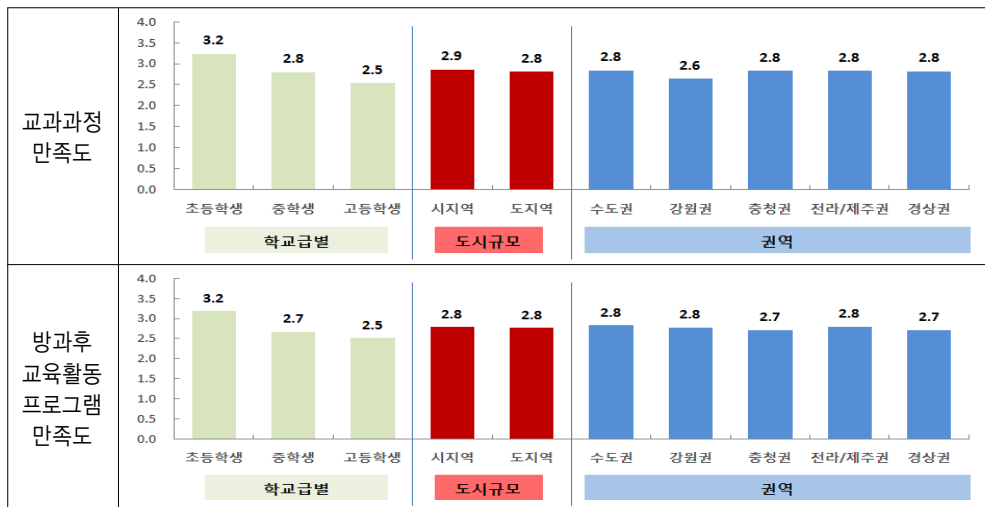
교과과정에 대한 교사(3.2점), 청소년(2.8점)의 평균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44.512^{***}$).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또한 교사(2.9점)가 다른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4.278^{**}$).



【그림 IV-22】 교과과정 만족도,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 비교

청소년의 교과 과정 만족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만족도가 3.2점으로 가장 높으며, 중학생 2.8점, 고등학생 2.5점으로 이러한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481.678^{***}$). 도시 규모로는 시지역(2.9점)이 도지역(2.8점)에 비해 높으며($t=3.046^{**}$),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역(2.8점)에 비하여 강원권(2.6점)이 낮게 나타났다($F=5.475^{**}$).

청소년의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 초등학생(3.2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학생(2.7점), 고등학생(2.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F=403.148^{***}$). 권역별로는 수도권, 강원권과 전라/제주권(2.8점)이 충청권과 경상권(2.7점)에 비해 높으며, 이와 같은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5.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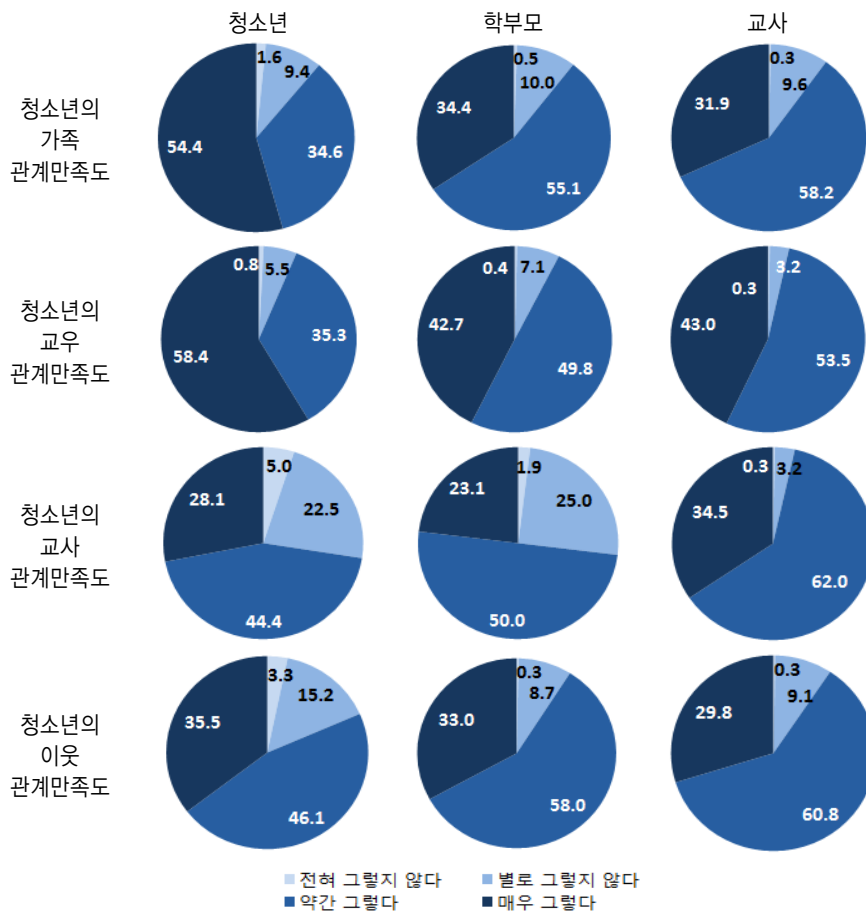
【그림 IV-23】 청소년의 집단별 교과과정 만족도,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 비교

(5) 관계

① 미시체계

관계 만족도는 가족과의 관계,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이웃(지역사회)과의 관계 4영역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응답자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청소년의 경우 54.4%가 '매우 그렇다', 학부모(55.1%)와 교사(58.2%)의 경우에는 '약간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우관계 만족도에서도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청소년(58.4%)이 가장 많았으며, 교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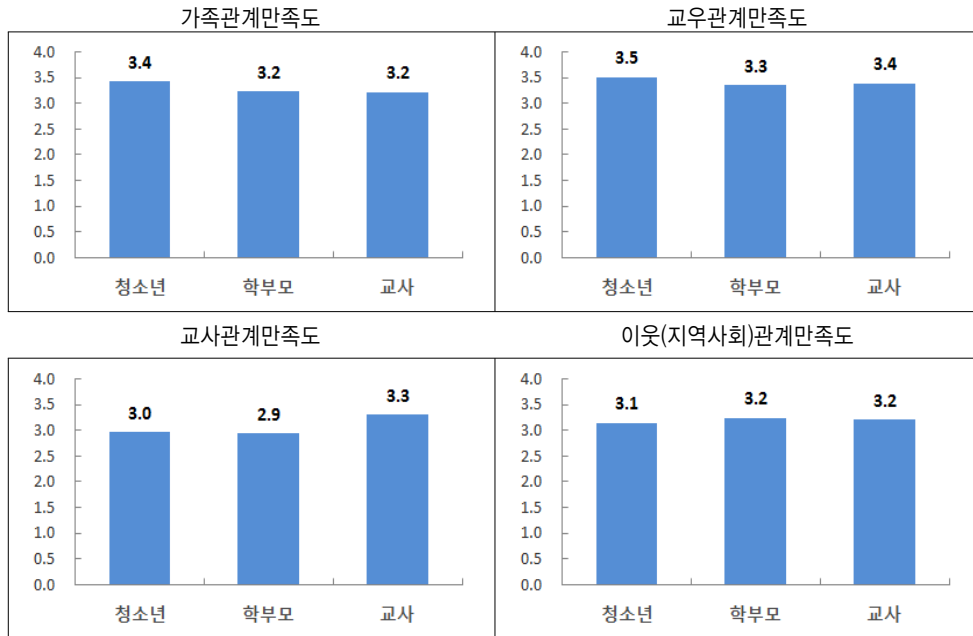
학부모는 ‘약간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에서는 교사가 62.0%로 가장 만족하고 있으며, 교사와 달리 청소년과 학부모는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27.5%, 26.9%로 교사의 부정적 응답비율(3.5%)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웃(지역사회)과의 관계만족도에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청소년(35.5%)이 가장 많았고, 학부모(33.0%)와 교사(29.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M-24】 청소년의 관계만족도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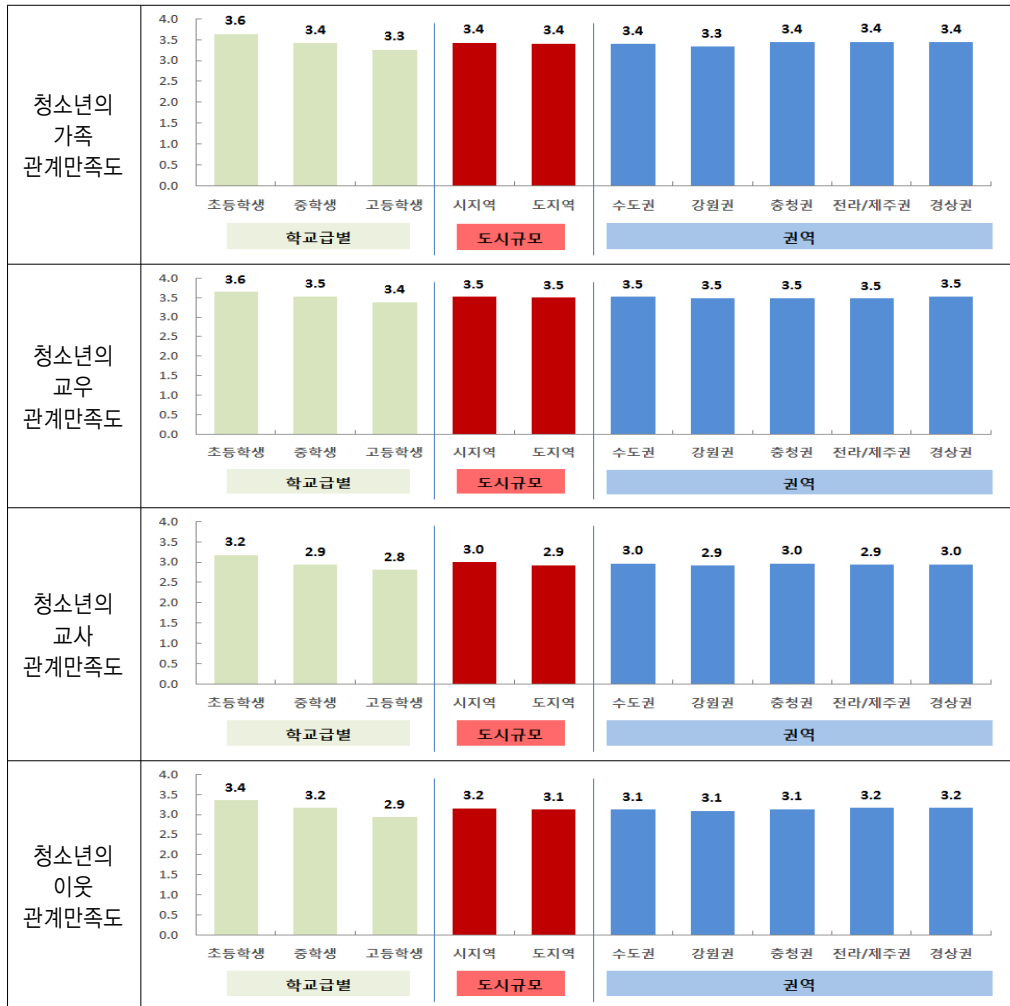
가족관계에 대하여 청소년(3.4점)과 학부모와 교사(3.2점)의 평균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81.402^{***}$). 교우관계에서도 청소년이 교사와 학부모에 비해 평균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F=66.902^{***}$). 반면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의 평균은 교사가 가장 높았으며(3.3점, $F=31.877^{***}$),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학부모와 교사(3.2점)가 청소년(3.1점)에

비해 평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F=22.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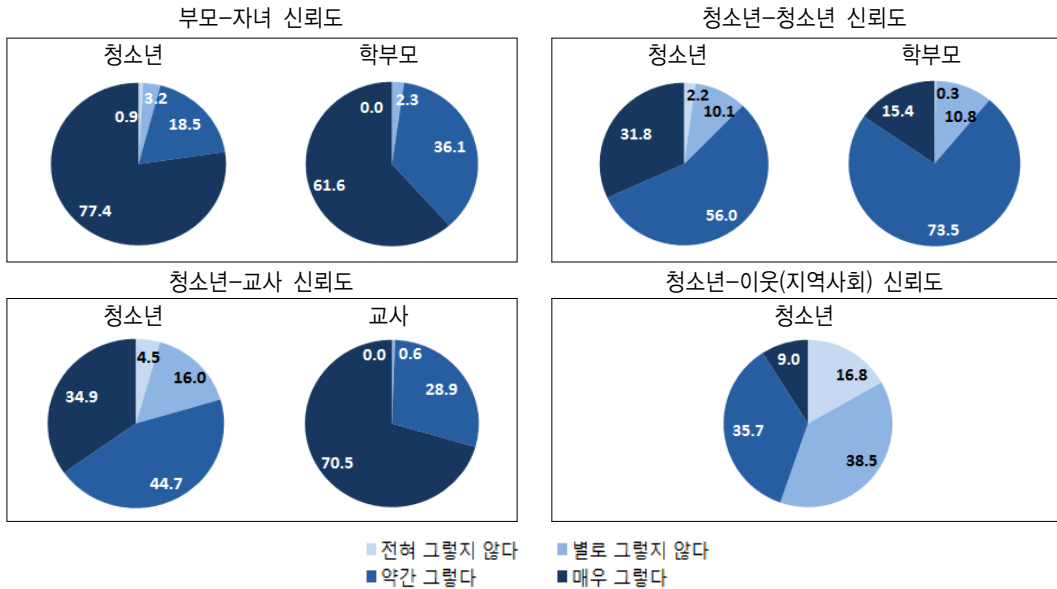
【그림 IV-25】 청소년의 관계만족도 평균 비교

청소년의 가족관계만족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3.6점), 중학생(3.4점), 고등학생(3.3점) 순으로 나타났다($F=206.769^{***}$). 권역별로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3.4점)에 비하여 강원권(3.3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3.396^*$). 청소년의 교우관계만족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3.6점), 중학생(3.5점), 고등학생(3.4점) 순으로 나타났다($F=112.500^{***}$). 교사와의 관계만족도에서도 초등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3.2점), 다음으로 중학생(2.9점), 고등학생(2.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F=141.941^{***}$), 도시 규모에서는 시지역(3.0점)이 도지역(2.9점)보다 교사관계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4.639^{***}$). 이웃과의 관계만족도에서도 초등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3.4점), 중학생(3.2점), 고등학생(2.9점) 순으로 나타났고($F=219.766^{***}$), 이와 같은 만족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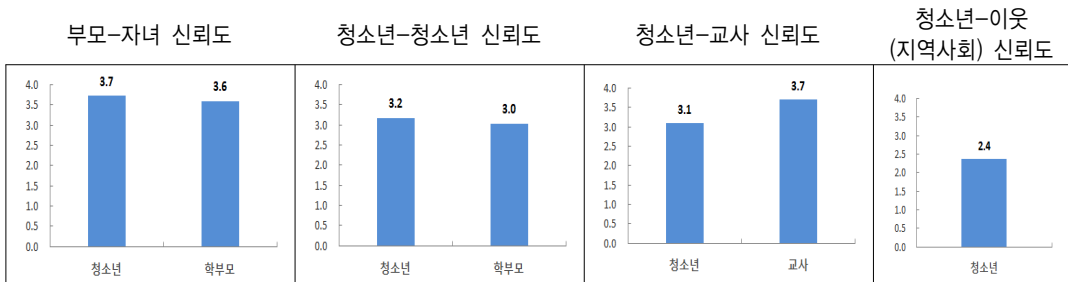
【그림 IV-26】 청소년의 집단별 관계만족도 평균 비교

미시체계의 일반신뢰도 중 부모 자녀 간 신뢰도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77.4%)이 학부모(61.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과 청소년 간의 신뢰도인 교우관계만족도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87.8%, 학부모는 88.9%로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사와 청소년 간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가 70.5%로 34.9%인 청소년에 비해 두 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웃과 청소년 간의 신뢰도에서 매우 신뢰하는 청소년이 9.0%에 불과했다.



【그림 Ⅳ-27】 미시체계 일반신뢰도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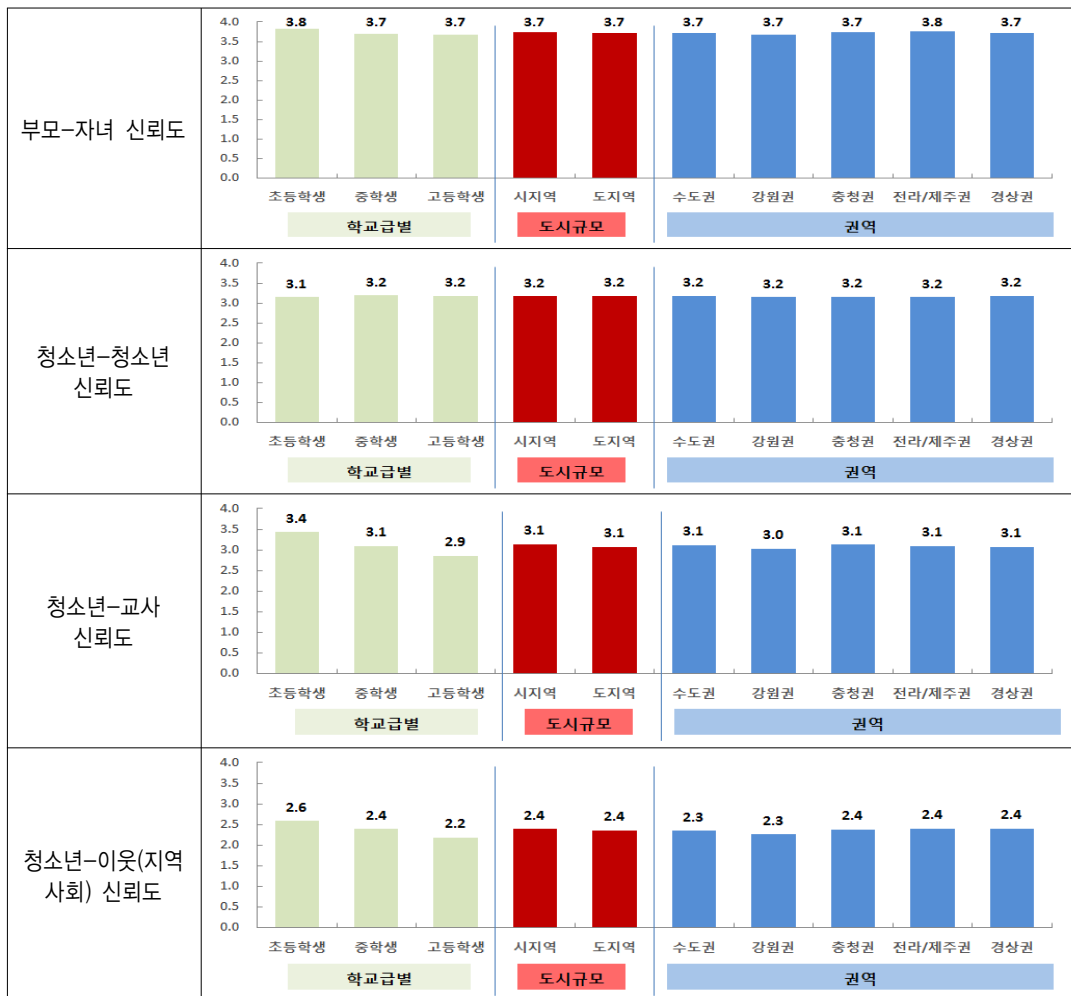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도에 대한 청소년(3.7점), 학부모(3.6점)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청소년이 부모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1.354^{***}$). 청소년 간의 교우 관계 신뢰도에서는 청소년(3.2점)이 학부모(3.0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F=9.785^{***}$). 교사와 청소년 간의 신뢰도에서는 교사(3.7점)가 청소년(3.1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13.38^{***}$).



【그림 Ⅳ-28】 미시체계 일반신뢰도 평균 비교

청소년의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도에 대하여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3.8 점),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3.7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F=59.551^{***}$). 청소년 간의 교우관계 신뢰도에 대해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3.2점)이 초등학생(3.1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F=4.097^*$), 이와 같은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청소년과 교사 간의 신뢰도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높으며(3.4점), 다음으로 중학생(3.1점), 고등학생(2.9 점) 순으로 나타났다($F=403.191^{***}$). 도시 규모에서는 시지역과 도지역 간에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1점). 청소년과 이웃 간의 신뢰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2.6점), 중학생(2.4점), 고등학생(2.2점) 순으로 나타나($F=164.059^{***}$),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미시관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권역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충청권과 전라/제주권, 경상권(2.4점)이 수도권과 강원권(2.3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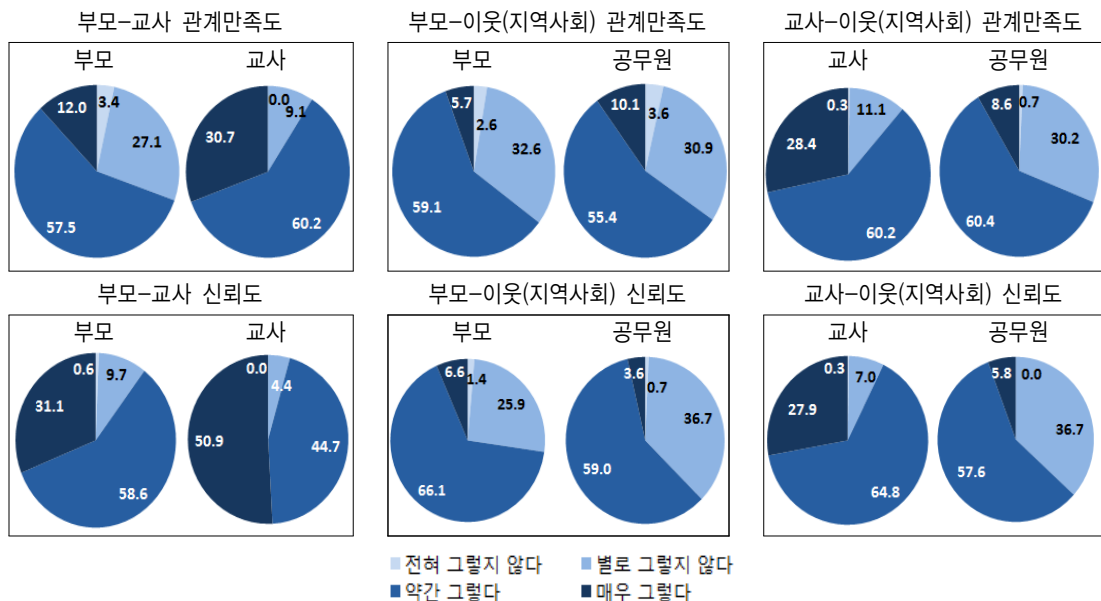


【그림 N-29】 청소년의 집단별 일반신뢰도 평균 비교

② 중간체계

조사응답자들의 부모와 교사 관계 만족도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교사 30.7%, 학부모 12.0%로 교사가 학부모 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모와 이웃(지역사회) 관계 만족도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65.5%, 부모는 64.8%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교사와 이웃(지역사회)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가 88.6%, 공무원은 69.0%로 교사가 공무원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들의 부모와 교사 관계 신뢰도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가 50.9%로 학부모(31.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이웃(지역사회) 관계 신뢰도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부모는 72.7%, 공무원은 62.6%로 부모가 공무원보다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이웃(지역사회) 신뢰도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로 응답한 교사가 92.7%로 교사가 공무원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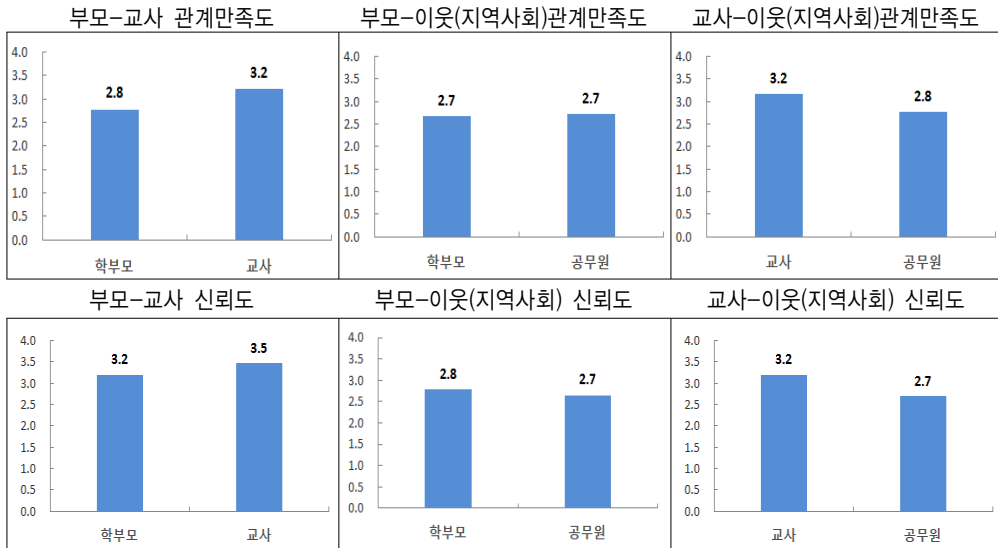


【그림 IV-30】 중간체계 관계만족도 및 일반신뢰도 응답 분포

조사응답자들의 부모와 교사 관계 대한 교사(3.2점), 학부모(2.8점)의 평균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8.046^{***}$). 교사와 이웃(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교사(3.2점), 공무원(2.8점)의 평균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t=6.434^{***}$).

부모와 교사 관계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교사(3.5점)가 학부모(3.2점)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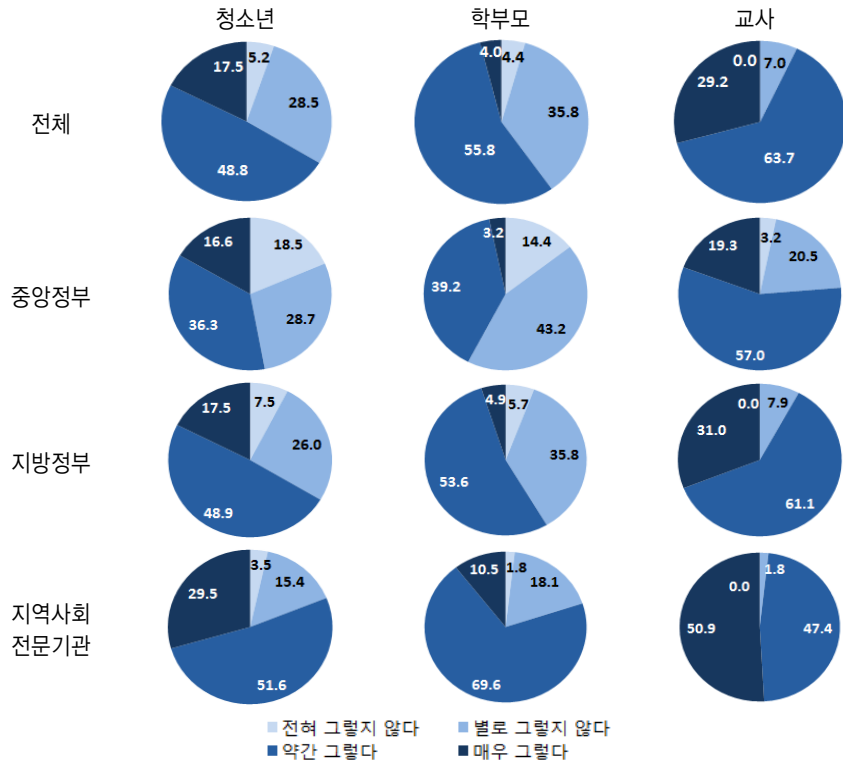
신뢰가 높으며($t=9.505^{***}$), 부모와 이웃(지역사회) 관계의 신뢰도에서는 학부모(2.8점)와 공무원(2.7점) 간에 근소한 차이가 있으며, 이와 같은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2.496^*$). 교사와 이웃(지역사회) 신뢰도에서는 교사(3.2점)가 공무원(2.7점)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8.937^{***}$).



【그림 Ⅳ-31】 중간체계 관계만족도 및 일반신뢰도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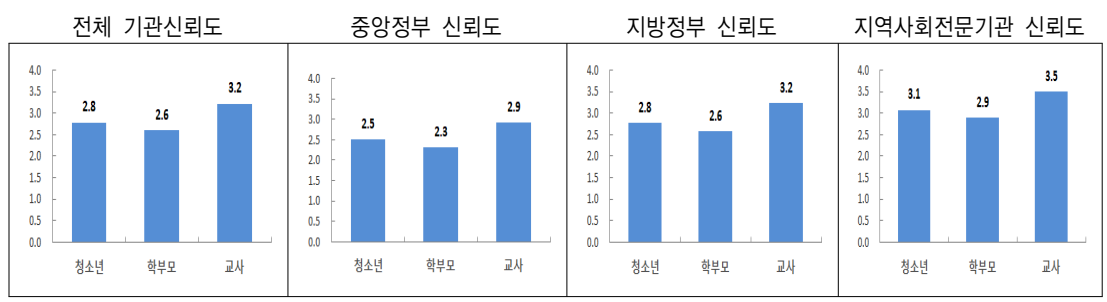
기관신뢰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전문기관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조사응답자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적으로 교사가 가장 높았으며, 학부모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매우 믿는다'와 '약간 믿는다'고 응답한 교사(92.9%)가 청소년(66.3%)과 학부모(59.8%)에 비해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매우 믿는다'와 '약간 믿는다'고 응답한 교사(76.3%)가 청소년(52.9%)과 학부모(4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믿는다'와 '약간 믿는다'고 응답한 교사(92.1%)가 청소년(66.4%)과 학부모(88.5%)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지역사회전문기관에 대한 신뢰도에서도 '매우 믿는다'와 '약간 믿는다'고 응답한 교사(98.3%)가 청소년(81.1%)과 학부모(80.1%)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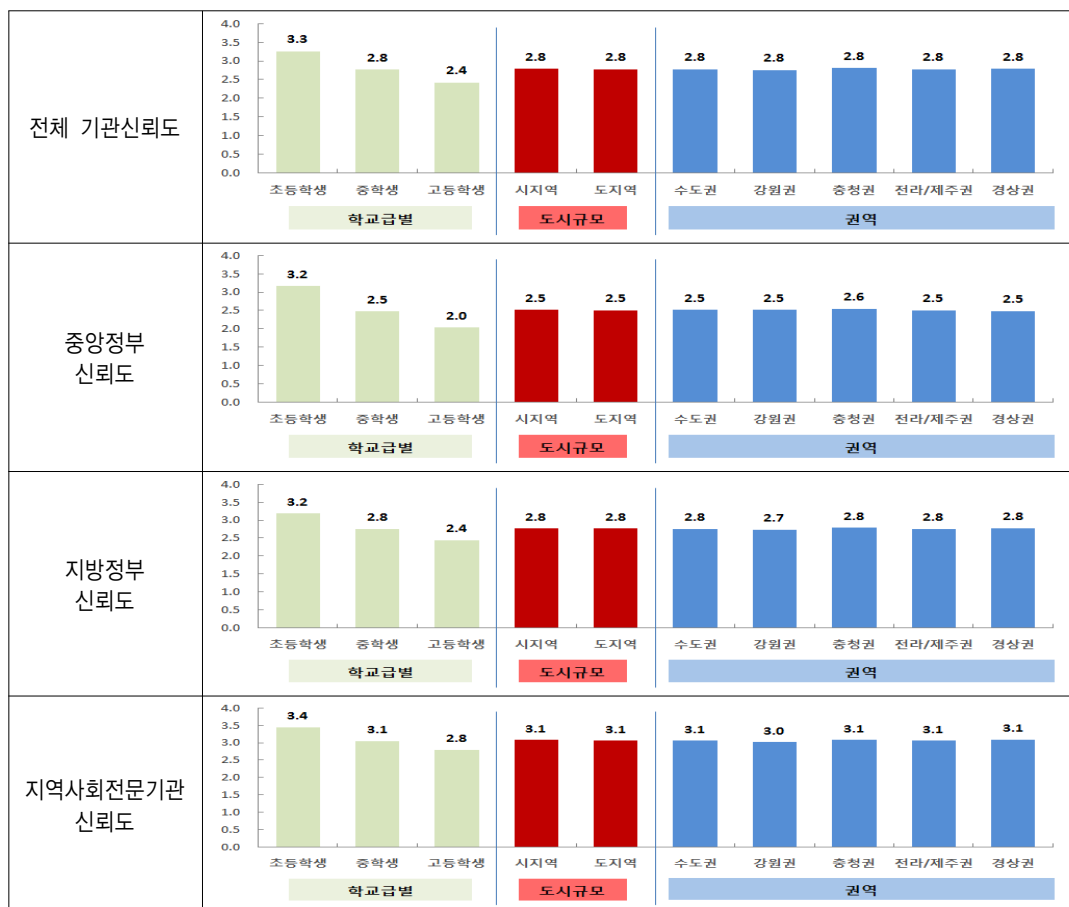
【그림 IV-32】 기관신뢰도 응답 분포

조사응답자들의 기관신뢰도의 평균 차이는 교사(3.2점)가 청소년(2.8점)과 학부모(2.6점)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57.922***).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교사(2.9점), 청소년(2.5점), 학부모(2.3점) 순으로(F=91.575***) 나타났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에서도 교사(3.2점), 청소년(2.8점), 학부모(2.6점) 순으로 나타났다(F=131.391***). 지역사회전문기관에 대한 신뢰도 역시 교사(3.5점), 청소년(3.1점), 학부모(2.9점) 순으로 나타났다(F=139.614***).



【그림 IV-33】 기관신뢰도 평균 비교

청소년의 전체 기관신뢰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3.3점), 중학생(2.8점), 고등학생(2.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F=1241.115^{***}$). 이러한 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전문기관에 대한 신뢰도 모두에서 초등학생의 평균 신뢰도(각각 3.2점, 3.2점, 3.4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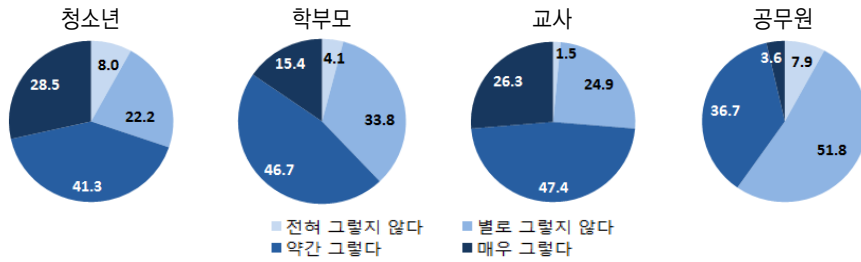


【그림 IV-34】 청소년의 집단별 기관신뢰도 평균 비교

(6)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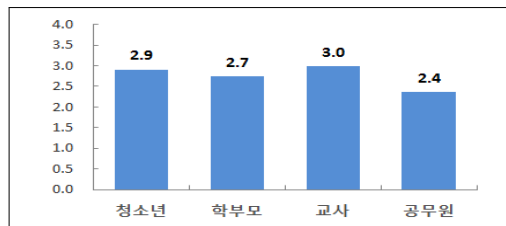
① 활동기반

놀이친구 접근성은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로 응답한 교사가 73.7%로 공무원(40.3%)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공무원이 59.7%로 교사(26.4%)에 비해 2배에 가깝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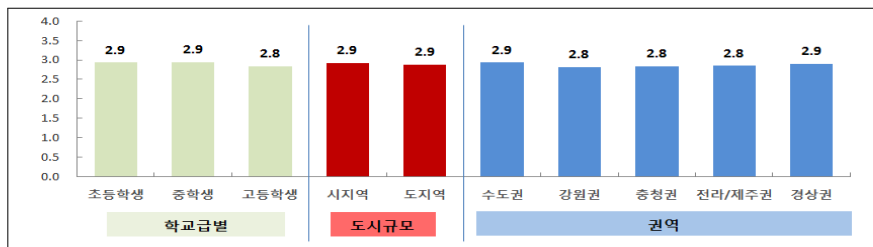
【그림 IV-35】 놀이친구 접근성 응답 분포

놀이친구 접근성에 대해 교사는 3.0점, 다음으로 청소년 2.9점, 학부모 2.7점, 공무원 2.4점의 평균 차이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43.889***).



【그림 IV-36】 놀이친구 접근성 평균 비교

청소년의 놀이친구접근성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2.9점), 고등학생(2.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F=12.407***), 권역별로도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었으나, 강원권과 충청권, 전라/제주권(2.8점)에 비해 수도권과 경상권(2.9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F=4.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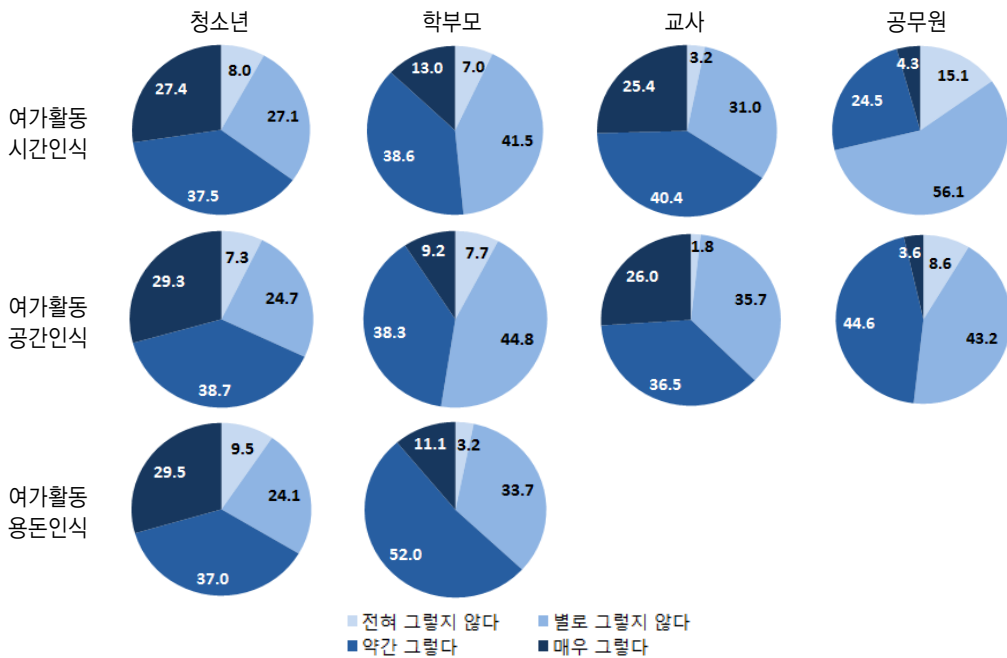


【그림 IV-37】 청소년의 집단별 놀이친구 접근성 평균 비교

② 활동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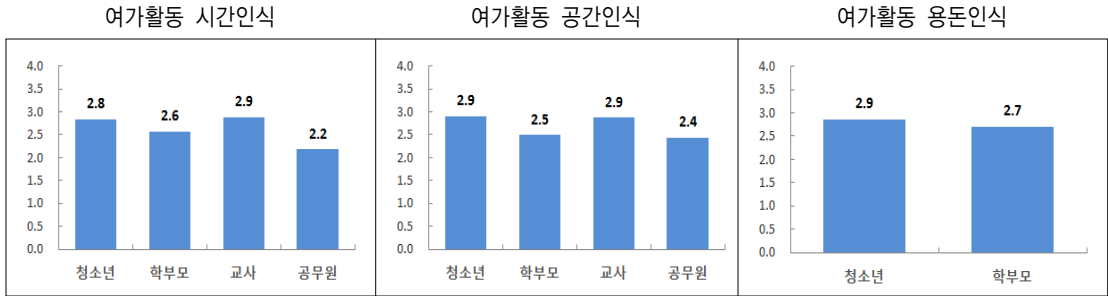
조사응답자들의 여가활동 시간인식을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의 비율이 65.8%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64.9%, 학부모는 51.6%, 공무원은 28.8%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공간인식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청소년이 68.0%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 62.5%, 공무원 48.2%, 학부모 4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돈에 대한 인식은 학부모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는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청소년(29.5%)이 학부모(11.1%)에 비해 두 배 높게 나타났으나, '약간 그렇다'는 응답에서는 학부모(52.0%)가 청소년(37.0%)보다 많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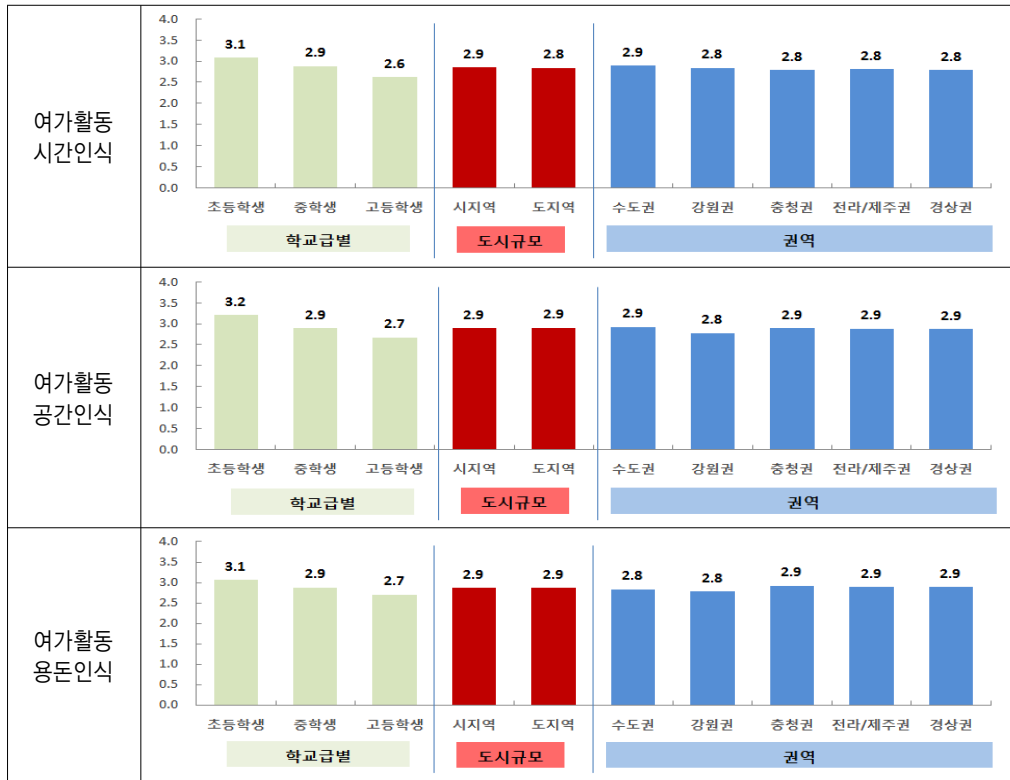
【그림 IV-38】 여가활동의 시간인식, 공간인식, 용돈인식 응답 분포

여가활동 인식 중 시간인식에 대한 교사(2.9점)와 청소년(2.8점), 학부모(2.6점)와 공무원(2.2점)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90.283^{***}$). 공간인식에서도 교사와 청소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9점, $F=170.941^{***}$), 용돈인식은 청소년(2.9점), 학부모(2.7점)의 평균이 차이를 보였고,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t=8.268^{***}$).



【그림 IV-39】 시간인식, 공간인식, 용돈인식 평균 비교

청소년의 여가활동 시간인식에 대하여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며(3.1점), 중학생(2.9점), 고등학생(2.6점) 순으로 나타났다($F=215.773^{***}$). 권역별에서는 수도권(2.9점)이 강원권과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2.8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7.748^{***}$). 여가활동 공간인식에 대해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시간인식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며(3.2점), 중학생(2.9점), 고등학생(2.7점) 순으로 나타났다($F=269.826^{***}$).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2.9점)에 비해 강원권(2.8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3.456^*$). 여가활동 용돈인식에서도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3.1점), 중학생(2.9점), 고등학생(2.7점) 순으로 나타났다($F=105.042^{***}$).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가활동과 관련된 시간, 공간, 용돈에 관한 충분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역별 비교에서는 수도권과 강원권(2.8점)이 충청권과 전라/제주권, 경상권(2.9점)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3.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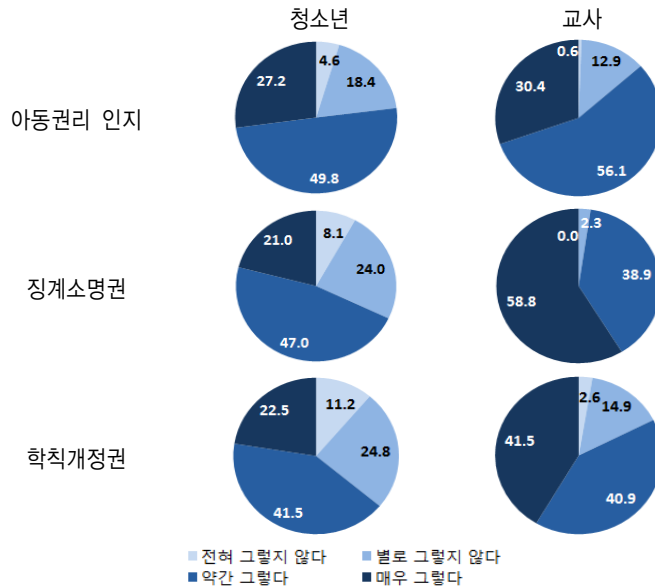


【그림 IV-40】 청소년의 집단별 시간인식, 공간인식, 용돈인식 평균 비교

(7)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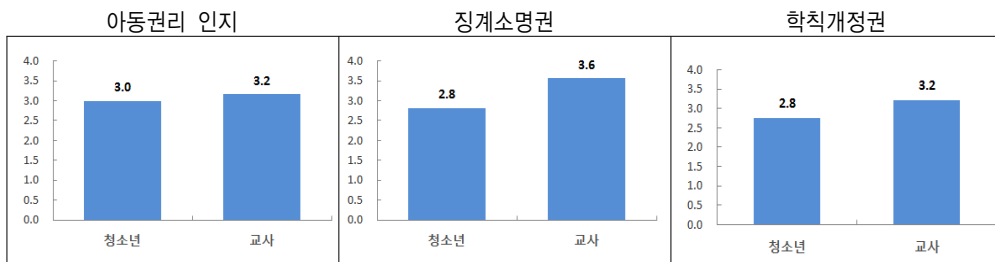
① 참여결정요인

조사응답자들의 아동권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사(30.4%)가 청소년(27.2%)에 비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징계소명권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58.8%)가 청소년(21.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학칙개정권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41.5%)가 청소년(22.5%)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1】 아동권리 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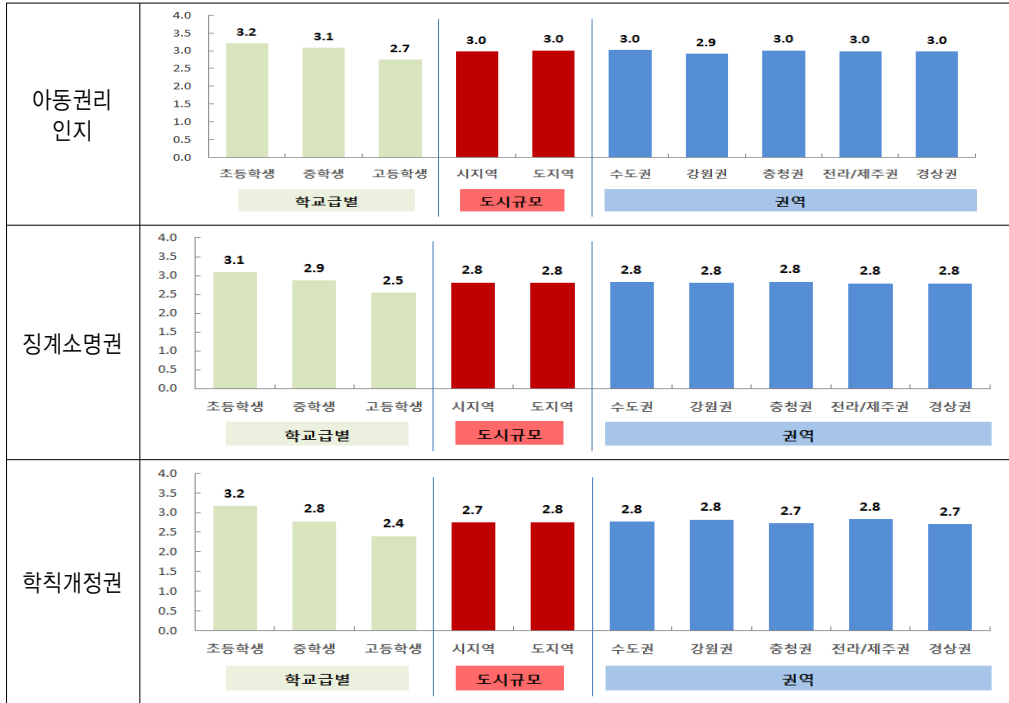
참여결정요인과 관련된 아동권리 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모두에서 교사의 평균 점수(각각 3.2점, 3.6점, 3.2점)가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균 차이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각각 $t=104.507^{***}$, $t=-16.18^{***}$, $t=24.096^{***}$).



【그림 IV-42】 아동권리 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평균 비교

청소년의 아동권리 인지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3.2점), 중학생(3.1점), 고등학생(2.7점) 순으로 나타났다($F=255.604^{***}$). 징계소명권에 대해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3.1점), 중학생(2.9점), 고등학생(2.5점) 순으로 나타났다($F=282.409^{***}$). 학칙개정권 역시 초등학생이 가장 높으며(3.2점), 중학생(2.8점), 고등학생(2.4점) 순서로 나타났다($F=487.042^{***}$). 권역별은 수도권과 강원권, 전라/제주권(2.8점)이 충청권과 경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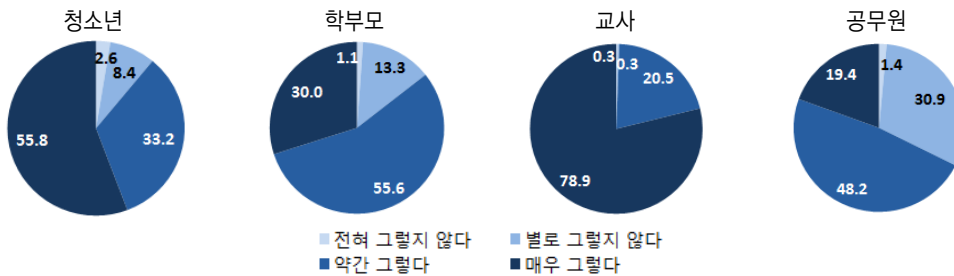
권(2.7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366***).



【그림 IV-43】 청소년의 집단별 아동권리 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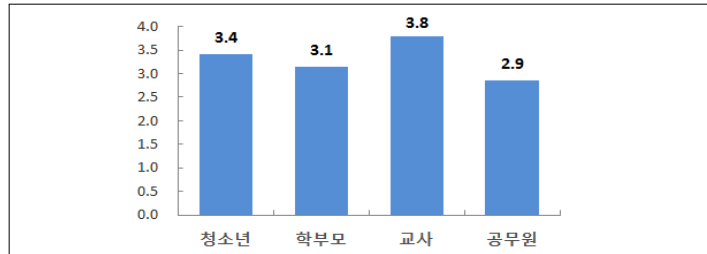
② 관용성

조사응답자들의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가 78.9%로 다른 응답자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이 55.8%, 학부모가 30.0%, 공무원이 19.4%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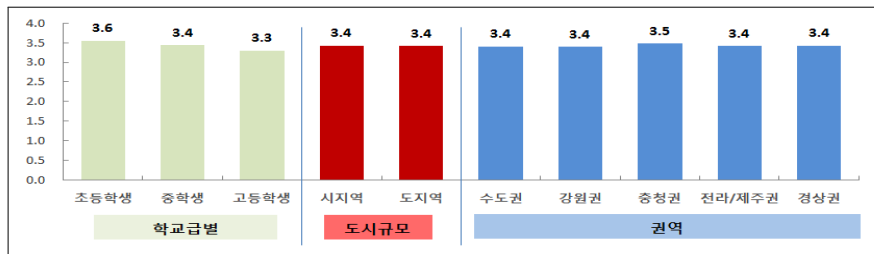
【그림 IV-44】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응답 분포: 존중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성에 대한 교사(3.8점)와 공무원(2.9점)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90.112^{***}$).



【그림 IV-45】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평균 비교: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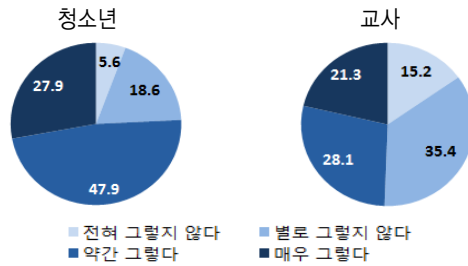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성에 대해 청소년의 학교급별 응답을 살펴보면, 초등학생(3.6점)이 가장 높고, 중학생(3.4점), 고등학생(3.3점)이 뒤를 이었다($F=57.221^{***}$).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성이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IV-46】 청소년의 집단별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평균 비교: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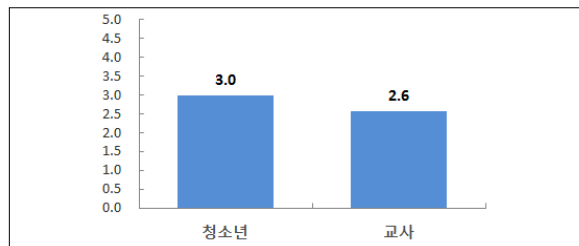
③ 사회참여

학생대표의 운영위원회 참여도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27.9%)이 교사(2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절반 정도(50.6%)는 학생대표의 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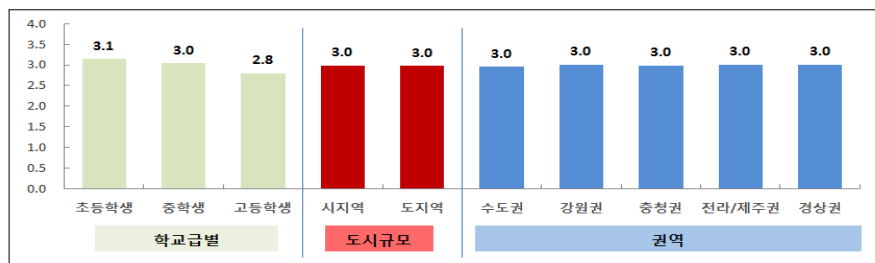
【그림 IV-47】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도 응답 분포

조사응답자별로 학생대표의 운영위원회 참여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청소년(3.0점)이 교사(2.6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951^{***}$).



【그림 IV-48】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도 평균 비교

청소년의 학생대표 운영위원회 참여도를 학교급별로 비교해보면, 초등학생이 3.1점으로 가장 높으며, 중학생(3.0점), 고등학생(2.8점) 순으로 나타났다($F=115.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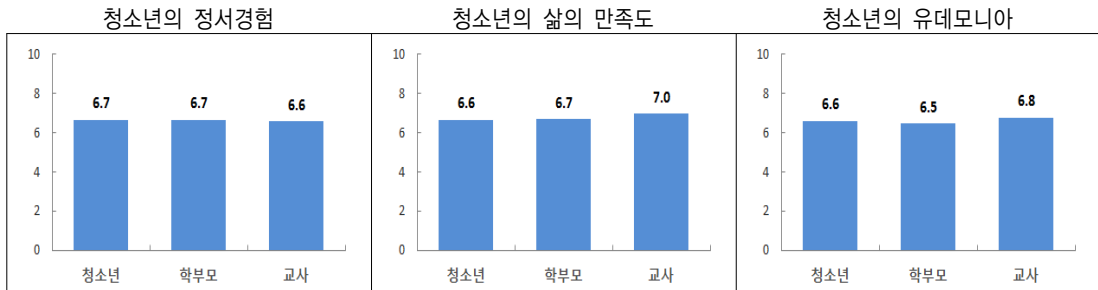
【그림 IV-49】 청소년의 집단별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도 평균 비교

(8)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은 3가지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정서경험과 삶의 만족도, 유테모니아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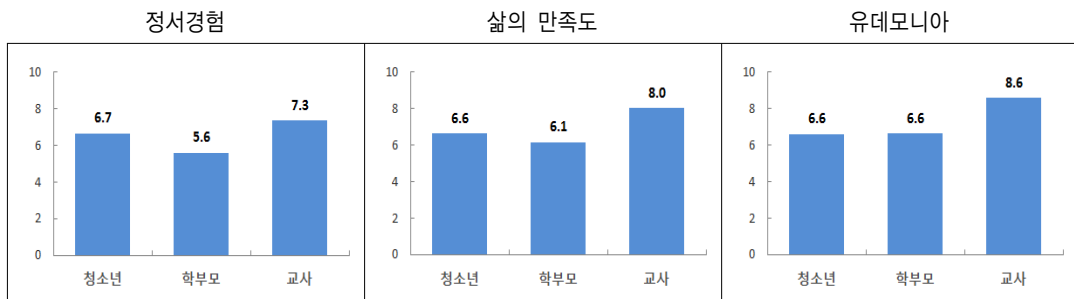
각각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긍정적 정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0점' ~ 매우 행복했다 '10점', 부정적 정서: 근심 걱정이 전혀 없었다 '0점' ~ 매우 많았다 '10점',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0점' ~ 매우 우울했다 '10점' / 삶의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 / 유데모니아 : 전혀 가치 없다 '0점' ~ 매우 가치 있다 '10점').

다음의 [그림 IV-50]에서는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인식 차이를 살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정서경험에서는 교사(6.6점)가 청소년과 학부모(6.7점) 보다 청소년의 정서를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청소년의 유데모니아에서는 교사(각각 7.0점, 6.8점)가 학부모(6.7점, 6.5점)와 청소년(6.6점, 6.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50】 청소년의 정서경험,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 응답 분포

응답자들의 주관적 웰빙을 살펴보면, 주관적 웰빙에서는 교사가 7.3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부모가 5.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F=297.374^{***}$). 삶의 만족도와 유데모니아에서도 교사가 각각 8.0점과 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각각 $F=123.871^{***}$, $F=123.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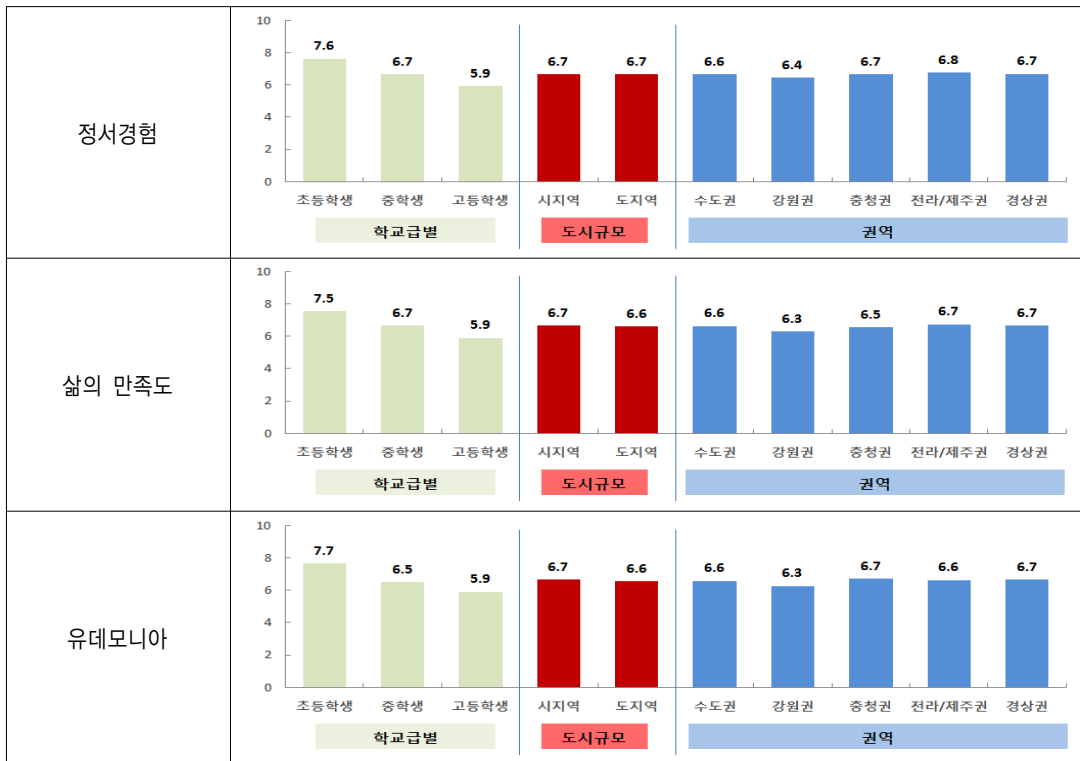


【그림 IV-51】 정서경험,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 평균 비교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항목 중 정서경험에 대해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며(7.6점), 중학생(6.7점), 고등학생(5.9점) 순으로 나타났다($F=468.886^{***}$).

삶의 만족도의 학교급별 평균 차이는 초등학생(7.5점), 중학생(6.7점), 고등학생(5.9점) 순으로 나타났다($F=407.189^{***}$). 권역별 삶의 만족도 평균은 전라/제주권과 경상권이 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권이 6.3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F=2.812^*$).

유데모니아의 학교급별 평균은 초등학생(7.7점), 중학생(6.5점), 고등학생(5.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F=476.976^{***}$), 도시 규모에 대해서는 시지역(6.7점)과 도지역(6.6점) 간에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t=2.199^*$). 권역별 유데모니아의 평균은 다른 권역에 비해 강원권(6.3점)이 낮게 나타났다($F=2.715^*$).



[그림 IV-52] 청소년의 집단별 정서경험,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 평균 비교

2) 객관적 지표수집 자료의 기초 분석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진단을 위해서 객관적 지표를 경제, 건강, 안전, 교육, 활동, 참여 등 총 6가지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표 IV-19 객관적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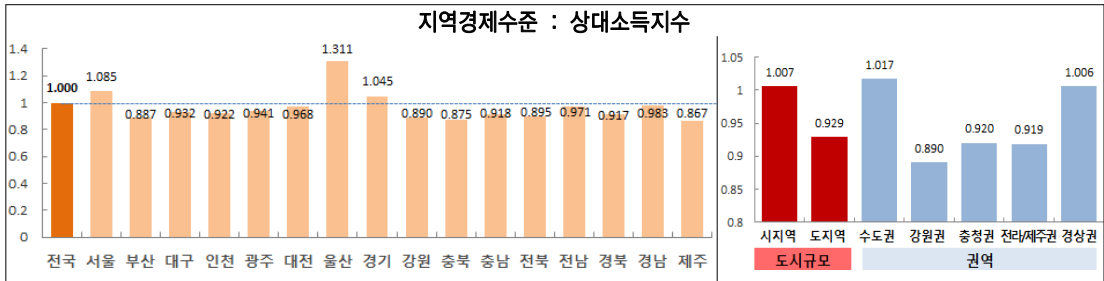
영역	세부영역	지표명
경제	소득/소비	지역경제수준, 지니계수
	복지	사회복지지출 비율
	주거	통학 소요시간
	고용	경제활동 참가율
건강	건강상태	BMI
	건강결정 요인	평균운동시간, 평균수면시간,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미디어 중독률
안전	사고	유해환경, 청소년 도로사고율,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
	범죄	(청소년)범죄피해율, 아동 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폭력 발생률, 청소년 범죄율
교육	교육기회	학교중단율
	교육의 조건과 과정	학급당 학생수, 학업성취도, 사교육비 지출액
활동	활동상태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 동아리활동 참여율, 녹지 접근성, 문화예술시설 수, 청소년 활동시설 수
참여	역능성	청소년 자살률
	사회참여	자원봉사 참여율

(1)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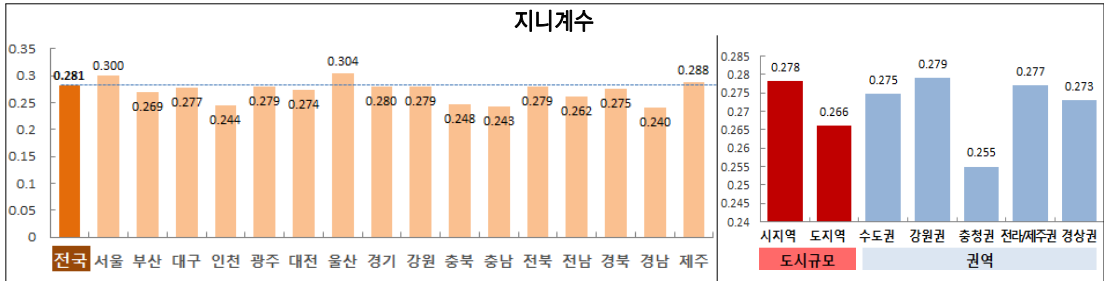
① 소득/소비

소득과 소비 지표로서 상대소득지수와 지니계수를 조사하였다. 상대소득지수를 전국의 시도 16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울산이 1.311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0.867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도시규모로 살펴보면 시지역과 도지역 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시지역이 1.007로 전체보다 약간 높게 나온 반면, 도지역은 0.929로 전체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0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권(1.006), 충청권(0.920), 전라/제주권(0.919), 강원권(0.890)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니계수를 살펴본 결과 역시 울산이 0.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이 0.240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도시규모에서도 시지역(0.278)과 도지역(0.266)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이 0.255로 타권역에 비해 상당히 낮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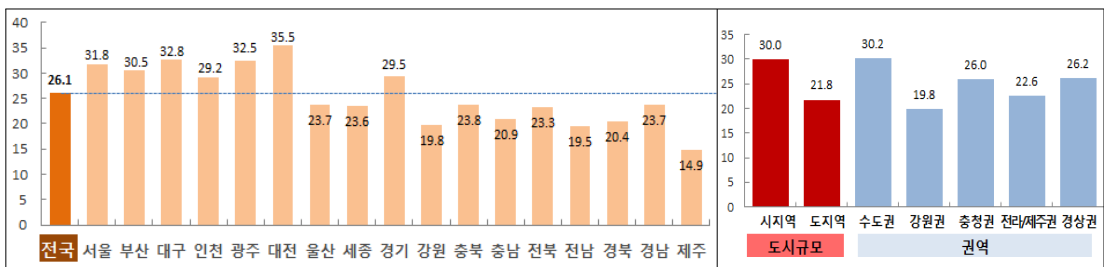
출처: 재정고 홈페이지, http://lofin.mospa.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Sabok_03.jsp 에서 2014년 7월 17일 인출
주: 부록2, 객관지표 수집자료 참조 (이하 그림 동일)



출처: 통계개발원(2013). 한국의 사회동향 2013, p.169.

【그림 IV-53】 소득/소비 지표

사회복지지출 비율에서 대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5.5%), 대구(32.8%), 광주(32.5%), 서울(31.8%)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가 14.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시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시지역(30.0%)과 도지역(21.8%)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5개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30.2%)이 가장 높았으며, 강원권(19.8%)이 가장 낮은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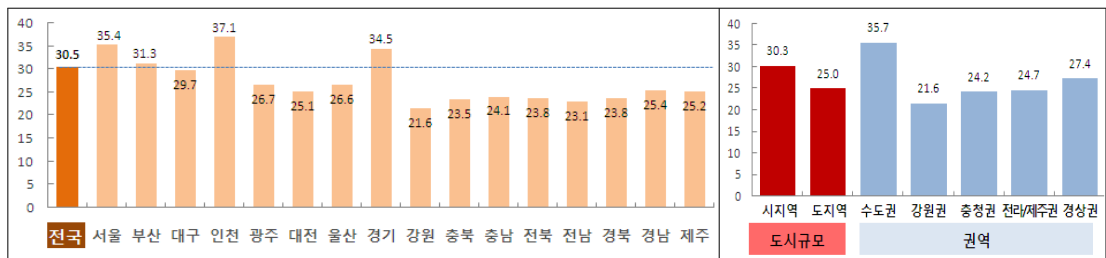


출처: 재정고 홈페이지, http://lofin.mospa.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Sabok_03.jsp 에서 2014년 7월 17일 인출

【그림 IV-54】 복지 지표(사회복지지출 비율)

③ 주거

통학소요 시간에 대해 국민 삶의 질 지표 식으로 계산 한 결과, 인천이 37.1분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35.4분으로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되었다. 가장 낮은 곳은 강원(21.6분)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에 대해 비교한 결과 시지역(30.3분)과 도지역(25.0분)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수도권이 35.7분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권이 21.6분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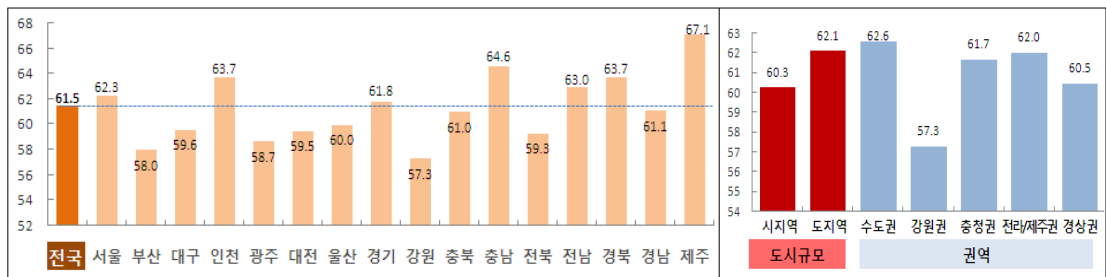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A1018&conn_path=13 에서 2014년 6월 7일 인출.

【그림 IV-55】 주거 지표(통학 소요시간)

④ 고용

경제활동 참가율을 16개 시도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제주가 6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이 64.6%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강원이 57.3%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도시 규모 간 비교에서는 앞선 결과들과는 반대로 도지역(62.1%)이 시지역(60.3%)보다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수도권(62.6%)이 가장 높았으며, 전라/제주권(62.0%), 충청권(61.7%), 경상권(60.5%), 강원권(57.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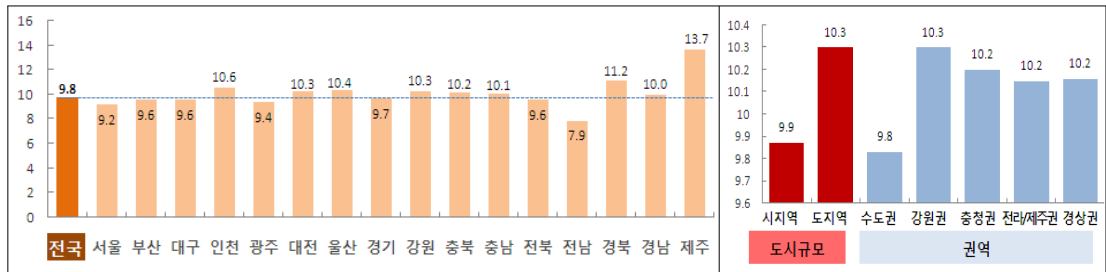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5&conn_path=13 에서 2013년 7월 17일 인출.

【그림 IV-56】 고용 지표(경제활동 참가율)

(2) 건강

① 건강상태

건강상태에 대해서 16개 시도지역 간에 BMI 지수를 산출하였는데, 제주가 13.7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7.9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도시 규모간에는 도지역(10.3)이 시지역(9.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권이 10.3으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이 9.8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74-177.

【그림 Ⅳ-57】 건강상태지표(BMI)

② 건강결정 요인

건강결정요인은 5가지 영역, 평균운동시간, 평균수면시간,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미디어 중독률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평균운동시간은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을 조사하였는데, 전국 평균이 12.6%로 나타났다. 16개 시·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14.7%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14.5%로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 16개 시·도지역 중 경북이 11.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규모별로 살펴보면 시지역(13.0%)과 도지역(12.4%)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5개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충청권이 1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권이 12.2%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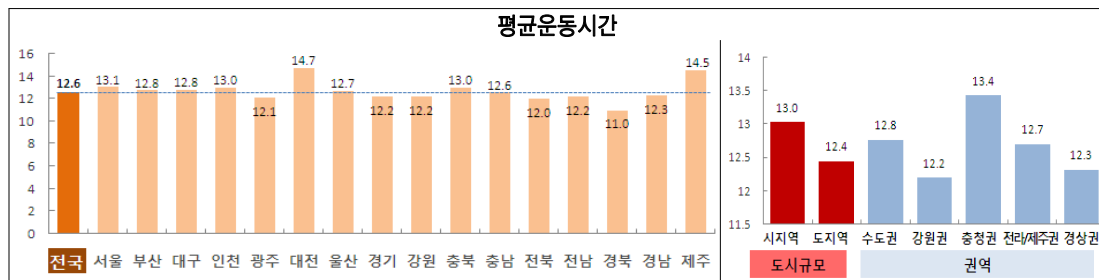
평균수면시간은 주중(월~금요일)의 수면시간의 평균을 조사하였는데 전국평균은 6.4시간으로 나타났다. 강원(6.7시간)의 평균수면시간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6.5시간)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광주가 6.2시간으로 16개 시도지역 중 가장 적게 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 규모별로 살펴보면 도지역(6.5시간)에 비해 시지역(6.3시간)에서 수면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권이 6.7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하루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을 조사하였는데, 전국 평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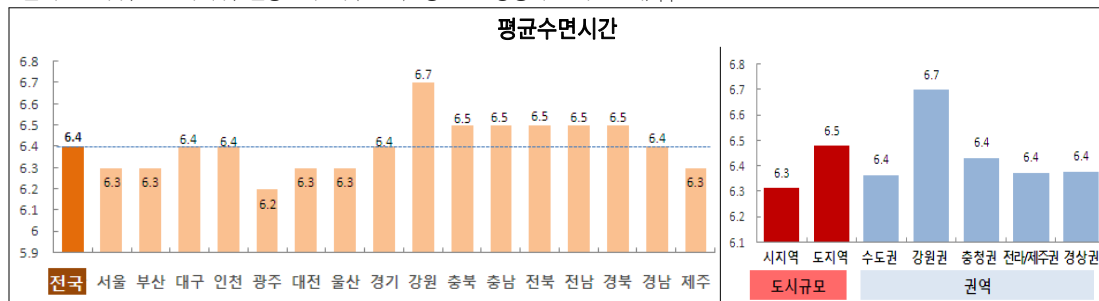
9.7%로 나타났다. 16개 시도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11.8%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11.7%), 강원(11.5%), 전북(11.4%) 등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 흡연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8.5%)로 조사되었다. 도시규모에서 보면 도지역(10.5%)에서 시지역(9.7%)보다 청소년 흡연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비교한 결과, 강원권이 11.5%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이 9.3%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청소년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충남이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이 18.6%로 두 번째로 높았다. 도시 규모로 살펴보면 도지역(17.0%)과 시지역(15.2%)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강원권이 17.8%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제주권이 15.3%로 가장 낮은 청소년 흡연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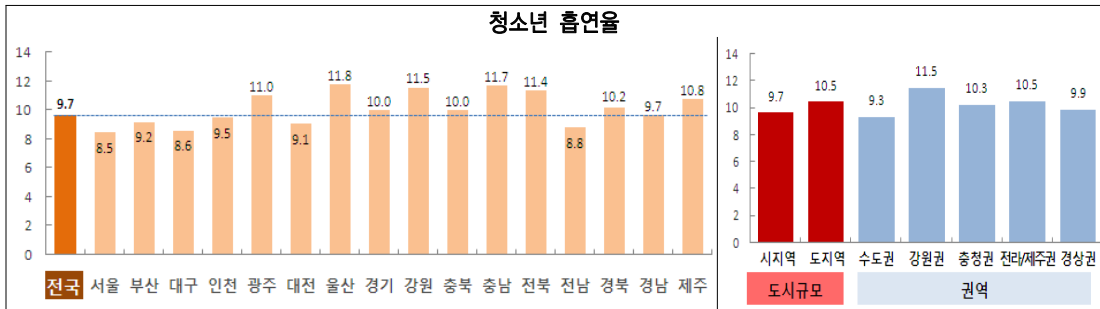
미디어 중독률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률을 조사하였는데, 전국 평균은 16.9%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21.3%)로 조사되었으며, 경기(20.2%) 지역이 두 번째로 높은 중독률을 보였다. 도시규모에 따른 차이는 시도별에 비해 크지 않았으나, 시지역(15.1%)이 도지역(14.3%)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수도권이 18.9%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권이 16.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충청권이 12.7%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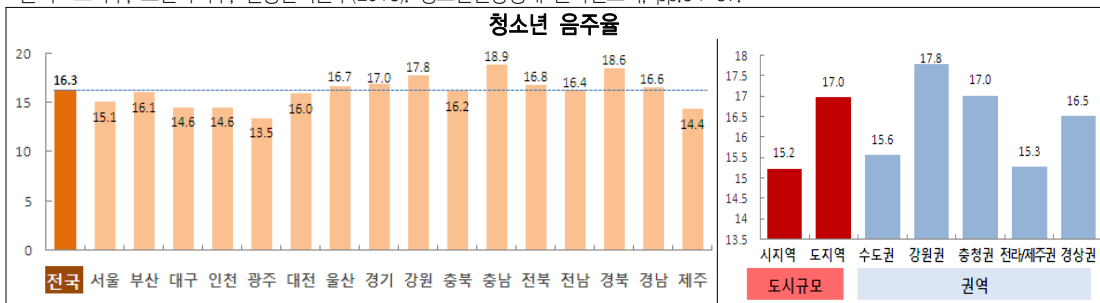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24-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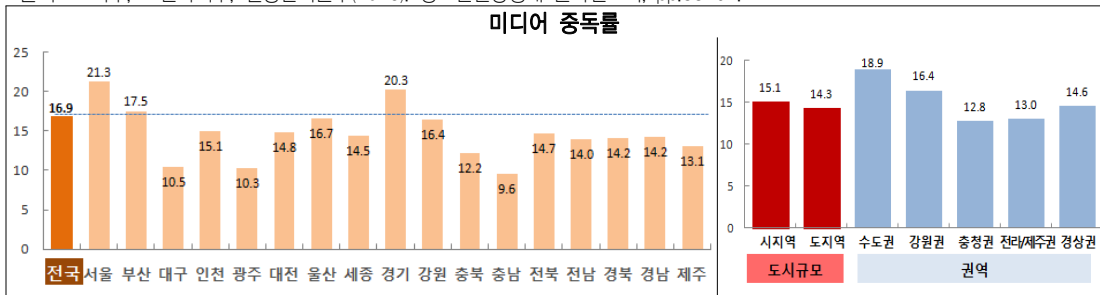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226-229.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34-37.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88-91.



출처: 인터넷진흥원(2013).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V-58】 건강결정 요인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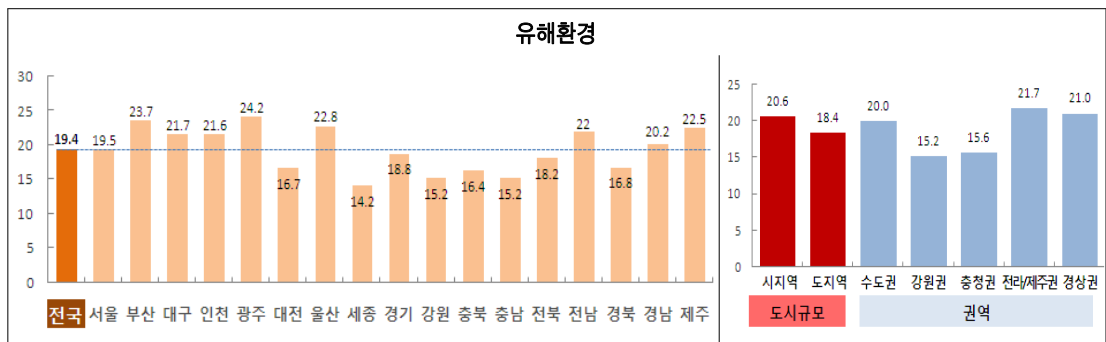
(3) 안전

①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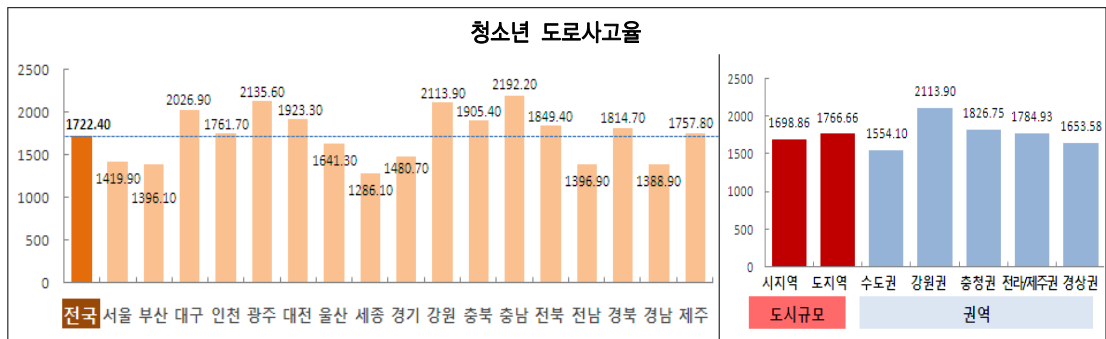
사고지표에서는 3가지 영역으로 조사하였는데, 유해환경, 청소년 도로사고율,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로 구분하였다. 유해환경은 광주가 24.2%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23.7%), 울산(22.8%), 제주(22.5%), 전남(22.0%)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국평균은 19.4%로 나타났다. 도시규모에 따른 비교는 시지역(20.6%)이 도지역(18.4%)에 비해 유해환경이 많이 조사되었으며,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라/제주권이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도로사고율은 2012년에 15세에서 24세 사이 청소년의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수(10만 명 당)를 조사하였다. 2012년 전국 평균은 1,722.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충남이 2,192.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2,135.60명), 강원(2,113.90명) 등 순으로 조사되었다. 도시규모 간의 비교에서는 도지역(1,766.66명)에서 시지역(1,698.86명)보다 도로사고에 의한 사상자가 많이 조사되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권(2,113.90명)이 타 권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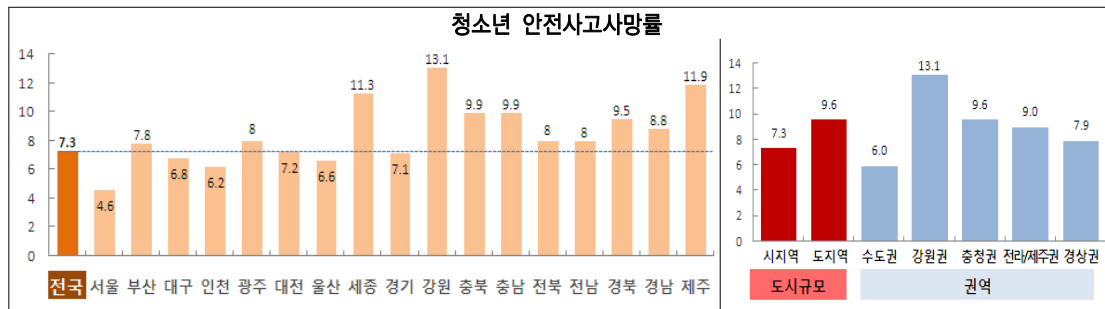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은 만 10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의 인구 10만 명 당 사고사망자수를 측정한 것으로, 전국 평균 7.3명으로 조사되었다. 강원이 13.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11.9명)와 세종(11.3)이 뒤를 이었다. 서울이 4.6명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도시규모 간 비교에서는 시지역(7.3명) 보다 도지역(9.6명)이 더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이 타지역에 비해 13.1명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통계청(2012), 도소매업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A3001&conn_path=3 에서 2014년 7월 17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2년 주민등록인구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출처: 도로교통공단(2013), 2012년 지역별 교통사고 통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2년 주민등록인구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출처: 통계청(2012),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3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2년 주민등록인구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그림 IV-59】 사고 지표

②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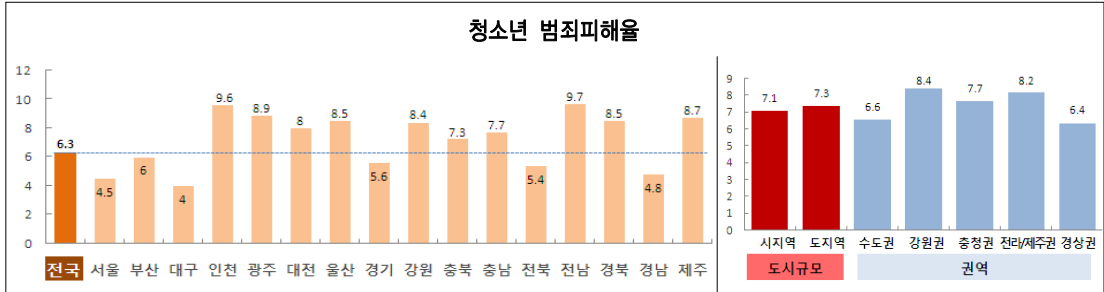
범죄지표는 4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청소년 범죄피해율,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폭력 발생률, 청소년 범죄율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청소년 범죄 피해율은 지난 1년간 한 번이라고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하였는데, 전남이 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이 9.6%로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되었다. 도시규모로 살펴보면 시지역(7.1%)과 도지역(7.3%)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권역별로는 강원권(8.4%), 전라/제주권(8.2%), 충청권(7.7%), 수도권(6.6%), 경상권(6.4%)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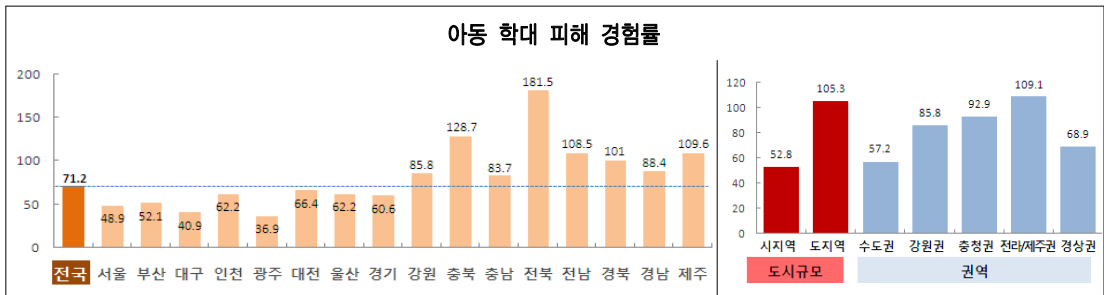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에서는 인구 10만 명 당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129 콜센터를 통해 접수, 신고된 아동학대 현황 중 일반상담 건수를 제외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보호된 사례 건수를 조사하였다. 전북이 181.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평균(71.2건)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도시규모 간 비교해보면 도지역(105.3%)에서 시지역(52.8%)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피해경험률이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라/제주권이 109.1%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이 57.2%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학교폭력 발생률은 2013년에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률을 조사하였다. 충남과 경남이 14.6%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경기가 9.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시규모에 따른 비교는 시지역(11.4%)보다 도지역(12.5%)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라/제주권이 13.1%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권이 1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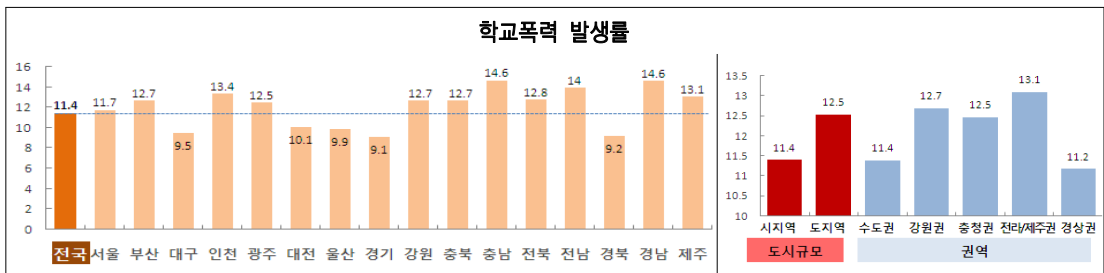
청소년 범죄율은 전체범죄 대비 소년 범죄비율을 조사하였는데, 인천이 5.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경남이 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시규모 간 비교에서는 시지역(4.5%)이 도지역(4.1%)보다 약간 높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4.4%), 경상권(4.2%), 전라/제주권(4.0%), 강원권(3.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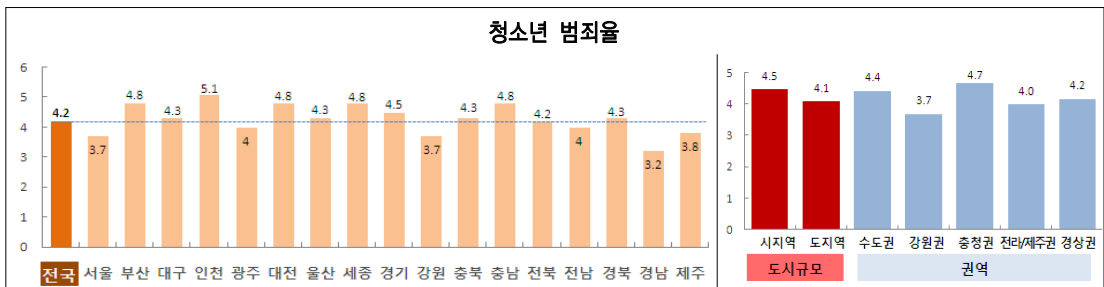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2010), 2010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원자료.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출처: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유해환경정착 종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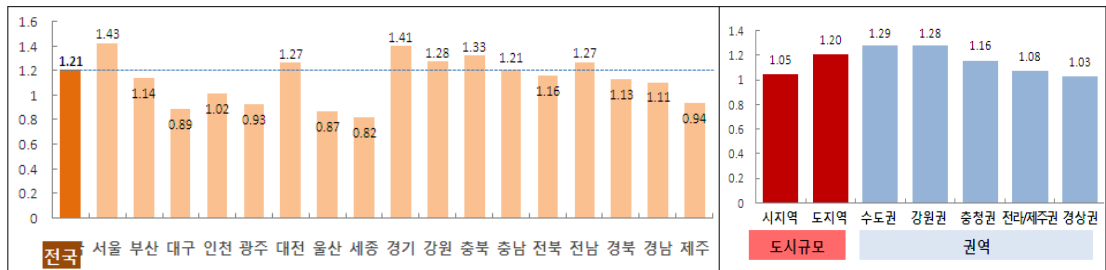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내부자료.

【그림 IV-60】 범죄 지표

(4) 교육

① 교육기회

학교 중단율은 17개 시·도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서울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가 1.4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이 0.82%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규모별로는 시지역(1.05%)보다 도지역(1.20%)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29%로 가장 높았고, 강원권이 1.28%로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되었다.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3). 2013초중등학교 주요공시정보 분석보고서, p.7.
http://www.schoolinfo.go.kr/ng/pnngpa_a01_10.do 에서 2013년 6월 7일 인출.

【그림 IV-61】 교육기회 지표(학교중단율)

② 교육의 조건과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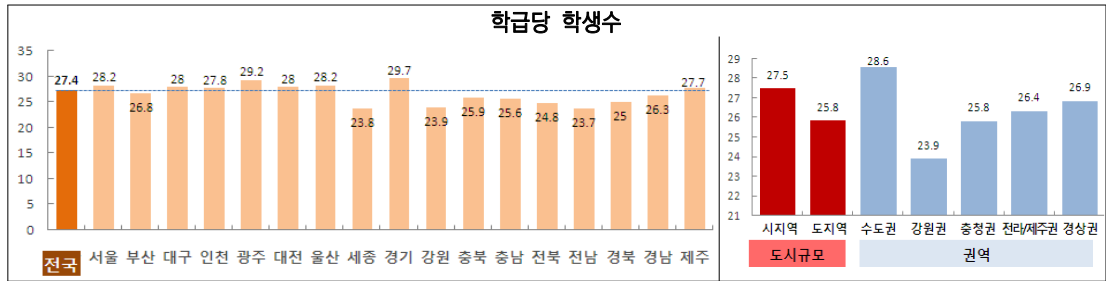
교육의 조건과 과정영역에서는 3가지 지표를 조사하였는데, 학급당 학생수, 학업성취도, 사교육비 지출액으로 구분하였다.

학급당 학생수는 17개 시·도 지역 중 경기가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29.2명), 서울과 울산(28.2명), 대구와 대전(28.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이 23.7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규모에 따라 살펴본 결과 도지역(25.8명)에 비해 시지역(27.5명)이 약 2명 정도 학생수가 많았으며,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권이 23.9명으로 가장 낮은 학급당 학생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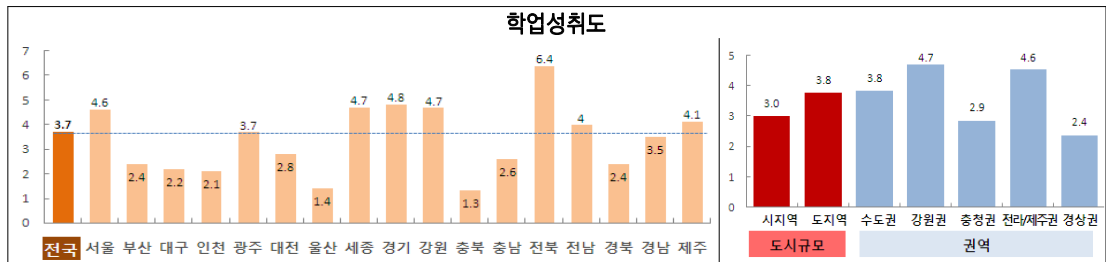
학업성취도에서는 국가학업성취도 중 국, 영, 수 과목에서 미달결과의 합산 평균을 조사하였다. 전북이 64%로 타지역에 비해 미달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3.7%로 조사되었다. 도시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도지역(3.8%)이 시지역(3.0%)에 비해 미달율이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강원권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교육에 쓰는 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32.8만 원)이었으며,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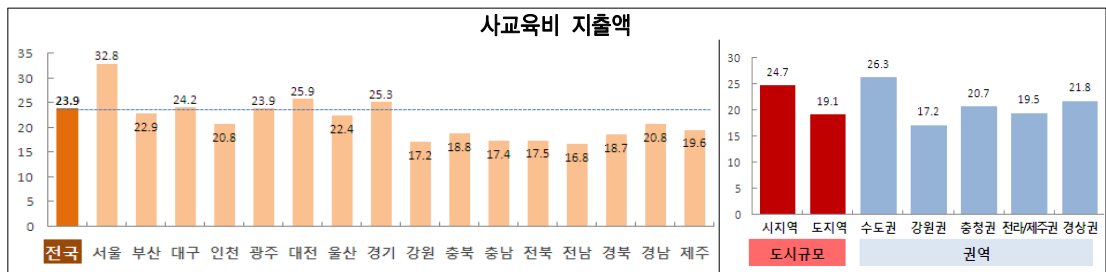
낮은 지역은 전남(16.8만 원)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에 따른 지출비교에서는 시지역(24.7만 원)이 도지역(19.1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했으며,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26.3만 원으로 타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2013 유초등통계. <http://kess,kedi.re.kr/stats/intro?menuCd=0101&survSeq=2013&itemCode=01> 에서 2014년 8월 4일 인출.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3). 2013초중등학교 주요공시정보 분석보고서, p.72-73. http://www.schoolinfo.go.kr/ng/pnngpa_a01_10.do 에서 2013년 6월 7일 인출.



출처: 통계청(2013). 사교육비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05&conn_path=13 에서 2013년 6월 8일 인출.

【그림 IV-62】 교육의 조건과 과정 지표

(5) 활동

① 활동상태

활동상태 영역은 6개 지표로 나누었는데, 문화예술 활동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 동아리활

동 참여율, 녹지접근성, 문화예술시설 수, 청소년 활동시설 수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은 대전이 92.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전남이 73.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에 따라서는 시지역(85.7%)이 도지역(80.3%)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역별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과 경상권이 84.2%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권이 78.3%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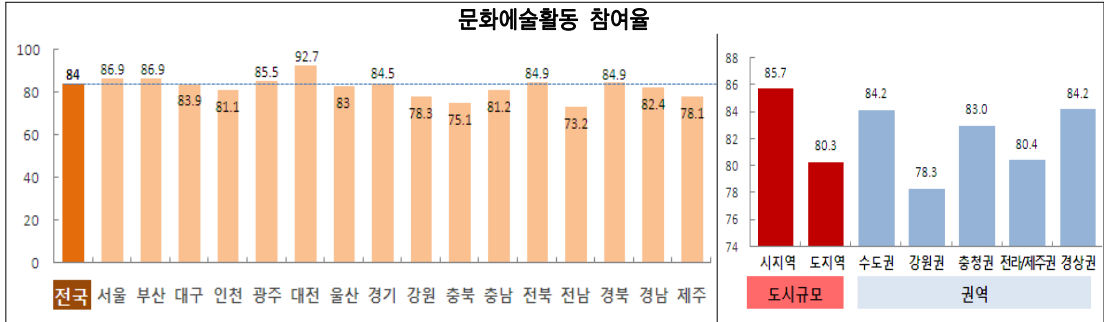
문화여가 지출비용은 울산(224,096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174,766원)가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되었다. 도시규모에 따라서는 도지역(125,530원)보다 시지역(145,261원)에서 다소 높은 여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라/제주권(146,128원), 경상권(144,218원), 충청권(132,749원), 수도권(117,854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원권(89,184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참여율은 강원이 29.6%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이 28.8%, 전북 28.7%, 경북 28.5%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이 전국평균(24.2%)보다 상당히 낮은 16.5%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도시규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도지역의 참여율(23.2%)이 시지역(22.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비교에서는 강원권이 29.6%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26.1%)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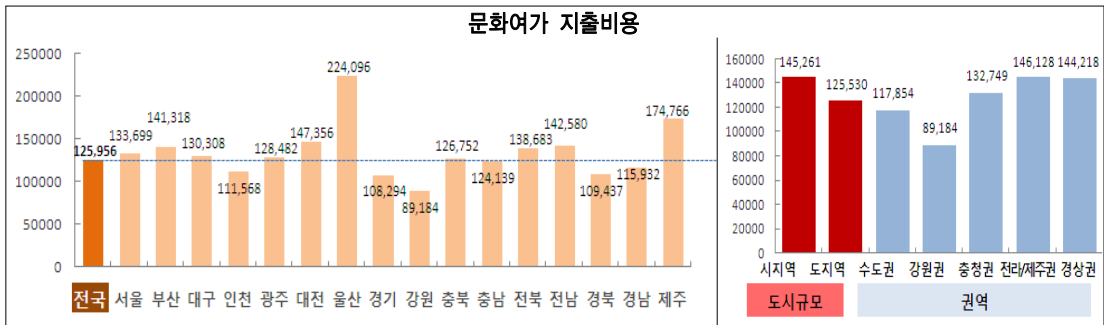
녹지 접근성은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및 녹지 면적으로 세종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도시 규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도지역(10.60)보다 시지역(32.63)의 접근성이 더 용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이 56.51로 타권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시설 수(인구 10만 명 당)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주(60.9개), 전남(60.2개), 강원(59.7개) 등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도시규모에서는 시지역(30.2개)보다 도지역(48.0개)에 문화예술시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권이 59.7개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수도권이 26.0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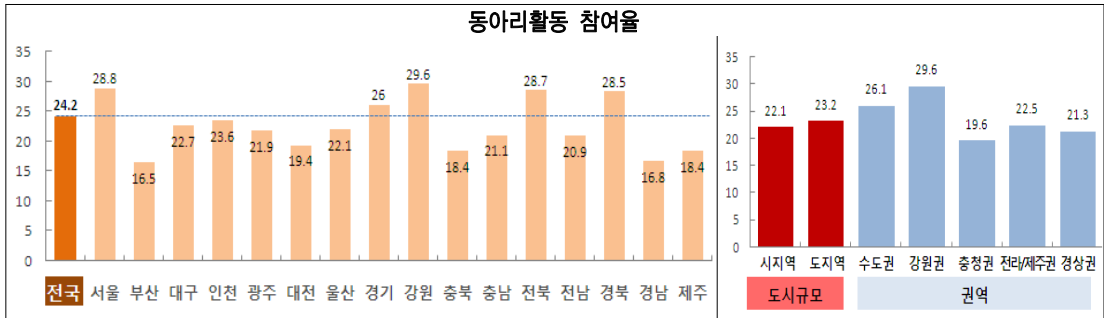
청소년 활동시설 수(인구 10만 명 당)를 조사한 결과, 제주가 가장 많은 346개로 전국 평균(73개)보다 약 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원이 26.6개로 두 번째로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시지역(3.7개)에 비해 도지역(15.9개)에 4배 이상의 청소년 활동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역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강원이 26.6개로 타 권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은 4.4개로 가장 적은 청소년 활동시설 수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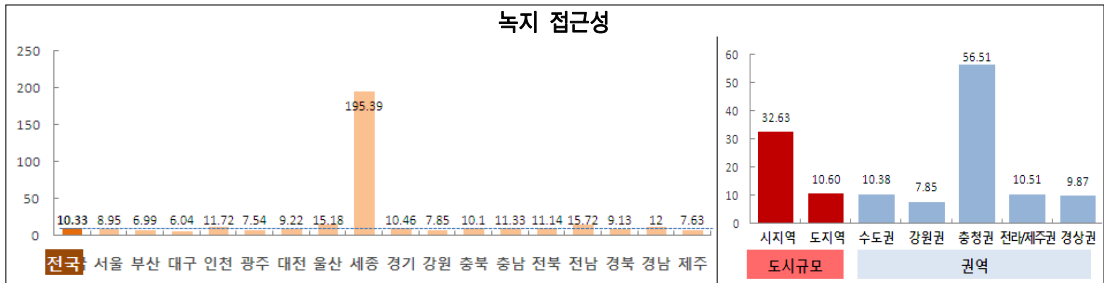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3), 2013 사회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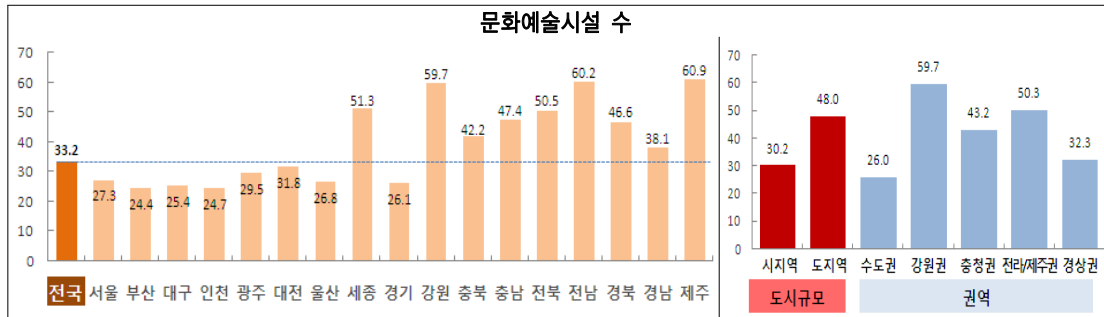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출처: 여성가족부(2011),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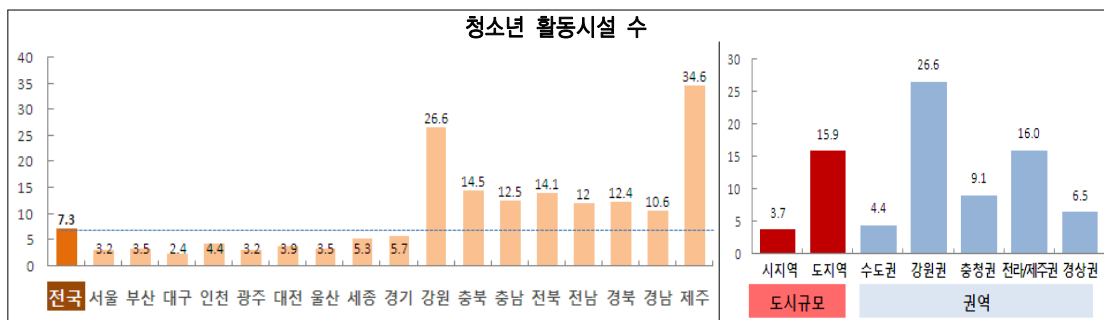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내부자료.



출처: 통계청(2013), 한국의 사회지표, p.342-343.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2년 주민등록인구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2 청소년백서, p.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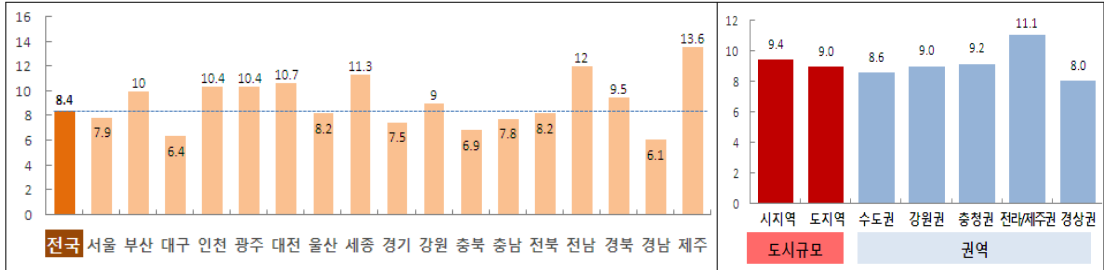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2년 주민등록인구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그림 IV-63】 활동상태 지표

(6) 참여

① 역능성

2012년 10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 자살률(10만 명 당)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8.4%로 조사되었다. 제주가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이 12.0%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도시규모에 따라 조사한 결과 시지역(9.4%)과 도지역(9.0%)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권역별로 조사한 결과, 전라/제주권이 1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권이 8.0%로 가장 낮은 자살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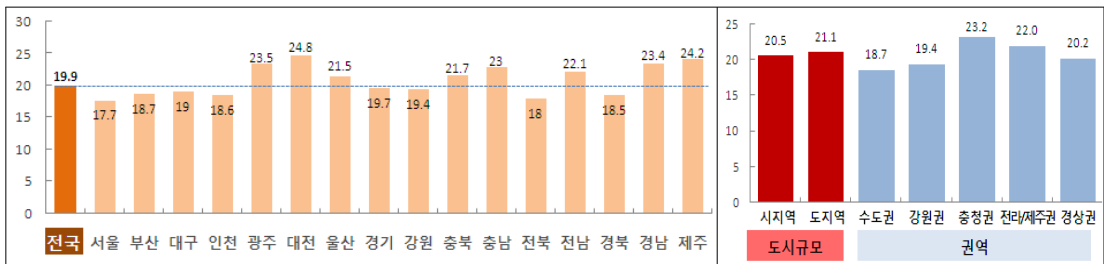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2),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2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2년 주민등록인구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그림 IV-64】역성성 지표(청소년 자살률)

② 사회참여

자원봉사 참여율은 1년 동안 자원봉사 사회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전국 평균 19.9%로 나타났으며, 대전이 24.8%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17.7%)로 조사되었다. 도시규모에 따라 비교한 결과 도지역(21.1%)과 시지역(20.5%) 간에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권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충청권이 23.2%로 가장 참여율이 높았으며, 전라/제주권(22.0%), 경상권(20.2%), 강원권(19.4%), 수도권(18.7%) 순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통계청(2013), 2013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3SP151R&conn_path=3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그림 IV-65】사회참여 지표(자원봉사 참여율)

제 V 장

정책추진여건 및 모니터링 활동내용의 분석

1.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담당자
면접조사
2.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제 V 장

정책추진여건 및 모니터링 활동내용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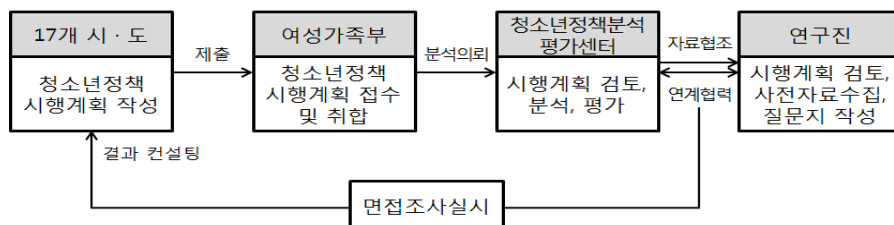
1.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담당자 면접조사

1) 추진 절차 및 내용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데 있어 기본 여건 수준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그림 V-1]과 같은 절차로 추진하였다.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담당자들이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 제출하면, 여성가족부는 이를 접수 및 취합 후 청소년정책연구원 내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 시행계획에 대해 검토, 분석 및 평가를 의뢰한다.

본 연구의 연구진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와 연계·협력하여 시행계획을 검토 한 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 면접에 필요한 지역 여건 자료 중 사전에 수집할 수 있는 조직체계 및 인력, 조례여부, 정책사업 등을 미리 수집하고,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 질문내용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V-1】 면접조사 추진 절차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하헌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가 집필하였음.

심층면접의 주요내용은 <표 V-1>과 같다. 크게 4가지 영역(조직역량, 법·제도적 근거 기반, 추진체계, 예산)의 11개 항목의 내용을 질문하였다.

조직역량 영역에서는 조직체계, 담당인력, 자치단체장의 관심 및 의지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체계와 관련해서는 담당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담당인력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와 전담공무원이 있는지의 여부와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업무순환주기를 살펴보고, 관련 교육 및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관심 및 의지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청소년정책에 관심의 정도를 질문하였다.

법·제도적 근거 기반의 영역에서는 법적기반으로서 청소년의 친화환경 조성 관련 조례가 있는지와 정책 사업으로서 청소년 친화환경과 관련한 해당 지자체의 특화사업이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추진체계의 영역에서는 청소년 관련 위원회와 청소년정책 전달기관으로 나누어, 청소년과 관련된 위원회의 유무 및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위원회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의 청소년정책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형태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산에서는 청소년 친화환경과 관련한 각 지역의 예산 및 예산 내 국비와 지방비의 비중, 그리고 예산 확보의 과정에 관한 각 지역의 상황 여건을 파악하였다.

표 V-1 심층면접 주요내용

영역		내용
조직역량	조직체계	• 담당조직의 구성
	담당인력	• 청소년정책 담당자(수) •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여부 • 업무순환주기 • 청소년정책 관련 교육 및 연수 경험 여부
	자치단체장의 관심 및 의지	• 광역자치단체장의 관심 정도
법·제도적 근거 기반	법적기반	• 청소년 친화환경 관련 조례 유무
	정책사업	• 청소년 친화환경 관련 지역 특화사업 유무
추진체계	청소년 관련 위원회	• 청소년 관련 위원회 유무 및 청소년 관련 위원회
	청소년정책 전달기관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형태
예산		• 청소년 친화환경 국비 및 지방비 금액

2) 지역별 면접참여자 및 특성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17개 시·도 지역별 면접조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총 수는 46명이며, 면접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V-2>와 같다. 면접조사는 지역의 청소년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1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지역에 따라 팀장(계장)이나 과장 또는 국장 등이 참석해서 집단인터뷰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표 V-2 지역별 면접참여자 특성

지자체	면접일	면접 참여자 수(명)	직급	면접조사 형태
서울	4월 30일 (수)	1	주무관	1:1 심층면접
부산	4월 24일 (목)	1	주무관	1:1 심층면접
대구	6월 03일 (화)	4	과장/담당/주무관	집단면접
인천	5월 12일 (월)	6	과장/팀장/주무관	집단면접
광주	5월 30일 (금)	5	사무관/주무관	집단면접
대전	5월 14일 (수)	2	과장/주무관	집단면접
울산	6월 02일 (월)	2	팀장/주무관	집단면접
세종	5월 14일 (수)	2	주무관	집단면접
경기	5월 19일 (월)	3	팀장/과장	집단면접
강원	6월 09일 (월)	2	사무관/주무관	집단면접
충북	5월 16일 (금)	4	팀장	집단면접
충남	6월 10일 (화)	2	사무관/주무관	집단면접
전북	5월 30일 (금)	3	주무관	집단면접
전남	5월 29일 (목)	2	과장/팀장	집단면접
경북	6월 03일 (화)	2	담당/주무관	집단면접
경남	4월 24일 (목)	3	사무관/주무관	집단면접
제주	4월 25일 (금)	2	팀장/주무관	집단면접

3) 지역별 정책추진여건¹⁵⁾

(1) 조직역량 측면

① 담당조직의 구성 및 위치

17개 시·도의 청소년정책의 조직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체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청소년정책들은 여성·가족 혹은 여성과 관련된 조직에 속하며, 그 외 지역(세종, 경북)은 복지와 관련된 조직의 하위에 위치해 있다.

표 V-3 지역별 청소년정책 담당조직의 구성 및 위치

지자체	조직체계	비고
서울	여성가족정책실-아동청소년담당관-정책팀, 상담팀, 시설팀, 권리팀, 평가팀	
부산	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정책, 청소년지원 담당	
대구	사회복지여성국-여성청소년가족과-보호계, 육성계	전담과로 조직구성 추진 노력
인천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청소년정책, 청소년육성 담당	
광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청소년육성담당	
대전	보건복지여성국-여성가족청소년과-청소년담당	'청소년과' 필요성 인식
울산	복지여성국-여성가족청소년과-아동청소년	
세종	안전행정부지국-사회복지과-아동청소년 담당	
경기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정책팀, 육성팀, 시설팀	
강원	보건복지여성국-여성청소년가족과-청소년 담당	
충북	여성정책관실-청소년지원팀	
충남	여성가족정책관실-청소년 담당(청소년계)	기존 청소년과에서 청소년계로 축소
전북	보건복지여성국-여성청소년과	
전남	보건복지여성국-여성가족과-청소년 담당	
경북	보건복지국-다문화행복과-청소년계	'청소년과'로 추진 노력
경남	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 담당	
제주	보건복지여성국-복지청소년과-청소년육성 담당	

15) 17개 시·도 공무원 면접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내용들 중 확인이 필요하거나 정보제공자로서 면접참여자가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은 보고서에 담을 수 없는 관계로, 미제시되거나 상당부분 축약하여 진술한 사항이 있음.

② 담당인력

가. 청소년정책 업무 담당자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체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난 30여년간 청소년정책 업무의 분화와 전문화 그리고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력은 그에 따르지 못함을 나타내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조직과 인력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동력임과 동시에 예산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여전히 추진 동력이 예전과 같은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17개 시·도 청소년정책 담당자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

“청소년 업무가 다른 시도에는 직제가 우리보다 나으려나. 우리는 ‘계’ 하나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늘려줘야 하는데, 안 늘려 주네요. 다른 시·도에도 청소년과는 없는 거 같아요.”

“... 아동하고 청소년은 그대로 가고 있단 뜻이죠. 우리 직원들 얘기는 아이디어라던가 뭐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던 업무만 해야 되니까.”

“모든 것이 조직과 인력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아무리 예산 따고 싶어도 이게 팀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확보 하는데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조직과 인력이 뭔가 체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은 자연스럽게 따라 오는 거예요.”

변화없는 조직속의 제한된 인력규모로는 업무내용과 폭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신규정책개발이나 지역의 정책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정책담당들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신규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지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음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 인력이나 직원들 인력을 증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거예요. 지원부분하고 정책부분하고 나뉘어져 있지만, 제 혼자서 거의 다 보는 거거든요. 청소년 진흥센터 안에 있는 업무만 해도 벽찬데 시비로서 하는 사업, 활동부분의 사업 국제교류라던가 ... 이런걸 다 하니까, 이걸 좀 아닌거 같다.”

“... 다만 사람이 없어서 힘이 들어서 그렇지. 일도 그렇고, 많이 벌려놓았고.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한다. 할 순 있어요. 할 순 있는데, 우리 직원들 너무 힘이 들까봐 지금 있는 것도 힘든데, 신규 사업 자꾸 벌려 놓으면 힘들거든. 그래서 고려중입니다.”

나.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청소년 전담공무원이 없으나, 일부 광역시에서 본인 스스로 공부하여 학위 취득 및 국가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조직 내에서 전담공무원이 된 사례가 있고, 건축직 공무원을 청소년시설업무 담당자로 활용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또한 광역시·도 보다는 도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담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대체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나 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행정과 동시에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10년 청소년 업무 한 10년 넘었습니다.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로 있지만 지도사 자격증도 있고...” “청소년 전담공무원제를 주장하는데, 그게 우리 시는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나름대로 오래 계셨고, 또 현장이라든가 실무, 이론적으로도 많이 아시고, 이번에 같이 일하면서 진짜 청소년 전담공무원제가 저희시가 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역시나 어디나 수련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시 수련원, 5개 구청 수련관, 문화의 집 등등 많은 시설이. 그 시설을 점검하고 이끌어 가고 시설 확충하고 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는 몰라 건축직이 우리 티오가 있는데, 우리시는 거의 한 10년 전부터 건축직을 티오로 정식으로. 이것도 우리 시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청소년 전담 공무원 시군에 있어요. 옛날 별정직으로 해서 시군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 그 중에서 OO하고 OO에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따로 청소년 업무에 관련되어서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전담과 설치 및 청소년전담공무원제를 추진하는 것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는 정책추진과제이다. 그러나 현장의 공무원들은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제가 도입될 때 갖는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며 팽팽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전담공무원제가 갖는 장점으로는 업무의 전문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견해를 갖는 공무원들은 청소년 관련 업무가 행정공무원들에게는 각종 사업들의 용어자체도 생소하고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이 담당하게 되면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처음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청소년 분야에서 각종 사업들을 용어자체도 생소한 속에서 그거부터 익히고 하다 보니,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이견이 너무 커요. 현장을 알 때 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전담공무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공무원) 우리는 있으면 좋아요. 우린 있으면, ... 이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질적 변화 시점에 와 있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차별화 부분도 더 부각시켜 나가서 일이 증가가 아니라 증폭될 예정으로 ... 우리는 배치되면 그 이상 없죠. 좋죠.”

이와는 달리,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전담공무원제가 갖는 단점으로는 같은 업무의 반복에 따른 매너리즘, 승진의 제한 등 개인적 비전이 없음 등이 지적된다.

“(전담공무원제) 장단점이 있어요. 한 업무를 오래 보면 직원들 자체가 매너리즘에 빠져가 지고 그게 좀 있어요. ... (중략) ... 지자체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몇 군데 OO부서에서 했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하다보면, 또 있는 조직 인원들하고 갈등 있죠. 마찰이 있어서 잘 안돌아가. 승진 없지, 희망이 없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전문화 하는 사람이 5년, 6년 이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취적 업무 하나도 안나와요. ... (중략) ... 사람이 한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삼년정도 있게 되면 안 되는 것부터 보여요. 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안되는 것부터 검토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진취적인 업무 나올 수가 없어요. ... (중략) ... 최소 5년은 괜찮아요. 6년이 지나면 서부터 이 사람의 호봉 생각해야 되죠, 대우 생각해야 되죠, 처우 생각해야 되죠, 청소년직 하나 딱 있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승진을 시킵니까? 5년 이상 같은 업무를 갖다가 같은 직급에서 앞으로 승진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곳에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 사람은 그 일에 관해가지고 더 이상의 비전이라는 걸 생각 안해요. ... (중략) ... 행정에서 전문직은 소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순환이 안돼요. 순환 안 되면 그건 그때부터 이제 고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기간이 최소 5년 이에요.”

다. 업무순환 주기 및 직무교육

청소년 업무 담당자의 업무순환주기는 평균 1~2년 정도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별정직으로 입사한 후 10년 근속하는 사례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청소년 업무는 선호하지 않는 부서이며, 직무교육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업무 지침 교육 이외 청소년업무와 관련한 별다른 교육을 받은 경험이 대체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4 지역별 청소년정책 담당인력의 업무순환주기

지자체	업무순환주기	지자체	업무순환주기
서울	평균 2년	경기	- ^{주)}
부산	평균 1~2년	강원	평균 2년
대구	평균 2년	충북	평균 1년 이내
인천	평균 2년 6개월	충남	1년 6개월
광주	평균 6~12개월	전북	평균 2년
대전	2년(길면 3년)	전남	평균 1년
울산	평균 2년	경북	평균 2년
세종	-	경남	2년
		제주	1~2년

주) - 표기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지역

청소년정책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으로서 일반적인 직무교육보다는 청소년정책을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공무원들이 청소년 인지적, 즉 청소년 중심의 정책에 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워크숍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청소년정책은 직무를 배우고 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 인적 관점의 생각을 바꾸는, 생각이 바뀌면 어떠한 정책수단이나 법적인 제도 이런 거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 사실 공무원들도 사실 이런 게 있기 전에도 당연히 ‘청소년 우선 정책이 중요하다.’ 이거를 머리로 알지 말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교육일정만으로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공무원들이나 수련시설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은 직무교육이나 사업관련 워크숍에 참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교육)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나오기가 힘들어요. … 여건이 나오기가 힘든거야.”

③ 자치단체장의 관심 및 의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이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시간과 예산과 관심을 할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17개 시·도 공무원 면접조사에서 청소년정책에 보이는 관심의 수준, 실질적인 지방비 예산의 투자 그리고 추진 의지 등을 간접적으로 살펴본 결과, 자치단체장이 관심이 있다할지라도 그 수준과 의지의 반영에 있어서는 지역 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서 배치해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시사항을 보고 뭐 이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꾼거 같아요.”

“저희 시장님은 청소년 이런 행사 있으시면 참석 다 하세요. 그만큼 열의가 있으신 거죠. …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를 저희 시장님하고도 해요. 아이들 앉혀놓고 간담회도 하고 1박 2일 캠프도 하고 그래요. 야영장 같은데 가서 시장님하고 같이 함께 의견도 막 듣고 그래요.”

“(청소년에)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죠. 작년에 000 정책연구 용역을 한번 했어요. … 1월 달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가지고. 용역도 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 대안교육이라든가 진로탐색이라든가 예산 확보해서 운영 했습니다.”

“관심 많으시죠. 청소년 행사할 때 와 달라고 하게 되면, 거의 빠지지 않고. 오셔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서 장래 도지사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2) 법·제도적 근거 기반 마련 측면

① 관련 조례 등 법적 기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법적 또는 제도적 근거 기반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에 제정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청소년 친화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그 내용은 어린이·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고, 자치구나 동별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조사하고 확대를 위해 계획해야 하며,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그 목적대로 이용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제37조) 하는 등이다. 또한 아동·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관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도서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제38조). 한편 서울시 자치구 중 성북구, 동작구, 강북구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 외 충남과 전북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환경의 범위를 성폭력예방 및 대책수립과 각종 유해환경 등 보호적 관점에서 협의의 환경으로 접근한 내용으로 한계가 있다.

표 V-5 지역별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관련 조례

지자체	조례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2012년 제정) -제37조(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간의 확보와 관리), 제38조(정보에 관한 권리 보장) •서울특별시 성북구/동작구/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2010년 제정)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2008년 제정, 2011년 일부개정)

② 정책사업 형태로서의 기반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과 관련한 정책적 내용은 대부분 청소년 참여와 관련된다. 일부 광역시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확대 편성하여 자치단체 명을 포함한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도 하고, 주민예산참여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의 수를 할당하는 등 정책사업 및 제도 운영에 청소년의 참여 권리의 보장과 청소년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작년부터해가지고 00회의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1년 동안 참여위원회를 하고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시장님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걸 실제로 정책으로 다 반영해서 입안을 하는 과

정까지 거쳤던 건이 있었고. 올해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있습니다. 인권조례 참여위원 인원을 100명까지 했어요. … (중략) … 중심이 되는 참여 부분이 있었구요. 청소년 참여는 인권하고 인권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해봤습니다. …(중략) … 예산참여제도도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을 시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참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형태는 아니나, 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캠프형식으로 2박 3일 운영한 후, 그 과정에서 도출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책 사업에 실제로 반영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포착하였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참여. 청소년들이 직접참여해서 하는 청소년참여예산제도. 그 동안에 시민대상으로 주민들만 참여했는데,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캠프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러한 분야에 제안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그 애들이 작년에 제안했던 진로체험 이런데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청소년들이라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해 해서 다 수련단위로 내려 보냈고요. … (중략) … 애들도 3일 동안 공부를 해가면서 요구사항을 도출해내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도 안 들어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의견을 제시하면 했다 정리를 해서 다시 애들한테 피드백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 (중략) … 청소년참여예산제를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직업체험이라든지 진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애들조차도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직업에 대해서 많아요. 수련관에서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를 한다면지 되고 싶은 욕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죠.”

또 다른 형태로서 지역사회 행사에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앞의 사례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예산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추진의 기본 아이디어를 청소년의 의견에서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중심적 정책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00페스티벌에 ‘내가 생각하는 00’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00가 이랬으면 좋겠다.’ 거기에 다 반영돼요. … (예산으로) 환류 될 수 있죠. 정책에 반영하는 게 다 예산으로 가는 거니깐. 시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기회. … 예산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00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야기 하고 디테일하게… 하면 정책에 다 환류 되는 거죠.”

(3) 추진체계 측면

①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관련 위원회 등 운영

17개 시·도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논의·심의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지역도 있는 반면, 명시적으로만 존재하고 운영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13개 지역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업무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일부 지역(대전, 광주, 세종, 전남)에서는 청소년정책업무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법률적 기반을 갖는 이들 위원회 이외, 지역에 따라 자체적으로 포럼형태의 청소년관련 민·관·학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포럼에 청소년들이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소년발전포럼을 하나 해서 주기적으로… 올해는 3번 정도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2배로 6번 정도 할까 너무 자주해도 그렇고. 저희도 아무튼 다양한 파트에서 정책이든 보호든 시설이든 다양한 파트에서…청소년이 중심이 안 되는 청소년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청소년도 포함시켜요.”

“민간에 아동청소년 포럼이라고 여러 가지를 총괄할 수 있게, 정책제언이나 여러 사업 저희가 또 관에서 못하고 있는 것들 민에서 할 때 민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총회해서 작년 1년 활동했고, 올해는 저희 도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는. … (중략) … 항상 포럼이 어른들로만 하면 애들은 애들끼리 어른은 어른들 끼리 짝아요. 이걸 어떻게 통합할거냐. 그래서 애들은 무슨 일 있어도 부르라고 하면 애들이 학교 공부시간이기 때문에 포럼을 2시에 하면 어렵다. 그래서 포럼 시간도 좀 바꾸거나 그 아이들은 뭔가 공문서를 발행해서 출석으로 인정하게 해달라고 여러 번해서 저번에도 이 포럼에서, 총회 때도 그랬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어요.”

② 청소년정책전달 기관의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서비스의 주된 정책전달 기관은 크게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들 수 있다.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는 이러한 센터들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5개 지역(대구,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은 통합법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충북의

경우 통합직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위탁운영 하는 지역 중 8개 지역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상담복지센터의 위탁단체가 각기 다르며, 4개 지역은 두 센터의 위탁단체가 같다.

표 V-6 지역별 청소년정책전달기관 운영형태

지자체	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형태	단체	형태	단체
서울	위탁	한국청소년연맹	위탁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부산	위탁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위탁	한국청소년부산연맹
대구	통합법인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통합법인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인천	위탁	(사)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위탁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광주	위탁	(사) 흥사단 광주지부	위탁	(재) 광주기독교청년회
대전	위탁	(사)대전광역시불교청소년연합회	위탁	(학)한국침례신학원
울산	위탁	울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위탁	울산YWCA
세종	위탁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지부	위탁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지부
경기	위탁	(재)대건청소년회	위탁	(재)대건청소년회
강원	위탁	천주교 원주교구유지재단	위탁	(재)춘천교구 천주교회
충북	통합직영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통합직영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충남	통합법인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통합법인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전북	위탁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전남	통합법인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통합법인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경북	통합법인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통합법인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남	통합법인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통합법인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제주	위탁	재)성지문화재단	위탁	재)성지문화재단

민간의 위탁기관과 소통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하는 지자체도 발견되었으며, 청소년 관련 센터들을 통합하여 도 단위에서 정책허브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발견되었다.

‘중앙-광역-기초’의 3계층 행정체계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배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능의 중복으로 비효율성이 초래되기 마련인데, 정책서비스 전달기관들의 통합 운영이 갖는 장·단점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도 단위에서 스스로의 허브 기능을 찾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든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청소년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단체라든가 이런데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소통을 하면서, 그 단체의 소통에 따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과장님하고 연 초에 한 바퀴 지역 전체를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아님가 이걸 타당성 여부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에 맞춘 현실적으로 대입하는 부분은 약간 시일은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예산 부분이 많이 드는 부분도 많아 가지구요. 지금 그런 거 걸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을 우리는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 저희 도가 유일하게 활동과 상담을 묶어서, 성문화까지 묶어서 도 직영체제로 움직이는 조례를 2009년에 개정하고 현 법체제와 성문화센터까지 통합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통합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 중입니다. ... 청소년 통합지원체제에 통합직영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시군에는 직접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는 상담지원센터나 활동진흥센터가 된다면, 통합 직영에서는 조금 더 총체적으로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개선을 하고 ...”

“재단을 만들었어요. 0000재단이라고. ... 그래서 기능을 재조정 내지는 좀 기능을 광역화. 상담이나 복지 업무가 다 일선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까지 굳이 그것에 대해서 중복기능을 하면서, 재단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 재단에서 거점센터로서의 역할로 광역기능을 수행하고, 또 우리 이제 도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전담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잖아요.”

(4) 예산 측면

① 관련 정책사업의 예산 규모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과 관련한 17개 시·도 평균 예산은 약 24억 원이다. 이 중 국비는 8억 4천만 원 지방비는 약 15억 6천만 원으로 국비의 비중은 35%이고 지방비는 65%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과 광주가 각각 85억과 80억으로 상대적으로 많으며, 이들 지역의 청소년친화환경 조성과 관련한 지방비의 비중은 80% 이상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방비가 약 87%(69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정책에 자체예산의 투입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확인하였다.

표 V-7 지역별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관련 예산

(단위: 백만 원, %)

지자체	국비 (비율)	지방비 (비율)	계 (비율)
서울	1,100 (19.5)	4,534 (80.5)	5,634 (100.0)
부산	622 (48.3)	666 (51.7)	1,288 (100.0)
대구	279 (45.3)	337 (54.7)	616 (100.0)
인천	695 (37.0)	1,185 (63.0)	1,880 (100.0)
광주	1,031 (12.9)	6,985 (87.1)	8,016 (100.0)
대전	2,999 (35.1)	5,542 (64.9)	8,541 (100.0)
울산	165 (51.1)	158 (48.9)	322 (100.0)
세종	387 (96.5)	14 (3.5)	401 (100.0)
경기	990 (46.6)	1,136 (53.4)	2,126 (100.0)
강원	1,030 (50.4)	1,013 (49.6)	2,043 (100.0)
충북	1,024 (53.3)	899 (46.8)	1,923 (100.0)
충남	1,030 (50.3)	1,018 (49.7)	2,048 (100.0)
전북	182 (62.0)	112 (38.1)	294 (100.0)
전남	1,868 (50.0)	1,868 (50.0)	3,736 (100.0)
경북	499 (44.6)	620 (55.4)	1,119 (100.0)
경남	223 (47.6)	245 (52.3)	468 (100.0)
제주	157 (39.0)	246 (61.0)	403 (100.0)
평균	840 (35.0)	1,563 (65.0)	2,344.17 (100.0)
합계	14,281 (35.0)	26,578 (65.0)	39,851 (100.0)

출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4). 시행계획 중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과 관련된 예산 발체(내부자료)

2014년 청소년정책예산, 특히 육성정책에 해당하는 예산이 축소된 점에 대해 17개 시·도에서는 공통적으로 부족한 예산에서 더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매칭사업 예산 확보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즉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또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올해 청소년분야를 거의 예산을 절반이나 깎았어요. 특히 육성부분에. ... 특히 활동이 절반 이상 줄었고, 참여도 뭐 지금 금액이 너무 적게 주니까. ... 활동 쪽에 예산이 절반정도 줄어든다 보니까 청소년 더 돌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동아리 활동에 ... 거의 절반이나 깎았거든요. 청소년한테 도와 주는게 지금 그것도 뭐 동아리 숫자도 뭐 작년에 152개에서 지금

77개~80개 그거 밖에 안돼요. ... 60~70만원 이러니까 돈도 얼마 안되고, 오히려 역효과
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금 안타까워요. 예산문제가.”

“동아리 활동이나 문화존 사업비 활동비를 다 줄였어요.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우리 시에
서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건 말이 안 된다. 줄어든 부분만큼 시비로 메꿨습니
다. 저희시도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의회 의원들 찾아가서 설득하고 해서 늘렸
어요. 작년만큼 늘렸습니다. 문제는 예산실에서 늘린 부분을 못 주겠다...”

“광역이나 기초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재원이 세입이 없다보니까, 물론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이지만은 그거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 ... 예산이 없는
사업은 비예산사업은 성과내기가 어려워요 사실.”

“... 자체사업 이야기를 꺼내기가 사실 어려워요. 매칭하기도 벅찬데. 매칭비용을 대기도 벅
차니까. ... (중략)... 돈 자체가 없는데 무슨 자체사업을 합니까. 돈이 있으면 매칭 하는 사
업도 하고 자체사업도 하고 하죠. 문제는 돈이 없어요. 매칭 하는데 우리 예산을 보게 되면
자체사업 예산 거의 없습니다. 다 매칭사업이죠. 그거 대느라고 헉헉대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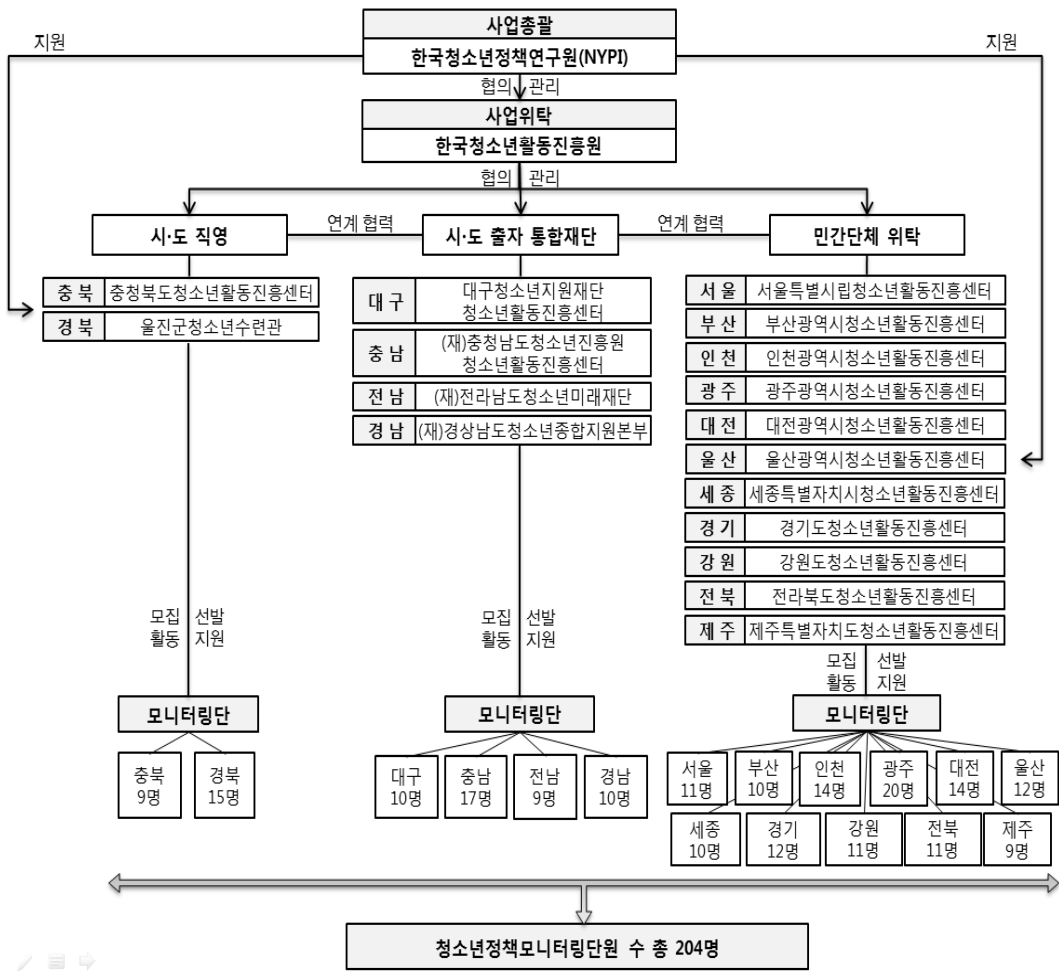
2.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1) 운영 체계

앞선 장들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환경을 청소년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추진 방향이 되어야 하는 사항은 정책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청소년 중심’과 ‘청소년 참여’이다(The Children’s Society, 2013).

본 연구에서 주요한 축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2014년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운영은 정책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정책, 그 중에서도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의 정책의 시행을 모니터링활동을 통해 관찰하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정책 여건에 대해 스스로 알아가고 진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운영에 시·도별 대표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으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각 지역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하였다. 단, 경북지역은 지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내부 사정으로 사업 위탁이 불가능하여, 경북도청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울진군 청소년수련관을 경북지역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V-2】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체계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의 역할 및 기능

본 연구를 추진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은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에 있어 사업의 총괄자로서 전체 일정과 운영방식을 계획하고,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의 주요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비롯하여 각 시·도의 센터에서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거나 활동을 함에 있어 협조가 필요 할 시, 지역 방문지원과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지원하였다.

- 관리 :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계획 수립, 운영 지침 및 기준마련, 17개 시·도 각 센터의 활동 여건 파악 및 사업관리, 사업운영 담당자 교육 등
- 협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연계한 각 지역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위탁계약 체결자로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과 17개 시·도 센터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17개 시·도의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선발·배치하였다. 사업의 전담인력은 각 시·도 센터에 운영 지침 및 관련 기준 등에 대한 사항들을 전달하고, 각 센터의 문의 및 요구 사항들을 취합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관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17개 시·도 사업 운영 기관 연계, 세부사업계획서 및 월별 활동결과물 취합, 사업예산 교부, 일정 관리 등
- 협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연계하여 각 지역 사업 지원, 17개 시·도 센터의 요구 사항 및 요청 내용 접수·조정

(3) 사업 운영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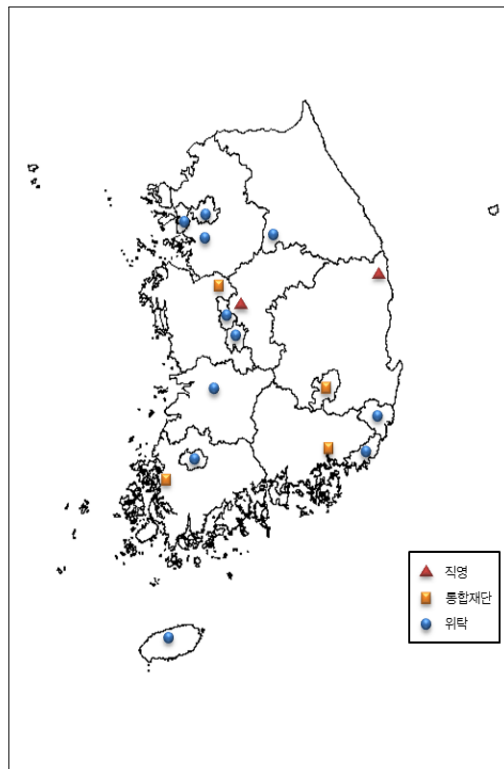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울진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4년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침 및 기준에 따라 모집·선발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세부 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검토 완료된 추진계획에 따라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정책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원들의 정책모니터링 활동 내용과 지역사회 청소년 친화적 환경 수준에 관한 지표의 정성적 평가 자료,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제안 내용 등을 기초로 지역사회 청소년정책을 개발하는 지역정책개발단을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였다.

- 모집·선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침 및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단원으로 활동할 청소년을 모집·선발
- 운영·지원 :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작성 제출, 월별 활동 지원, 모니터링단 요구사항 파악 등

운영형태	지역	기관명
직영	충북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경북	울진군청
통합재단	대구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충남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전남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경남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위탁	서울	한국청소년연맹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인천	사)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광주	광주흥사단
	대전	사)대전광역시불교청소년연합회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세종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특별자치지사지부
	경기	(재)대건청소년회
	강원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
	전북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제주	재)성지문화재단



【그림 V-3】 17개 시·도 센터 운영형태

2) 운영 내용

(1) 추진과정

‘2014년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사업은 3월 사업이 착수 된 후 연구진회의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갖는 목적과 의미를 담아 충실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 지역의 청소년모니터링단 운영 기관의 담당자들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기 전 4월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각 지역 담당 센터장과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이 연구의 전체 내용 구성에서 어떠한 부분에 위치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사업 단계별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청소년이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에의 참여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4월 워크숍 이후 지역의 각 운영 기관에서는 모니터링단 단원의 모집·선발 및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은 모집·선발과정에 앞서 요구되는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의 목적에 대한 지역 실무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방문 지원에 착수하였다.

5월에는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위촉식과 모니터링 활동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각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연구진은 지역의 요청에 따라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위촉식의 참석과 모니터링단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을 진행하였다. 또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각 지역에서 요청되는 사항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과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정책간담회도 함께 이루어졌다.

6월에는 각 지역에서 4월과 5월 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연기된 위촉식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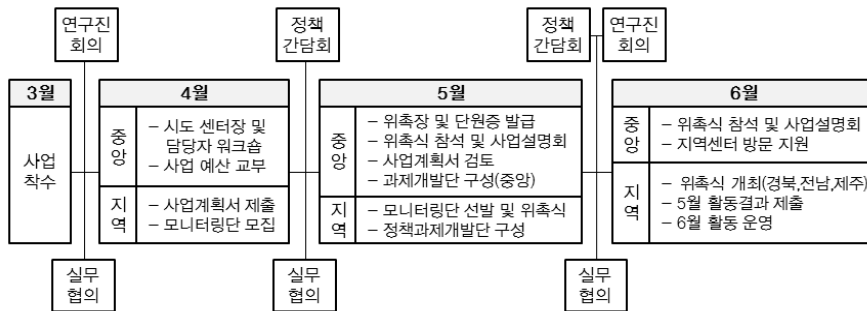
7월에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각 지역 담당 센터장과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중간워크숍이 실시되었다. 중간워크숍에서는 6월까지의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하반기 청소년모니터링단 운영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다양한 운영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 지역의 청소년모니터링단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해 제고하였다. 또한 모니터링의 실제 운영에 있어 필요한 기술과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으며, 각 운영 담당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워크숍

이후 7월과 8월에는 지역별로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3가지 활동이 이뤄졌으며, 지역 실무담당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7월 22일에는 경남지역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이 본원을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 교육과 활동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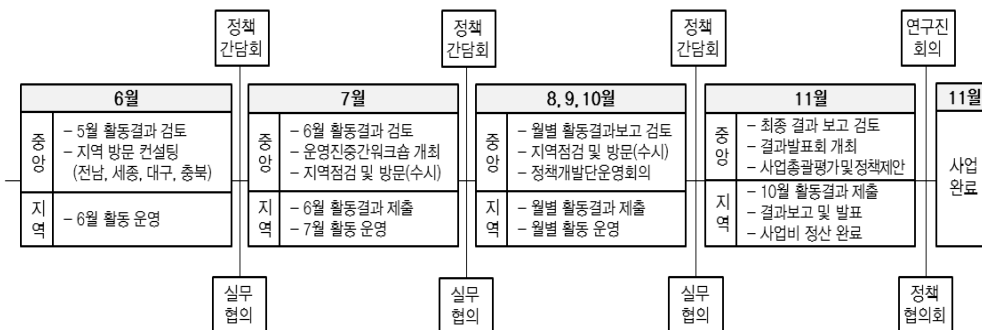
9월과 10월에는 각 지역에서 3가지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모니터링 활동의 결과와 정책과제개발의 연계를 위하여 과제개발단을 구성하였다. 과제개발단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권역별 청소년정책모니터링 활동의 결과를 육성, 복지, 보호 차원의 정책과제로 연계시키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11월에는 '2014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의 완료와 더불어 11월 8일에는 결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결과발표회에서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고, 청소년모니터링단원이 직접 참가하여 지역에서 선발한 우수단원을 시상하고, 17개 시·도의 모니터링 활동결과를 공유하였다.

1단계



2단계



【그림 V-4】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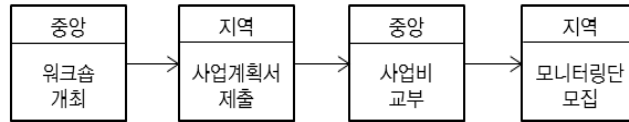
(2) 단계별 구체적 내용

○ 착수단계 (3월)



사업의 착수는 '2014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운영방안에 관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17개 시·도 활동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모니터링 활동별 기록 양식,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방식 제안, 정책과제개발단 운영, 사업비 교부 지침의 명료화, 월별 상세 추진 일정 등이 논의되었다.

○ 워크숍 개최, 지역 사업계획서 제출, 모니터링단 모집 단계 (4월)



- 시·도 센터장 및 실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4월 16~17일)

2014년 4월 16~1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14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사업 설명회를 통해 지역 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별 담당자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현장에서 모니터링 단 운영의 효과적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2014년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사업 안내 및 운영방향 제시, 청소년의 참여권 특강, 정책과제 도출방향 협의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 시·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 교부

17개 시·도 센터의 실무담당자는 워크숍에서 설명된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사업계획서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제출하였으며, 사업계획서 제출이 확인된 후 예산이 교부되었다.

-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모집

모니터링단 구성의 기본 방향은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 정책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수그룹(학교밖 청소년 등)의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모집 방식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추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집인원은 10명을 기준으로 하되, 시·도의 행정구역 특성과 청소년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각 지역에서 선발된 모니터링단원에게는 위촉장 및 ID카드의 발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한 동의를 구하고, 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나 특별참여위원회 등의 청소년참여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중복활동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구하고 제출받았다.

표 V-8 **모니터링단원 선발기준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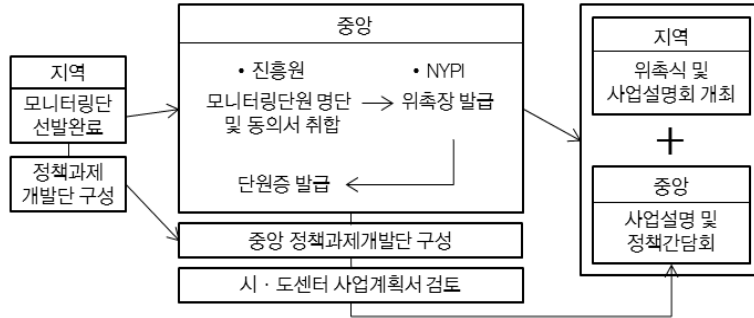
선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세~18세 청소년 중 청소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자 ○ 월 1회 정기회의에 성실히 참석 가능한 자 ※ 학교 비재학 청소년 총 인원의 10~20% 선발 ※ 청소년참여활동 유경험자 우선 선발 	
선발절차	○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면접을 통해 선발	
구성비율	일반(90%)	일반청소년 - 일반 공개모집(온라인 등) - 시·도 참여위원회 추천 청소년(여성가족부) - 시·군·구 참여위원회 추천 청소년(시·도)
	소수(10%)	북한이탈, 한부모 가정, 다문화,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

○ 모니터링단원 위촉 및 정책과제개발단 구성 단계 (5월)

-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위촉장 및 단원증 발급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선발이 완료된 지역을 순차적으로 나누어 모니터링단원의 위촉장(NYPI)과 단원증(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발급하였다.

위촉장 발급	발급 지역
1차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경남
2차	대구, 경기, 강원, 전북
3차	부산, 충남
4차	제주
5차	전남, 울산



-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위촉식 및 정책간담회(사업설명회)

각 지역에서는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모니터링단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가 진행되었다. 각 지역에서 위촉식 참석 및 사업설명을 요청할 경우, 연구진은 지역을 방문하여 위촉장 수여 및 청소년정책모니터링의 기본과업에 대해 설명하였다(광주센터 5월 17일, 전북센터 5월 24일, 인천센터 5월 31일). 또한 해당 지역의 센터장 및 운영담당자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여건 및 요청 사항들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책과제개발단 구성(지역-중앙)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모니터링단원들을 포함하여 지역별 청소년정책 전문가와 함께 정책과제개발단을 구성하여, 해당 지역의 청소년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 사업계획서 검토

17개 시·도 센터에서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연구진이 검토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센터에 활동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1. 기본과업인 ① 정책시행계획모니터링, ② 8개 영역 지역사회지표의 정성평가, ③ 생활환경정책제안이 월별 활동내용에 포함, 2. 각 주제에 따른 활동은 청소년의 생활환경의 영향, 청소년 친화적 환경의 개선에 대한 논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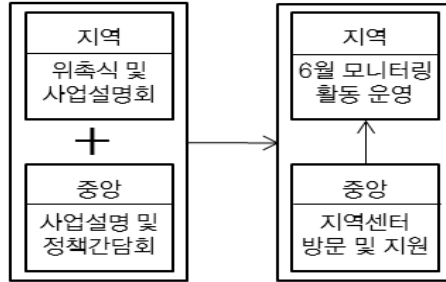
아이디어의 공유, 제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지킬 수 있도록 권고하고, 사업취지에 적합한 계획서를 선정하여 타 지역의 실무자들이 참조할 수 있게 공유하였다.

또한 17개 시·도 센터의 사업운영계획서 검토 결과와 지역별 모니터링단 운영 상황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방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표 V-9 월별 추진일정 예시 (경상남도)

구분	사 업 명	기 간	대 상	주요 내용
5월	오리엔테이션/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사업	5.10(토) 09:00~12:00 본부 상담실	모니터링단 10명	- 오리엔테이션 교육 - 정책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활동“인터넷중독예방, 해소사업” -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제안,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건강”영역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 활동 (5월 4주차 제출)
6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사업	6.14(토) 13:00~17:00 본부 상담실	모니터링단 10명	- 정책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활동“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 -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제안,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안 전”영역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 활동 (6월 4주차 제출)
7월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 및 연수사업	7.12(토) 13:00~17:00 본부 상담실	모니터링단 10명	- 정책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활동“청소년 지도 위원 활동 지원 및 연수” -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제안,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교육” 영역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 활동 (7월 4주차 제출)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방문	7월 중	모니터링단 10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 방문
8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강화 사업	8.9(토) 13:00~17:00 본부 상담실	모니터링단 10명	- 정책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활동“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제안,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관계” 영역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 활동 (8월 4주차 제출)
9월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사업	9.13(토) 13:00~17:00 본부 상담실	모니터링단 10명	- 정책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활동“청소년지도 부모교육” -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제안,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활동” 영역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 활동 (9월 4주차 제출)
10월	위기가정세대 상담지원 사업	10.11(토) 09:00~17:00 본부 상담실	모니터링단 10명	- 정책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활동“위기가정세대 상담지원사업” -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제안,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경제” 영역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 활동 (10월 4주차 제출)
	지역사회청소년 정책모니터링단 워크숍	10월 중 (1박 2일)	모니터링단, 경남청소년 참여기구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워크숍 (10월 중 개최, 1박 2일)
11월	성과발표회	11월 중	모니터링단 3명, 담당자	- 전년도 대비 사업성과 비교, 분석 - 성과 보고 및 제안발표, 시상 등

○ 지역 센터 방문 및 모니터링 활동 운영 단계 (6월)



-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위촉식 및 정책간담회(사업설명회)

지역의 운영 일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6월 중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개최하였고, 5월과 동일하게 지역에서 위촉식 참석 및 사업설명을 요청할 경우, 중앙에서 방문하여 위촉장 수여 및 청소년정책모니터링의 기본과업에 대해 설명하였다(6월 14일 대구, 6월 17일 경북 방문 예정).

-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월별 활동 운영


17개 시·도 센터의 사업운영계획서의 월별 추진 일정에 따라 활동이 진행 되었다. 각 시·도 센터의 월별 활동은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기본과업 3가지(정책시행계획모니터링, 8개 영역 지역사회지표의 정성평가, 생활공감정책제안)를 반드시 활동내용에 포함하며, 각 주제에 따른 활동은 청소년의 생활환경의 영향, 청소년 친화적 환경의 개선에 대한 논의나 아이디어 공유, 제안 등의 활동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전담인력을 통해 17개 시·도 센터와 상시 교류하여 각 센터의 활동 진행 중 발생하는 문의 및 요구 사항들을 취합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의 센터를 방문 지원하였다.

-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월별 활동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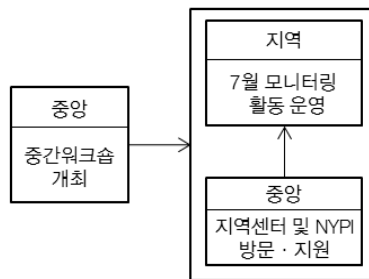
17개 시·도 센터에서는 월별 활동계획에 따라 활동한 3가지의 활동(정책시행계획모니터링, 8개 영역 지역사회지표의 정성평가, 생활공감정책제안) 결과물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제출 하였다. 연구진은 이를 검토 한 후, 각 시·도 센터에 모니터링 활동의 기록이 성인이 정리한 자료가 아닌, 청소년의 언어 그대로 담겨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작성된 자료 그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경상남도 지역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일시	5월 10일(토), 9시-14시	장소 및 인원	두드림·해밀교육실, 9명 참가(1명 불참)	
이달의 주제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오리엔테이션"			
모니터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교육 ○ 청소년친화환경조성 사업에 대한 안내 교육 ○ 개별 과제 안내 교육 - '생활공간정책' 작성(청포도 영상 상영을 통한 설명) - 지표영역에 따른 의견서 작성(예시를 통한 설명) □ 청소년친화환경조성 사업 모니터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청소년친화환경조성 사업 주제에 대한 토론 - 주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사업"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내용 안내(담당자) - 10월 한마음축제 행사 때 "인터넷 중독, 예방 캠페인"이 있다고 하여, 단원들이 행사에 참석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 - '인터넷 게임중독 사업'에 관련된 주변 사례 토론 - 하루 중 인터넷 게임을 해서 오히려 수업시간에 집중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장소가 턱없이 부족하다. 여학생 같은 경우도 요즘 pc방을 가장 많이 간다. -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싶은 학생은 하고, 안하고 싶은 학생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설문조사를 실시 한 학교는 일부 학교였다. - 설문조사 문항이 대해 똑같아서 내용을 다 외워서 설문 결과를 조작하는 청소년이 많다. - 고위험군으로 선정된 학생을 학교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설문 조사 결과를 조차한 사례가 있다. -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의 개선 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비자발적인 참여 - 부모님이 자녀에게 강제적인 참여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교가 설문조사에 응하는 것이 아님(형식적인 참여) - 인터넷 치유학교 개선 할 점 - 인터넷 치유학교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 치유학교를 다녀온 뒤 다시 똑같은 생활로 돌아온다. - 기타 해결방안 - 스마트폰 앱(어플)을 런처로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요즘세에 해당하는 휴대전화에 (필수)고정적으로 어플설치가 되어있도록 해야 한다. ○ 기타 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정기회의 정하기 : 6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30분 - 단체 활동 티셔츠 논의 - 활동 현수막 문구는 SNS로 논의 예정
				
				<p>모니터링 활동 사진</p>
				<p>모니터링 활동 평가</p> <p>고3 모니터링단원이 학교 시험일정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고, 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단원들이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이해한 것이 다행 점이라고 본다. 또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 하는 단원들의 모습이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가 되는 바이다. 특히나 연구원 방문에 대한 기대가 컸고, 단원들 간의 관계가 매우 좋아서 단합의 힘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p>

【그림 V-5】 모니터링 결과보고 예시(경남지역)

○ 지역 센터 모니터링 활동 운영 및 중간 점검 단계 (7월)



- 시·도 센터장 및 실무담당자 중간워크숍 개최 (7월 3~4일)

2014년 7월 3~4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2014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담당자 중간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운영진 중간워크숍에서는 상반기 모니터링단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하반기 청소년모니터링단 운영방향을 재점검하고,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다양한 운영사례를 공유함으로써 ‘2014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사업의 발전적 운영방향에 대해 제고하였다.

운영진 중간워크숍 프로그램은 상반기 사례공유, 하반기 추진일정 협의, 지역별 모니터링단 네트워크 형성방안 논의, 모니터링단 운영의 실제에 관한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중간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담당자의 필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중간 워크숍에서 운영 담당자가 기대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정보획득(역할정립/정보/스킬)이며, 둘째는 지지와 인정, 그리고 마지막은 관계형성이다. 이러한 운영자의 필요 파악은 10개년 연구에 있어서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발전적 운영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중간 워크숍을 통해서 청소년정책모니터링활동의 기본 목적이자 결과는 ‘청소년의 참여’로 제출해야하는 결과물보다는 청소년 중심의 활동 운영과 청소년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는 청소년의 목소리 그 자체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표 V-10 2014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진의 욕구·필요 파악 결과

중간 워크숍에 대한 기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간관계형성 2. 사업 전반적인 노하우 스킬 배워가기 3. 자기계발과 동시에 사업 추진 4. 모니터링단 활동의 방향성 5. 모니터링단 청소년 어떻게 이끌까? 6.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 7. 타지역 활동내용 참고 8. 결과도출 어떻게 해야 하는지 9. 지도자의 모니터링단 활동의 개입정도와 방식
↓	
운영지도자의 욕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획득(역할정립/정보/스킬) 2. 지지와 인정 3. 관계형성

-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월별 활동 운영 및 월별 활동 결과보고

6월 활동에 이어 17개 시·도 센터의 사업운영계획서의 월별 추진 일정에 따라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기본과업 3가지(정책시행계획모니터링, 8개 영역 지역사회지표의 정성평가, 생활공감

정책제안) 활동이 진행 되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17개 시·도 센터의 활동 진행 중 발생하는 문의 및 요구 사항들을 취합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 센터를 지원하였는데, 7월 22일에는 경남지역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DI)을 방문하여, 연구진은 2014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에 대한 이해 교육과 활동 관련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통해 경남 센터의 모니터링단을 지원하였다.

○ 지역 센터 모니터링 활동 운영 및 정책과제개발 (8월~10월)



-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월별 활동 운영 및 월별 활동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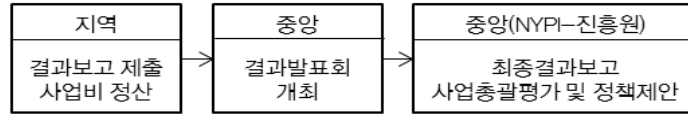
7월 활동에 이어 17개 시·도 센터의 사업운영계획서의 월별 추진 일정에 따라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기본과업 3가지(정책시행계획모니터링, 8개 영역 지역사회지표의 정성평가, 생활공감 정책제안) 활동이 진행 되었고, 17개 시·도 센터에서는 활동 결과물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전라남도 센터의 워크숍 참석 요청(8월 23~24일)에 따라 연구진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담당자가 함께 방문하여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17개 시·도 센터와 상시 교류하여 각 센터의 활동 진행 중 발생하는 문의 및 요구 사항들을 파악하고, 지원하였다.

- 정책과제개발단 운영(중앙-권역)

사업착수단계에서 계획하였던 지역별 정책과제개발단 구성은 지역별 청소년정책전문가단 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권역단위의 청소년정책전문가단을 구성하였다. 9월 2일 정책과제개발단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권역별 회의를 개최하여 모니터링단 활동결과와 정책과제개발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결과보고, 결과발표회 개최 및 완료 단계 (11월)



- 결과발표회 개최(11월 8일)

2014년 11월 8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2014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결과발표회에서는 지역별 지표조사의 분석 결과 및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이 지표에 대해 정성적으로 기술·평가한 자료의 분석 결과, 그리고 3개 지역(세종, 전북, 경남) 청소년들의 활동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아울러 우수활동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3) 모니터링단 구성 및 주요활동내용

○ 구성 현황

‘2014년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은 총 204명이며, 지역별로 평균 12명이 구성되었다. 청소년참여기구와 중복활동을 하는 비율은 약 54%이다. 이 중 다수는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 편차가 커 일부 지역(전원 중복활동 지역)을 제외하면, 중복활동 비율은 24%수준이다.

학년별 구성은 고등학생이 7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생, 대학생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생의 경우, 초·중·고 단원과 함께 참여하며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지역별로 1, 2명 정도만 선발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각 지역에 제공하였으나, 충남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모니터링단 지원자 중 대학생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생이 많이 포함되었다. 초등학생은 전체 모니터링단원 중 1명(충남지역)으로 구성되었다¹⁶⁾.

16) 초등학생은 기존의 청소년참여기구에서도 그 구성 비율이 낮으며, 참여를 하게 되더라도 중·고등학생과 함께 활동이 어려워 탈퇴하는 경우가 많다.

표 V-11 17개 시·도 센터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원 구성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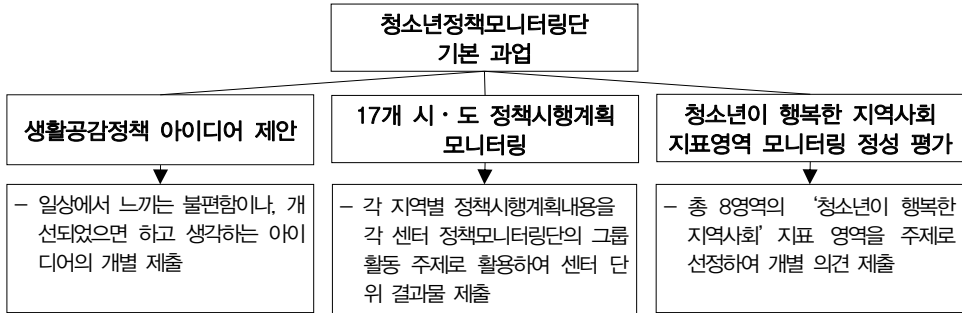
지역	담당인력	단원수	성별		학년				중복활동		2013 모니터링 참여
			남	여	초	중	고	대	청참여	특별회의	
서울	1	11	2	9	0	4	5	2	2	1	0
인천	1	14	7	7	0	0	14	0	14	0	0
광주	1	20	8	12	0	2	16	2	20	0	1
대구	1	10	4	6	0	2	6	2	0	0	3
대전	1	14	7	7	0	1	13	0	14	0	2
부산	1	10	4	6	0	0	10	0	1	0	1
세종	1	10	6	4	0	4	6	0	0	0	0
울산	1	12	7	5	0	0	12	0	12	0	1
강원	1	11	2	9	0	2	9	0	5	0	3
경기	1	12	9	3	0	1	8	3	3	2	2
경북	1	15	4	11	0	8	7	0	15	0	0
경남	1	10	1	9	0	1	8	1	10	0	0
전북	1	11	5	6	0	1	9	1	3	0	2
전남	1	9	4	5	0	5	2	2	1	1	1
충북	1	9	3	6	1	0	6	2	4	3	1
충남	1	17	10	7	0	0	11	6	2	0	0
제주	1	9	4	5	0	4	5	0	0	0	1
전체		204	87	117	1	35	147	21	106	7	18

○ 주요활동내용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활동은 본 연구의 이론적 개념 모형인 Bronfenbrenner (1979)의 생태학적 체계에 따라 ① 청소년이 그들의 일상에서 느끼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제안, ②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학교, 이웃(지역사회)의 환경 지표에 대한 정성적 평가, ③ 청소년이 일상에서는 환경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인 정책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의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진은 각 지역별로 정책의 추진 상황과 여건이 다를 것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세 가지 활동 과제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활동 방법과 내용은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활동의 내용과 방법은 각 지역에서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원들의 논의를 통해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4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기본과업의 구성



① 청소년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제안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개선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개별로 제출하였다.

② 17개 시·도 정책시행계획모니터링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에 관련된 각 지역별 정책시행계획내용에 대해 숙지 후, 정책모니터링단의 그룹 활동 주제로 활용하여 센터 단위 결과물(활동 내용이나 의견서)을 제출하였다.

생 활 공 감! 우리 지역에 제안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 바뀐다면?										
Step 1. 공감의 시작	- 제안을 하게 된 배경									
Step 2. 그래서, 제안합니다	- 제안의 내용									
Step 3. 생활공감으로 기대되는 변화	- 제안 수립 시 기대효과									
생활공감 정책제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제안 소속 및 작성자</td> <td>제안 일시</td> <td>제안 키워드</td> </tr> <tr> <td>지역 희곡번호</td> <td>성명</td> <td></td> </tr> <tr> <td>2014-</td> <td></td> <td></td> </tr> </table>	제안 소속 및 작성자	제안 일시	제안 키워드	지역 희곡번호	성명		2014-		
제안 소속 및 작성자	제안 일시	제안 키워드								
지역 희곡번호	성명									
2014-										

* 제안서는 두 장 이내로 작성하며, 가사, 그림, 도표 등 일러스트는 '붙임'으로 첨부

[] 지역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일시	장소 및 인원	/
이달의 주제	-시행계획을 근거로 주제를 선정해주세요	
모니터링 내 용		
모니터링 활동 사진		
모니터링 활동 평가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 기록(질문, 평, 아쉬운 점, 소감 등)	

【그림 V-6】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제안양식 【그림 V-7】 정책시행계획모니터링 활동양식

③ 지역사회 환경 지표에 관한 정성 평가

총 8영역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① 경제, ② 건강, ③ 안전, ④ 교육, ⑤ 관계, ⑥ 활동, ⑦ 참여, ⑧ 주관적 웰빙)를 매월 1~2개 영역을 주제로 선정하여 개별 의견을 ‘지역사회지표 모니터링 활동지’에 기술하여 제출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운영 센터장의 재량에 따라 월별로 선정된 지표 영역을 그룹 활동 주제로 확장하여 추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 안전 영역

안전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해당 없음	더 자세히 할 말 있어요
						
	1. 나는 우리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우리 학교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우리 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길을 떠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무서운 사람이나 나쁜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					

【그림 V-8】 지역사회지표 모니터링 활동지 예시(안전영역)

3) 활동결과 분석

(1) 지역별 시행계획학습 및 연계활동

① 서울

서울지역은 정책시행계획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운영, 성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였다. 특히,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은 청소년육성회 및 학부모정보감시단을 중심으로 유해환경 감시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된 홍보가 부족하며, 동네 단위의 작은 시설의 구축을 바탕으로 접근성이 높은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성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과 관련해서도

접근성 확보 및 홍보강화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으며,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의 이용확대를 위해서 무료 시설이용이나 프로그램의 확충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에 대해서는 감시 활동이 자원봉사단에 의해 이뤄져 순찰 차원으로 운영되어 유해환경에 대한 처리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환경에 대한 직접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② 부산

부산의 청소년모니터링단은 지역의 정책시행계획 중 성교육 문화센터 운영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제공,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성상담 교육,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 감시단 확충(서구, 사하구, 기장군), 청소년이 포함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및 회의 결과의 공지나 홍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대구

대구지역은 정책시행계획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청소년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였다. 이 중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은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체험하고자 기관방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였고, 그 외의 모니터링 활동은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전자료 조사와 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였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논의된 내용으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와 관련하여서는 홍보 강화를 위해 SNS 활용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④ 인천

인천지역에서는 정책시행계획 모니터링 활동으로 학교폭력 예방지원 및 흡연·음주 예방 홍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천지역의 청소년들은 정책시행계획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나 청소년금연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캠페인들이 실시되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며, 특히 징계를 받은 청소년들의 의무참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⑤ 광주

광주의 청소년모니터링단은 지역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중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청소년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학교폭력예방활동 강화에 대해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광주지역의 청소년들은 유해환경 감시 활동에 또래유해환경감시단과 같은 청소년의 참여와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들 대상의 교육 및 공모전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청소년건전성가치관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에 배치된 양호 선생님 보다는 전문화된 강사와 직접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학교 폭력 예방의 경우, 지자체의 정책 홍보가 부족하며, CCTV의 실효성도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역할바꾸기 프로그램이나, 실질적이고 지속적 상담, 가정환경 조사, 학생들의 익명성 보장이나 처벌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⑥ 대전

대전지역은 지역의 정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성교육프로그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사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하였다.

정책시행계획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하여 대전 지역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시설들의 홍보가 취약하며, 관련 시설의 확충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인터넷중독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연계하여 상담사 인력풀을 확충하고 상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해환경 감시단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법률지식 함양을 통해 유해환경의 기준과 법적제재 등에 대해 명확한 안내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며, 학교 앞이나 동네 등에서의 청소년 유해환경의 단속과 교통정비, 환경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되었다.

⑦ 울산

울산은 정책시행계획 중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건강한 청소년성문화 조성,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및 상담지원 사업, 청소년 학교폭력 지원대책 사업 등에 대해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였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논의된 내용으로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센터의 접근이 어려우므로 이동식 차량을 통한 접근성 확대와 청소년들의 성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학교폭력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명확한 사후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⑧ 세종

세종의 청소년모니터링단은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 및 배포와 올바른 인터넷 이용정책, 유아·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 강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생활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 등의 정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기업, 정부, Wee센터, 상담복지센터, 교육청의 정책안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였다.

세종 지역의 경우, 새롭게 유입된 청소년이 많은 곳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 대해 청소년들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모니터링 활동에서 논의된 내용으로는 주로 청소년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 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지역적 특색과 청소년들의 욕구를 빠르게 파악하여 특성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등이 있었다.

⑨ 경기

경기지역은 지역의 정책시행계획 중 지역사회청소년통합체계(CYS-NET),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였다.

경기지역에서도 다른 지역들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들과 같이 모니터링 활동을 한 시행계획들에 대해 홍보의 활성화와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 많다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해당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공간적 특성에 따라 교통의 안전성 및 편리성 확보와 청소년의 도움 요청 가능 시설의 확충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⑩ 강원

강원지역에서는 성교육 문화센터 운영, 상담복지센터의 교육,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등에 대해 정책시행계획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활동에서 논의된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성교육 문화센터 운영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실질적인 방문이 어려우며, 교통편도 불편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상담복지센터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비행청소년이나 방황하는 청소년

들에게도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과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전화상담 역시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 안내함으로써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⑪ 충북

충북지역은 정책시행계획의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 사업 중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진단, 치료 등 지원, CYS-Net,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대하여 기관방문의 형식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충북지역의 모니터링단 청소년들은 위와 같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시설 및 기자재의 낙후에 따른 시설 정비 및 교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시설 및 관련 직원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⑫ 충남

충남에서는 청소년친화환경조성사업 중 비행청소년 예방적·회복적 사법제도 구축,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CYS-Net, 1234운동, 1388청소년전화 등에 대해 모니터링단원을 자료조사팀, 설문지팀, 인터뷰팀으로 나누어 사전조사를 수행한 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활동을 진행하였다.

충남지역 모니터링단 청소년들이 정책시행계획과 관련된 자료조사, 설문,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주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및 예방에 대해서는 정적인 상담외에 동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중독 치료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센터를 중심으로 이전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놓여진 청소년을 위해서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시보호소의 경우 주변 도로가 위험하고, 시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며, 천안에만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낮고 불편하다는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⑬ 전북

전북지역에서는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 학교폭력에방사업 운영의 정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다.

전북지역의 모니터링 활동에서 논의된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변두리 지역에서 운영되는 가게 등 취약지역의 술, 담배 판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폭력예방 사업은 교사의 소명의식이 부족하고 학교의 대처가 소극적이며, 학교폭력의 신고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형식적 진행, 가해학생에 대한 숨방망이 처벌, 상담의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들이 있어, 대안으로 임용과정 개선을 통한 교사의 역량강화, 신고자의 비밀보장 시스템 구축 및 홍보, 전담경찰 배치, 상담교사의 의무배치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⑭ 전남

전남의 청소년모니터링단은 지역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중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보호(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 인터넷중독 피해사례와 학교폭력에 대해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방문과 센터 내부 토론을 진행하였다.

전남지역의 모니터링단 청소년들은 위와 같은 모니터링 활동을 주로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관방문을 통한 학습이나 시행계획과 관련된 경험을 위주로 토론이 진행되어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⑮ 경북

경북지역은 지역의 정책시행계획 중 학업중단 청소년 참여사업, 학교폭력예방 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였다.

정책시행계획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경북지역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청소년 참여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우며,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교폭력예방 사업은 교육위주의 사업운영보다는 활동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운영에서는 앞서 다른 지역에서도 주로 논의되었던 홍보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⑯ 경남

경남지역은 지역의 정책시행계획 중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 사업, 위기가정 세대상담지원 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였다.

경남지역의 모니터링단 청소년들은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인터넷중독예방 사업의 경우 학생들의 비자발적 참여 및 치유학교의 사후관리 미흡이 개선해야할 점으로 논의되었으며, 위기가정 세대 상담 지원사업의 경우는 홍보의 부족과 상담사의 잦은 교체가 개선사항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가해학생보다는 피해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학교 폭력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⑰ 제주

제주지역의 청소년모니터링단은 지역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중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 모니터링하였으며, 안전한 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 활동 현장(한국스카우트 개최 야영대회, 솜반천청소년영상문화축제)을 방문하여 유해환경 노출, 학교폭력,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법 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제주지역에서도 다른 지역들에서 논의된 내용들과 같이 모니터링 활동을 한 시행계획들에 대해 홍보의 활성화와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이동형 성문화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시하였다.

(2) 지역사회 지표 관련 정성적 평가

앞서 제4장에서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집된 주관적 지표조사의 각 항목들에 대해 지역사회 청소년모니터링단 204명의 청소년들은 의견을 기술하는 방식의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들을 취합·정리하고 의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정성자료 분석 기법의 하나인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영역별로 어휘적 의미가 없는 불용어들을 단계적으로 제거한 뒤, 빈도 4 이상의 어휘들만을 워드 클라우드로 분석한 후 각 영역별로 주로 언급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시각화하였다.

[그림 V-9]에는 8개 영역 중 4개 영역(경제, 안전, 건강, 교육)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부모님이 챙겨주시며 부족한 부분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보충(한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버신 돈으로 제가 하고자하는 일을 지원해주시지만 가끔은 돈 걱정이 없이 평평 써보고 싶은 로망도 있어요.”

“우리 집 생활형편에 대해 만족 불만족으로 나눌 수 없는 거 같다. 부모님이 힘들게 버신 돈을 내가 이리저리 평가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이나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형편이 되기에 우리 집 생활형편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바이다.”

경제영역에 이어 안정영역에서는 주제어인 ‘안전’을 제외하고, ‘생각’, ‘학교’, ‘위험’, ‘시설’, ‘동네’, ‘기구’ 등의 어휘들이 빈도 높게 언급되었다. 이들 어휘들은 도출된 구체적인 기술 내용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동네는 원래 시내가 아니다보니 평상시에도 사람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닌데 고등학생들이 심야자습하고 난 뒤에는 버스도 거의 없고 사람도 없고 가게도 거의 안 해서 매우 무섭다. 누가 데려가도 아무도 모를 거 같아 불안하다.”

“학교나 체육관 같은 시설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편이니 그나마 안전한 편이지만, 책상과 의자 등은 정기적으로 수리하지 않으니 삐걱거리거나 높낮이가 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자세교정이 필요하거나 척추측만증을 우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동네에는 여러 가지의 운동기구 들이 있는데 운동기구 앞에 운동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 운동기구 사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붙여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의 운동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건강영역의 경우 언어구름의 크기가 크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건강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많은 의견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건강과 관련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절대 언어로 도출된 것은 ‘스트레스’로,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육체적 건강보다는 정신적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함께 ‘생각’, ‘시간’, ‘학업’, ‘학교’, ‘아침’, ‘밥’, ‘기분’ 등이 높은 빈도로 분석된 결과 또한 정신적인 건강과 연계되는 언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어휘와 관련하여 기술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를 풀 곳이 마땅히 없다. 중학교 때 스트레스를 푸는 ‘스트레스 존’ 이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오니 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은데 해소할 장소가 없어서 아쉽다.”

“직업, 입시, 공부에 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이라면 이 스트레스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며 심각할 것 같다.”

“저는 보통의 신체적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준비해야한다는 이유로 그나마 여러 종목의 운동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던 체육 시간이 사라져 아쉽습니다.”

“저는 요즘 저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분이 가라앉고 걱정됩니다.”

“가끔 공부하다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 들 때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다.”

“저는 매일 아침밥을 챙겨 먹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집에서 밥을 먹고 등교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먹밥이나 김밥 같은 음식을 아침 급식으로 제공해 준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영역에서는 ‘직업’이 ‘학교’나 ‘수업’보다도 더 빈도가 높은 언어로 도출되었고, ‘진로’ 또한 빈번하게 언급된 언어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의 청소년들이 교육과 관련하여 실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학교의 수업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직업 등 비교적 장기적인 선택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들 어휘들이 도출된 구체적인 기술 내용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관련 수업은 주로 진로시간으로 대체되어 사실상 자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체계적인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진로’라는 한 과목이 존재하여 국영수에 상관없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거나 찾아가곤 한다, 하지만 주요 과목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도 어수선 할 뿐 더러 일주일에 한 번 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소 부족하다.”

“이건 진심으로 중학생 때부터 절대 수궁할 수 없는 건데. 제발 방과후만이라도 뭔가 자신의 꿈을 찾고 끼를 기를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떤지... 아니 겨우 2시간인데 그게 사람 인생을 바꿔 놓을지 어떻게 알아요?? 맨날 하던 공부 2시간 더한다고 성적이 오르나요? 제발 특기 적성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꿈과 끼가 아니더라도 약기는 뭐 하나 배워 놓으면 참 요긴한데 말이죠. 정말 이걸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교 진로 시간에는 항상 자습을 해요. 그냥 선생님께서 오셔서 앞에 앉아 계시고 저희는 자습을 하죠. 아주 가끔 어떤 선생님께서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 하나를 틀어주시고 시간을 보내시기도 해요. 바리스타나 뭐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배웠어요.”

이상과 같은 4개 영역의 분석 결과에 이어 [그림 V-10]에는 8개 영역 중 나머지 4개 영역(관계, 활동, 참여, 주관적 웰빙)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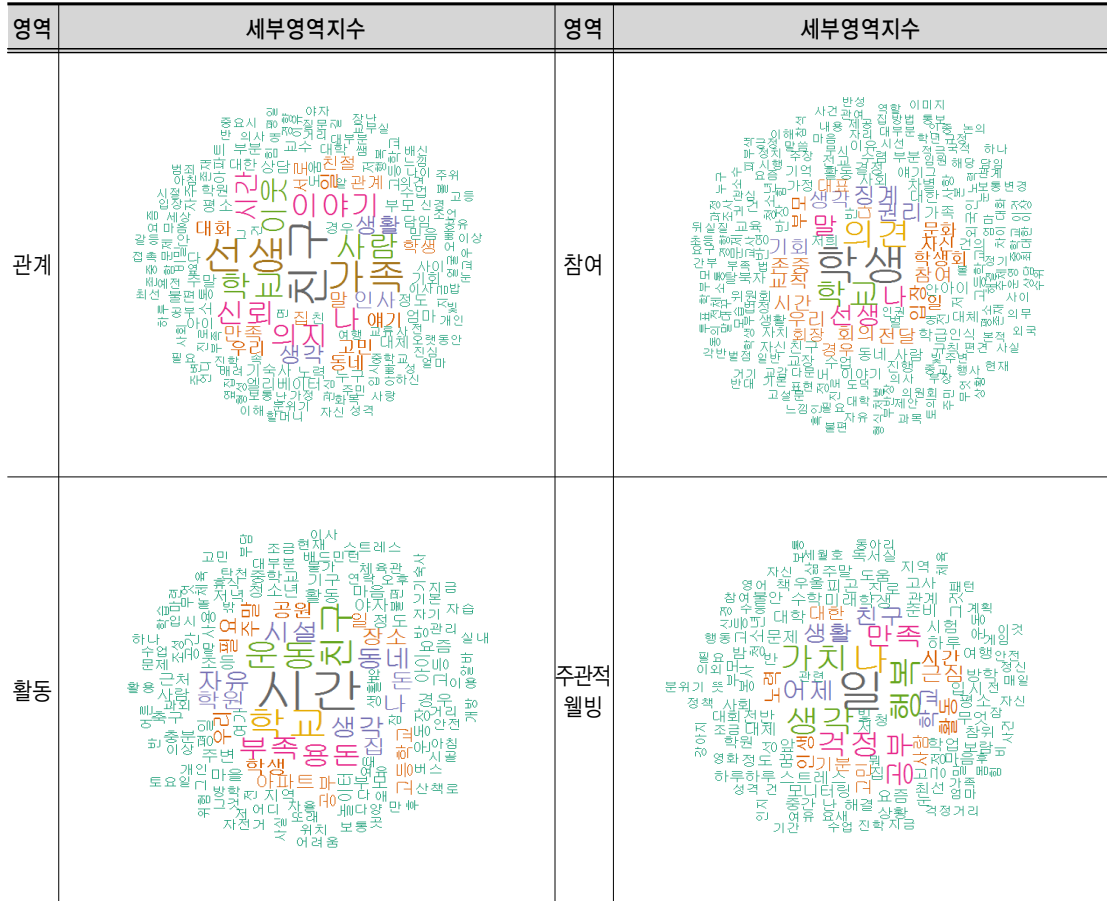
먼저, 관계영역에서는 또래관계가 중요한 청소년시기인 만큼 ‘친구’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어휘로 도출되었으며, 이와 함께 ‘선생’, ‘가족’, ‘학교’, ‘이웃’ 또한 ‘친구’만큼 자주 언급된 어휘로 분석되었다. 이는 청소년을 둘러싼 미시환경체계 내의 가족, 학교, 이웃이 관계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임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관계영역에서 주목할 것은 ‘신뢰’, ‘의지’, ‘이야기’, ‘대화’, ‘말’, ‘얘기’, ‘고민’ 등의 어휘들이다. 이들 도출된 어휘들을 살펴보면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이야기하며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어휘와 관련하여 기술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겉친구와 속친구를 구별한다. 겉친구가 많을수록 외로움과 우울증을 겪는다. 속친구는 의지대상이지만 사귄 기회가 적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고민도 걱정도 모두 풀리는 것 같다. 그 친구들 또한 자신을 이야기를 해주어 서로 믿고 의지한다.”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쌤들이랑 이야기하면 즐겁고 먼저 말 걸고 싶어요, 반면에 비꼬는, 성적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쌤들한테는 다가가기 싫고 다른 애들도 피해 다녀요.”



【그림 V-10】 4개 영역(관계, 활동, 참여, 주관적 웰빙) 워드 클라우드(Word-Cloud) 분석 결과

참여영역에서는 절대 다수 청소년의 현재 상태인 ‘학생’이라는 어휘가 가장 빈도 높은 언어로 도출되었으며, ‘학교’, ‘선생’, ‘의견’, ‘말’, ‘권리’, ‘징계’, ‘기회’, ‘존중’ 등의 어휘도 빈번하게 언급되는 어휘로 분석되었다. 이들 어휘를 살펴보면, 대체로 학교생활에서의 참여 기회의 확대 및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 관련 정책의 당사자 체감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어휘들이 도출된 구체적인 기술 내용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전에 동네버스에 흑인이 탔었는데, 사람들이 티가 나도록 쳐다봤어요. 그 모습에 그렇게 존중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는 나의 권리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다수다.”

활동영역에서는 ‘시간’이라는 어휘가 가장 빈도 높은 언어로 도출되었으며, ‘학교’, ‘운동’, ‘친구’, ‘부족’, ‘용돈’, ‘시설’, ‘동네’, ‘자유’ 등의 어휘가 ‘시간’이외 빈도가 높은 어휘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이 활동과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시간제약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시간 사용을 함께할 친구와 장소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활동과 함께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어휘들이 도출된 구체적인 기술 내용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곧 방학이긴 하지만 야자까지 하면 저녁 10시가 훌쩍 넘고, 야자 끝나고 학원을 가기 때문에 마치면 저녁 11시나 12시이다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다. 또 주말에도 학원을 가기 때문에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아르바이트, 과제, 공부 등으로 잠 잘 시간이 부족하다.”

“집주변에는 학교가 많고 공원이 하나 있어서 운동은 할 때가 있긴 하지만 막상 하려면 운동기구나 운동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한부모 가정이라 용돈이 없어서 알바를 해 쓰지만 대부분 적금해야하기 때문에 놀 때는 돈이 부족하다.”

“점점 크면서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다 보니 용돈이 더 필요할 때가 늘어나고 있다.”

주관적 웰빙영역에서는 ‘일’, ‘가치’, ‘나’, ‘행복’, ‘생각’, ‘걱정’ 등이 주요 어휘도 분석되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웰빙은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정신적이고 가치 중심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관계, 참여, 활동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어구름의 크기가 다소 작는데, 이는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된 주관적 웰빙에 대해 다소 생각을 정리하고 기술하기가 난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어휘들이 도출된 구체적인 기술 내용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던지 내가 하는 일에 후회가 없고 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생활에 만족한다.”

“학교공부 외에도 방과 후 학교, 바깥 동아리 활동 등 정말 많은 활동을 하는데 내가 힘든 만큼 미래가 밝게 느껴지지 않아서 힘들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가치가 있는 일 같다.”

“지금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일을 마치고 나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길 바라며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지표에 대한 의견 기술 및 정성적 평가자료를 워드 클라우드 방법을 사용하여 각 영역에 있어서의 청소년들의 관심 주제와 이슈들의 키워드를 도출하고 숨어 있는 의미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의미 구성의 요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해석해 내기 위해서는 핵심 어휘 도출뿐만 아니라, 이들 어휘들 간의 연관관계 분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어지는 차년도 연구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며,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소년 생활 공감 정책제안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또 다른 활동 내용의 하나는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생활공감 정책제안’이다. 이는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활동 중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개선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활동 청소년들이 제출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하나는 17개 시·도의 모니터링단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한 내용들의 묶음이고, 나머지는 지역에 따라 비공통적으로 제안한 내용들이다.

17개 시·도의 모니터링단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한 생활공감 정책은 주로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깨끗한 환경’, ‘학교를 둘러싼 시설 및 활동’ 그리고 ‘청소년 공간 및 인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주류를 이룬다.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깨끗한 환경에 대해서는 ①등하굣길 대중교통의 편리성 및 교통안전 확보, ②자전거 사용과 관련된 환경 개선(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점검, 자전거 대여서비스), ③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가로등, ④CCTV 등 안전 시설물 설치, ⑤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학교를 둘러싼 시설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①등교시간을 9시로 조정, ②노후된 책걸상 교체, ③방과 후 수업의 자율성 확보, ④방과 후 활동의 다양화(예체능 관련 확대) 등의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공간 및 인권과 관련된 제안으로는 ①청소년의 주요 이용 공간인 도서관 확대, ②청소년 전용 공간 및 휴식·여가 공간 확보, ③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 ④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등이 있었다.

지역에 따라 비공통적으로 제안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①유기동물 보호관리, ②자전거 사용 권장, ③식수대 설비 관리 및 설치, ④다양한 직업 체험 및 진로탐색의 기회제공, ⑤지방자치단체 행사 참여, ⑥교과서 채택 시 의견반영 등이 제안되었으며, 부산지역에서는 ①다양하고 균등한 활동참여기회 제공, ②월1회 부산시 청소년들의 대화의 장 마련, ③청소년을 배려하는 교통시설 설치 등이 제안되었다.

대구지역에서는 ①학교 간 교류를 통한 공동 행사 개최, ②학생증과 청소년증의 기능 통합이, 인천지역에서는 소규모 도서관의 확충과 청소년 안전업소 지정이, 광주지역에서는 ①시외버스 청소년요금제, ②청소년시설(센터 등) 안내판 설치, ③네이버를 통한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④낮잠시간 지정, ⑤성장에 맞게 조절 가능한 책상 제작이 제안되었다.

대전지역은 ①10대 선거권 참여 및 지속적인 정책발언 기회 제공과 ②수학여행 시 사전 지문 등록의 의견이 있었는데, 지문등록의 경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제안으로 보인다.

표 V-12 17개 시·도 청소년의 생활공감 정책제안

17개 시·도의 공통적 생활공감 정책제안

- 등하곳길 안전을 위한 가로등, CCTV 등 안전 시설물 설치
- 등하곳길 대중교통의 편리성 및 교통안전 확보
- 자전거 사용과 관련된 환경 개선(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점검, 자전거 대여서비스)
-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 등교시간 조정(9시)
- 노후 된 책걸상 교체
- 방과 후 수업의 자율성 확보
- 방과 후 활동의 다양화(예체능 관련 확대)
- 도서관 확대
- 청소년 전용 공간 및 휴식·여가 공간 확보
-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른 생활공감 정책제안 (비공통 사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동물 보호관리 • 자전거 사용 권장 • 식수대 설비 관리 및 설치 • 다양한 직업 체험 및 진로탐색의 기회제공 • 지방자치단체 행사 참여 • 교과서 채택시 의견반영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전용카페설치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하고 균등한 활동참여기회 제공 • 월1회 정도 부산시 청소년들의 대화의 장 마련 • 청소년을 배려하는 교통시설 설치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접근성이 좋은 청소년 시설과 다양한 혜택제공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간 교류를 통한 공동 행사 필요 • 학생증과 청소년증의 기능 통합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해설자 상시 배치 지역 홍보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도서관 확충 • 청소년 안전업소 지정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도서관 주말 개방 • 다양한 주말 봉사활동 거리와 정보 • 작은 학교 보건교사 의무배치 • 일요일 학교자율학습에 식사제공(장수 지역)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외버스 청소년요금제 • 성장에 맞게 조절가능한 책상제작 • 청소년시설(센터 등) 안내판 설치 • 네이버를 통한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 낮잠시간 지정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골 공부방(아파트, 주민센터)활용 확대 • 시골 편의시설 확대 • 어린이 용품 안전기준 강화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여행 시 사전 지문등록 • 10대 선거권 참여 및 지속적인 정책발언 기회 제공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연 확대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내(각 반별) 상시적인 치솔걸이대 및 치약 배치 • 청소년 투표권한 부여 • 청소년명예의원체 설치 • 청소년 1인 1동아리 활동 의무화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 개정시 활동적인 과목 신설 확대 • 구·면 단위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확대 • 경남 잡월드 신설
세종	-	제주	-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면허제도 도입 •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울산지역에서는 ①학교 내 상시적인 칫솔걸이대 및 치약배치, ②청소년 투표권한 부여, ③청소년 명예의원제 설치, ④청소년 1인 1동아리 활동 의무화 등의 제안이 있었으며, 경기 지역에서는 ①자전거 면허제도 도입, ②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등이 제안되었다.

강원지역에서는 청소년 전용카페설치를, 충북지역은 소규모의 접근성이 좋은 청소년 시설 확충과 다양한 혜택제공이, 충남지역에서는 지역 홍보 차원에서 문화유산에 관한 해설자 상시 배치가 제안되었다.

전북지역에서는 ①작은 도서관의 주말 개방과 다양한 주말 봉사활동과 정보 제공, ②작은 학교에 보건교사 의무배치, ③일요일 학교 자율학습에 식사 제공 등이 제안되었으며, 전남지역에서는 ①시골 공부방 활용 확대, ②시골 편의시설 확대, ③어린이 용품 안전기준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경북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연 확대가 제안되었고, 경남지역의 경우 ①교과목 개정 시 활동적인 과목의 확대 신설, ②경남 잡월드 신설, ③구·면 단위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제3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
진단 및 분석

제 VI 장

종합지수(YHCI)의 산출 및 분석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의 산출
2. 전국 시·도 지수의 비교 분석
3. 각 시·도별 영역지수의 비교

제 VI 장

종합지수(YHCI)의 산출 및 분석*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의 산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앞서 제4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 학부모, 교사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집한 개인 단위의 미시데이터(micro data)와 시·도를 단위로 집계된 2차 객관자료(second data)를 집합 데이터(aggregate data)로 통합하였으며, 영역별 지수(indices)와 종합지수(index)를 산출하여 거시데이터(macro data)로 변환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의 통합과 변환이 필요한 이유는 각 지역의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정책의 여건을 한눈에 파악하고, 시계열적으로 변화를 살펴보기에 유용함과 동시에 정책적 개입 지점을 정책입안자 및 시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한 종합지수를 산출하다 보면 다양한 가치를 지닌 지표들을 표준화하고 종합화하는 과정에서 본래 지표의 특성이 변질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국토연구원,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종합지수의 산출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서열화 또는 순위발표에 있지 않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출·분석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이와 같은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한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일정 수준이하의 지역사회 환경을 장기적·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청소년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하현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가 집필하였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7개 시·도 중 객관적 지표자료가 부재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종합지수를 산출하여 비교·분석하고, 8개 영역 및 세부영역지수를 지역별로 비교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 지수(index)화 작업은 경제(economy), 건강(health), 안전(safety), 교육(education), 관계(relationship),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well-being)의 8개 영역을 구성하는 개별 지표들을 표준화하고 그 평균을 구한 후, 다시 영역 단위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각 영역(domain)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표들 간의 상이한 단위를 표준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점수(z-score)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준화 작업을 위해 우선 청소년의 행복과 부정적 관계에 있는 지표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준화된 각 영역의 점수는 각 영역을 구성하는 지표들의 평균값이며, 종합지수의 점수는 8개 영역 점수의 평균값이다.

본 연구에서 개별지표의 점수를 표준화점수로 변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을 갖는다. 하나는 각 항목별 점수에 있어서 16개 시도간의 격차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항목 자체의 중요도에 비해 시도간의 격차에 의해서 개별 항목의 영향력이 결정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표의 항목들은 경우에 따라서 응답자들의 동의 비율(%)인데 비해 어떤 항목은 청소년 평균운동시간을 측정하는 등 서로 다른 기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항목들을 절대 값이나 평균이 아닌 변량을 기준으로 표준화 시켜 합산함으로써 기준값의 차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이다.

개별지수를 통합하여 종합지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개별지수 또는 영역에 가중치(weight)를 부여하는 여부는 기존의 연구에도 논란이 되어온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개별지표에 동일한 가중치(equal weight)를 부여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단순지수산출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동등 가중치(equal weight)를 주는 방식은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과 행복의 정도를 측정한 Hagerty et al.(2001)와 Bradshaw & Richardson(2009)의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다.

Hagerty et al.(2001)의 연구와 Bradshaw & Richardson(2009)의 연구에서는 지표(indicators)들을 통합하여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components)들을 구성하였으며, 이렇게 구성된 요소들을 통합하여 영역(domain)을, 또 이 영역(domain)들을 통합하여 종합지수(composite index)를 구성하였다. 지표에서 요소로, 요소에서 영역으로, 영역에서 종합지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들을 통합하여 세부영역으로(지표+지표→ 세부영역), 세부영역에서 영역으로(세부영역+세부영역→ 영역), 영역에서 종합지수로(영역+영역→ 종합지수) 통합하였는데 상기한 연구에서와 같이 변수를 통합하는 단계에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개별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동등한 가중치를 준다는 의미와도 상통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minimax** 추정치라고도 한다. 일부에서는 개별 지표의 가중치에 대한 사람들 간의 의견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다(이봉주 외, 2013).

한편, 본 분석의 표준화 점수는 독자들이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평균 0, 표준편차 1의 표준점수를 평균 100, 표준편차 10인 점수로 변환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산출된 지수의 수치 '100'은 16개 시·도의 전국 평균을 의미하며 100을 기준으로 100 보다 크면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이고, 100보다 작으면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전국 시·도 지수의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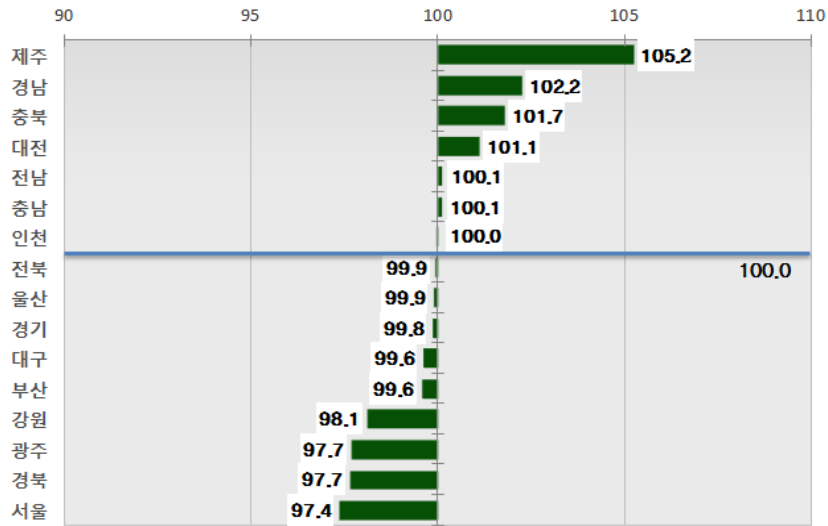
1) 전국 시·도 종합지수의 비교

앞서 설명한 표준화 과정을 통해 산출된 각 지역의 종합지수를 [그림 VI-1]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비교하였다. 지수의 수치 '100'이 전체 평균임을 고려할 때, 16개 시·도 중 평균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7개 지역(제주, 경남, 충북, 대전, 전남, 충남, 인천)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을 기준으로 진단하였을 때, 절반 이상의 지역이 평균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의 종합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도지역의 종합지수가 광역시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16개 시·도 중 제주지역의 종합지수(105.2)가 가장 높고, 서울지역(97.4)이 가장 낮았으며, 시·도 종합지수가 평균이상인 지역(제주, 경남, 충북, 대전, 전남, 충남, 인천) 중 광역시는 2곳으로 나머지 5 광역시는 종합지수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가 현실적으로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상태에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서울, 경기)은 평균 이하의 종합지수를 보이며, 대전-충청권(충청남북도)은 평균 이상의 종합지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 16개 시·도 종합지수의 비교

2) 전국 시·도 영역별 지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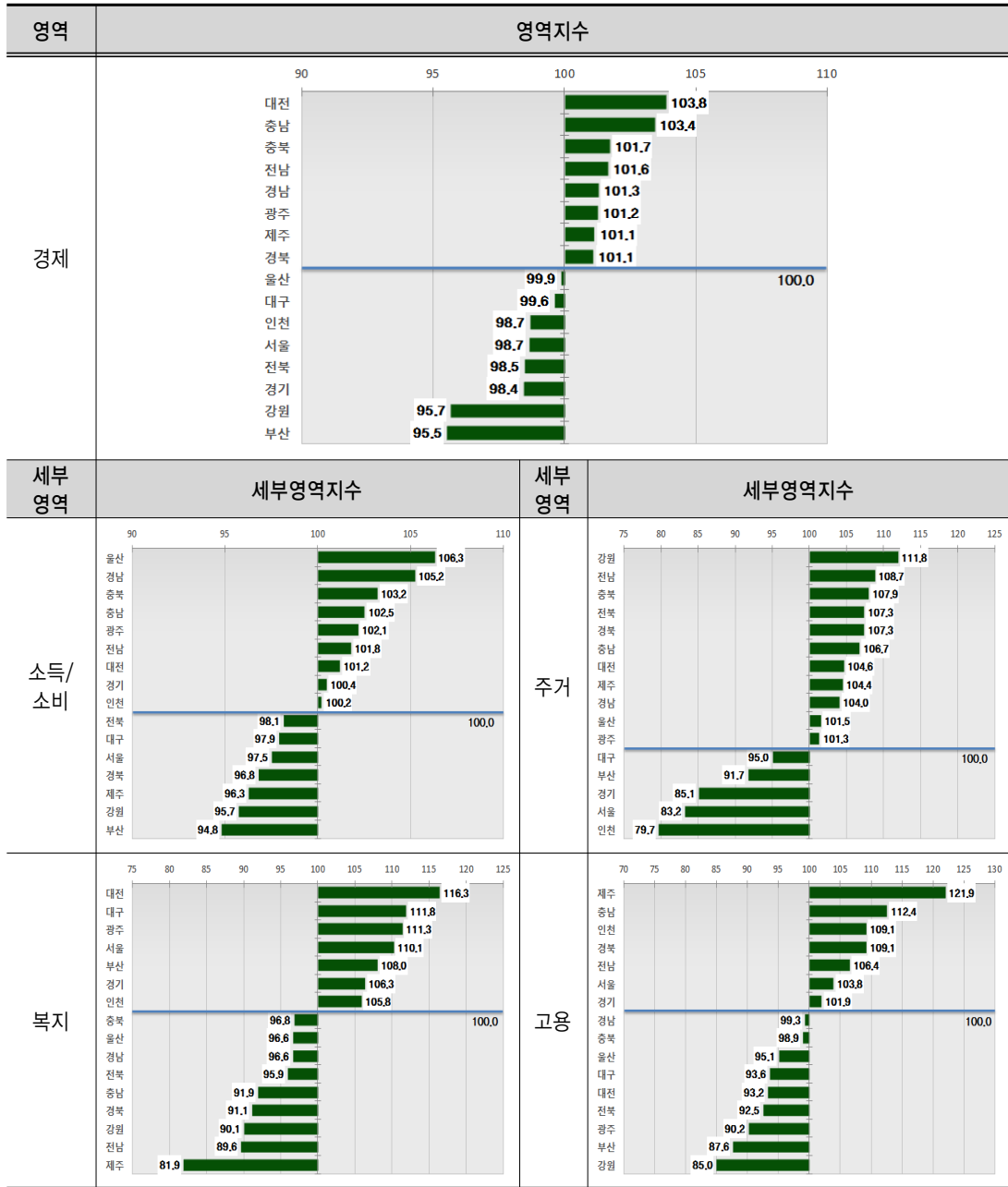
(1) 8개 영역별 지수

① 경제영역

경제영역에서 세부영역인 소득/소비 영역의 가정경제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객관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객관적인 지표는 소득/소비영역에서 지역경제수준과 지니계수가 구성되었고, 복지영역에서는 사회복지지출 비율, 주거영역에서는 통학소요시간, 고용영역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로 구성되었다.

경제영역의 지수는 광역시보다 도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제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평균지수 100을 기준으로 절반인 8개 지역(대전, 충남, 충북, 전남, 경남, 광주, 제주, 경북)은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8개 지역(울산, 대구, 인천, 서울, 전북, 경기, 강원, 부산)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제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소비, 주거, 복지, 고용의 네 가지 세부영역 지수가 모두 낮게 나타나거나 또는 높게 나타난 지역은 없다. 다만, 강원, 대구, 부산이 세 영역에서 평균 이하인 지역으로, 전남, 충남, 인천이 세 영역에서 평균 이상인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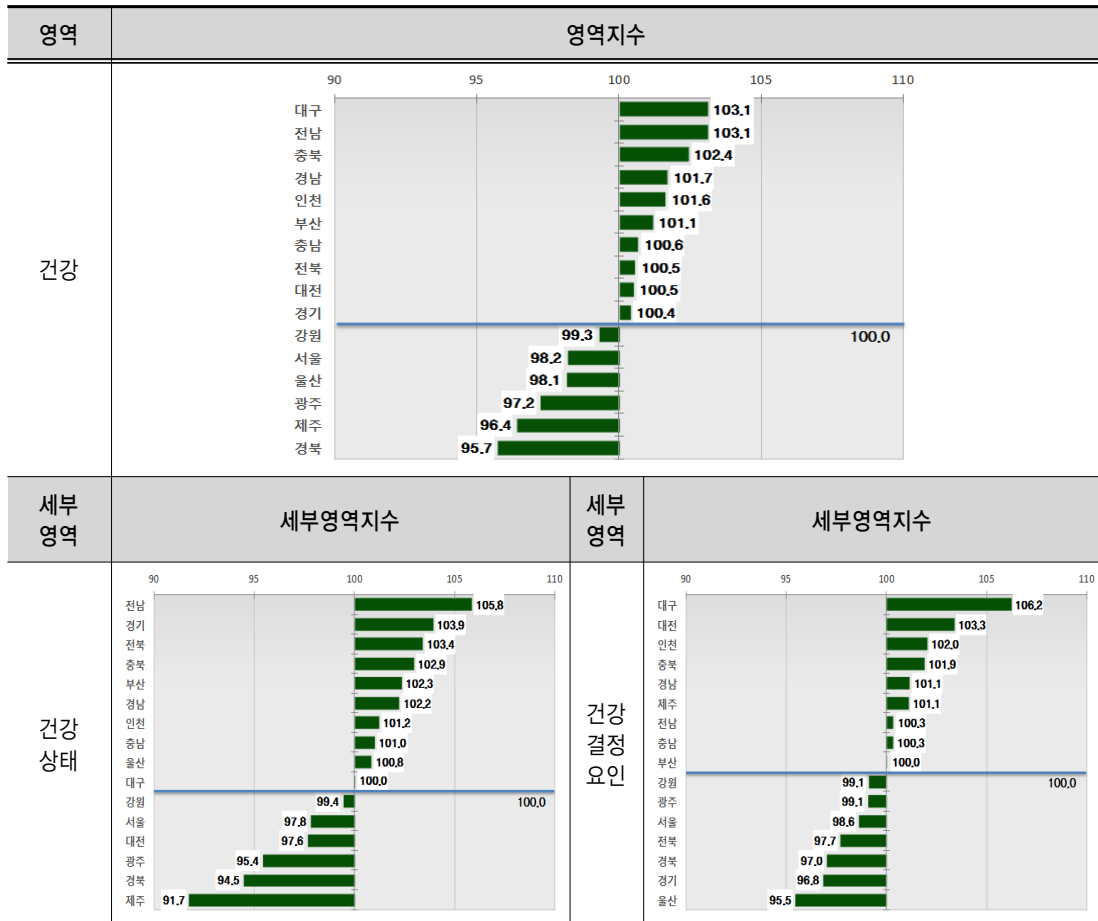


【그림 VI-2】 경제영역의 16개 시·도 지수 비교

② 건강영역

건강영역은 건강상태와 건강결정요인 등 두 가지 세부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건강상태영역의 주관적인 지표로는 주관적인 건강인지율과 스트레스 인지율, 객관적인 지표로는 BMI 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건강결정요인영역에서는 주관적인 지표로 아침식사와 고카페인 이용량, 객관적인 지표로 평균운동시간, 평균수면시간,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미디어 중독률이 포함되었다.

건강영역지수가 평균 이하인 지역은 강원, 서울, 울산, 광주, 제주, 경북으로 광역시와 도지역이 각각 세 지역이 해당되나, 전반적으로 광역시 지역이 도 지역에 비해 대체로 건강영역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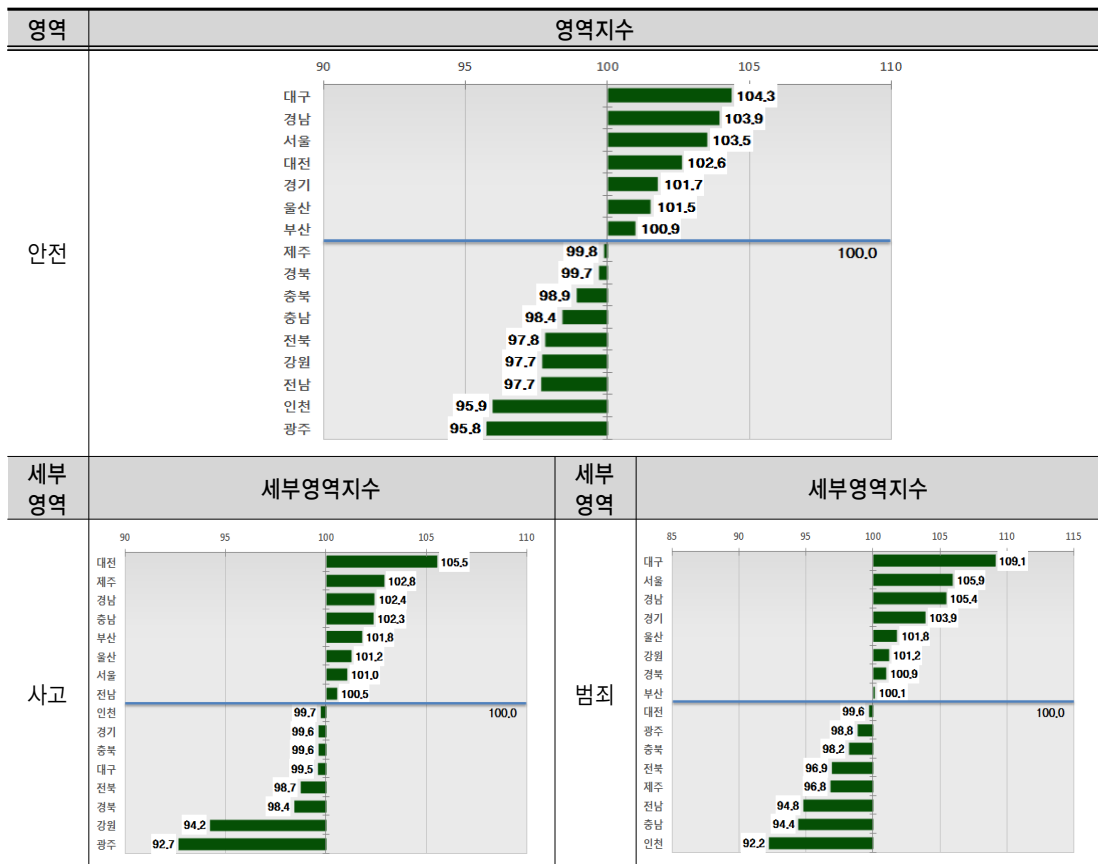


【그림 VI-3】 건강영역의 16개 시·도 지수

이들 지역 중 세부영역(건강상태, 건강결정요인)에서 모두 평균 이하인 지역이 발견되었는데, 강원, 광주, 서울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건강상태영역 지수는 제주(91.7)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안전영역

안전영역은 사고와 범죄 두 세부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사고영역의 주관적인 지표로는 지역사 회시설 안전도, 학교시설 안전도, 위기상황대처능력, 객관적인 지표로는 유해환경, 청소년 도로 사고율, 청소년 안전사고사망율이 해당되고, 범죄영역의 주관적인 지표에는 범죄안전도, 객관적 인 지표로는 청소년 범죄피해율, 아동학대 피해경험률, 학교폭력 발생률, 청소년 범죄율이 해당된 다.



【그림 VI-4】 안전영역의 16개 시·도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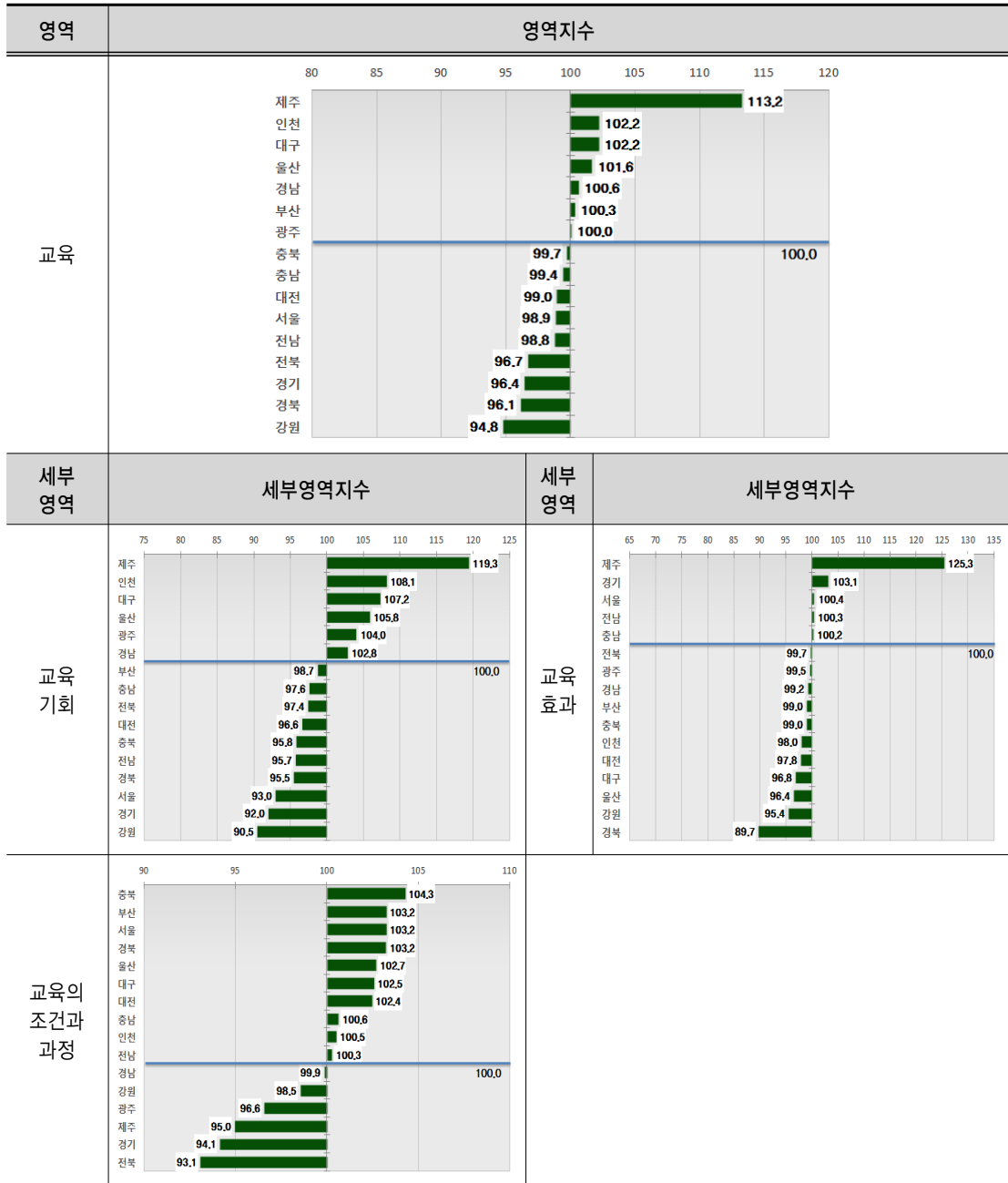
안전영역에서 평균 지수(100) 이상인 지역은 7개 지역(대구, 경남, 서울, 대전, 경기, 울산, 부산)으로 16개 시·도 중 절반도 되지 않는다. 대체로 광역시의 안전지수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고와 범죄영역 모두에서 지수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은 서울, 경남, 울산이고, 인천, 충북, 전북, 광주에 두 영역 모두에서 평균 이하로 나타나 안전영역에서 취약한 지역으로 드러났다.

④ 교육영역

교육영역은 3가지 세부 영역 즉,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 효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기회 지표에는 주관적인 지표인 직업교육 훈련기회와 객관적인 지표인 학교중단율로, 교육의 조건과 과정영역에는 3가지 객관적인 지표인 학급당 학생수, 학업성취도, 사교육비 지출액이 구성되었다. 교육효과지표에는 주관적인 지표 2가지가 해당되는데, 그 중 하나는 교과과정 만족도이고 다른 하나는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이다.

교육영역에서 제주지역의 지수(113.2)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교육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지수를 보이는 지역 역시 7개 지역(제주, 인천, 대구, 울산, 경남, 부산, 광주)으로 광역시의 비중이 높다. 전반적으로 제주지역의 교육영역지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세부영역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육의 조건과 과정영역에 있어서는 평균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육기회 지수가 평균 이상인 지역은 제주, 인천, 대구, 울산, 광주, 경남이고, 경기와 강원은 평균 이하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광역시가 도 지역에 비해 교육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효과 지수에 있어서는 제주, 경기, 서울, 전남, 충남이 평균 이상으로 서울을 제외하면 모두 도 지역이고, 교육기회와 교육효과 지수가 평균 이상인 지역은 제주가 유일하다. 교육의 조건과 과정영역에서는 충북, 부산, 서울 등의 지수가 높고, 제주, 경기, 전북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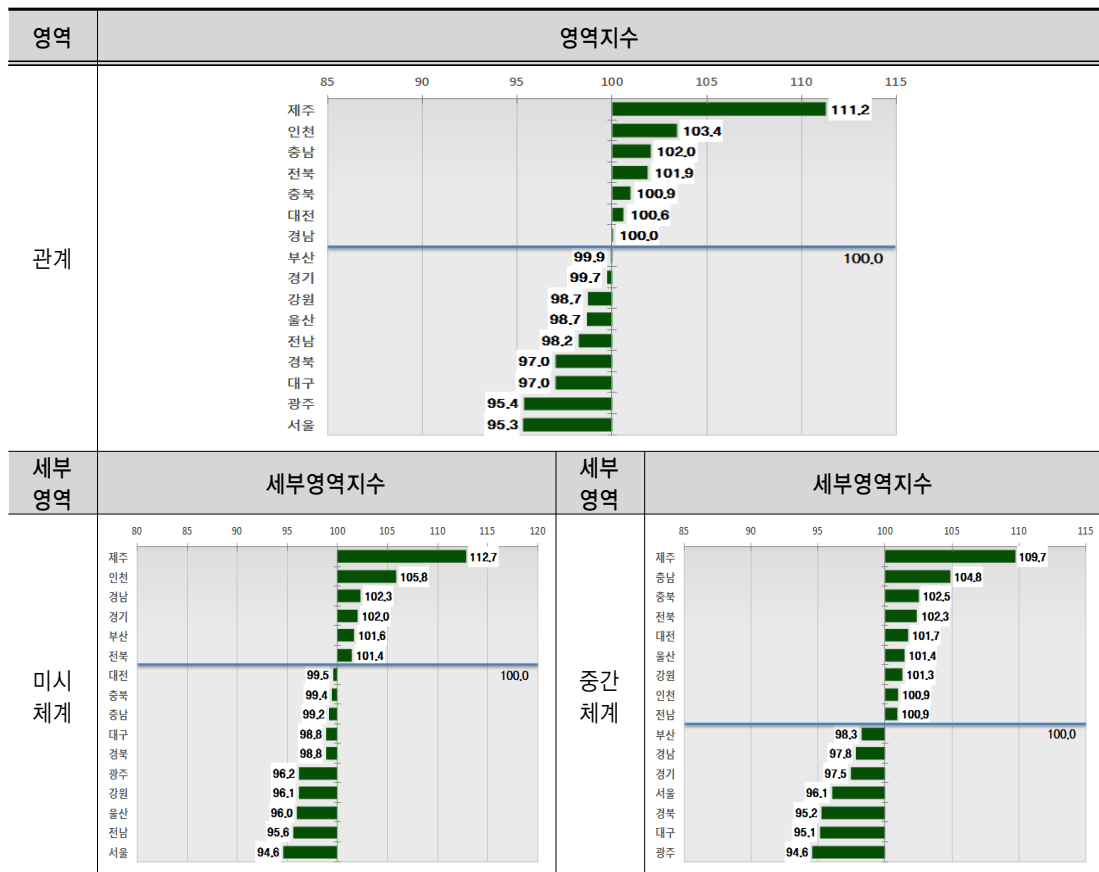


【그림 VI-5】 교육영역의 16개 시·도 지수 비교

⑤ 관계영역

관계영역은 미시체계와 중간체계로 구성되었으며, 미시체계영역에는 가족관계 만족도, 교우관계 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 등 5가지의 주관적인 지표로, 중간체계영역에는 부모-교사 관계만족도, 부모-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학교-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 기관신뢰도의 5가지 주관적인 지표가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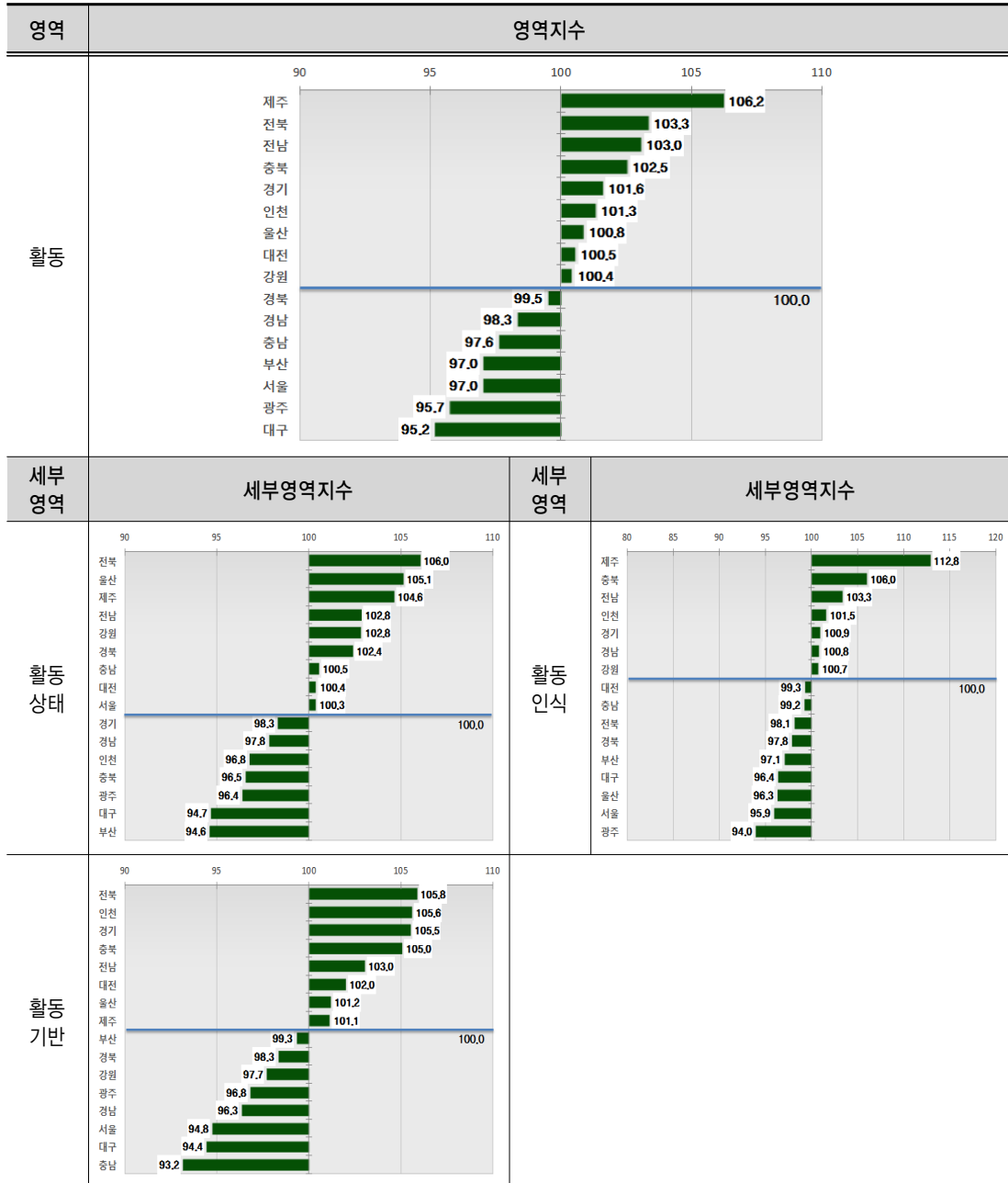
관계영역에서 제주지역의 지수(111.2)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관계지수가 평균 이상인 7개 지역(제주, 인천, 충남, 전북, 충북, 대전, 경남) 중 인천과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도 지역이다. 세부영역인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에서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난 지역은 대구, 경북, 광주, 서울지역이고, 제주, 인천, 전북은 두 영역 모두에서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한다.



【그림 VI-6】 관계영역의 16개 시·도 지수 비교

⑥ 활동영역

활동영역은 활동상태, 활동기반, 활동인식 등 3가지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VI-7】 활동영역의 16개 시·도 지수 비교

세부영역으로서 활동상태에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 동아리활동 참여율, 녹지접근성, 문화예술 시설 수, 청소년 활동시설 수의 6가지 객관적인 지표가, 활동기반에는 주관적 지표인 놀이친구접근성이, 활동인식에는 여가활동 시간인식, 여가활동 공간인식, 여가활동 용돈인식의 주관적인 지표 3가지가 해당된다.

활동영역은 총 9개 지역(제주, 전북, 전남, 충북, 경기, 인천, 울산, 대전, 강원)에서 평균 이상의 지수를 보이는데, 대부분이 도 지역이다. 제주와 전남은 활동상태, 활동인식, 활동기반의 세부영역 모두에서 평균 이상의 지수를 가지며, 부산, 대구, 광주, 세 영역 모두에서 평균 이하의 지수를 보였다. 세부영역 중 활동인식에서 제주지역의 활동인식지수(112.8)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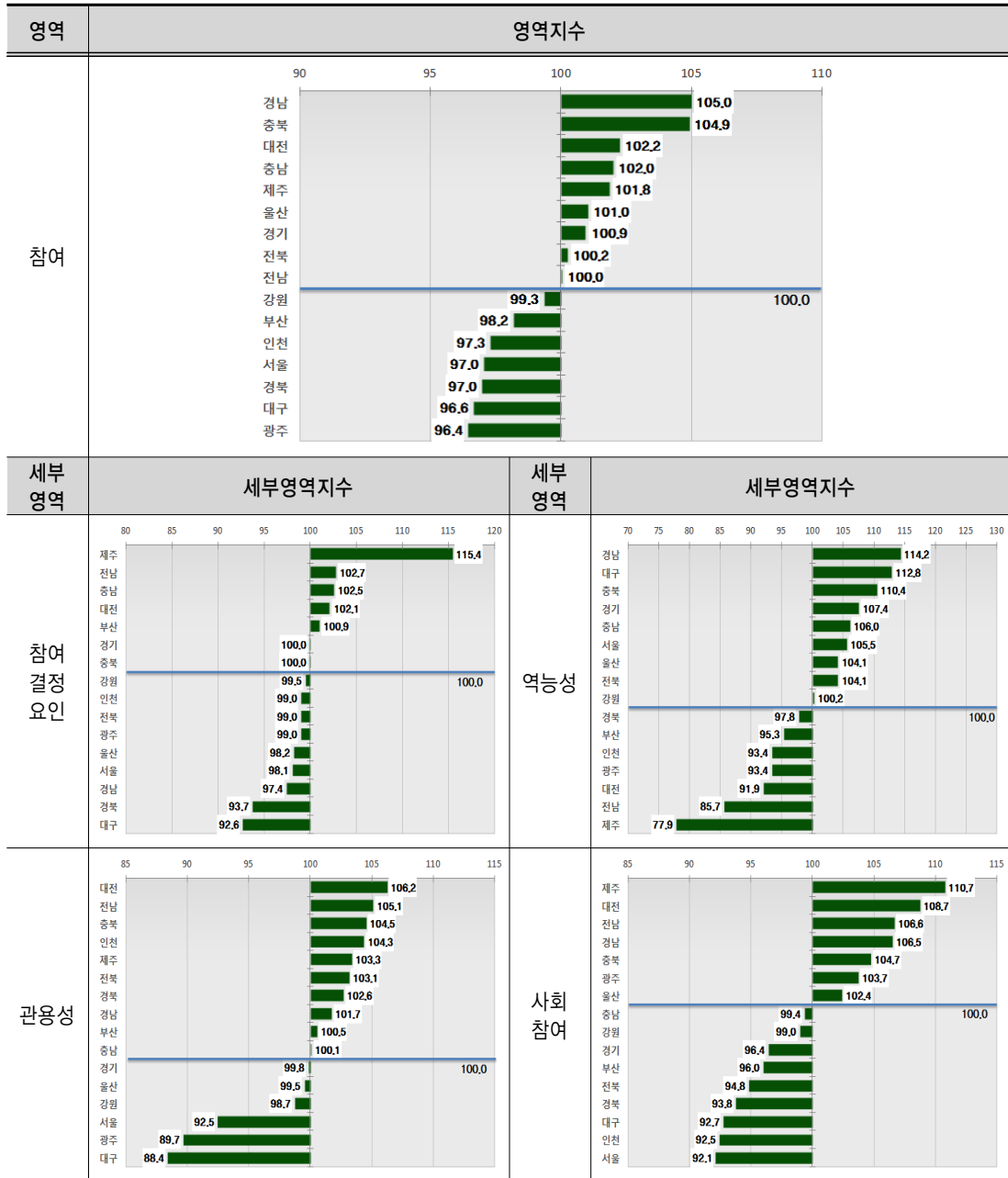
한편, 객관적 지표들로 구성된 활동상태지수와 주관적 지표들로 구성된 활동인식지수를 비교해 보면, 활동상태지수와 활동인식지수 둘 다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제주, 전남, 강원이고, 활동상태지수에서 평균 이상인 울산, 대전, 서울, 충남 지역의 활동인식지수는 평균 이하로 나타나, 상태와 상태인식에 정의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⑦ 참여영역

참여영역은 4가지 세부영역, 즉 참여결정요인, 관용성, 역능성, 사회참여로 구성되었다. 참여결정요인영역에서는 아동권리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의 3가지 주관적인 지표, 관용성영역에서는 주관적인 지표로서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역능성영역에서는 객관적 지표로 청소년 자살률이 구성되었다. 사회참여영역의 지표로는 주관적 지표로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도, 객관적 지표로 자원봉사참여율이 해당된다.

참여영역은 16개 시·도 중 9개 지역(경남, 충북, 대전, 충남, 제주, 울산, 경기, 전북, 전남)이 평균 이상의 지수를 가지나,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들은 대체로 평균이하의 지수를 보였다. 세부영역인 참여결정요인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지역의 지수(115.4)가 월등하게 높지만 역능성 영역(77.9)에서는 가장 하위 지수를 보였다. 이 외 참여결정요인의 지수가 평균이상인데 반해 역능성지수가 평균 이하인 지역은 전남, 대전, 부산의 세 지역이다.

한편, 세부영역 중 관용성지수가 평균 이상인 지역이 10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용성이 낮은 지역 6곳 중 4개 지역(울산, 서울, 광주, 대구)이 광역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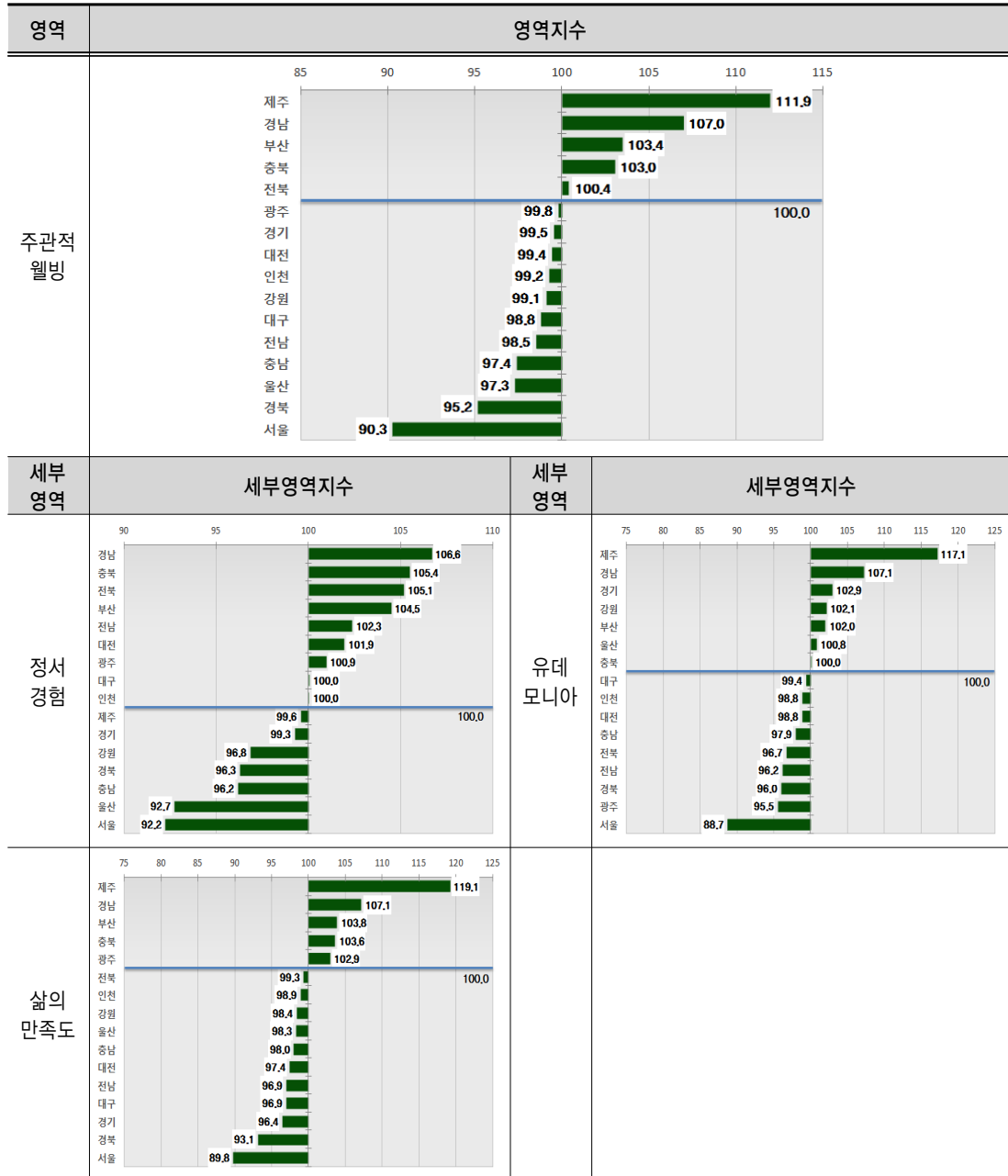


【그림 VI-8】 참여영역의 16개 시·도 지수

⑧ 주관적 웰빙영역

주관적 웰빙 영역은 3가지 지표, 즉 정서경험, 삶의 만족도, 유대모니아로 구성되었다.

주관적 웰빙지수가 평균 이상인 지역은 총 다섯(제주, 경남, 부산, 충북, 전북)지역으로 이들 중 광역시는 부산이 유일하며, 제주지역의 주관적 웰빙지수가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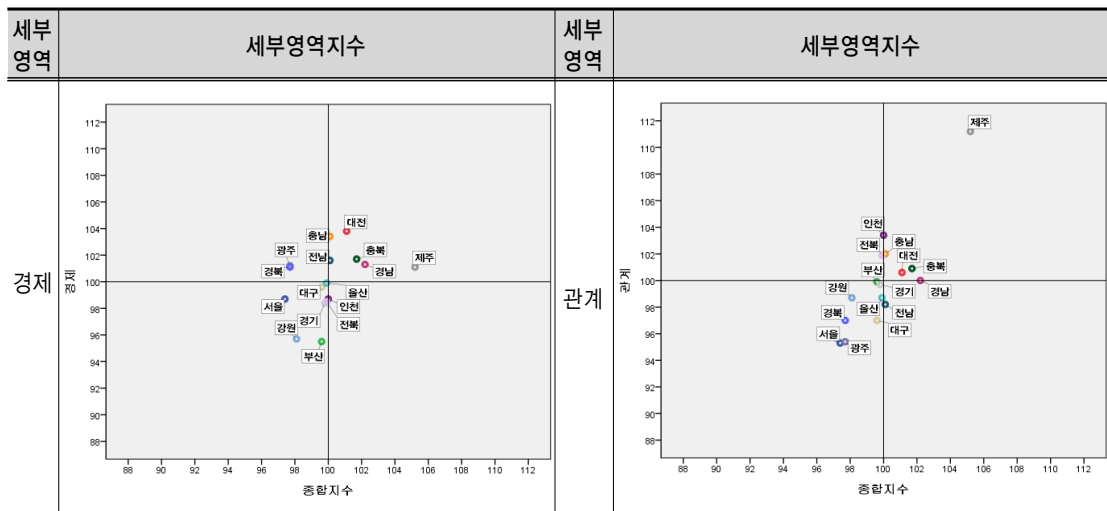
[그림 VI-9] 주관적 웰빙영역의 16개 시·도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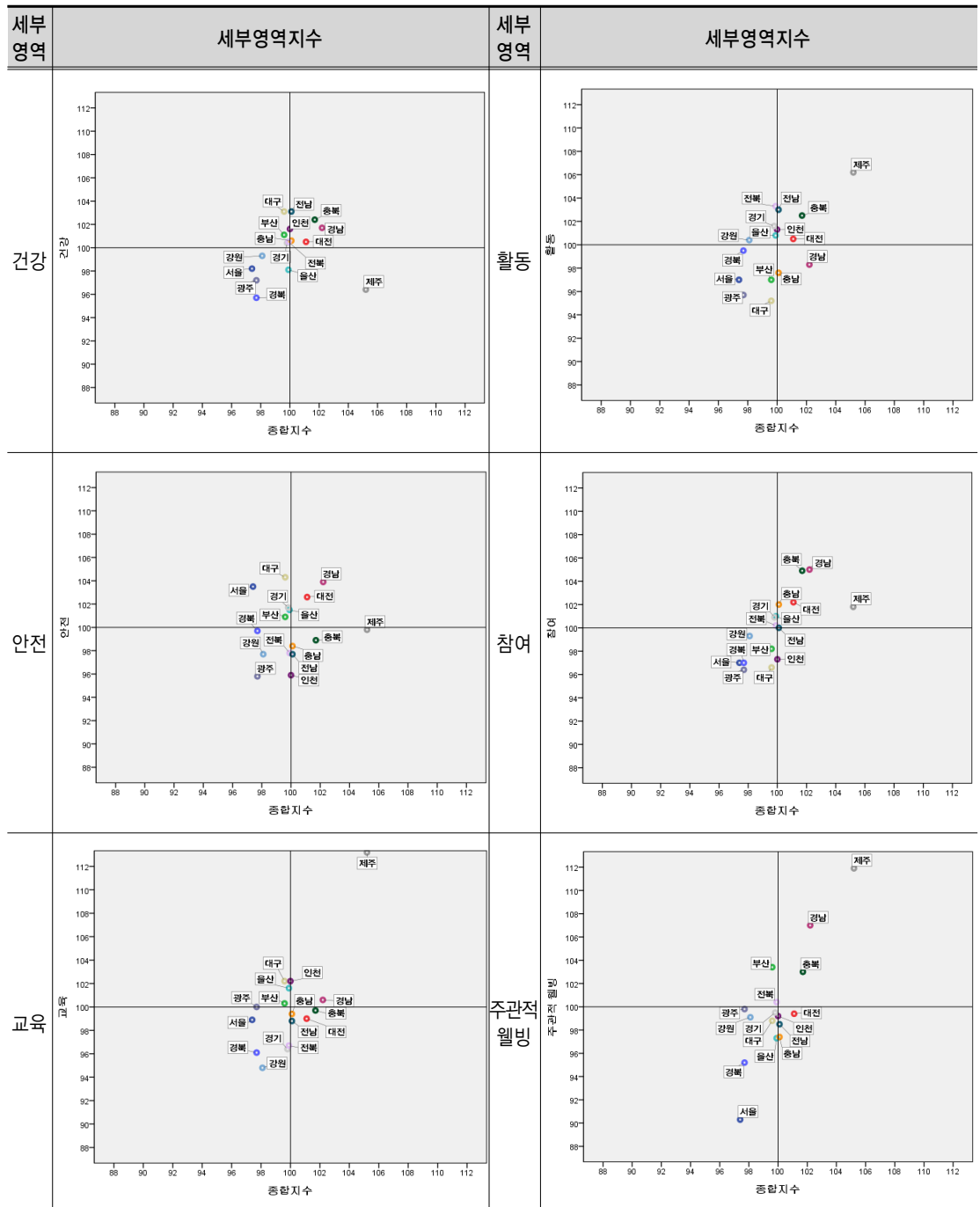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은 유데모니아와 삶의 만족도 지수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나 정서적인 경험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지역의 경우 정서경험과 삶의 만족도는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유데모니아가 평균 이하로 전체적인 주관적 웰빙지수가 평균이하의 수준을 보였다. 서울지역은 정서경험, 유데모니아, 삶의 만족도 모두 가장 낮은 지수를 갖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데모니아와 정서경험은 타 지역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2) 종합지수와 8개 영역지수의 2차원 비교

종합지수와 8개 영역지수에 대한 16개 시·도 비교에 이어 여기에서는 종합지수와 8개 영역지수와의 관계를 2차원 평면도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종축과 횡축은 모두 표준화된 지수 축이고, 양 축의 100을 기준으로 4분면으로 구분되며, 횡축은 종합점수를 나타내고 종축은 각 영역의 지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비교 결과, 종합지수와 8개 영역이 모두 평균 이상인 지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경남이 종합지수와 7개 영역(경제, 건강, 안전, 교육, 관계, 참여, 주관적 웰빙) 중 평균 이상에 위치하는 영역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VI-10] 종합지수와 8개 영역의 지역별 지수 비교

다시 말해, 경남지역이 활동을 제외한 다른 영역과 종합지수가 모두 높은 제1사분면에 위치하고, 제주 역시 건강과 안전을 제외한 다른 영역과 종합지수가 모두 높은 제1사분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전(종합, 경제, 건강, 안전, 관계, 활동, 참여)과 충북(종합, 경제, 건강, 관계, 활동, 참여, 주관적 웰빙)지역이 다수의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지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서울과 강원은 각각 1개 영역(서울-건강, 강원도-활동영역)에서만 평균 이상의 지수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과 같이 종합지수와 영역지수의 지역별 비교에 이어 다음에서는 각 시·도 단위로, 즉 지역 내에서의 영역지수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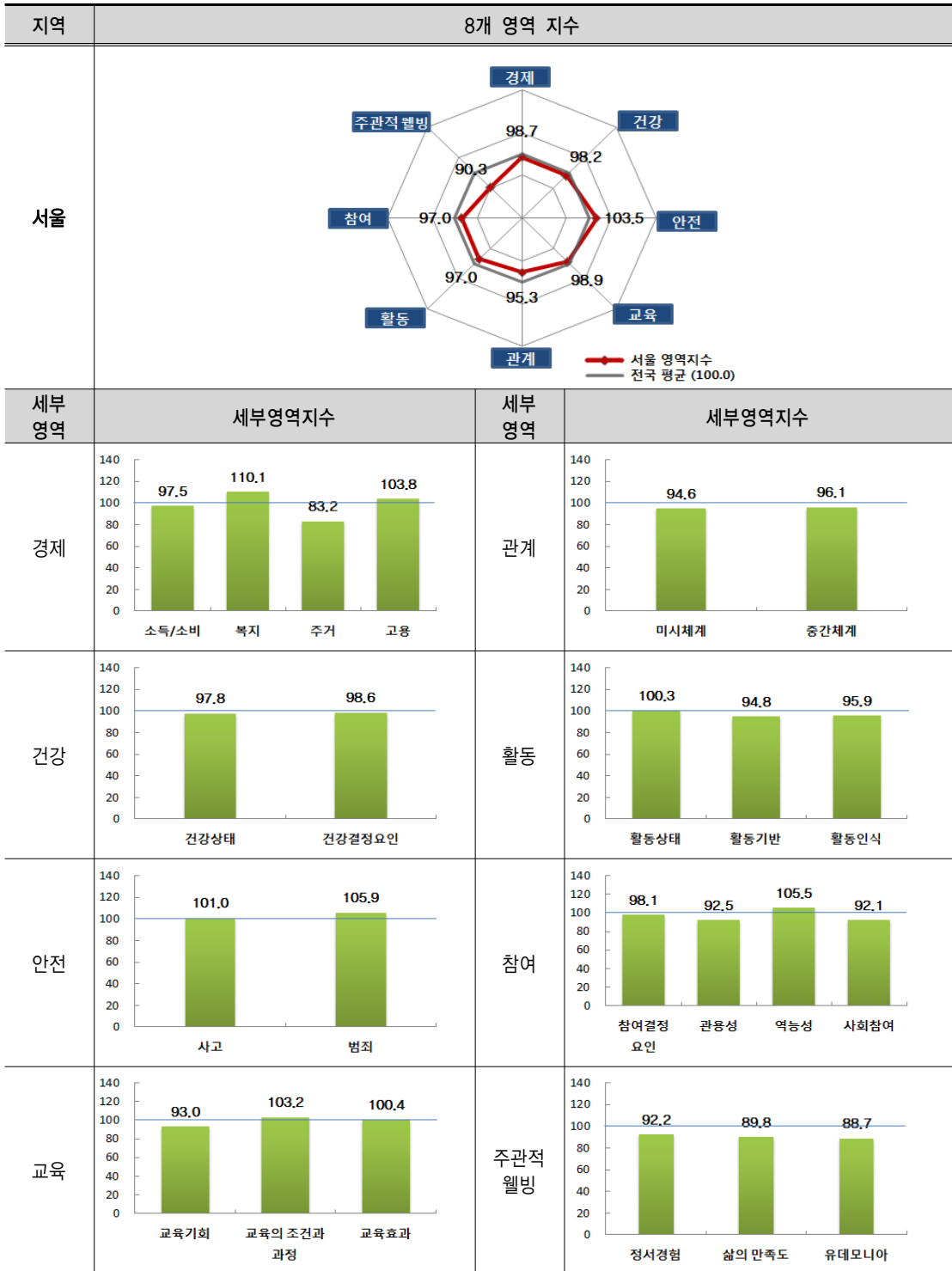
3. 각 시·도별 영역지수의 비교

1) 서울특별시

서울지역은 안전영역을 제외한 7개 영역의 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주관적 웰빙영역의 지수가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영역의 경우 타 영역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서울시가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중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영역의 세부영역인 복지영역(110.1)이 서울시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는 서울시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상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시가 전체 광역자치단체 예산의 절반 가까운(49.6%) 예산을 복지영역에 할애하고 있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가 적지 않은 예산과 선도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영역이 참여영역인데 반해 분석된 참여영역의 지수는 평균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영역별 세부영역지수를 살펴보면, 경제영역에서는 주거지수가, 활동영역에서는 활동기반지수와 활동인식지수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교육영역에서는 교육기회지수, 그리고 주관적 웰빙영역에서는 세부지표 모두에서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만족도와 유데미니아 영역의 지표가 평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보였다.



【그림 VI-11】 서울특별시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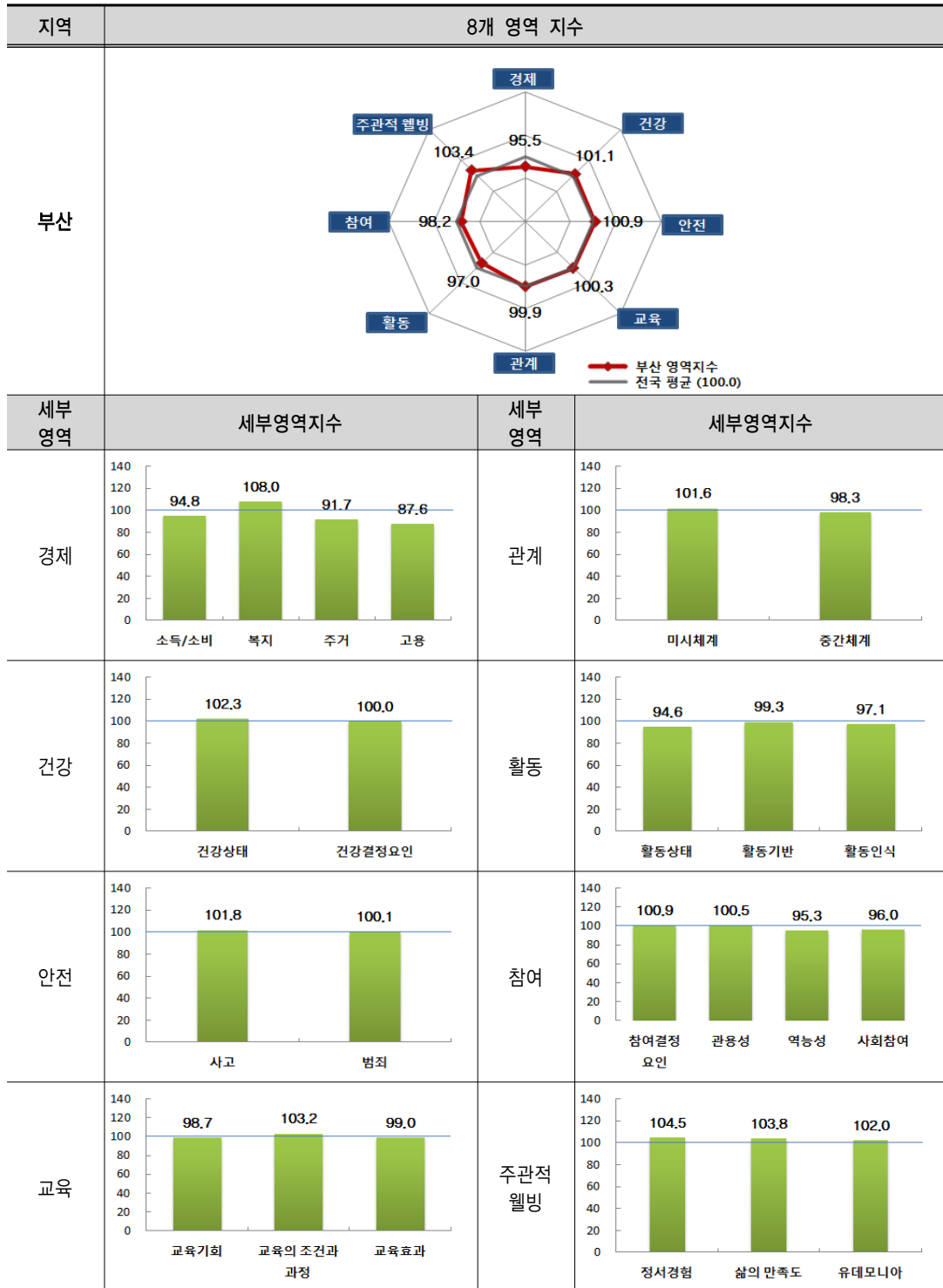
2) 부산광역시

부산지역은 8개 영역 지수 중 주관적 웰빙영역과 건강영역, 안전영역, 교육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경제영역과 관계영역, 활동영역, 참여영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주관적 웰빙영역의 지수(103.4)가 전국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제영역의 세부영역지수를 살펴보면, 복지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지수를 가지지만, 고용영역의 지수가 전국 평균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부산시의 경우도 시정예산의 상당부분을 복지영역에 할애하고 있는 반면, 지역의 고용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난 3년간 부산시의 청소년정책 예산이 3년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상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실제 집행되는 예산의 55.8%를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산시의 복지영역의 지수가 평균 이상을 보이는 것은 정책추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활동영역에서는 세부영역 활동상태, 활동기반, 활동인식의 지수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참여영역의 세부영역인 사회참여지수의 경우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시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상,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의 사업 수와 예산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된 참여영역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부산시는 참여, 특히 사회참여지수와 관련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12】 부산광역시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3) 대구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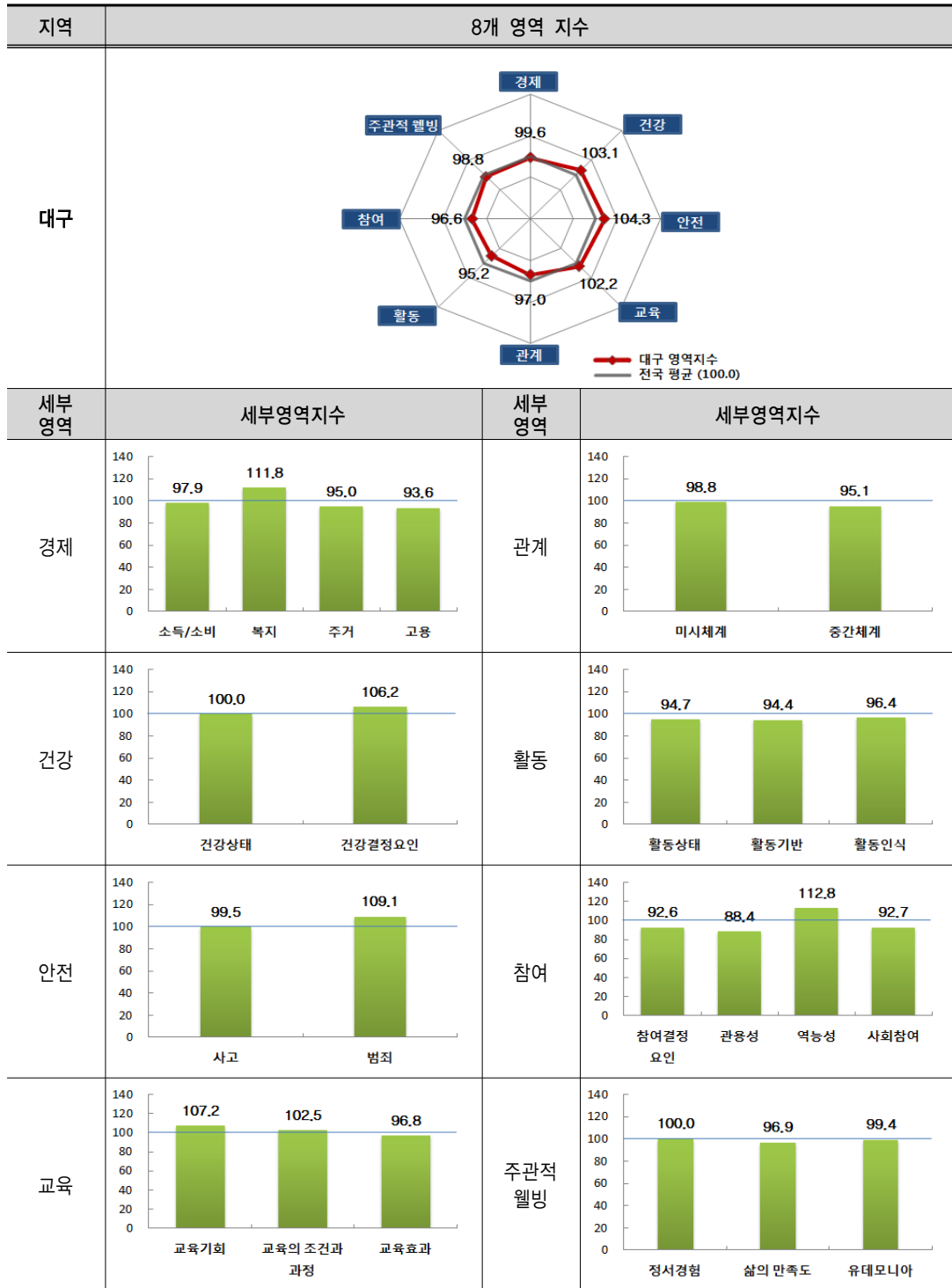
대구지역은 8개 영역 지수 중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영역으로는 건강(103.1), 안전(104.3), 교육(102.2)영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3개 영역의 세부영역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건강영역에서는 건강상태지수와 건강결정요인지수가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이와는 달리, 안전영역에서는 범죄지수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사고지수의 경우는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영역에서는 세부영역 교육기회지수, 교육의 조건과 과정지수는 평균 이상이나 교육효과지수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영역에서는 복지영역을 제외한 소득/소비영역, 주거영역, 고용영역의 지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고용지수가 평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활동영역에서도 3가지 세부영역, 즉 활동상태, 활동기반, 활동인식지수에서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의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지역사회 환경 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상 나타난 바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지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역량강화에 가장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대수지역의 활동영역의 진단 지수(95.2)는 평균 이하로 분석되어, 정책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영역 중에서 역능성 영역은 전국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나, 관용성 영역에서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웰빙영역에서도 과거를 의미하는 정서경험지수는 평균 수준이지만, 삶의 만족도 영역과 유테모니아 영역에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종합지수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때, 종합지수와 8개 영역지수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세부영역지수 및 지표의 분석 결과도 함께 고려해야 구체적인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연계되는 정책 사업을 실효성 있게 검토하고 조정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VI-13】 대구광역시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4) 인천광역시

인천지역은 8개 영역 지수 중 건강(101.6), 교육(102.2), 관계(103.4), 활동(101.3)영역의 지수는 전국 평균 보다 높으나, 경제, 안전, 참여, 주관적 웰빙영역의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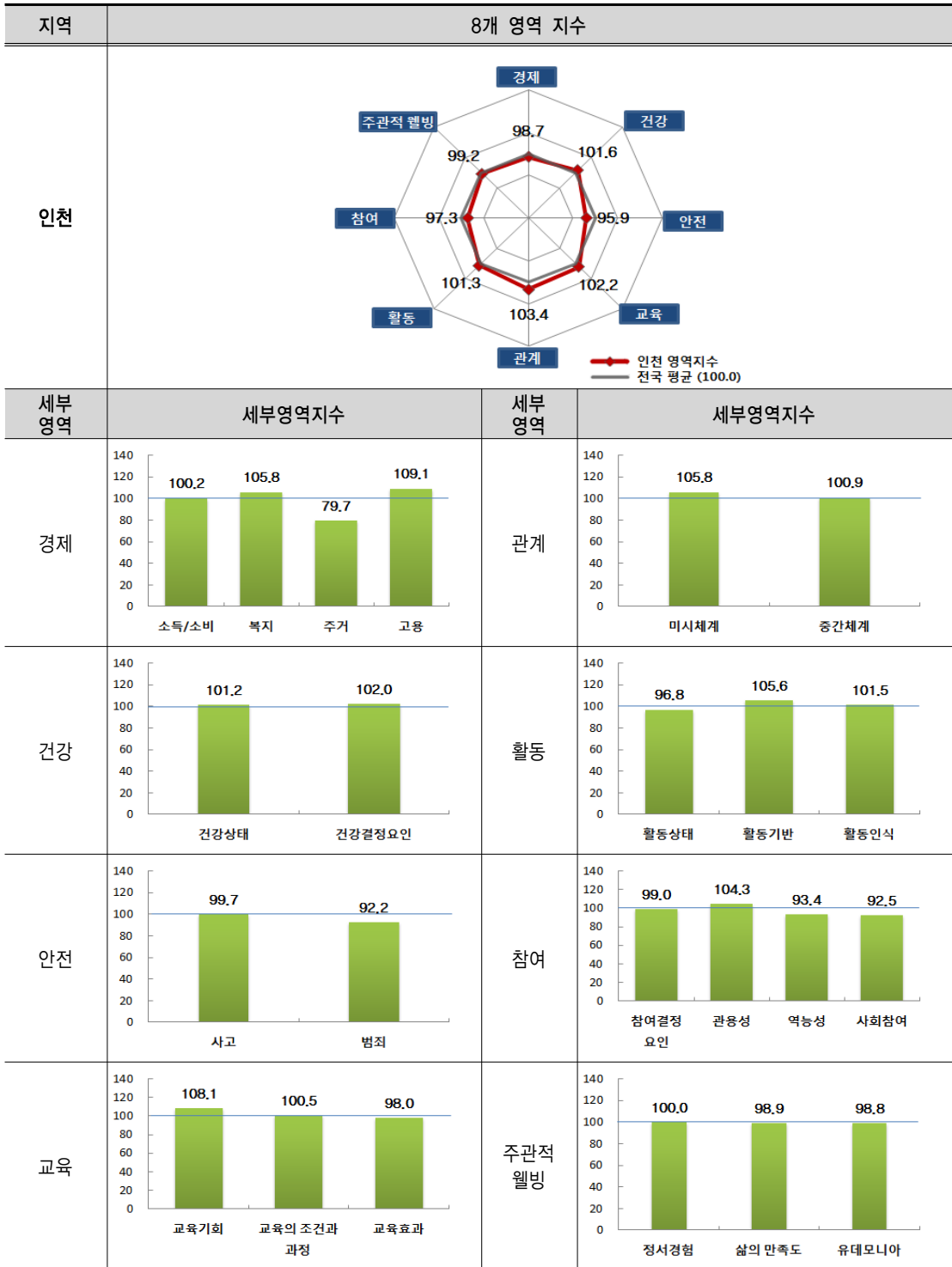
경제영역의 세부영역인 소득/소비, 복지, 고용의 지수가 전국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주거지수는 서울시와 같이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서울, 인천을 비롯한 대도시, 특히 수도권지역의 주거여건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니세프(UNICEF)에서도 대도시 빈민지역의 아동·청소년에 주목하여 「2012년 세계아동현황보고서」를 ‘도시의 어린이’를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안전영역에서는 2가지 세부영역인, 사고지수와 범죄지수가 모두 평균 이하인데 반해, 관계영역에서는 미시체계영역의 지수와 중간체계영역의 지수가 모두 평균을 상회하였다. 또 건강영역에서는 건강상태지수와 건강결정요인지수가 모두 평균 이상을 보였다.

교육영역에서는 교육기회지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초과하였으나, 교육효과 영역에서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영역에서는 활동기반영역의 지수와 활동인식영역의 지수가 평균보다 높지만, 활동상태영역의 지수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상 인천시는 참여 및 권리증진과 관련하여 가장 적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분석된 참여영역의 지수(97.3) 또한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결정요인지수와 역능성지수, 그리고 사회참여지수가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영역에서는 정서경험지수의 경우 평균 수준이나, 삶의 만족도와 유테모니아 지수가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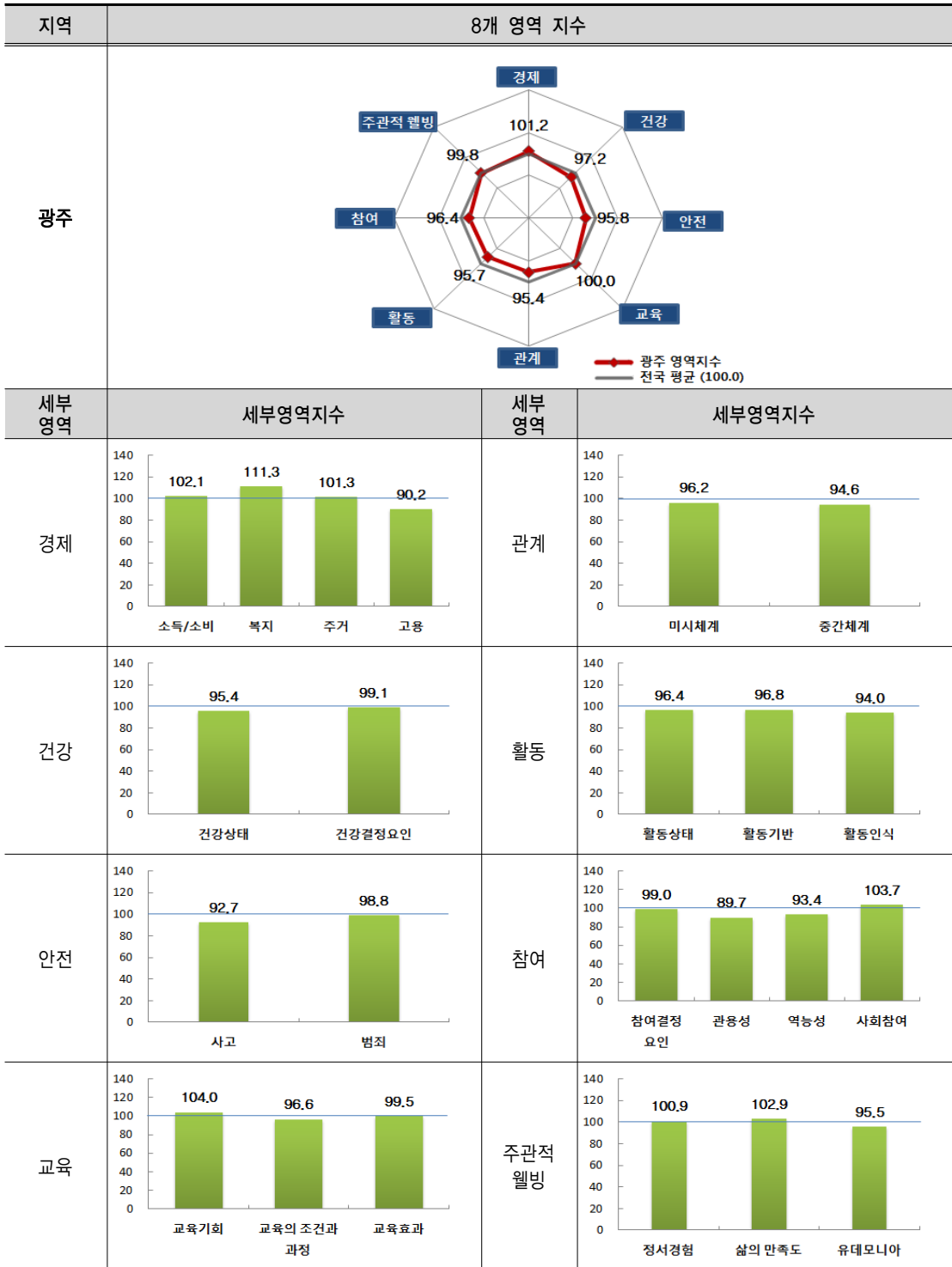
【그림 VI-14】 인천광역시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5) 광주광역시

광주지역은 8개 영역 지수 중 경제영역과 교육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지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평균보다 낮은 영역 중에서도 관계영역과 안전영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수를 보였다.

영역별 세부영역의 지수를 살펴보면, 경제영역의 복지지수는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상에도 광주시는 전년도 대비 청소년복지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전반적으로 광주시가 서울이나 부산시 등 여타 광역시와 같이 복지영역에 상당한 예산을 할애하는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계영역과 건강영역, 활동영역, 안전영역에서는 세부영역의 지수가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영역에서는 세부영역의 지수들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참여영역의 경우 세부영역으로서 사회참여지수에서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관용성지수가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주관적 웰빙영역에서는 정서경험지수와 삶의 만족도 지수는 평균보다 높으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유테모니아지수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5】 광주광역시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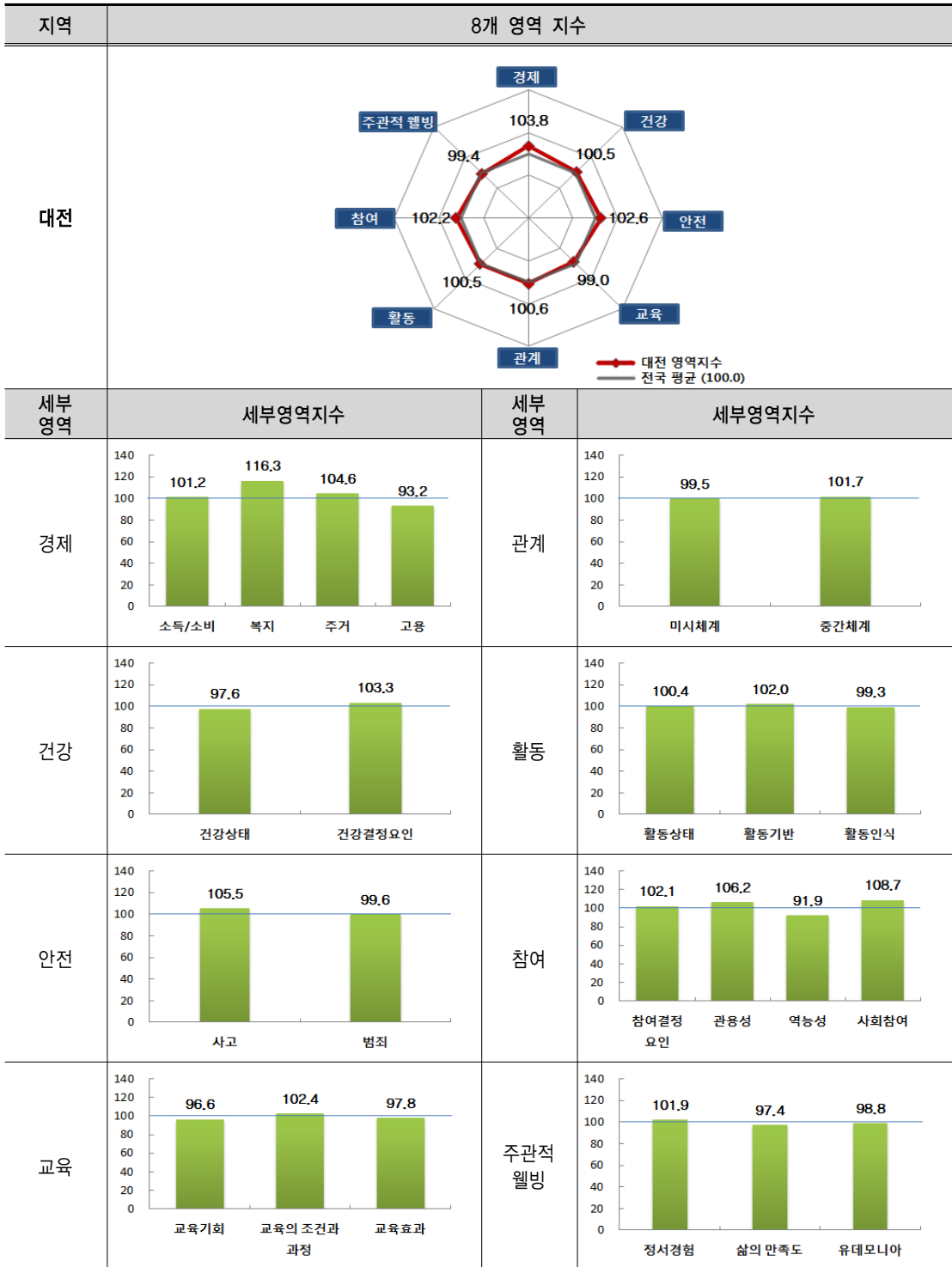
6) 대전광역시

대전지역은 8개 영역 중 교육영역과 주관적 웰빙 영역을 제외한 경제, 건강, 안전, 관계, 활동, 참여의 6개 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6개 영역의 세부영역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경제영역에서는 타 세부영역 지수에 비해 복지영역(111.8)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대전시가 시정예산의 많은 부분을 복지에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부영역 중 고용은 유일하게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고용 여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 영역의 경우 세부영역 중 건강상태가 평균 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며, 안전 영역에서는 범죄가, 관계 영역에서는 미시체계가, 활동 영역에서는 활동 인식이, 참여 영역에서는 역능성 지수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활동 영역의 진단 지수(100.5)는 평균 수준으로 분석되어, 정책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 세부사업현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근절과 일자리, 직업역량강화와 관련된 사업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대전시 교육 영역의 진단 지수(99.0)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영향은 세부영역의 교육 기회(96.6)에서도 확인 된다.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정서경험지수의 경우 평균 이상이나, 삶의 만족도와 유테모니아 지수가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 VI-16】 대전광역시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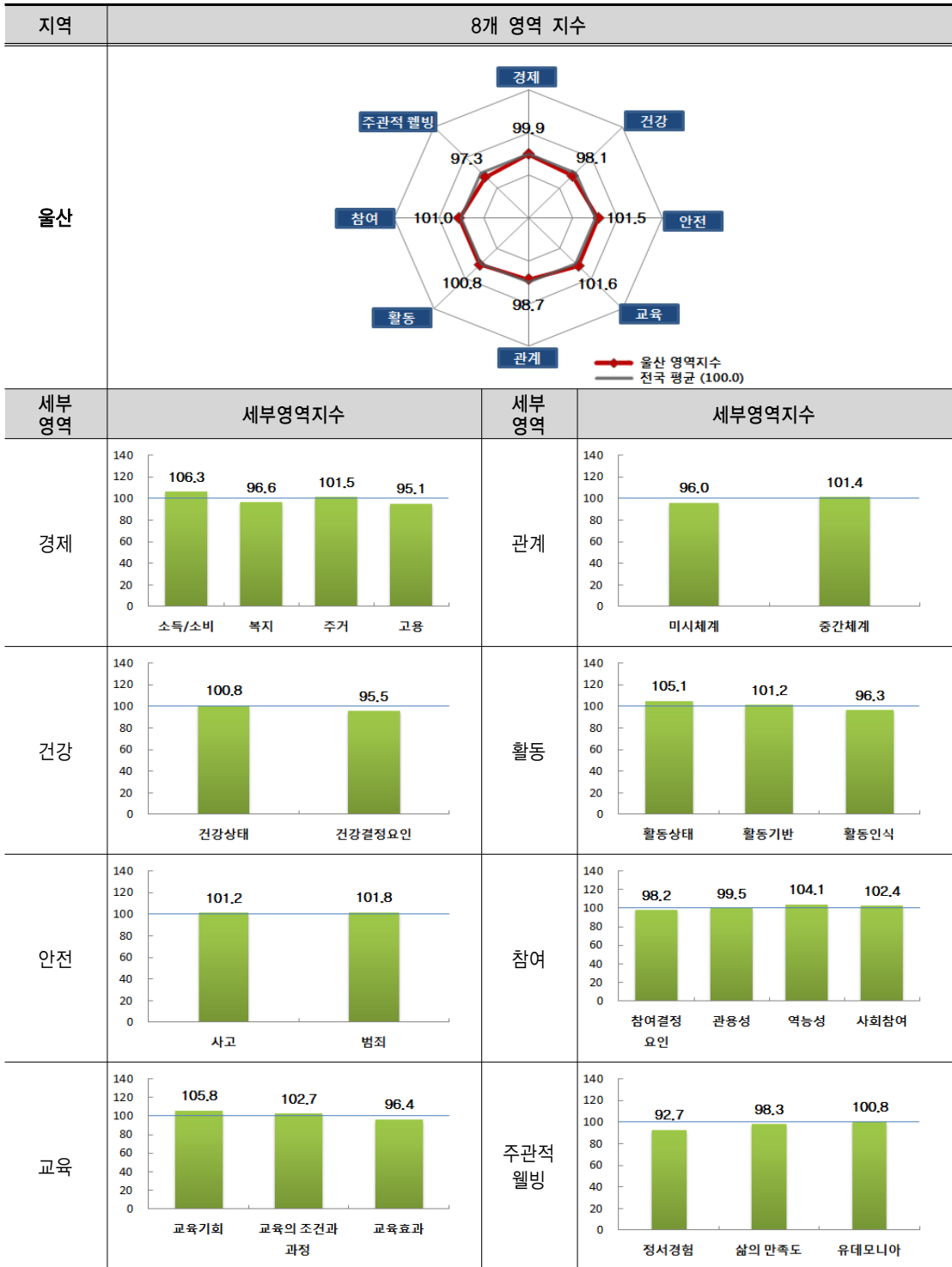
7) 울산광역시

울산지역은 모든 영역에서 전국평균을 중심으로 약간 밑돌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영역, 교육영역, 활동영역, 참여영역의 지수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경제영역, 건강영역, 관계영역, 주관적 웰빙영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영역의 경우, 복지와 고용의 세부영역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복지의 경우, 울산시의 청소년시행계획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7.1% 감소한 사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상에서 예산의 비중이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57.2%)인 것을 감안한다면 관련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 영역에서는 건강 결정요인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 영역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미시체계의 여건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유데모니아의 경우 평균 수준이나, 정서경험이나 삶의 만족도 지수가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울산시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약 40%)의 높은 비율을 감안해본다면, 활동영역에서 3가지 세부영역 중 활동상태와 활동기반 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정책추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VI-17】 울산광역시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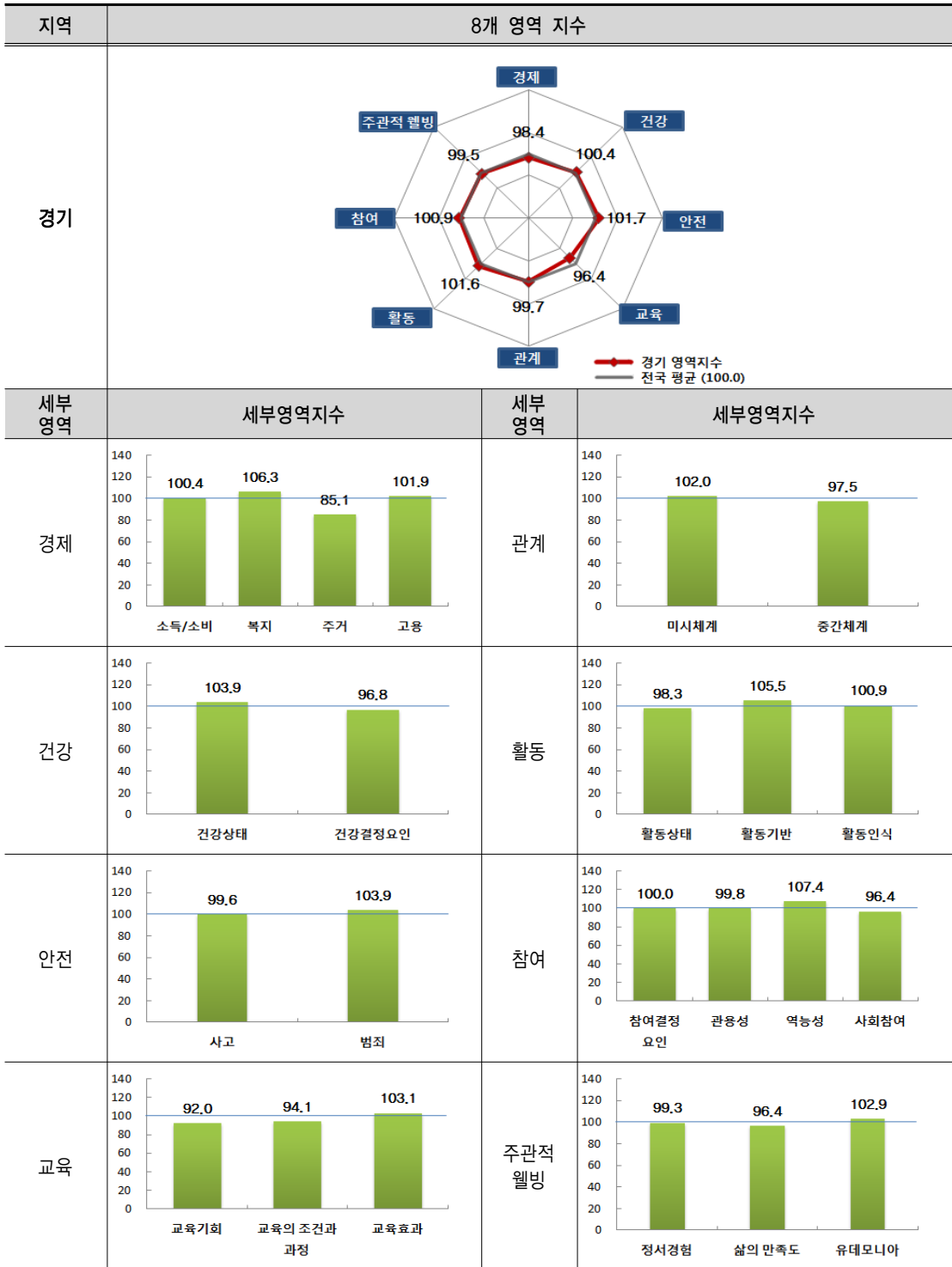
8) 경기도

경기지역은 8개 영역 지수 중 건강영역과, 안전영역, 활동영역, 참여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경제영역과 교육영역, 관계영역, 주관적 웰빙영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육영역 지수(96.4)는 전국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제영역의 세부영역지수를 보면 소득/소비, 복지, 고용에서 모두 평균 이상의 지수를 가지지만, 주거영역의 지수(85.1)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영역의 지수가 통학소요시간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을 감안했을 때 경기지역의 청소년들의 이동 거리 및 교통편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 지수는 106.3으로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이는 경기도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상,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에 가장 많은 사업(40.0%)과 예산(56.5%)을 할애하고 있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교육영역의 경우 교육효과는 평균 이상이지만, 교육기회와 교육의 조건과 과정은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교육기회 지수는 92.0으로 이와 관련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유테모니아는 평균 이상이나, 정서경험과 삶의 만족도 지수가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 VI-18】 경기도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9)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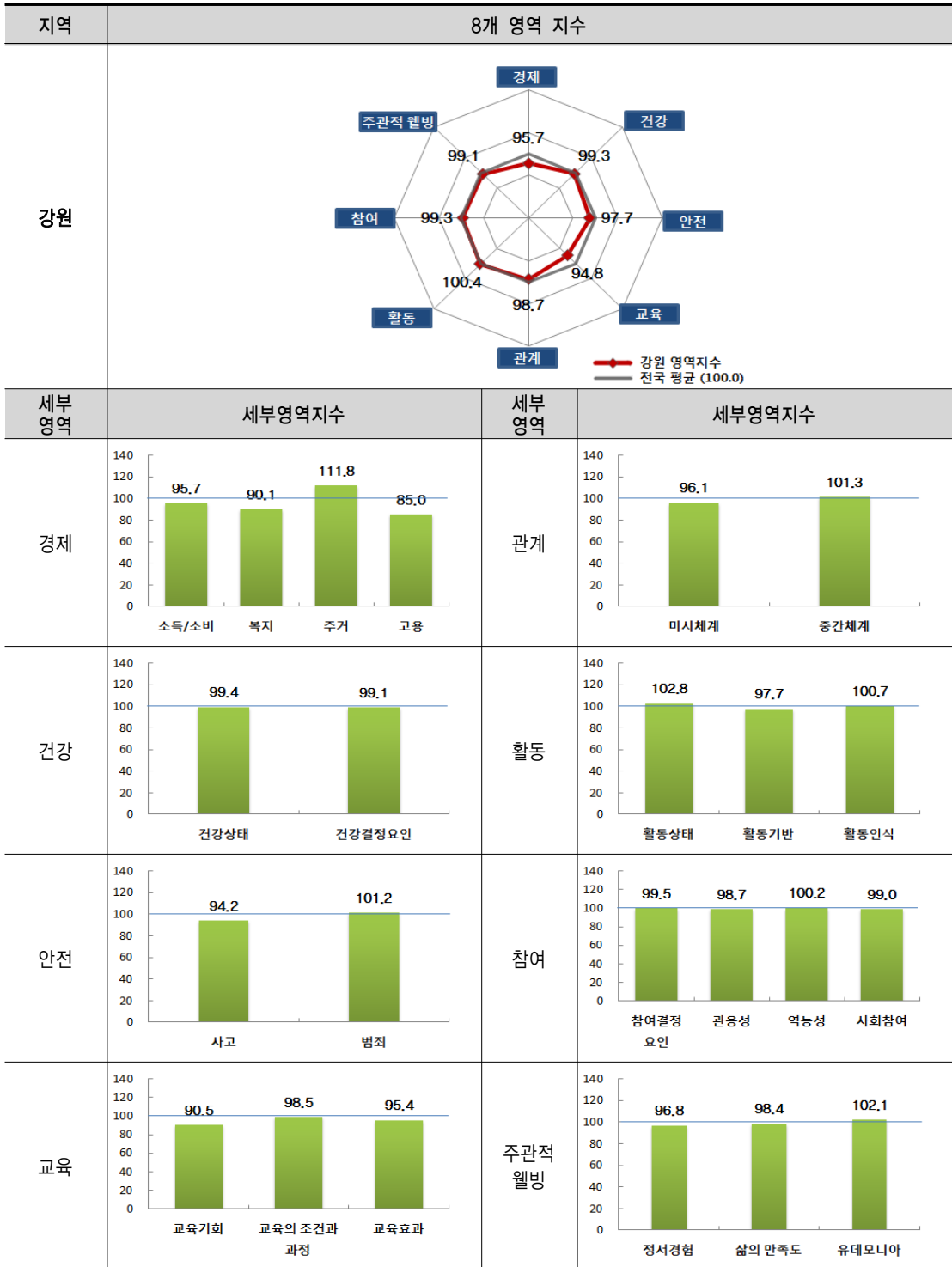
강원지역은 8개 영역 지수 중 활동(100.4)영역을 제외한 경제영역(95.7), 건강영역(99.3), 안전영역(97.7), 교육영역(94.8), 관계영역(98.7), 참여영역(99.3), 주관적 웰빙영역(99.1)의 7개 영역 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영역의 세부영역지수를 살펴보면, 주거영역 지수는 111.8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지만, 고용과 복지가 각각 85.0, 90.1로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원(2014년 기준)은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22%로 평균보다 낮아 이러한 사실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건강영역에서는 2가지의 세부영역인 건강상태와 건강결정요인이 모두 평균 이하인데 반해, 안전영역에서는 범죄지수가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영역에서는 3가지의 세부영역이 모두 평균보다 이하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기회지수(90.5)가 크게 낮아 강원지역에서는 교육 기회의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지역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 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분석된 활동영역 지수 또한 유일하게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9】 강원도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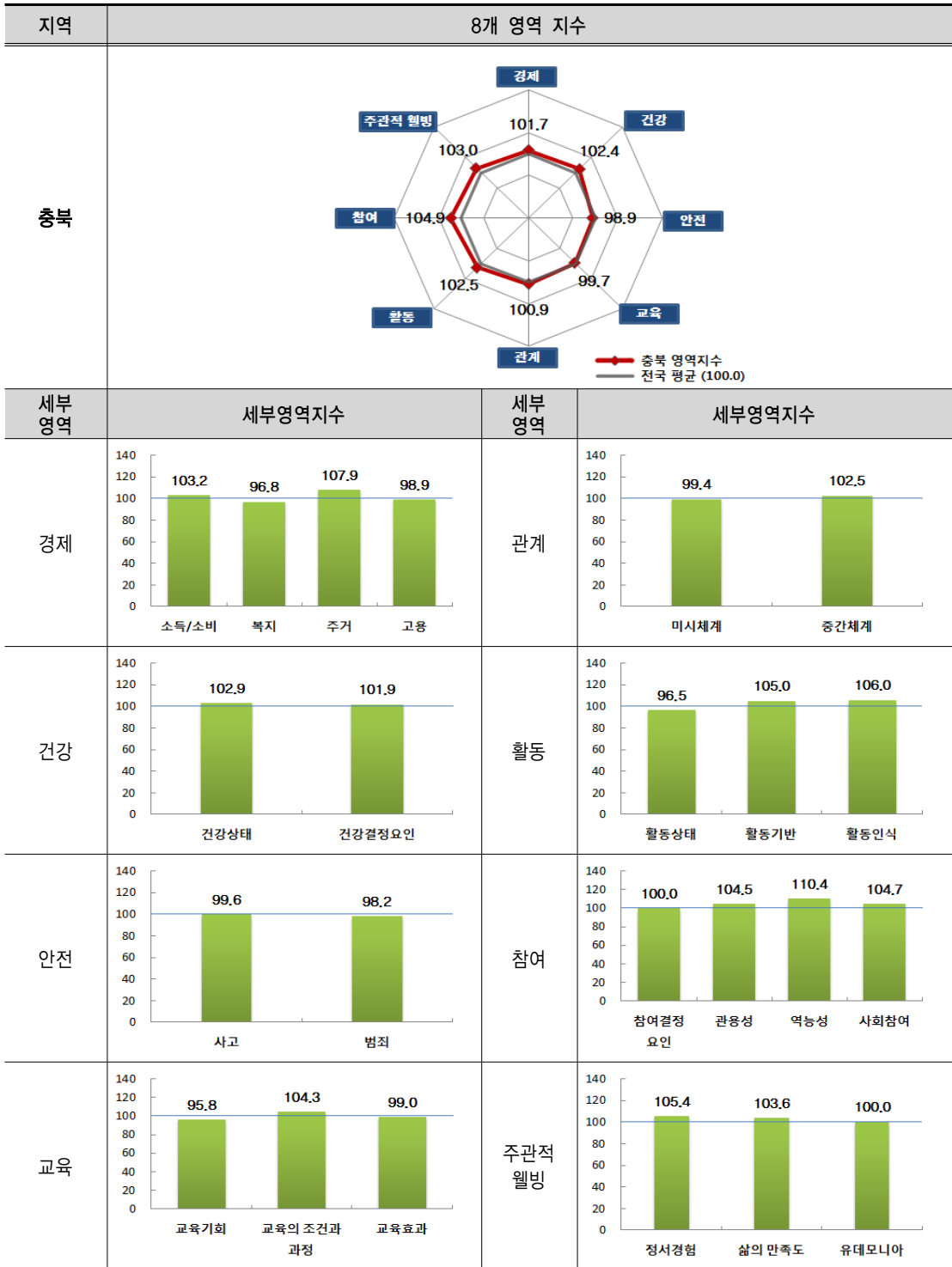
10) 충청북도

충북지역은 8개 영역 지수 중 안전영역(98.9)과 교육영역(99.7)의 지수는 전국평균 보다 낮으나, 경제(101.7), 건강(102.4), 관계(100.9), 활동(102.5), 참여(104.9), 주관적 웰빙(103.0)영역의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제영역의 세부영역지수를 살펴보면, 4가지 세부영역 중 복지영역과 고용영역의 지수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청소년 정책관련 예산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타 지역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적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의 영향이 복지영역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영역의 세부영역(건강상태, 건강결정요인)과 참여영역의 세부영역(참여결정요인, 관용성, 역능성, 사회참여), 주관적 웰빙영역의 세부영역(정서경험, 삶의 만족도, 유테모니아)은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안전영역의 세부영역인 사고와 범죄지수는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교육영역은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이와 관련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20】 충청북도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11) 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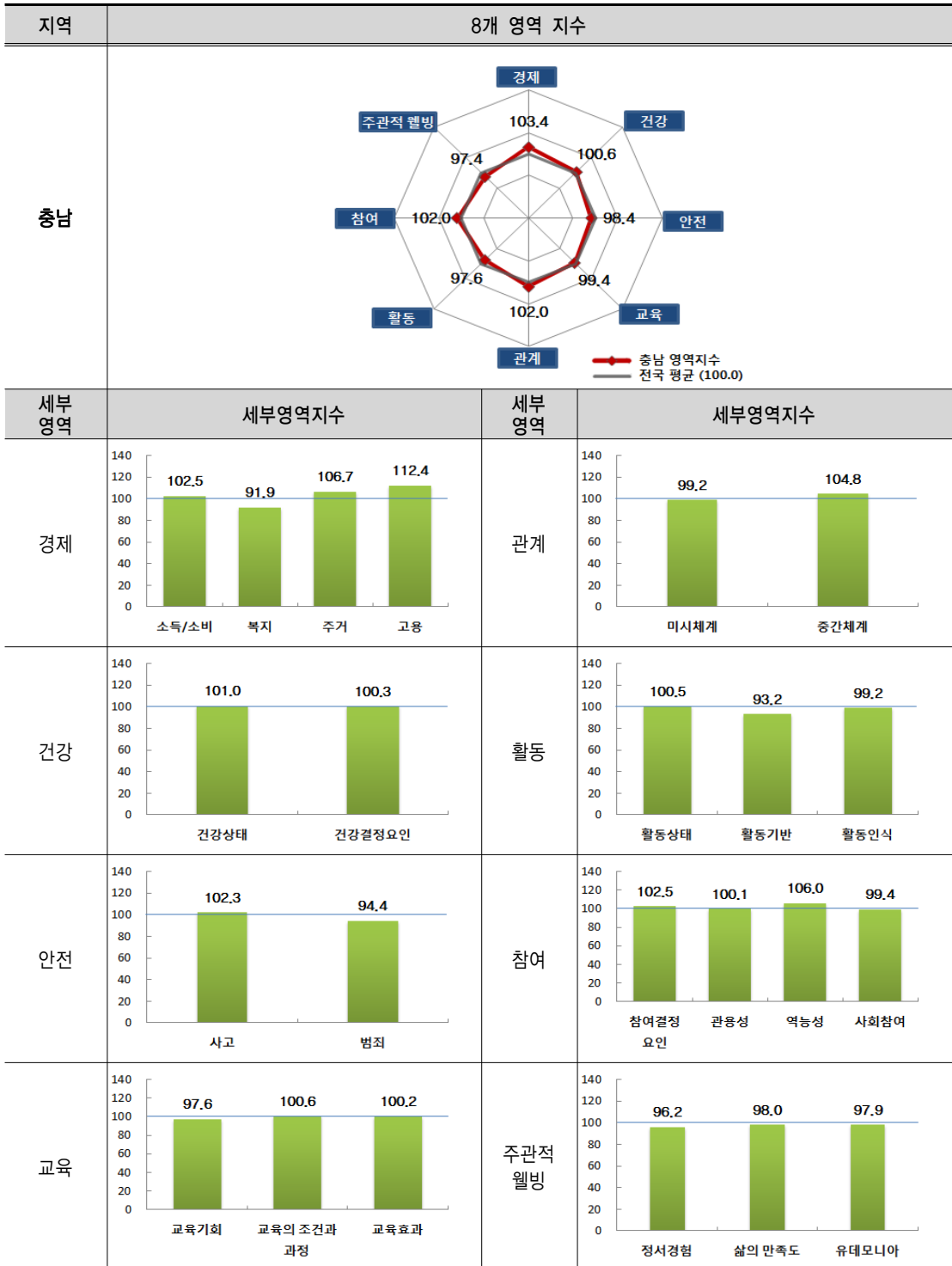
충남지역은 8개 영역 중 경제영역(103.4), 건강영역(100.6), 관계영역(102.0), 참여영역(102.0)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안전영역과 교육영역, 활동영역, 주관적 웰빙영역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제영역의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으나, 세부영역 중 복지영역지수는 91.9로 평균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남도의 시행계획 상 청소년정책의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7% 감소된 것이 복지영역 지수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충청남도 청소년정책시행계획을 좀 더 살펴보면,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 청소년의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수가 많으며, 관련 예산의 비중 또한 가장 높은 비율로 구성되어있지만, 실제 충남지역의 활동영역 지수(97.6)는 평균 이하로 분석되어, 정책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영역에서는 세부영역 범죄 지수가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육영역에서는 교육기회 지수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관적 웰빙영역의 세부영역 정서경험, 삶의 만족도, 유데미니아의 지수는 모두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VI-21】 충청남도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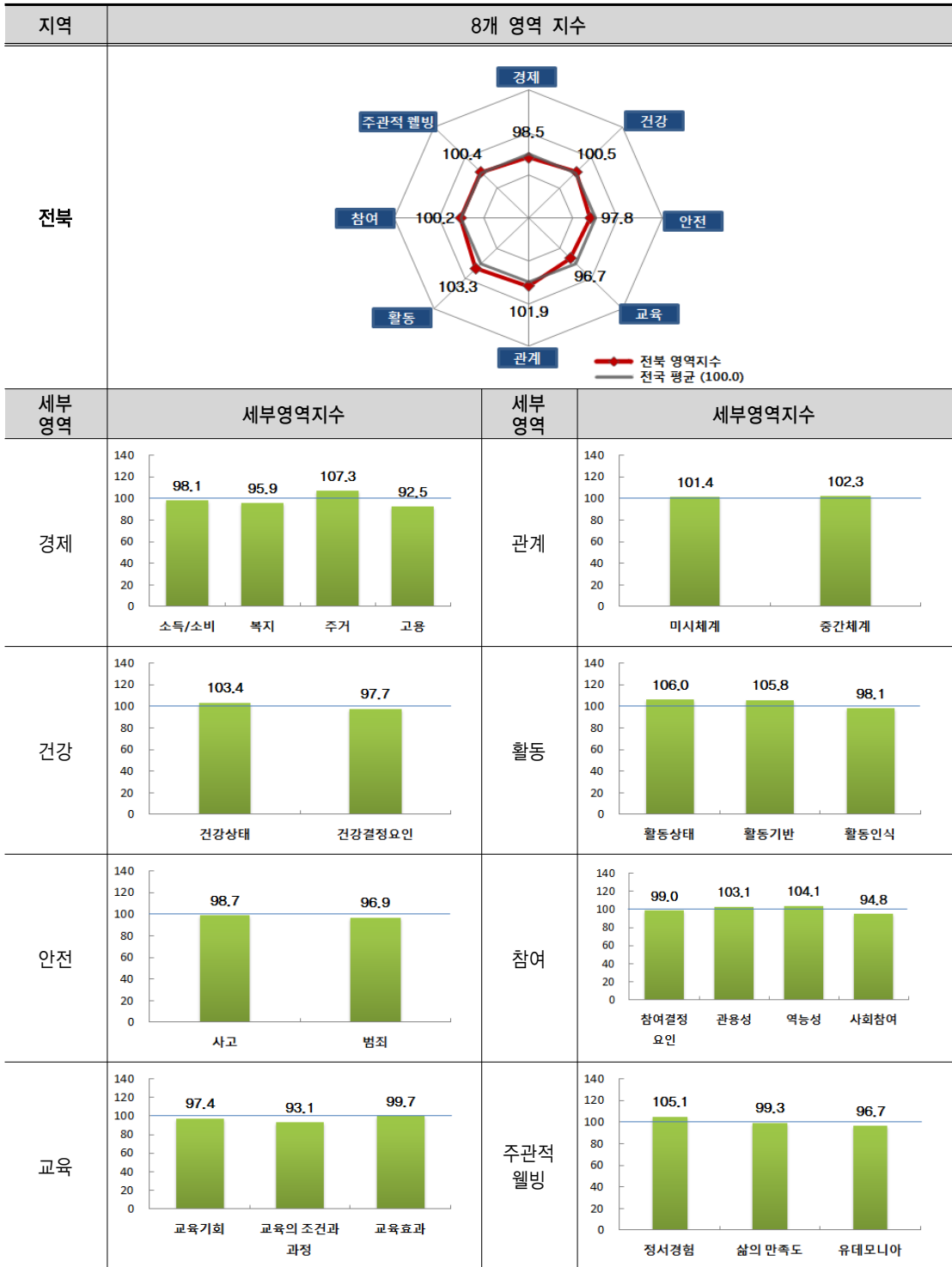
12) 전라북도

전북지역은 8개 영역 지수 중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영역으로는 건강(100.5), 관계(101.9), 활동(103.3), 참여(100.2), 주관적 웰빙(100.4)영역이 분석되었으며, 경제영역과 안전영역 그리고 교육영역은 각각 98.5, 97.8, 96.7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제영역의 경우 그 세부영역 중 주거영역 지수만이 평균보다 높았으며, 소득/소비, 복지, 고용 지수는 모두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라북도의 청소년 정책 예산이 전년 대비 약 63% 감소한 것이 복지영역 지수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영역의 강화를 위해서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떨어지는 고용지수와 관련된 여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영역의 세부영역인 사고영역(98.7)과 범죄영역(96.9)의 지수는 모두 평균보다 낮으며, 교육영역 역시 교육기회(97.4), 교육의 조건과 과정(93.1), 교육효과(99.7) 영역 모두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주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학교 폭력 근절과 정신문제 예방 및 진료 관련 사업은 없어 이의 정책적 개선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웰빙영역에서는 정서경험이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삶의 만족도와 유테모니아 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 VI-22】 전라북도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13) 전라남도

전남지역은 8개 영역 지수 중 경제영역(101.6), 건강영역(103.1), 활동영역(103.0), 참여영역(100.0)의 지수가 전국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97.7), 교육(98.8), 관계(98.2), 주관적 웰빙(98.5) 영역의 지수는 전국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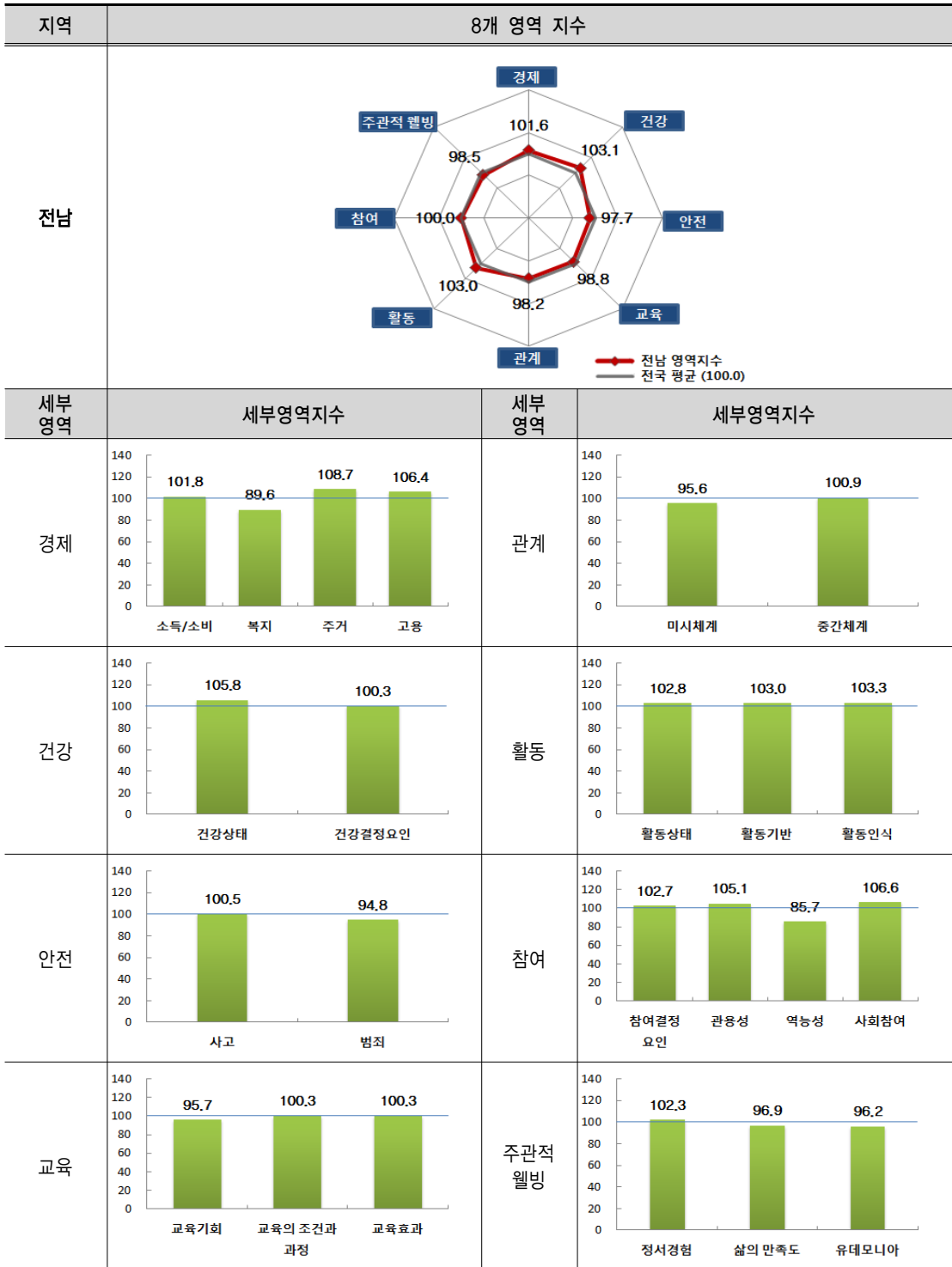
경제영역의 세부영역 지수를 보면 소득/소비, 주거, 고용영역의 지수는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경제영역 지수가 101.6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세부영역지수는 89.6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영역 역시 지수는 전국평균으로 나타났으나, 역능성이 85.7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에서는 청소년들이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관계영역은 미시체계의 세부영역 지수가 평균보다 낮지만, 건강영역의 2개 세부영역과 활동영역의 3개 세부영역지수 모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안전영역은 범죄 세부영역지수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영역에서는 교육기회 세부영역지수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영역에서는 정서경험지수가 102.3으로 평균보다 높으며, 삶의 만족도와 유테모니아는 모두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 VI-23】 전라남도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14) 경상북도

경북지역은 경제영역(101.0)을 제외한 7개의 모든 영역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주관적 웰빙영역지수(95.2)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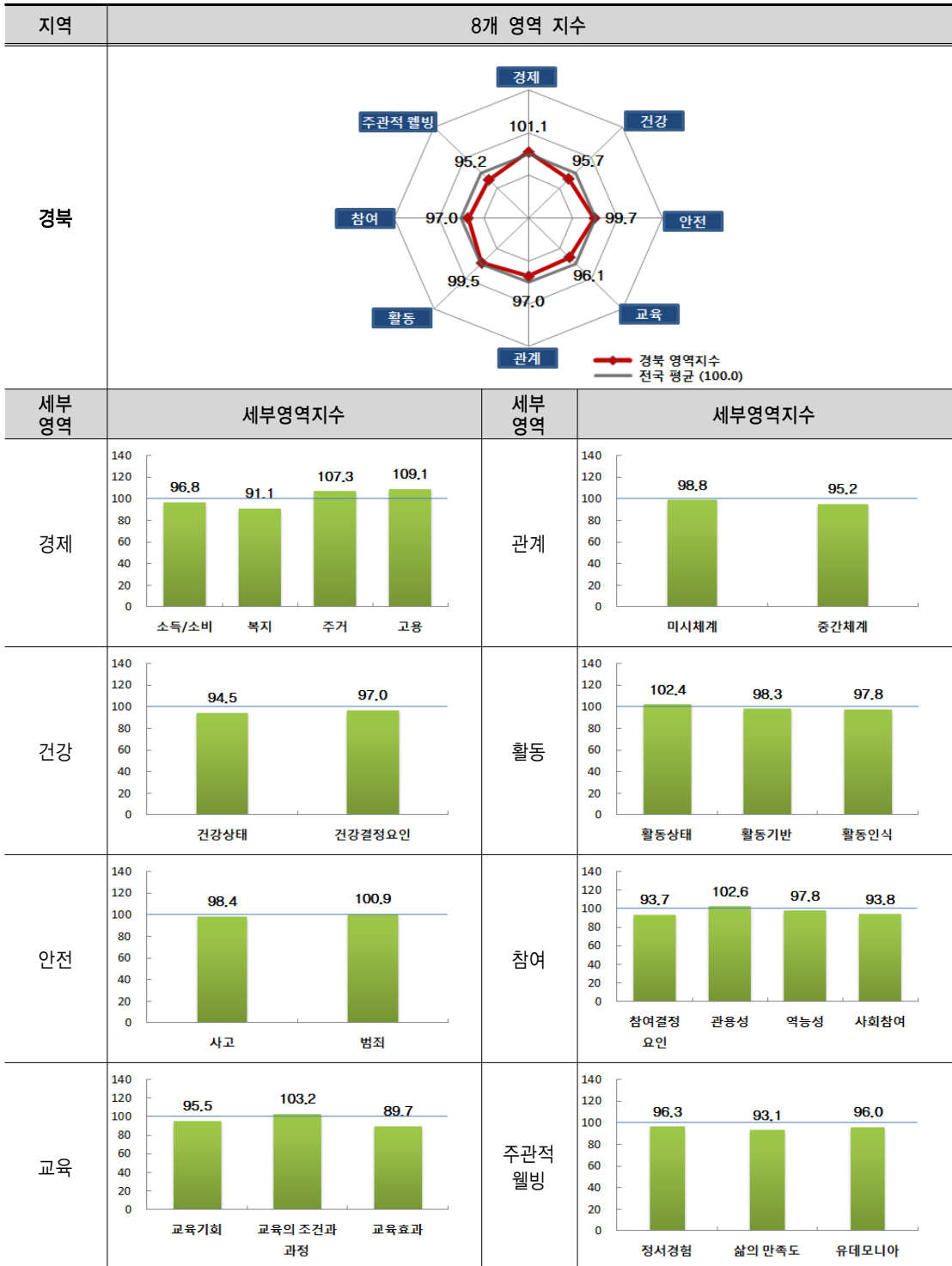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영역은 유일하게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세부영역 중 복지영역이 91.1로 평균보다 크게 떨어지는데, 이는 경북의 청소년 예산이 전년도 비해 70%이상 크게 감소한 사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건강영역의 세부영역인 건강상태와 건강결정요인의 지수가 모두 평균 보다 낮으며, 관계영역의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의 지수도 모두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영역에서는 활동기반, 활동인식과 달리 활동영역의 아웃풋이라 할 수 있는 활동상태가 전국 평균보다 높아 활동영역의 전반적 수준은 떨어지지만 활동의 기반 및 인식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한다면, 활동영역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영역에서는 교육의 조건과 과정은 평균보다 높은 103.2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효과가 89.7로 평균 보다 크게 떨어져, 경북지역의 '교육 조건과 과정'과 관련된 정책적 여건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주관적 웰빙영역에서는 정서경험,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 지수가 모두 전국 평균 보다 낮으며, 특히 삶의 만족도의 지수가 평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보였다.



【그림 VI-24】 경상북도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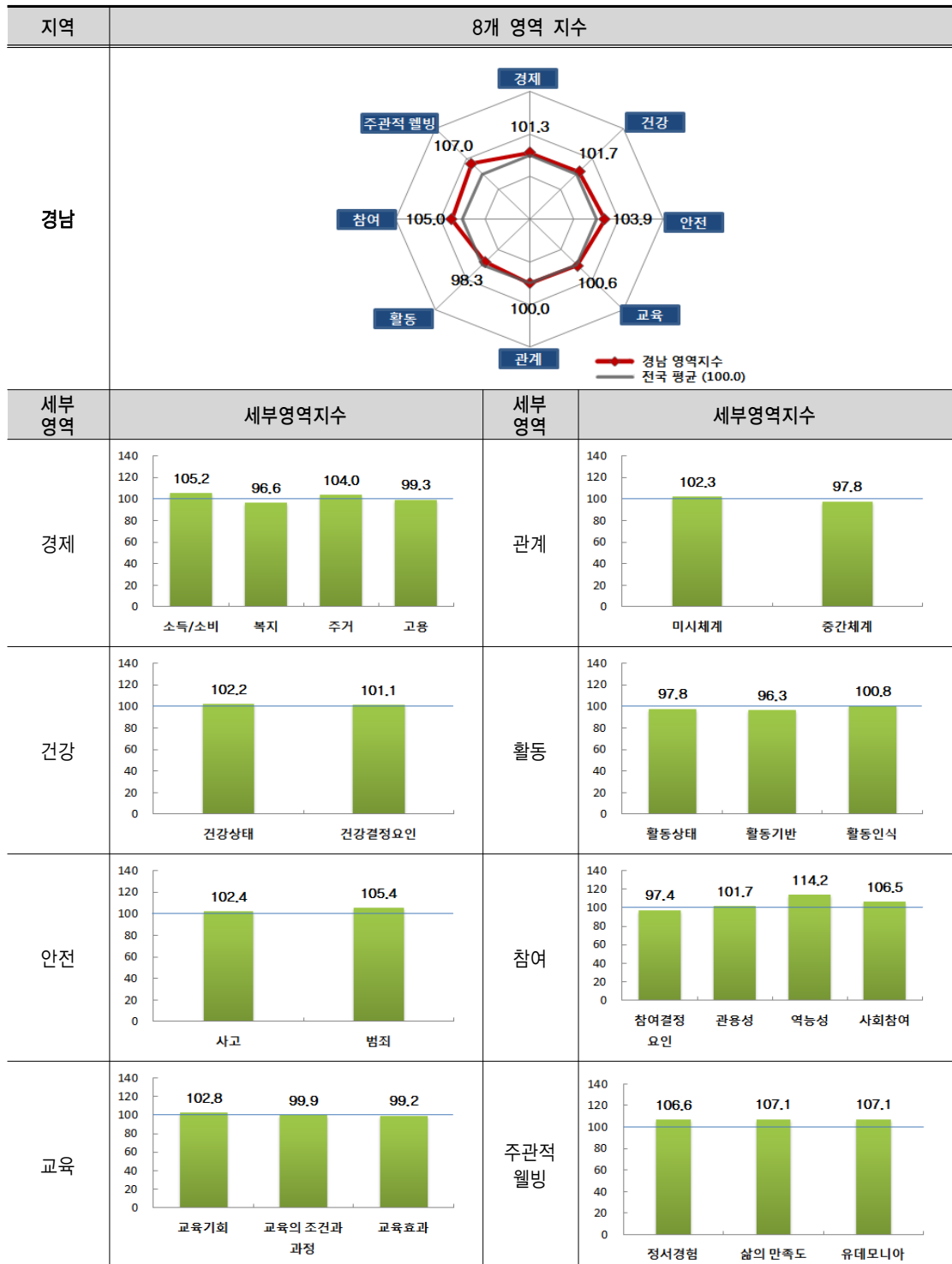
15) 경상남도

경남지역은 8개 영역 중 활동영역(98.3)을 제외한 7개 영역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영역지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영역과 관계영역, 활동영역, 교육영역 등에서는 각 세부영역이 전국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거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참여영역의 세부영역에서는 특히 역능성 영역지수가 전국평균 보다 크게 높으며, 사회참여영역과 관용성 영역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참여결정요인 영역만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강영역에서는 세부영역인 건강상태영역과 건강결정요인 지수 모두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영역의 사고영역과 범죄영역 지수 역시 전국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남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상 나타난 바에 따르면,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이 약 30%를 차지하고, 절반에 가까운 예산(46.1%)을 할애하고 있으나, 활동영역의 지수(98.3)가 다른 영역지수와 달리 유일하게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 및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25】 경상남도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16) 제주특별자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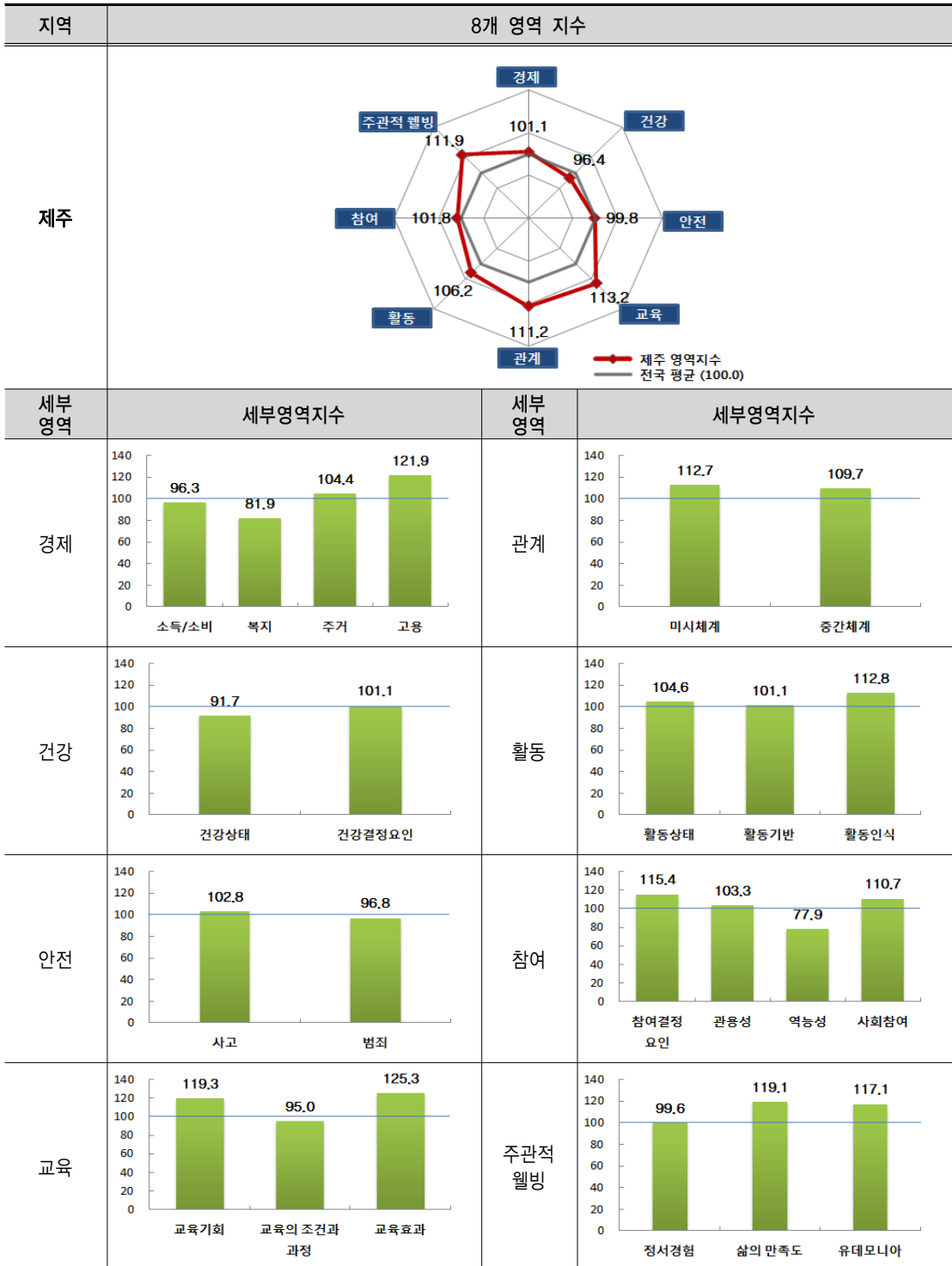
제주지역은 8개의 영역 지수 중 6개 영역인 경제영역, 교육영역, 관계영역, 활동영역, 참여영역, 주관적 웰빙영역의 지수가 전국평균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특히, 교육, 관계, 주관적 웰빙 영역의 지수가 각각 113.2, 111.2, 111.9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영역과 안전영역의 지수가 평균보다 떨어지지만, 8영역의 평균 값인 종합지수가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영역 지수는 전국평균보다 높으나, 세부영역 중 복지영역지수가 81.9로 크게 떨어져 이에 대한 우선적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 특성으로 인해 고용은 16개 시·도 중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121.9), 이로 인해 경제영역의 전반적인 지수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계영역과 활동영역의 세부영역지수는 모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강영역에서는 건강상태가 91.7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안전영역에서는 범죄영역의 지수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교육영역에서는 교육효과가 125.3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의 조건과 과정이 95.0으로 낮게 나타나 이를 개선·보완한다면 교육영역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 영역의 경우 참여결정요인, 관용성, 사회참여 모두 평균보다 높으나, 역능성지수의 경우 77.9로 평균보다 크게 낮아, 지자체에서는 청소년들이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웰빙영역에서는 정서경험이 99.6으로 다소 낮으나, 삶의 만족도와 유데모니아 지수가 전국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VI-26】 제주특별자치도의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 지수 분석 결과

제 VII 장

지역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지수(YHCI) 분석

1. 지수 기준 수준별 분류 및 비교 분석
2. 공간자기상관지수(Spatial Autocorrelation)를 활용한 비교 분석
3. 종합지수에 대한 영역지수의 지역별 영향력 차이 분석

제 VII 장

지역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지수(YHCI) 분석*

1. 지수 기준 수준별 분류 및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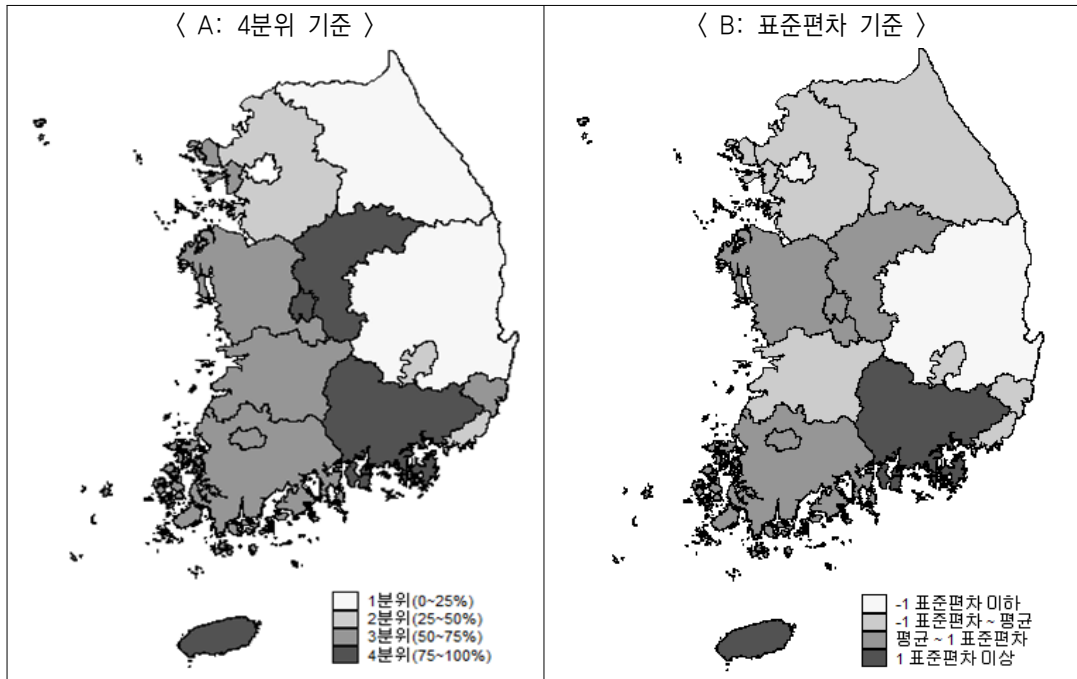
1) 종합지수에 대한 비교분석

여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앞서 산출된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4분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4단계 또는 4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해보았다.

먼저 4분위로 구분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VII-1]과 같이, 가장 지수가 높은 4분위에는 제주(105.2점), 경남(102.2점), 충북(101.7점), 대전(101.1점)이 포함되고, 3분위에는 충남(100.1점), 전남(100.1점), 인천(100.0점), 전북(99.9점), 울산(99.9점), 광주(97.7점)가 해당된다. 그리고 경기(99.8점), 부산(99.6점)과 대구(99.6점)가 2분위에 속하며, 종합지수가 가장 낮은 1분위에는 강원(98.1점), 경북(97.7점), 서울(97.4)이 위치한다.

같은 방식으로 4분위가 아닌 종합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 1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내외로 크게 4개의 지역군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양상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평균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밖의 값으로 종합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105.2점), 경남(102.2점)이고,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사이에는 충북(101.7점), 대전(101.1점), 충남(100.1점), 전남(100.1점)이, -1 표준편차에서 평균 사이에는 인천(100.0점), 전북(99.9점), 울산(99.9점), 광주(97.7점), 경기(99.8점), 부산(99.6점), 대구(99.6점), 강원(98.1점) 등 총 9개 지역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종합지수가 가장 낮은 -1 표준편차 미만에는 경북(97.7점)과 서울(97.4)이 해당된다.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신인철(숭실대학교 시간강사)이 집필하였음.



【그림 VII-1】 지역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의 4단계 분류 비교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한 지역비교에 이어 다음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8개 영역지수를 나누어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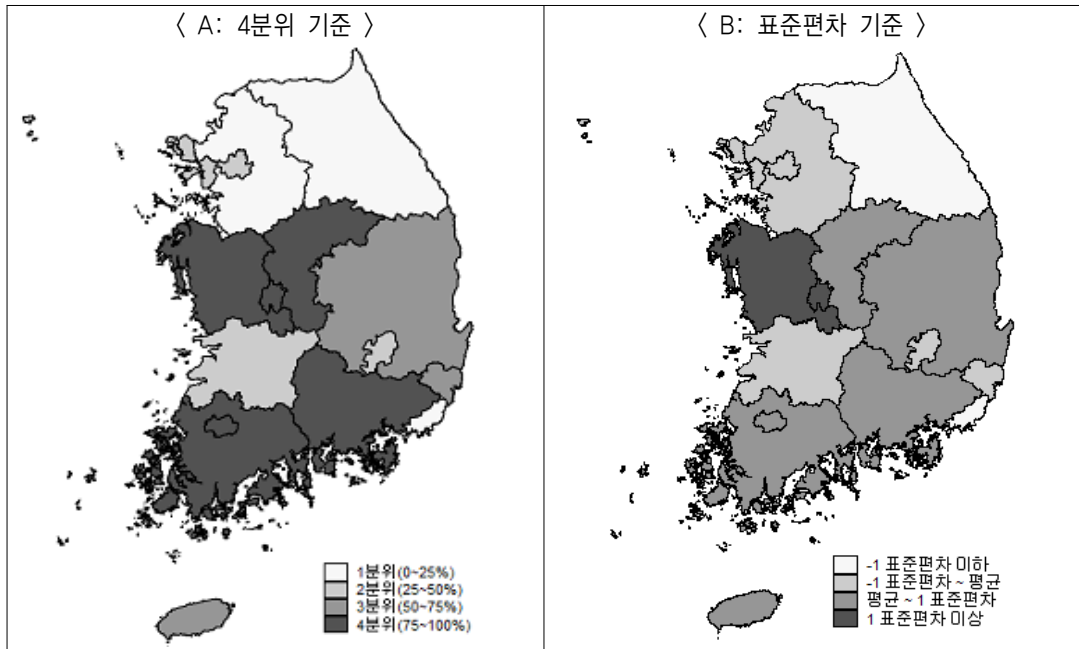
2) 영역별 지수에 대한 비교분석

(1) 경제

경제 영역 지수를 4분위로 나누어 [그림 V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살펴보면, 경제지수가 가장 높은 4분위에는 대전(103.8), 충남(103.4점), 충북(101.7점), 전남(101.6점), 경남(101.3점), 광주(101.2점)가 해당되고, 3분위에 속하는 지역은 경북(101.1점)과 제주(101.1점)이다. 울산(99.9점), 대구(99.6점), 서울(98.7점), 인천(98.7점)이 2분위에 속하고, 경제영역 지수가 가장 낮은 1분위에는 전북(98.5점), 경기(98.4점), 강원(95.7점), 그리고 부산(95.5점)이 포함된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4개의 지역군으로 나누어본 결과, 가장 높은 경제영역 지수를 갖는 지역은 대전(103.8), 충남(103.4점)이다. 또한, 충북(101.7점), 전남(101.6점), 경남(101.3점),

광주(101.2점), 경북(101.1점)과 제주(101.1점)는 경제영역 지수값이 평균에서 +1 표준편차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울산(99.9점), 대구(99.6점), 서울(98.7점), 인천(98.7점), 전북(98.5점), 경기(98.4점)가 -1 표준편차에서 평균 사이의 지수값을 가지며, 강원(95.7점)과 부산(95.5점)은 -1 표준편차 밖의 가장 하위군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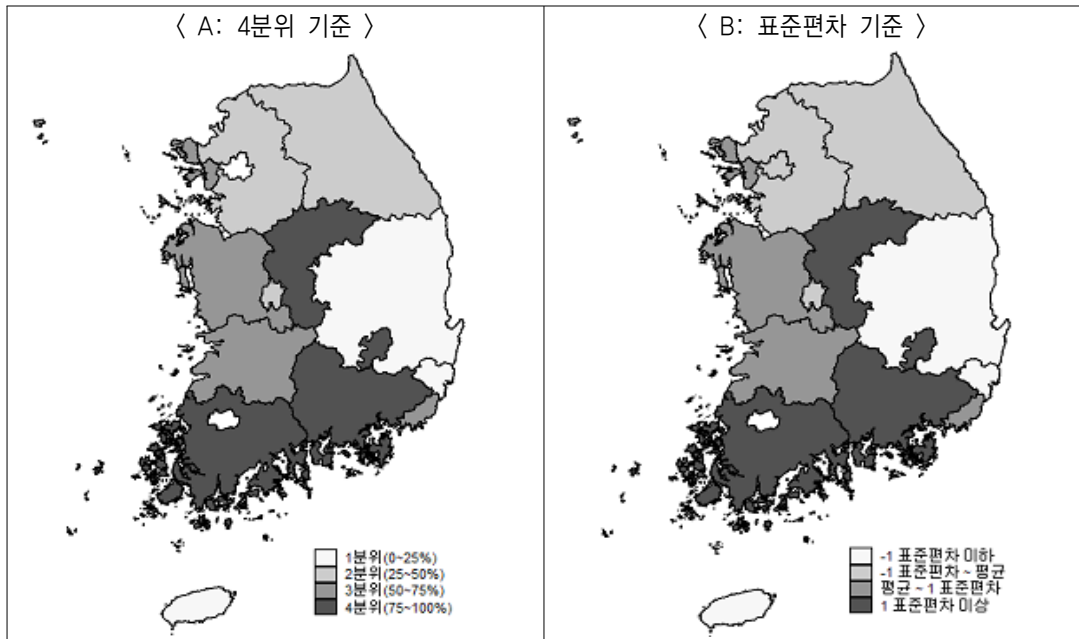
【그림 Ⅶ-2】 지역별 경제 영역 지수의 4단계 분류 비교

(2) 건강

건강 영역 지수를 4분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장 높은 4분위에 해당되는 지역은 전남(103.1점), 대구(103.1점), 충북(102.4점), 경남(101.7점), 인천(101.6점)이 해당되고, 3분위에는 대전(100.5점), 부산(101.1점), 충남(100.6점), 전북(100.5점)이 포함된다. 또한 2분위에는 경기(100.4점), 강원(99.3점), 서울(98.2점), 울산(98.1점)이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건강영역 지수가 가장 낮은 1분위에는 제주(96.4점), 광주(97.2점), 경북(95.7점)의 3개 지역이 이에 속한다.

반면, 건강영역 지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1 표준편차 이상으로 가장 높은 지역에 전남(103.1점), 대구(103.1점), 충북(102.4점)의 3개 지역이,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사이에는 경남(101.7점), 인천(101.6점), 대전(100.5점), 부산(101.1점), 충남(100.6점), 전북(100.5점), 경기(100.4점)의 7개 지역이 포함된다. 그리고 -1 표준편차에서 평균 사이에는 강원(99.3점)과 서울(98.2점), -1 표준편차 미만에는 울산(98.1점), 제주(96.4점), 광주(97.2점), 경북(95.7점)의 4개 지역이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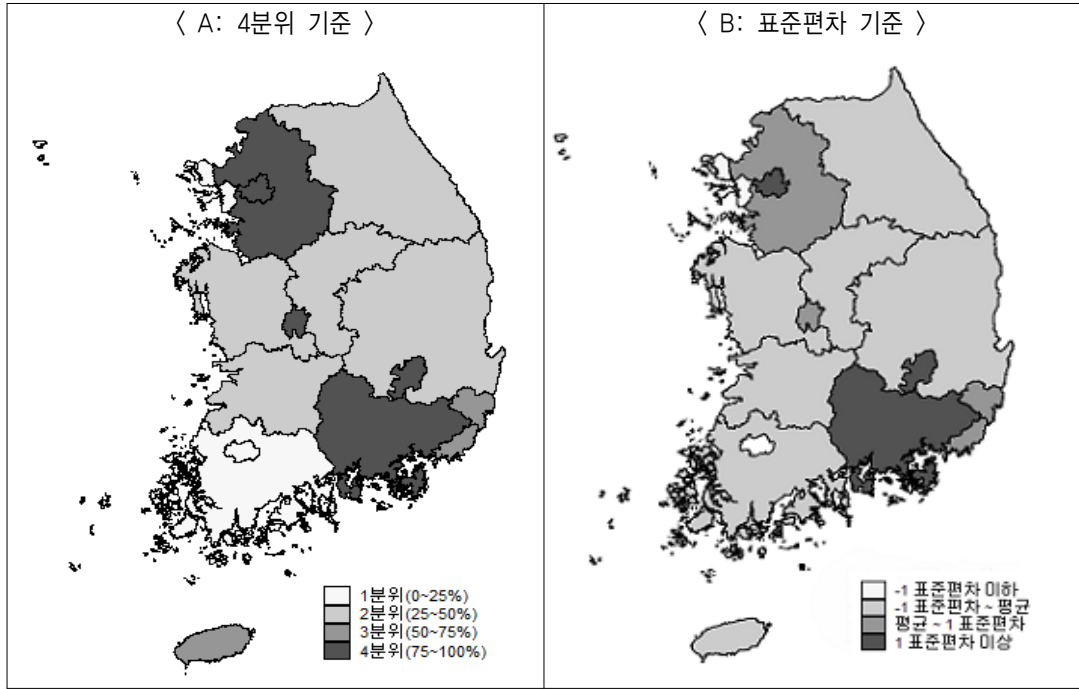
【그림 VII-3】 지역별 건강 영역 지수의 4단계 분류 비교

(3) 안전

안전 영역 지수를 4분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아래의 [그림 VII-4]와 같다. 먼저, 왼쪽 A 패널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안전 영역 지수를 4분위로 나눠보면, 안전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군(4분위)에는 대구(104.3점), 경남(103.9점), 서울(103.5점), 대전(102.6점), 경기(101.7점)가 포함된다. 이보다 지수값이 낮은 3분위에는 울산(101.5점)과 부산(100.9점), 제주(99.8점)가 해당된다. 2분위에는 경북(99.7점), 충북(98.9점), 충남(98.4점), 전북(97.8점), 강원(97.7점)이 속하고, 안전 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군에는 전남(97.7점), 인천(95.9점), 광주(95.8점)가 해당된다.

이를 다시 평균 및 표준편차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1 표준편차 이상으로 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에는 대구(104.3점), 경남(103.9점), 서울(103.5점) 등 3개 지역이,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사이에는 대전(102.6점), 경기(101.7점), 울산(101.5점)과 부산(100.9점), 제주(99.8점) 등 5개 지역이 포함된다. 그리고 -1 표준편차에서 평균 사이에는 경북(99.7점), 충북(98.9점), 충남(98.4점), 전북(97.8점), 강원(97.7점), 전남(97.7점)이 해당되며, 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1 표준편차 미만에는 인천(95.9점), 광주(95.8점)가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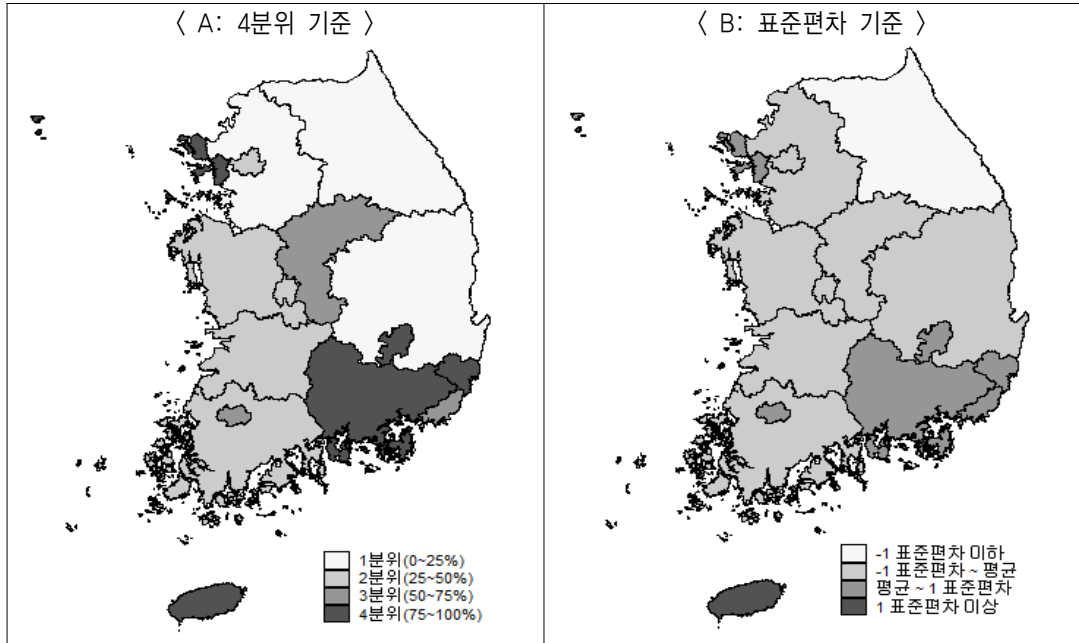
【그림 Ⅶ-4】 지역별 안전 영역 지수의 4단계 분류 비교

(4) 교육

교육 영역의 지수를 4분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육지수가 가장 높은 제주(113.2점)를 비롯하여 대구(102.2점), 인천(102.2점), 울산(101.6점), 경남(100.6점)이 4분위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부산(100.3점), 광주(100.0), 충북(99.7점), 전북(96.7점) 등이 3분위의 지역군을 이룬다. 2분위에는 충남(99.4점), 대전(99.3.0점), 서울(98.9점), 전남(98.8점) 등이 해당되며, 가장 낮은 1분위에는 경기(96.4점), 경북(96.1점), 강원(94.8점)이 속한다.

이를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4분위로 나누었을 때의 지역군의 배치와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즉, +1 표준편차 이상으로 교육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113.2점)만이

해당되며, 앞서 4분위에 속했던 대구(102.2점), 인천(102.2점), 울산(101.6점), 경남(100.6점)은 평균에서 +1 표준편차 군에 해당된다. 그리고 교육지수가 -1 표준편차 미만으로 가장 낮은 지역에는 강원(94.8점)만 포함되고, 나머지 지역들의 교육지수는 -1 표준편차에서 평균 사이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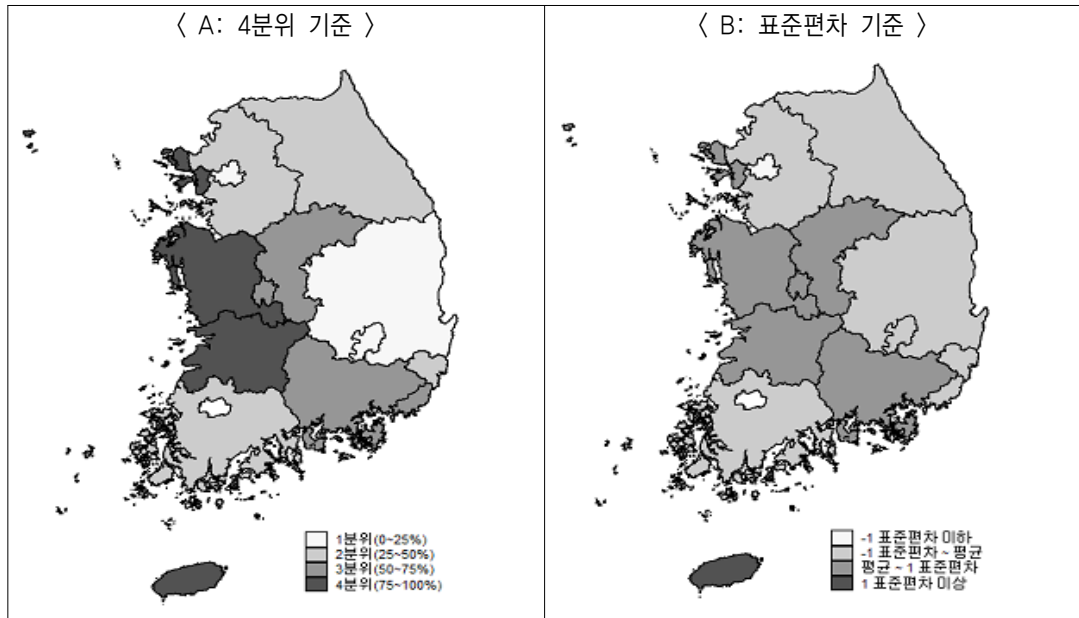
【그림 VII-5】 지역별 교육 영역 지수의 4단계 분류 비교

(5) 관계

관계영역 지수를 4분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그림 VII-6]과 같다. 먼저, 4분위 관계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군에는 제주(111.2점)를 비롯한 인천(103.4점), 충남(102.0점), 전북(101.9점)의 4개 지역이 포함된다. 3분위에는 충북(100.9점)과 함께 대전(100.6점), 경남(100.0), 부산(99.9점), 경기(99.7점)가 해당되고 울산(98.7점)과 전남(98.2점)이 2분위 지역군으로 나뉜다. 마지막 1분위에는 대구(97.0점), 경북(97.0점), 광주(95.4점), 서울(95.3점)이 해당된다.

반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지역군을 나눌 경우 +1 표준편차 이상으로 관계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111.2점)만 포함되고, 인천(103.4점), 충남(102.0점), 전북(101.9점) 등

4분위에 포함되었던 지역과 충북(100.9점), 대전(100.6점), 경남(100.0) 등 3분위 일부 지역은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지역군에 속한다. 그리고 부산(99.9점), 경기(99.7점)와 대구(97.0점), 경북(97.0점)은 -1 표준편차에서 평균 사이에 관계지수 값이 위치한다. 마지막으로 -1 표준편차 미만에는 광주(95.4점)와 서울(95.3점)만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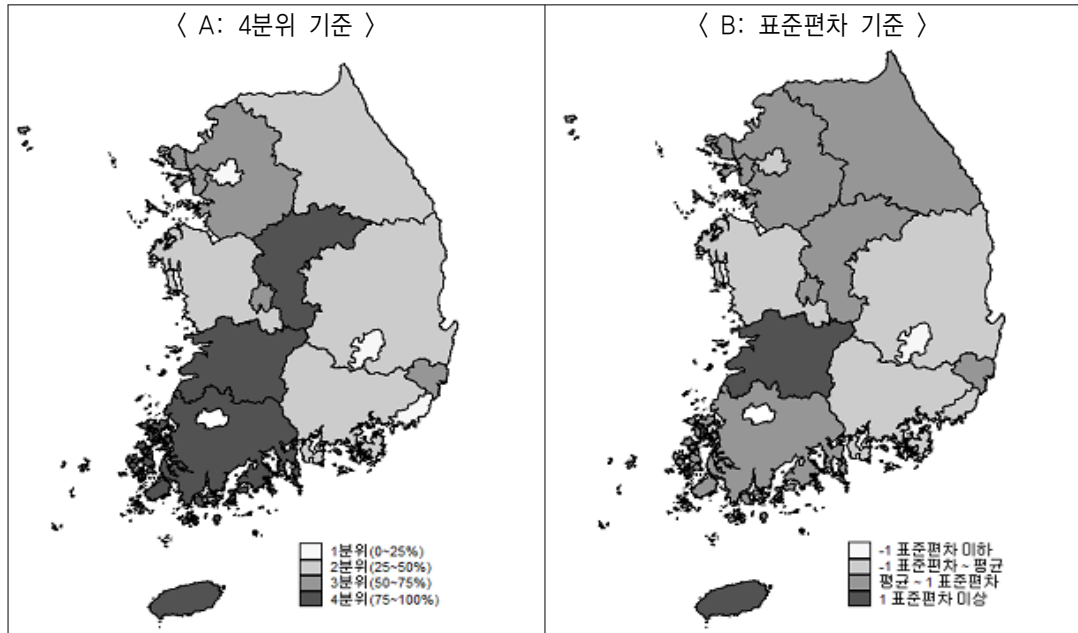
【그림 Ⅶ-6】 지역별 관계 영역 지수의 4단계 분류 비교

(6) 활동

활동영역 지수를 4분위로 나뉘보면, 가장 지수 값이 큰 4분위에는 제주(106.2점)와 함께 전북(103.3점), 전남(103.0점), 충북(102.5점)이, 3분위에는 경기(101.6점), 인천(101.3점), 울산(100.8점), 대전(100.5점)의 4개 지역이 포함된다. 또한 강원(100.4점), 경북(99.5점), 경남(98.3점), 충남(97.6점)은 2분위에, 나머지 서울(97.0점), 부산(97.0점), 광주(95.7점), 대구(95.2점)는 1분위에 위치한다.

이를 다시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4분위 분류와는 다소 상이한 지역군으로 지역들이 위치한다. +1 표준편차 이상인 지역에는 제주(106.2점)와 함께 전북(103.3점)만이 포함되고, 전남(103.0점), 충북(102.5점), 경기(101.6점), 인천(101.3점), 울산(100.8점), 대전(100.5점), 강원(100.4점)은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사이에 활동지수 값이 위치한다. 그리고 경북(99.5점),

경남(98.3점), 충남(97.6점), 서울(97.0점), 부산(97.0점)은 -1 표준편차에서 평균 사이에, 나머지 광주(95.7점), 대구(95.2점)는 -1 표준편차 미만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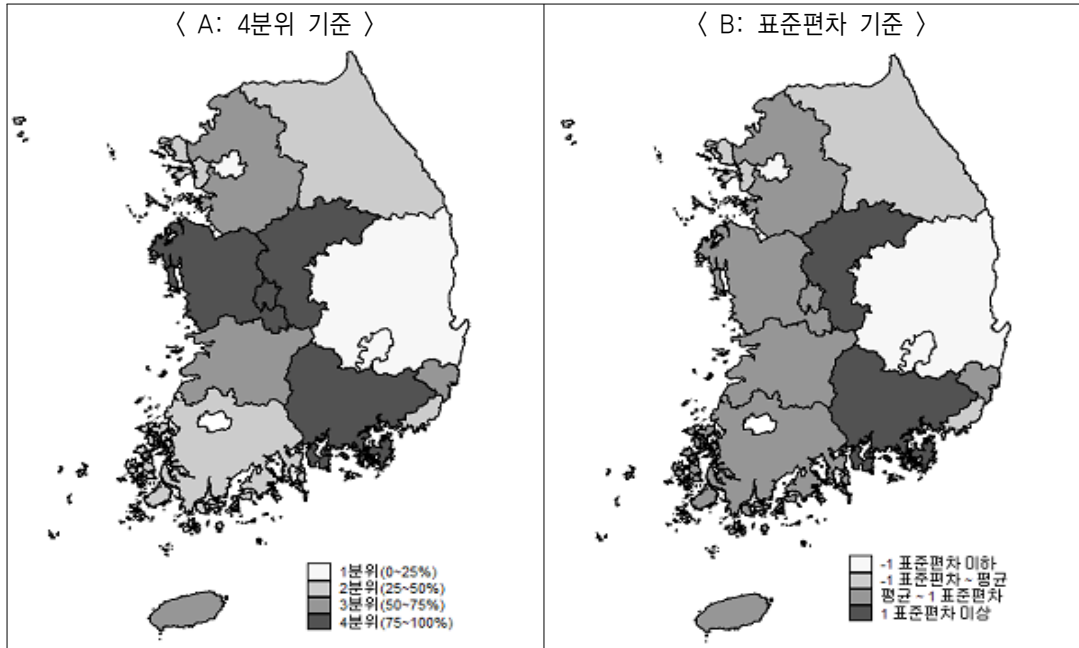
【그림 Ⅶ-7】 지역별 활동 영역 지수의 4단계 분류 비교

(7) 참여

참여영역 지수를 4분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장 참여지수가 높은 4분위 지역군에는 경남(105.0점), 충북(104.9점), 대전(102.2점), 충남(102.0점)이 포함되고, 3분위에는 제주(101.8점), 울산(101.0점), 경기(100.9점), 전북(100.2점)이, 2분위에는 전남(100.0점), 강원(99.3점), 부산(98.2점), 인천(97.3점)이 포함된다. 마지막 참여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군(1분위)에는 서울(97.0점), 경북(97.0점), 대구(96.6점), 광주(96.4점)가 해당된다.

이를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4분위로 나누어 본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얻는다. 즉, +1 표준편차 이상인 지역은 경남(105.0점), 충북(104.9점)만이 포함되고, 평균에서 +1 표준편차에는 대전(102.2점), 충남(102.0점), 제주(101.8점), 울산(101.0점), 경기(100.9점), 전북(100.2점), 전남(100.0점)이 해당된다. 그리고 -1 표준편차에서 평균 사이에는 강원(99.3점), 부산(98.2점), 인천(97.3점)이 포함되고, 참여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1 표준편차 미만)에는 서울(97.0점), 경북

(97.0점), 대구(96.6점), 광주(96.4점)가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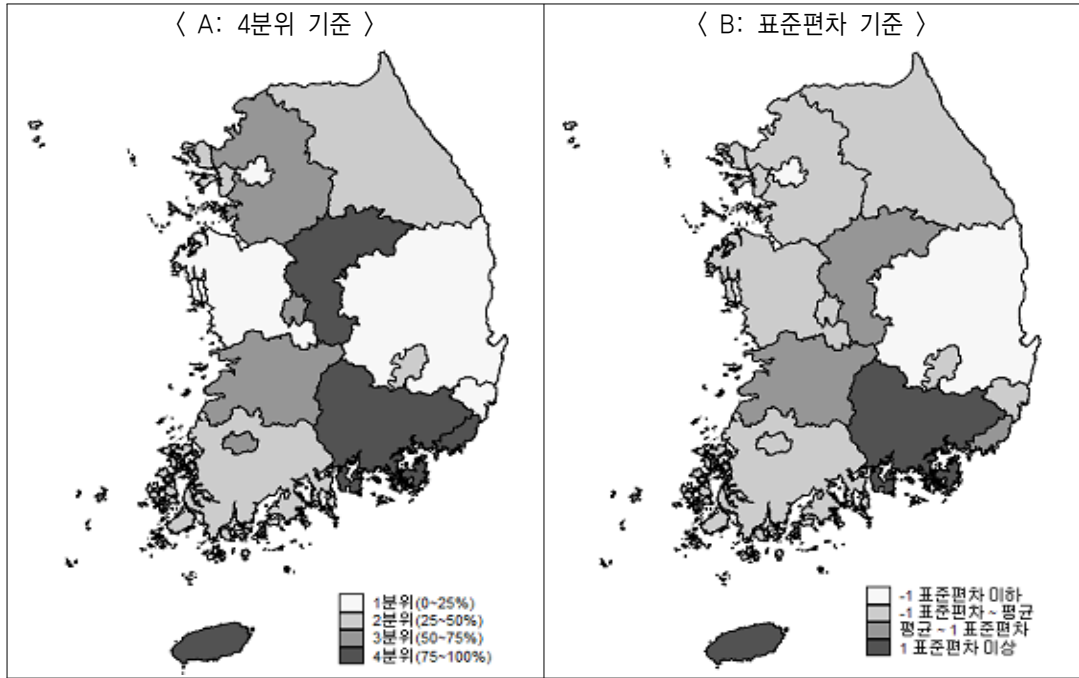


【그림 Ⅶ-8】 지역별 참여 영역 지수의 4단계 분류 비교

(8) 주관적 웰빙

마지막으로 주관적 웰빙 영역의 지수를 4분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4개의 지역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4분위 기준으로 나눈 지역군을 살펴보면, 주관적 웰빙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들(4분위)은 제주(111.9점), 경남(107.0점), 부산(103.4점), 충북(103.0점), 전북(100.4점)이 포함된다. 3분위에는 광주(99.8점), 경기(99.5점), 대전(99.4점)이 해당되고, 2분위에는 인천(99.2점), 강원(99.1점), 대구(98.8점), 전남(98.5점)이 포함된다. 그리고 주관적 웰빙 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군(1분위)에는 충남(97.4점), 울산(97.3점), 경북(95.2점), 서울(90.3점)이 속한다.

이 지역군을 평균 및 표준편차 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1 표준편차 이상인 지역에는 제주(111.9점)와 경남(107.0점)만이 포함되고, 부산(103.4점), 충북(103.0점), 전북(100.4점)이 해당된다. 그리고 -1 표준편차에서 평균 사이에 지수 값이 위치하는 지역들은 광주(99.8점), 경기(99.5점), 대전(99.4점), 인천(99.2점), 강원(99.1점), 대구(98.8점), 전남(98.5점), 충남(97.4점), 울산(97.3점)이 해당되고, 가장 지수 값이 낮은 지역에는 경북(95.2점)과 서울(90.3점)이 포함된다.



【그림 Ⅶ-9】 지역별 주관적 웰빙 영역 지수의 4단계 분류 비교

이상과 같이 산출된 종합지수 및 영역별 지수를 4분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누어 분류하고 비교한 결과는 행정구역 또는 지역자료가 필연적으로 갖는 공간자기상관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표로 측정되고 지수로 표준화한 산출 값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을 대상으로 집계되거나 수집된 자료가 갖는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만으로는 지역사회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논의하고 기술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지수(Global Spatial Autocorrelation)와 지역적 공간자기상관지수(Local Spatial Autocorrelation)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2. 공간자기상관지수(Spatial Autocorrelation)를 활용한 비교 분석

1) 종합지수의 공간자기상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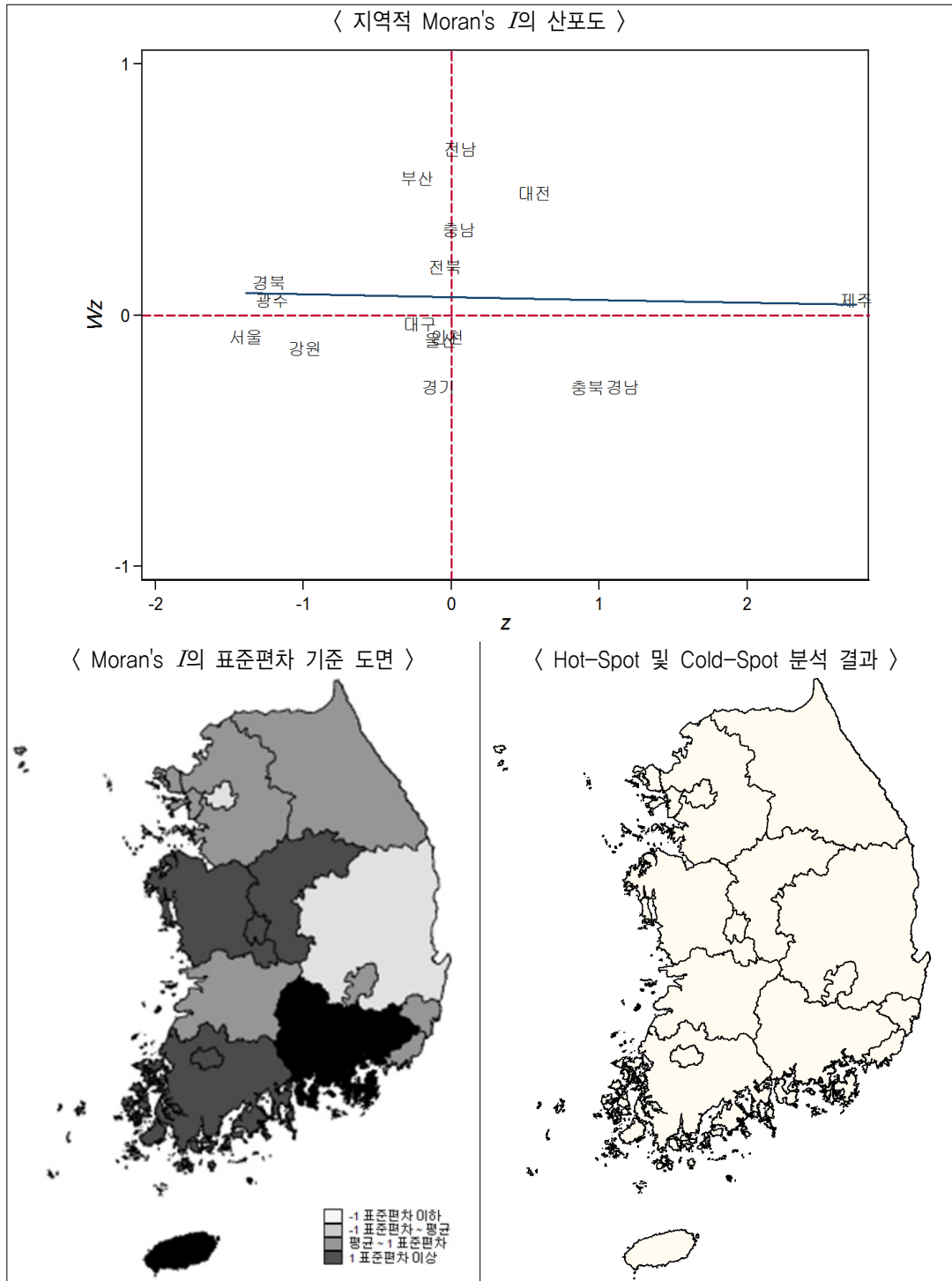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에 대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과 지역적 공간자기상관을 [표 VII-1]과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합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전역적 또는 지역적 공간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VII-10]에 제시된 지역적 Moran-I의 산포도나 이를 단계구분도로 나타낸 경우에서도 공간자기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I-1 종합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063	서울	0.122
		부산	-0.126
		대구	0.008
		인천	0.002
		광주	-0.072
Geary' <i>C</i>	0.726	대전	0.274
		울산	0.007
		경기	0.025
		강원	0.132
		충북	-0.265
Getis & Ord's <i>G</i>	0.217	충남	0.018
		전북	-0.008
		전남	0.039
		경북	-0.157
		경남	-0.334
		제주	0.163

*p(0.05, **p(0.01, ***p(0.001 (이하 표 동일)

주: 공간가중행렬 생성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접지역을 전라남도로 고려함 (이하 표 동일)



【그림 VII-10】 종합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2) 영역별 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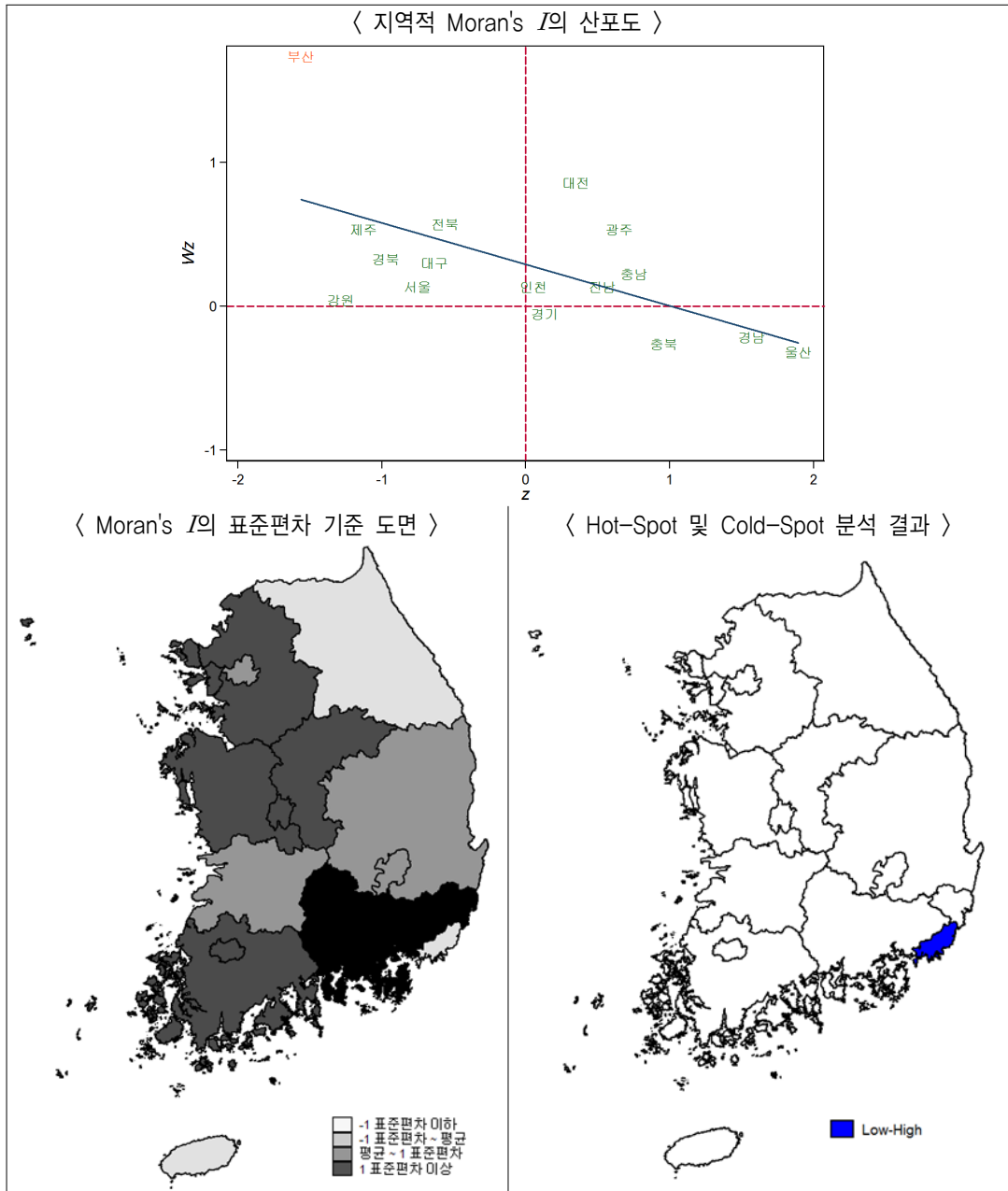
(1) 경제영역 및 영역 내 세부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 분석

경제영역은 앞의 장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소득/소비, 복지, 주거 및 고용 등 4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된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각 세부지표들에 대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 및 지역적 공간자기상관 분석, 그리고 세부영역들을 통합하여 구성한 경제영역에 대해서도 공간자기상관이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영역의 세부지수 중 소득/소비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VII-2>와 [그림 VII-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은 없지만, 지역적 공간자기상관의 경우 부산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공간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산을 둘러싼 경남지역의 소득/소비지수는 높는데 반해, 부산의 경우 해당 지수가 낮아 부정적인 공간자기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VII-2 경제영역 내 소득/소비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263	서울	-0.100
		부산	-2.710***
		대구	-0.190
		인천	0.007
		광주	0.345
Geary' <i>C</i>	1.239	대전	0.300
		울산	-0.608
		경기	-0.007
		강원	-0.053
		충북	-0.254
Getis & Ord's <i>G</i>	0.219	충남	0.166
		전북	-0.320
		전남	0.071
		경북	-0.315
		경남	-0.342
		제주	-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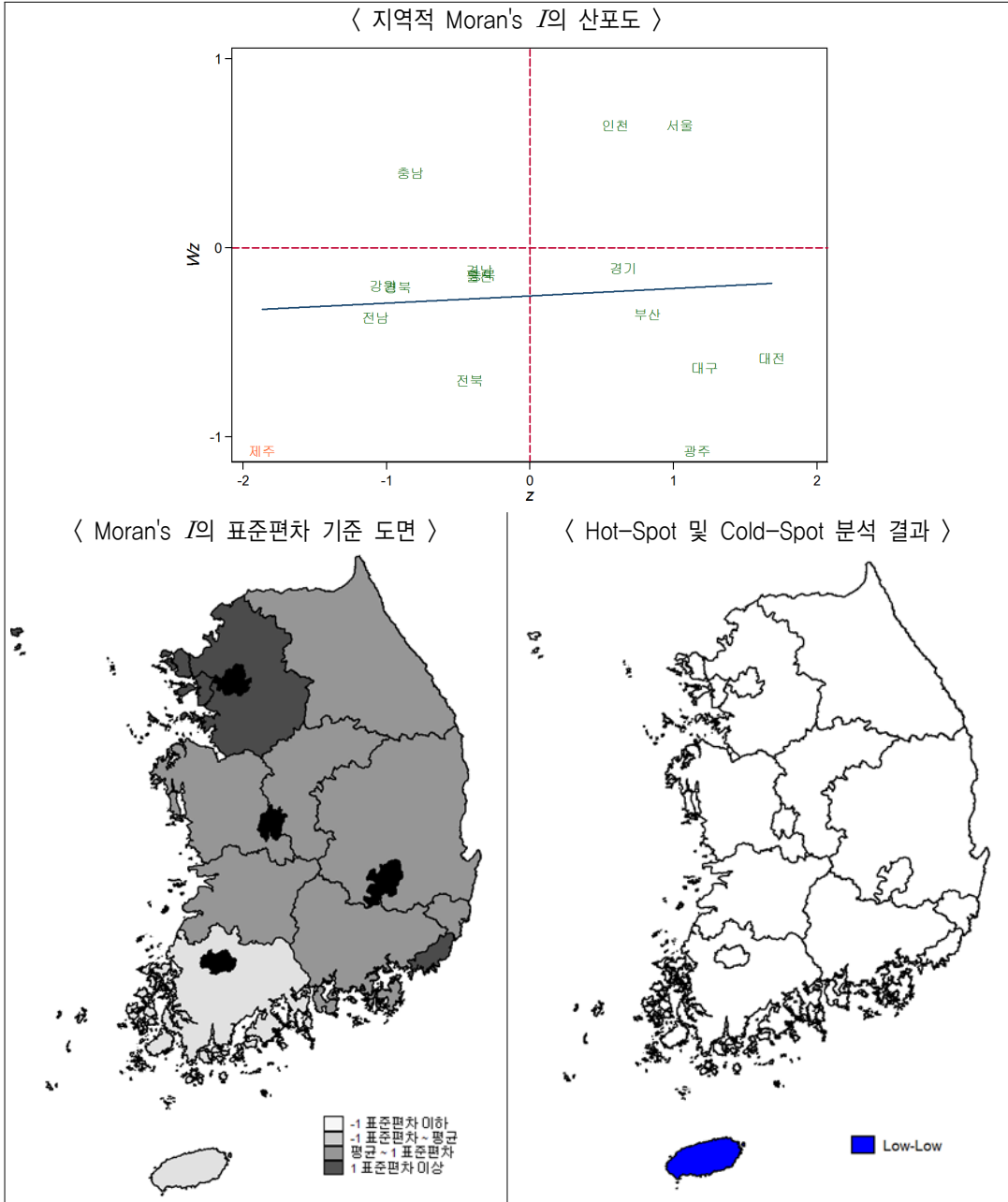


【그림 VII-11】 경제영역 내 소득/소비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다음으로 경제영역의 세부지수 중 복지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의 결과, 아래의 <표 VII-3>과 [그림 VII-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수들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은 없으며, 지역적 공간자기상관은 제주도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임의적으로 전남지역과 공간적 가중관계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미 있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제주도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복지지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다.

표 VII-3 경제영역 내 복지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031	서울	0.678
		부산	-0.289
		대구	-0.775
		인천	0.387
		광주	0.053
Geary's <i>C</i>	0.633*	대전	-0.984
		울산	0.053
		경기	-0.071
		강원	0.207
		충북	0.048
Getis & Ord's <i>G</i> *	0.207	충남	-0.329
		전북	0.296
		전남	0.397
		경북	0.194
		경남	0.043
		제주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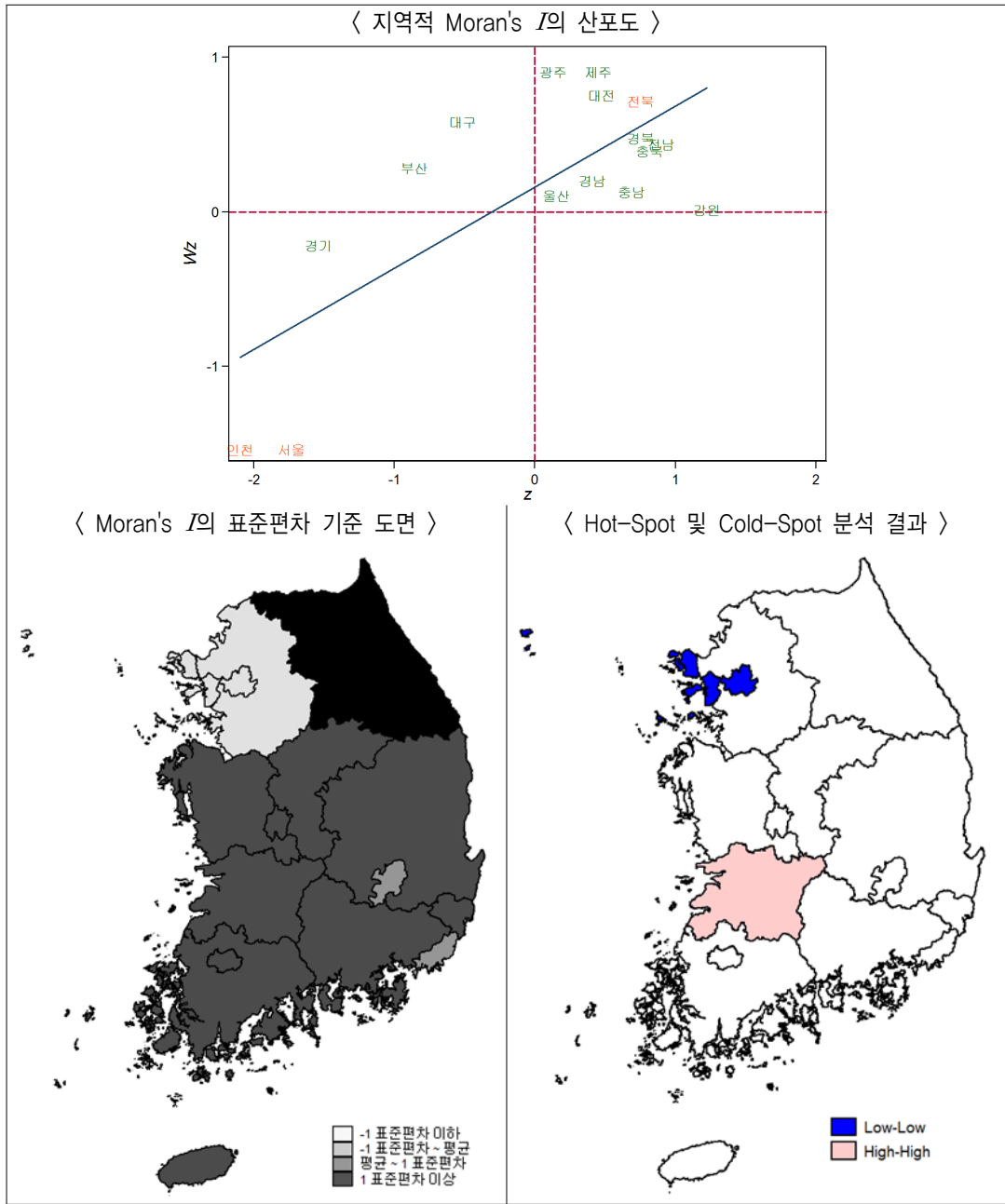
【그림 Ⅶ-12】 경제영역 내 복지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다음으로 경제영역의 세부지수 중 주거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의 결과, <표 VII-4>와 [그림 VII-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거지수와 관련해서는 인접지역들 간에 주거지수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지역들이 이러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지역적 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과 인천, 그리고 전북이 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상당한 대비를 이루는데, 서울과 인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거지수가 타 지역들에 비해 낮고 인접지역인 경기도의 주거지수가 낮은 편이라 콜드스팟(cold-spot)에 해당된다. 반면, 전북의 경우 인접지역들의 주거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자신의 지역 역시 높은 편이어서 핫스팟(hot-spot)에 해당된다.

표 VII-4 경제영역 내 주거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327**	서울	2.675***
		부산	-0.240
		대구	-0.298
		인천	3.237***
		광주	0.117
Geary' <i>C</i>	0.467*	대전	0.355
		울산	0.015
		경기	0.342
		강원	0.010
		충북	0.319
Getis & Ord's <i>G</i>	0.228*	충남	0.086
		전북	0.536**
		전남	0.393
		경북	0.355
		경남	0.081
		제주	0.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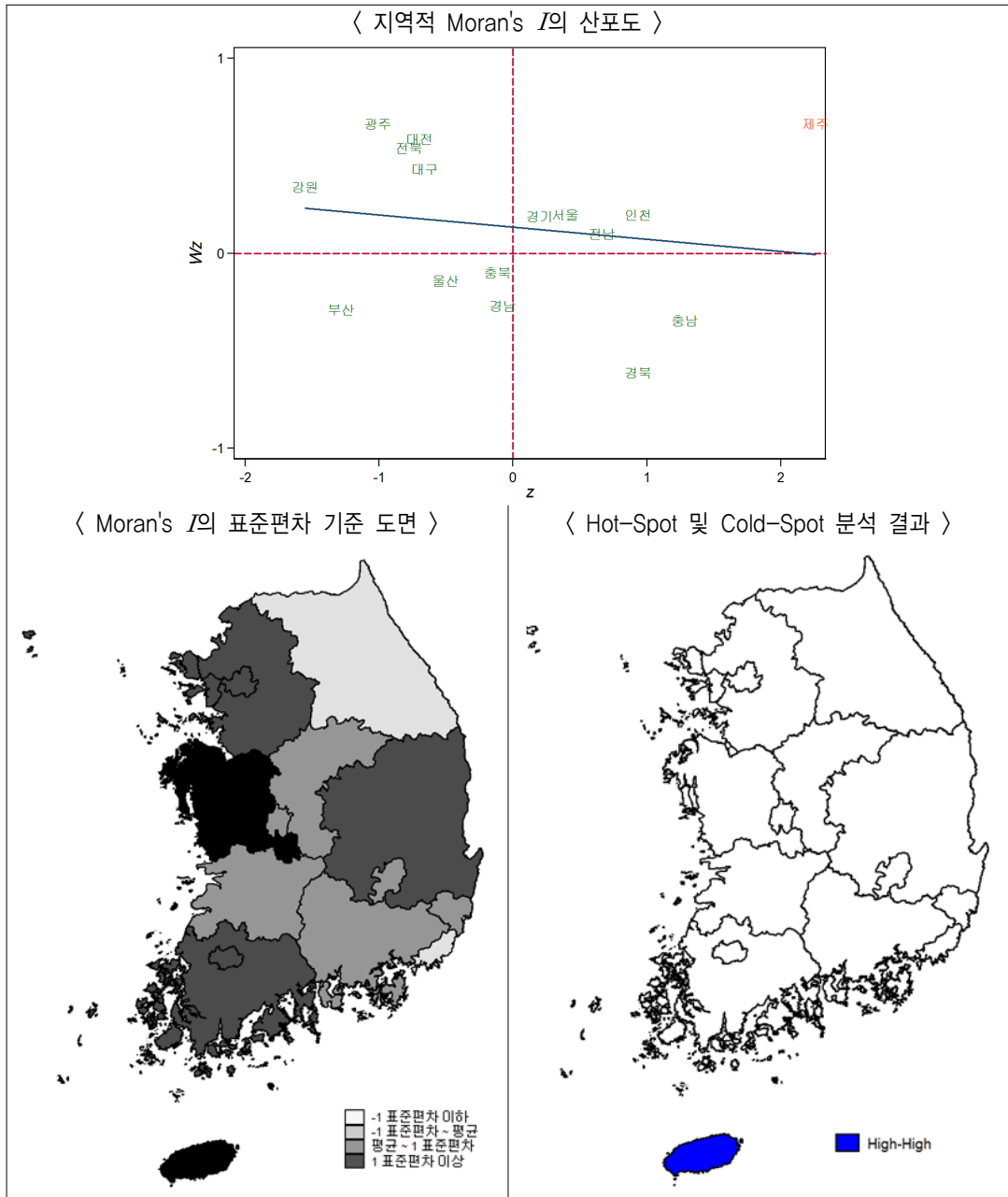


【그림 VII-13】 경제영역 내 주거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경제영역의 마지막 세부지수 중 고용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역적 또는 지역적 수준에서 공간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지역적 지수에서 제주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공간자기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앞서 복지지표에 대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공간가중행렬의 설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앞서 기술한 내용의 사유로 의미 있게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해석은 생략하도록 한다.

표 VII-5 경제영역 내 고용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146	서울	0.077
		부산	0.371
		대구	-0.283
		인천	0.184
		광주	-0.669
Geary's <i>C</i>	0.808	대전	-0.409
		울산	0.071
		경기	0.037
		강원	-0.527
		충북	0.012
Getis & Ord's <i>G</i>	0.217	충남	-0.447
		전북	-0.418
		전남	0.066
		경북	-0.574
		경남	0.020
		제주	1.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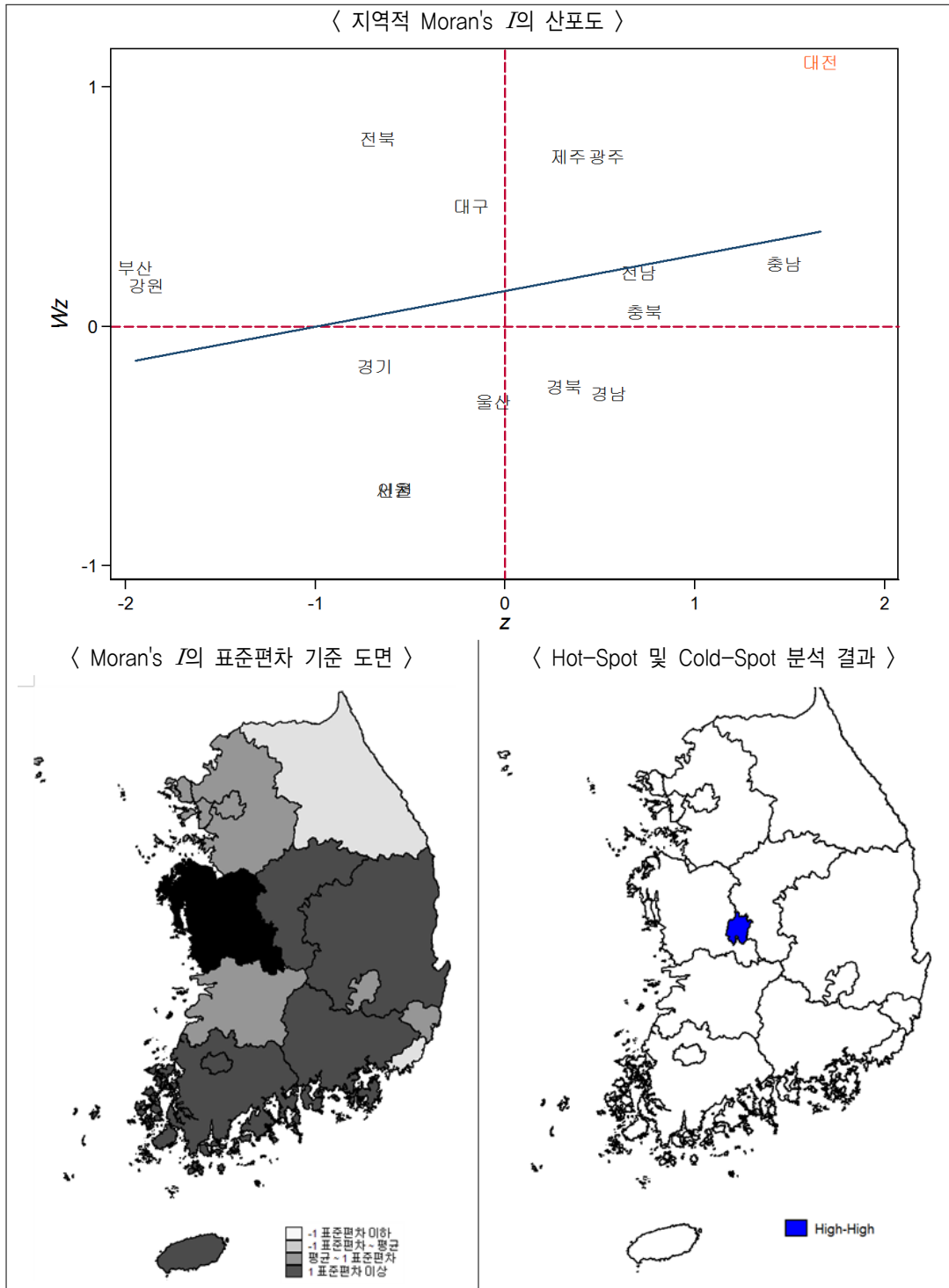
【그림 VII-14】 경제영역 내 고용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이상의 경제영역의 세부지수들을 통합해 산출된 상위지수인 경제영역에 대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과 지역적 공간자기상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적 공간자기상관에서는 대전의 지역적 Moran-I값이 1.833점으로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그림 VII-15]에 지시된 지역적 Moran-I의 산포도와 단계구분도를 통해 살펴보면, 경제지수에서 충남(102.4점)과 대전(100.5점)은 높은 값을 가졌지만, 충남의 경우 이웃 지역인 경기도나 전북지역의 경제지수 값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대전만이 충남의 영향에 의해 경제지수에서 핫스팟(hot-spot)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VII-6 경제영역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037	서울	0.401
		부산	-0.475
		대구	-0.090
		인천	0.396
		광주	0.379
Geary's <i>C</i>	0.807	대전	1.833**
		울산	0.019
		경기	0.116
		강원	-0.319
		충북	0.042
Getis & Ord's <i>G</i> *	0.218	충남	0.383
		전북	-0.525
		전남	0.158
		경북	-0.116
		경남	-0.154
		제주	0.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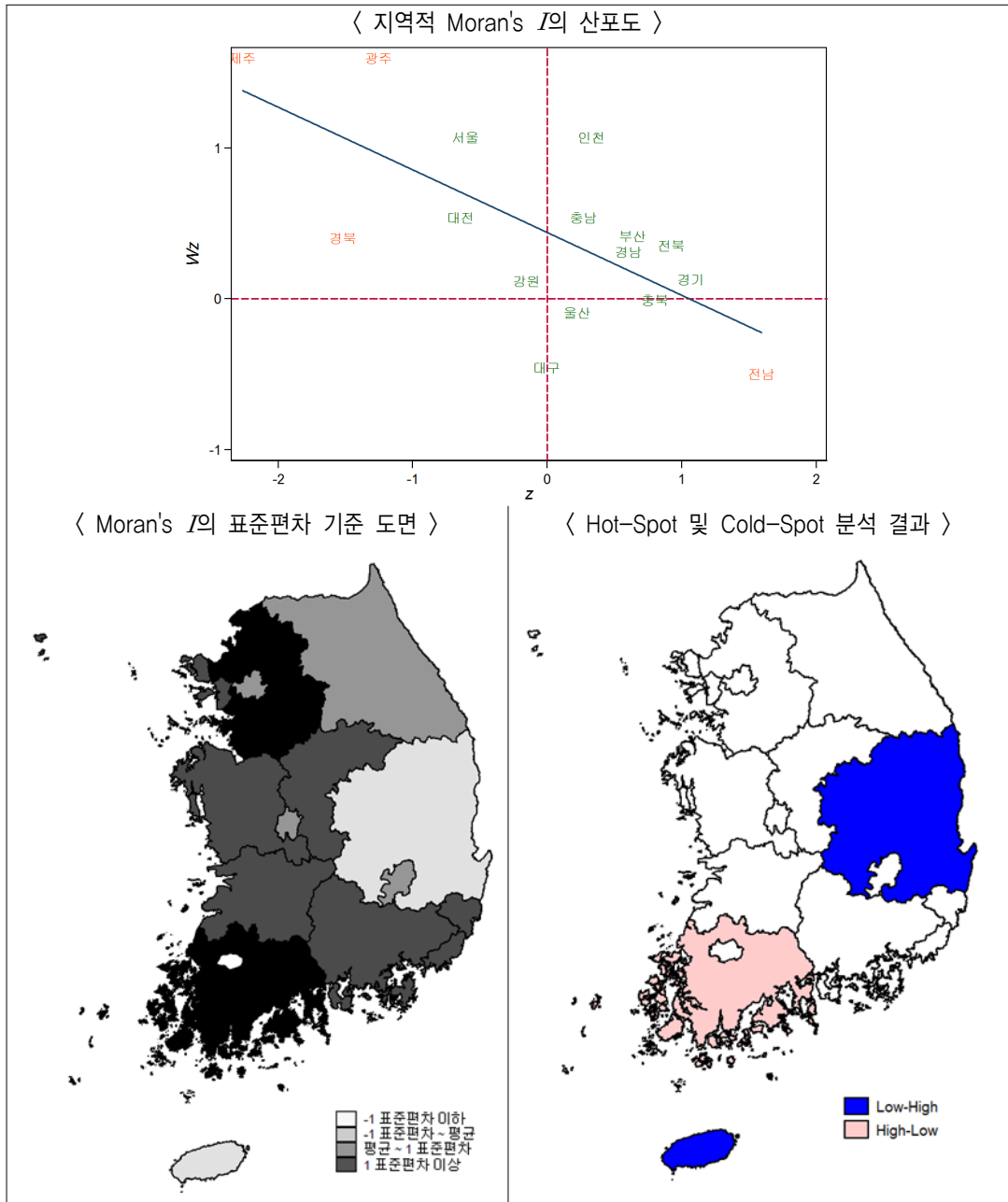
【그림 VII-15】 경제영역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2) 건강영역 및 영역 내 세부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 분석

건강영역은 크게 건강상태와 건강결정요인 등 2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건강영역의 세부지수 중 건강상태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 VII-7>과 [그림 VII-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은 없었으나, 지역적 공간자기상관 지수의 경우 광주와 경북이 부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전남의 경우 인접 지역인 광주의 건강상태지수는 낮은 반면 전남의 건강상태지수는 높은 편이어서 부정적인 공간자기상관관계를 갖는다. 반대로 경북지역의 경우 인접지역인 충북과 대구 지역의 건강상태지수는 높은 반면, 자신의 지역에서는 건강상태지수가 낮은 편이어서 부정적인 공간자기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7 건강영역 내 건강상태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174	서울	-0.651
		부산	0.263
		대구	0.002
		인천	0.351
		광주	-1.997*
Geary' <i>C</i>	1.053	대전	-0.347
		울산	-0.021
		경기	0.137
		강원	-0.018
		충북	-0.008
Getis & Ord's <i>G</i>	0.221*	충남	0.146
		전북	0.323
		전남	-0.793
		경북	-0.018*
		경남	0.186
		제주	-3.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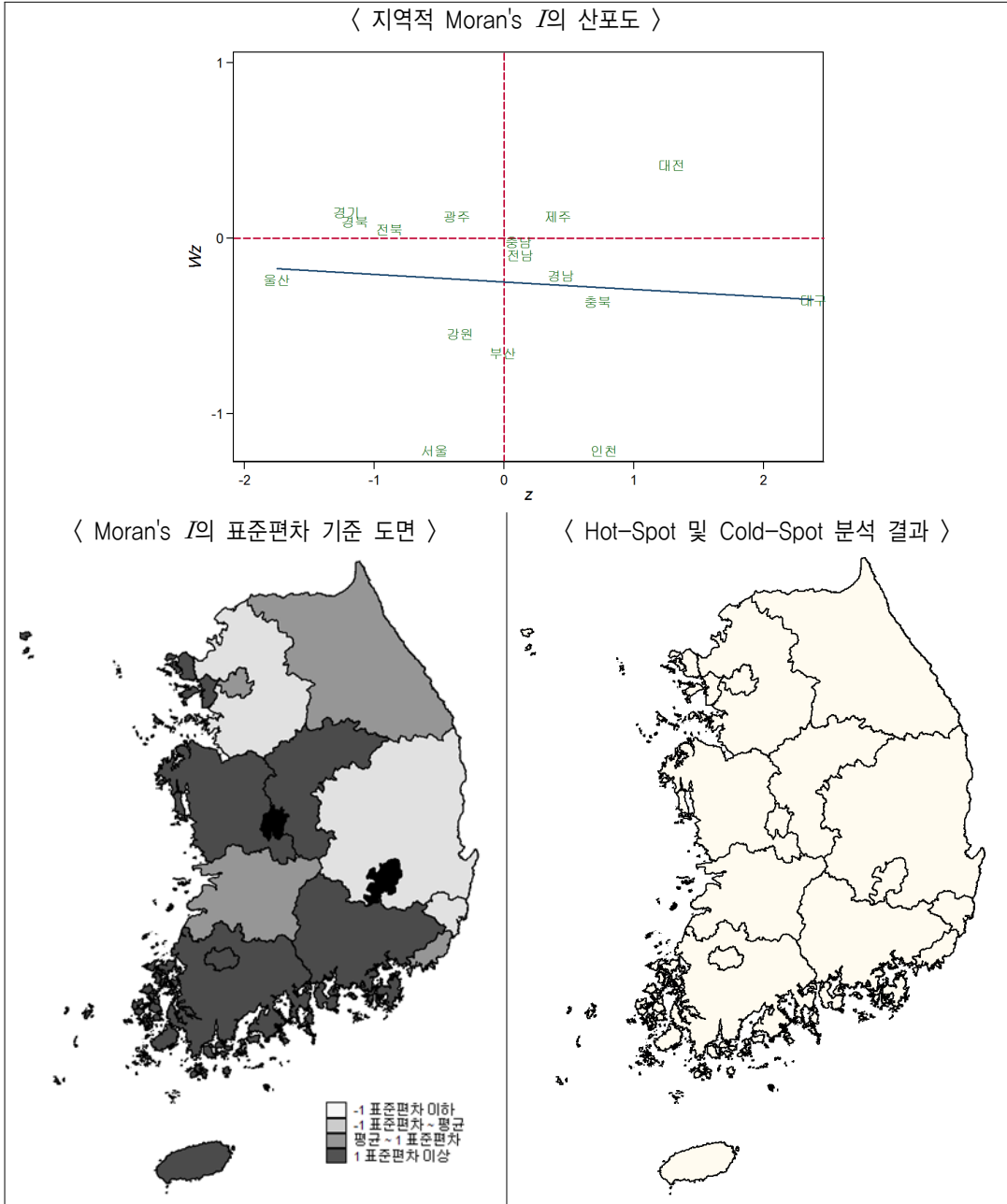


【그림 VII-16】 건강영역 내 건강상태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두 번째로, 건강영역의 세부지수 중 건강결정요인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VII-8>과 [그림 VII-1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역적 공간자기상관과 지역적 공간자기상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간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II-8 건강영역 내 건강결정요인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058	서울	0.650
		부산	0.006
		대구	-0.847
		인천	-0.934
		광주	-0.045
Geary' <i>C</i>	0.937	대전	0.536
		울산	0.421
		경기	-0.177
		강원	0.186
		충북	-0.262
Getis & Ord's <i>G</i>	0.215	충남	-0.003
		전북	-0.043
		전남	-0.012
		경북	-0.108
		경남	-0.094
		제주	0.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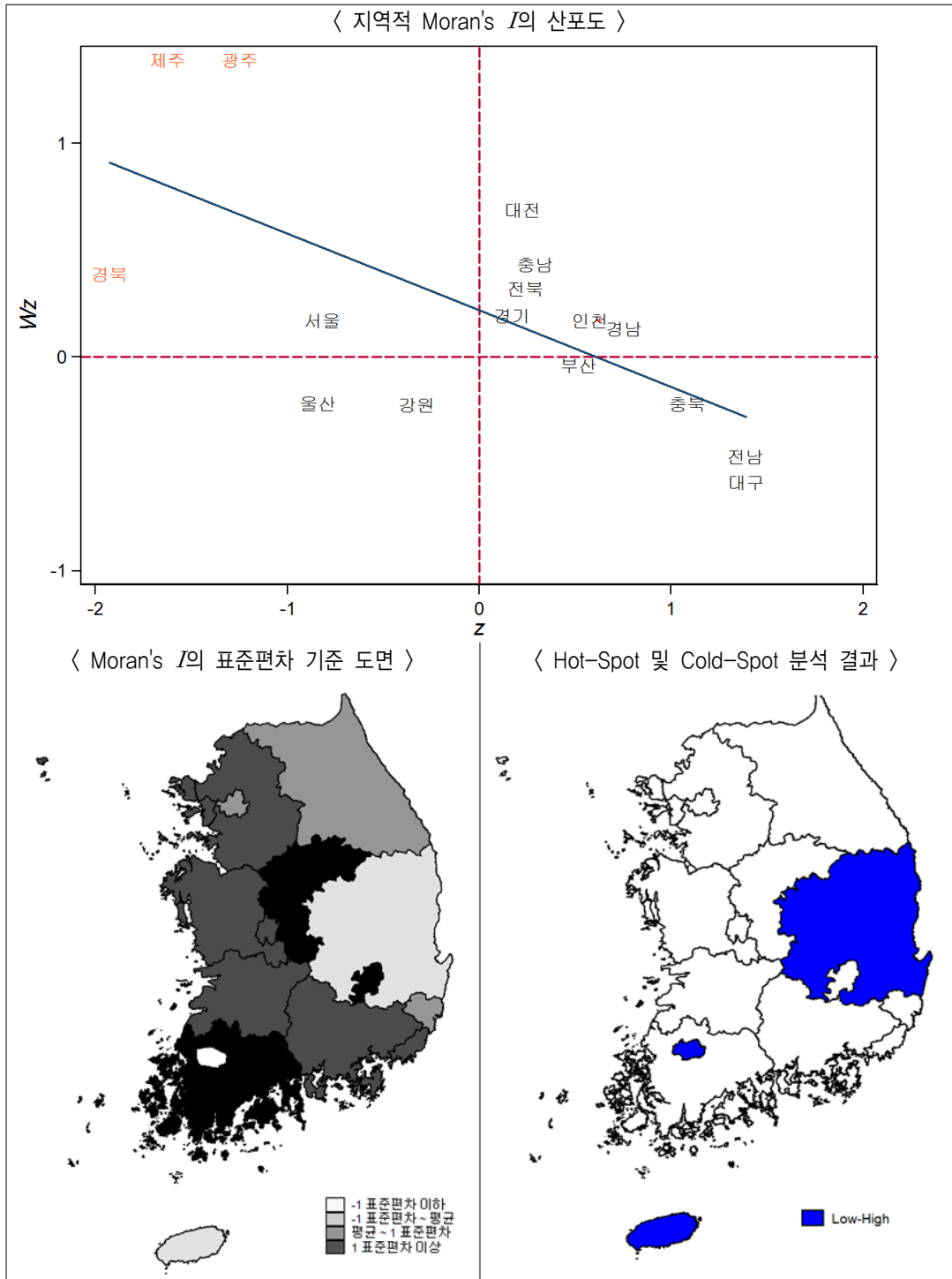
【그림 VII-17】 건강영역 내 건강결정요인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다음으로 건강영역에 대한 공간자기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 VII-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은 존재하지 않으나,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는 광주, 경북, 제주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들 지역은 인접 지역에 비해 건강영역지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림 VII-18]은 이러한 결과를 가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광주지역(97.2점)은 인접 지역인 전남지역(103.1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경북지역(95.7점)의 경우 충북(102.4점)과 대구(103.1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광주와 경북 지역은 타 지역과 부적인 공간자기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제주도는 임의적으로 전남 지역과 공간적 인접성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서 생략하도록 한다.

표 VII-9 건강영역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220	서울	-0.138
		부산	-0.023
		대구	-0.817
		인천	0.122
		광주	-1.727*
Geary' <i>C</i>	1.171	대전	0.154
		울산	0.184
		경기	0.032
		강원	0.073
		충북	-0.240
Getis & Ord's <i>G</i>	0.218	충남	0.125
		전북	0.077
		전남	-0.649
		경북	-0.740*
		경남	0.097
		제주	-2.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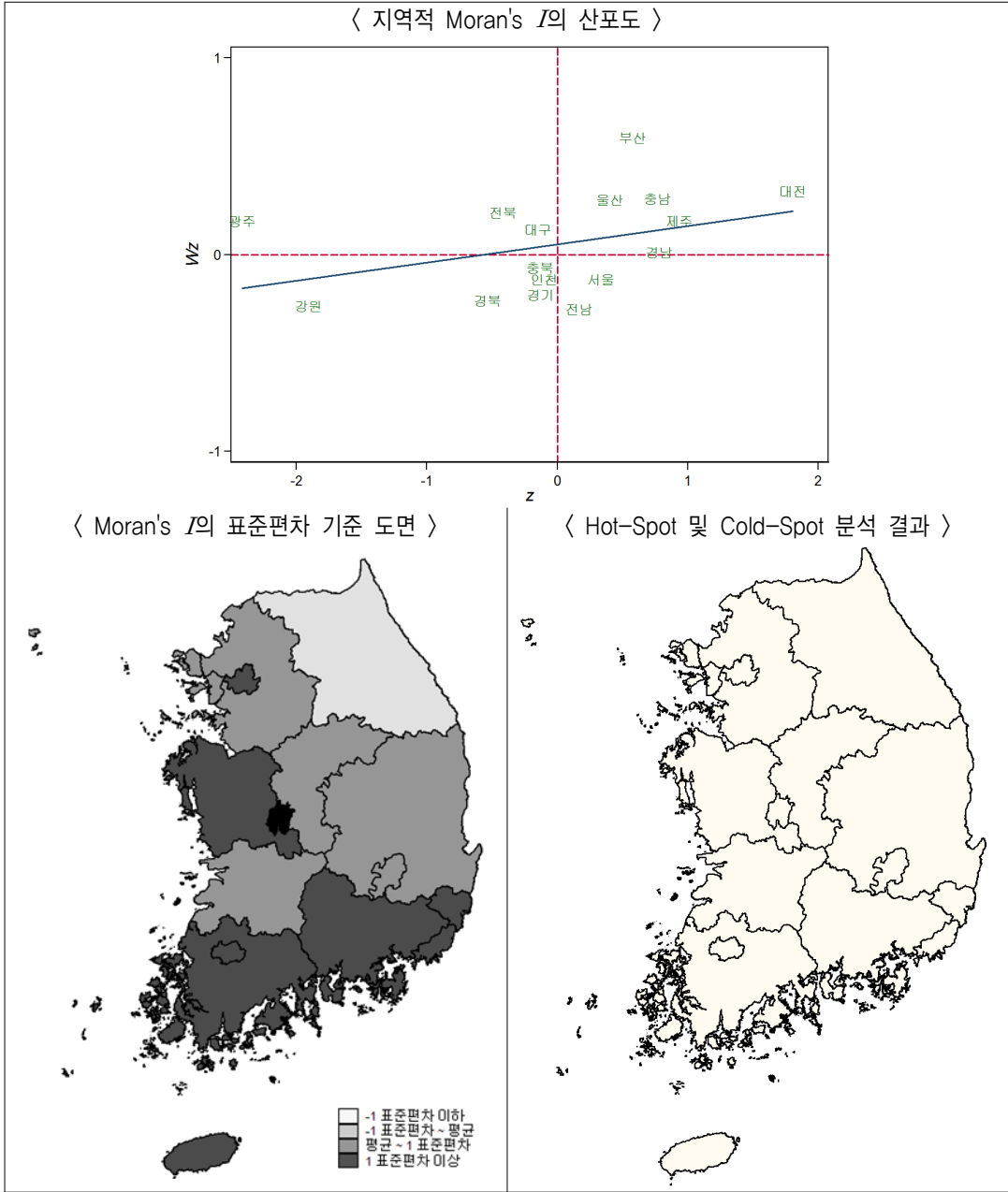
【그림 VII-18】 건강영역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 안전영역 및 영역 내 세부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 분석

안전영역은 크게 사고와 범죄 등 2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사고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 VII-10>과 [그림 VII-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과 지역적 공간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II-10 안전영역 내 사고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088	서울	-0.043
		부산	0.343
		대구	-0.019
		인천	0.013
		광주	-0.410
Geary' <i>C</i>	0.538	대전	0.577
		울산	0.112
		경기	0.027
		강원	0.504
		충북	0.009
Getis & Ord's <i>G</i> *	0.217	충남	0.217
		전북	-0.089
		전남	-0.047
		경북	0.126
		경남	0.007
		제주	0.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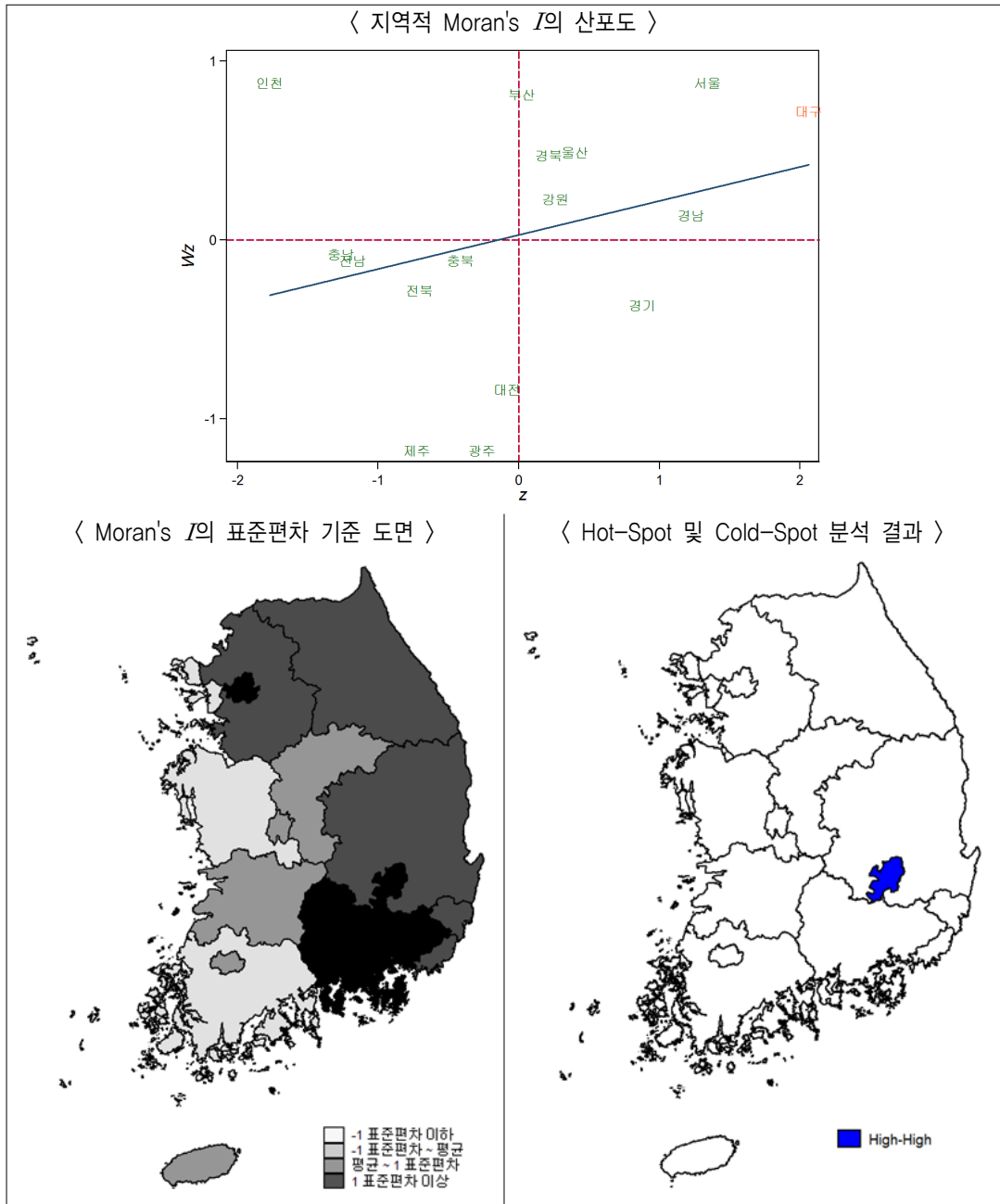


【그림 Ⅶ-19】 안전영역 내 사고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다음으로 안전영역의 세부지수 중 범죄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VII-11>과 [그림 VII-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지역적 공간자기상관의 경우, 대구 지역은 긍정적인 공간자기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구지역의 인접지역인 경남의 경우 범죄지수가 높는데, 대구 또한 범죄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이 범죄지수와 관련된 핫스팟(hot-spot)이 된다.

표 VII-11 안전영역 내 범죄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133	서울	1.180
		부산	0.019
		대구	1.483**
		인천	-1.556
		광주	0.311
Geary' <i>C</i>	0.657	대전	0.068
		울산	0.195
		경기	-0.324
		강원	0.059
		충북	0.048
Getis & Ord's <i>G</i>	0.217	충남	0.103
		전북	0.201
		전남	0.138
		경북	0.101
		경남	0.166
		제주	0.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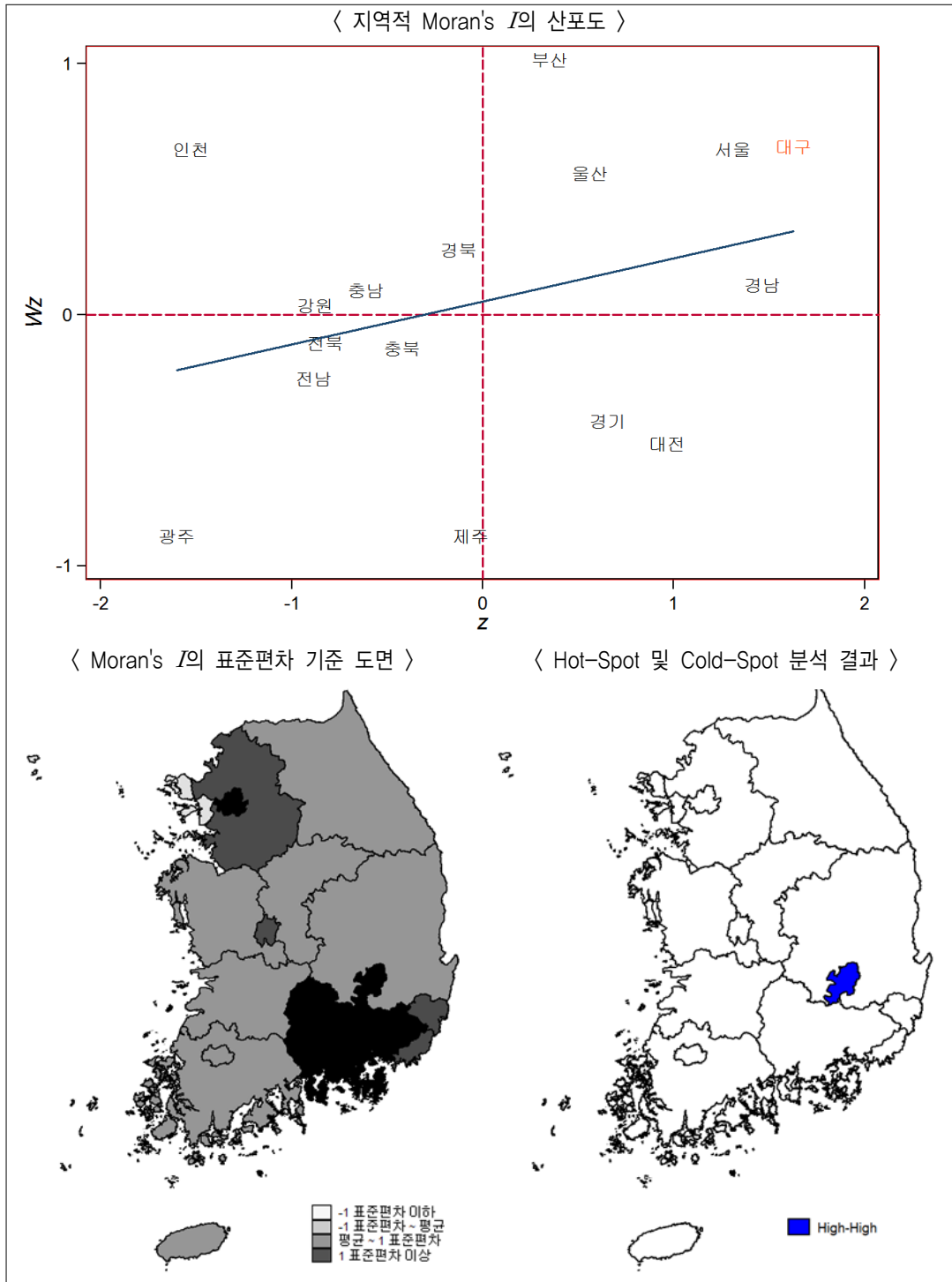


【그림 VII-20】 안전영역 내 범죄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안전영역에 대한 공간자기상관지수를 산출해보면 아래의 <표 VII-12>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가 대구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림 VII-21]의 지역별 Moran-I 값에 대한 산포도와 이를 도면으로 제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구의 안전지수는 104.3점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인접지역인 경남지역 역시 101.7점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경남의 경우 인접지역인 전라도 지역이나 부산, 울산, 경북 지역 등의 안전지수 값이 낮은 편이다. 이에 대구 지역만이 정적인 공간자기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VII-12 안전영역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096	서울	0.857
		부산	0.356
		대구	1.088*
		인천	-1.002
		광주	1.414
Geary' <i>C</i>	0.657	대전	-0.497
		울산	0.317
		경기	-0.279
		강원	-0.032
		충북	0.057
Getis & Ord's <i>G</i>	0.217	충남	-0.057
		전북	0.095
		전남	0.227
		경북	-0.032
		경남	0.172
		제주	0.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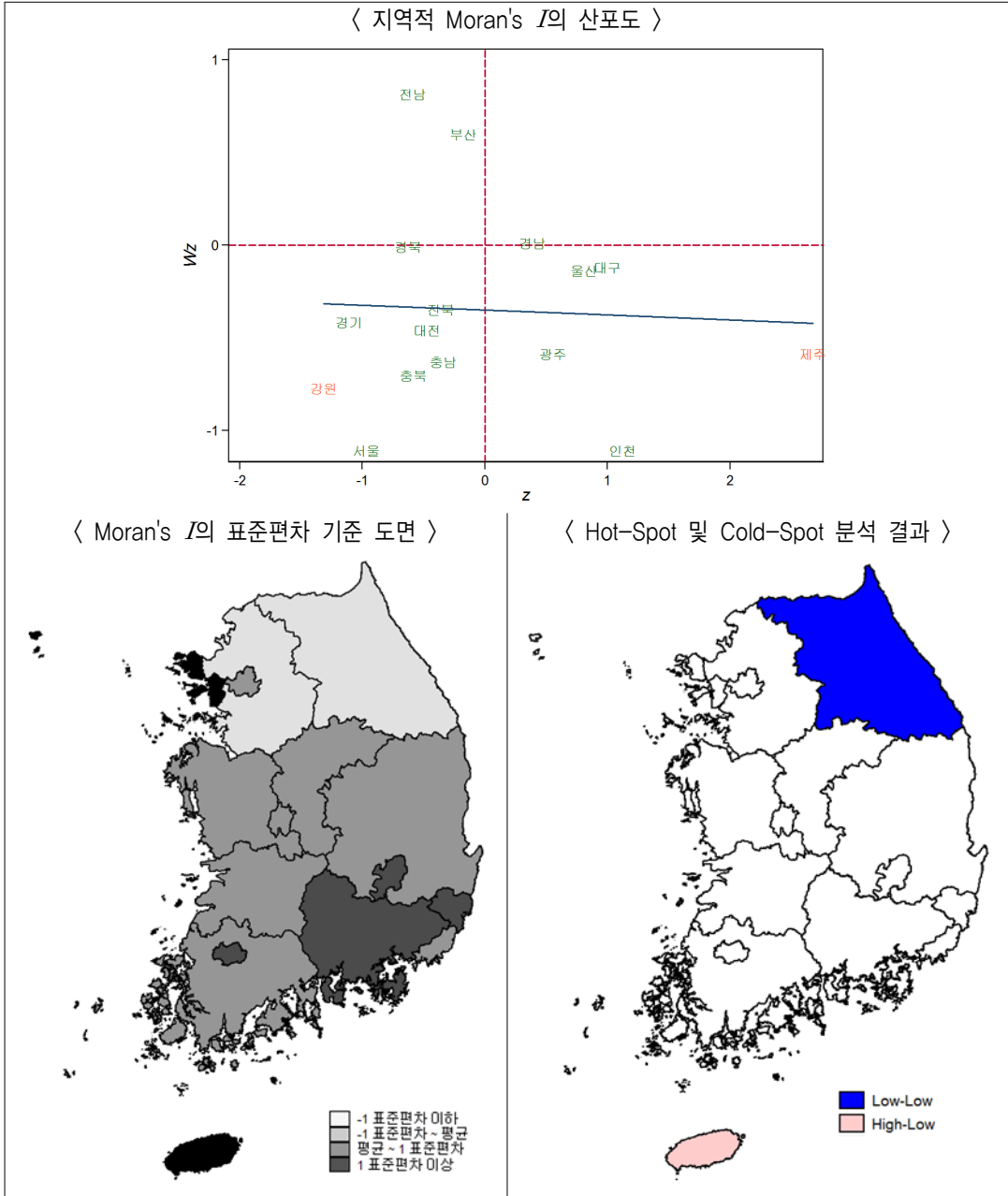
【그림 VII-21】 안전영역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4) 교육영역 및 영역 내 세부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 분석

교육영역은 크게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그리고 교육효과 등 3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교육영역의 세부지수 중 교육기회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VII-13>과 [그림 VII-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그것은 지역적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공간가중치를 부여한 제주도를 제외하고 강원도만이 긍정적인 공간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할 뿐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VII-13 교육영역 내 교육기회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097	서울	1.076
		부산	-0.104
		대구	-0.121
		인천	-1.247
		광주	-0.326
Geary' <i>C</i>	0.509*	대전	0.218
		울산	-0.112
		경기	0.463
		강원	1.019*
		충북	0.411
Getis & Ord's <i>G</i>	0.209*	충남	0.214
		전북	0.126
		전남	-0.479
		경북	0.007
		경남	0.003
		제주	-1.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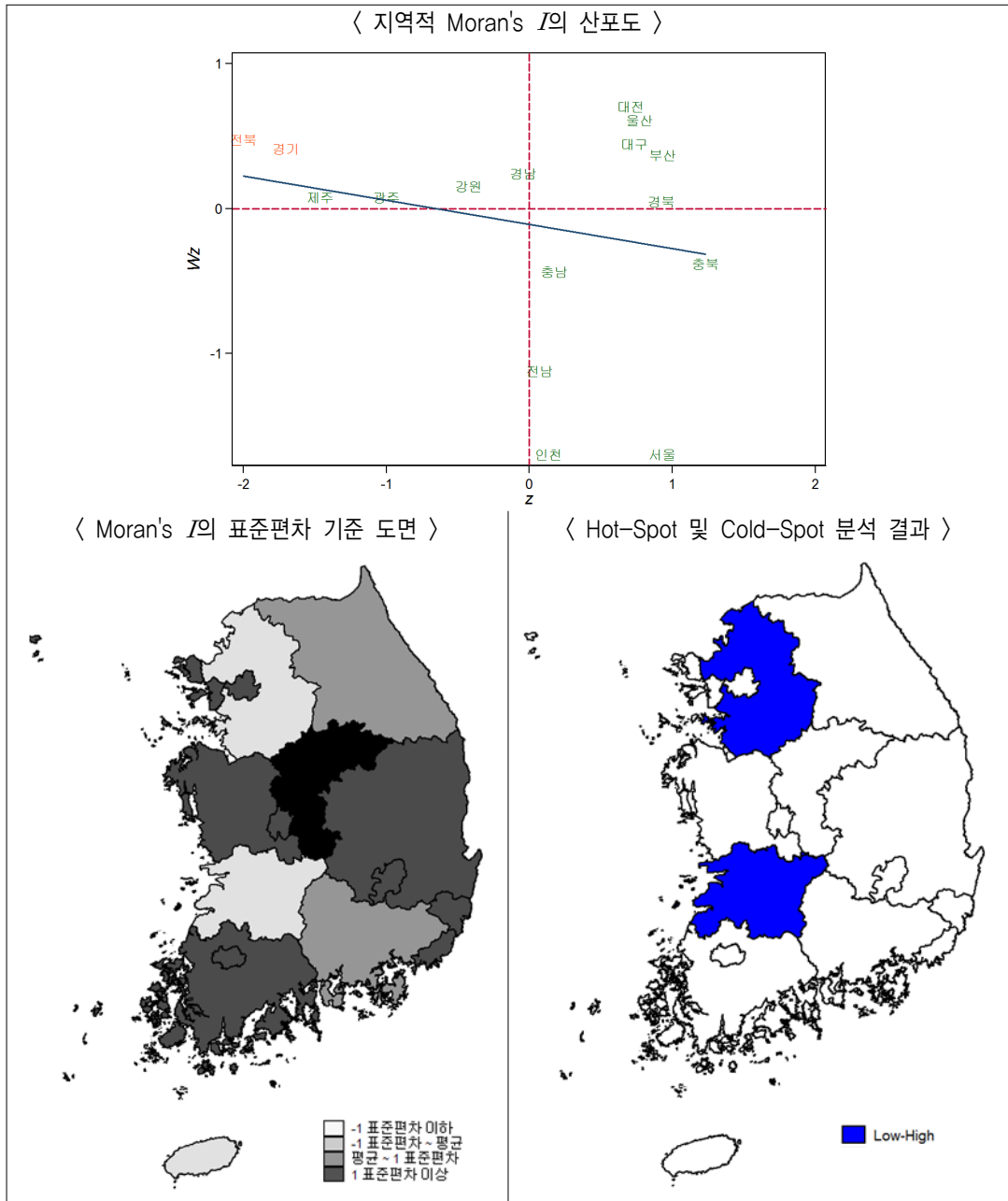


【그림 VII-22】 교육영역 내 교육기회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다음으로 교육영역의 세부지수 중 '교육의 조건과 과정' 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 VII-14>와 [그림 VII-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분석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적 공간자기상관지수에서는 경기와 전북 지역에서 부정적인 공간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경기와 전북 지역은 이들 지역의 인접지역들에 비해 '교육의 조건과 과정'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

표 VII-14 교육영역 내 교육의 조건과 과정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192	서울	-1.584
		부산	0.341
		대구	0.325
		인천	-0.231
		광주	0.074
Geary' <i>C</i>	1.243	대전	0.498
		울산	0.467
		경기	-0.698*
		강원	-0.064
		충북	-0.475
Getis & Ord's <i>G</i>	0.217	충남	-0.077
		전북	-0.946*
		전남	-0.083
		경북	0.043
		경남	-0.009
		제주	-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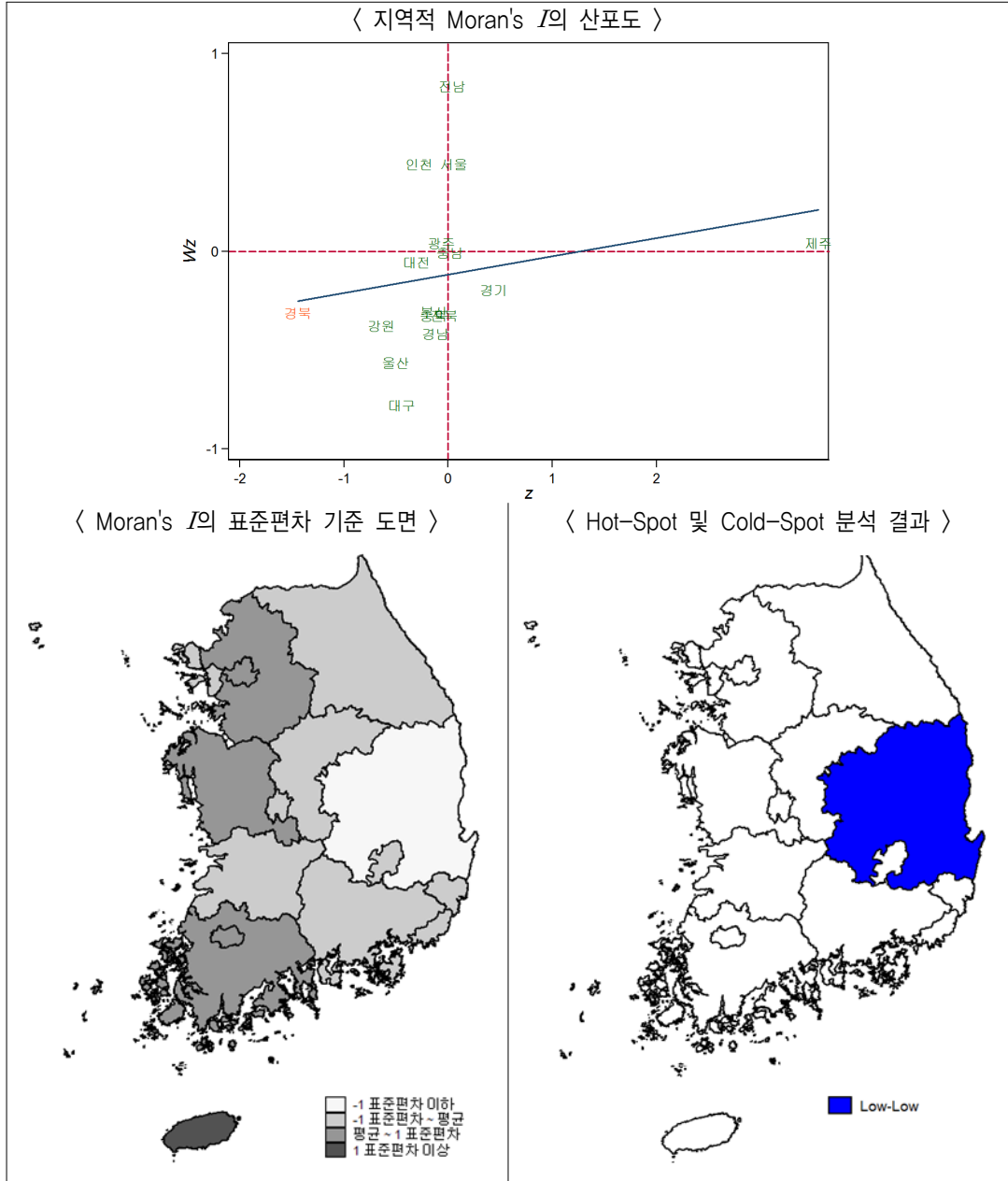


【그림 VII-23】 교육영역 내 교육의 조건과 과정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아래의 <표 VII-15>와 [그림 VII-24]는 교육영역의 세부지수 중 '교육효과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역적 공간자기상관분석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적 공간자기상관지수에서는 경북 지역에서 정적인 공간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북 지역은 교육효과 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인접 지역들 역시 함께 낮기 때문에 이 지역이 콜드스팟(cold-spot)으로 나타났다.

표 VII-15 교육영역 내 교육효과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105	서울	0.024
		부산	0.042
		대구	0.349
		인천	-0.123
		광주	-0.003
Geary' <i>C</i>	0.424	대전	0.018
		울산	0.283
		경기	-0.087
		강원	0.244
		충북	0.045
Getis & Ord's <i>G</i>	0.211	충남	-0.000
		전북	0.012
		전남	0.033
		경북	0.452*
		경남	0.050
		제주	0.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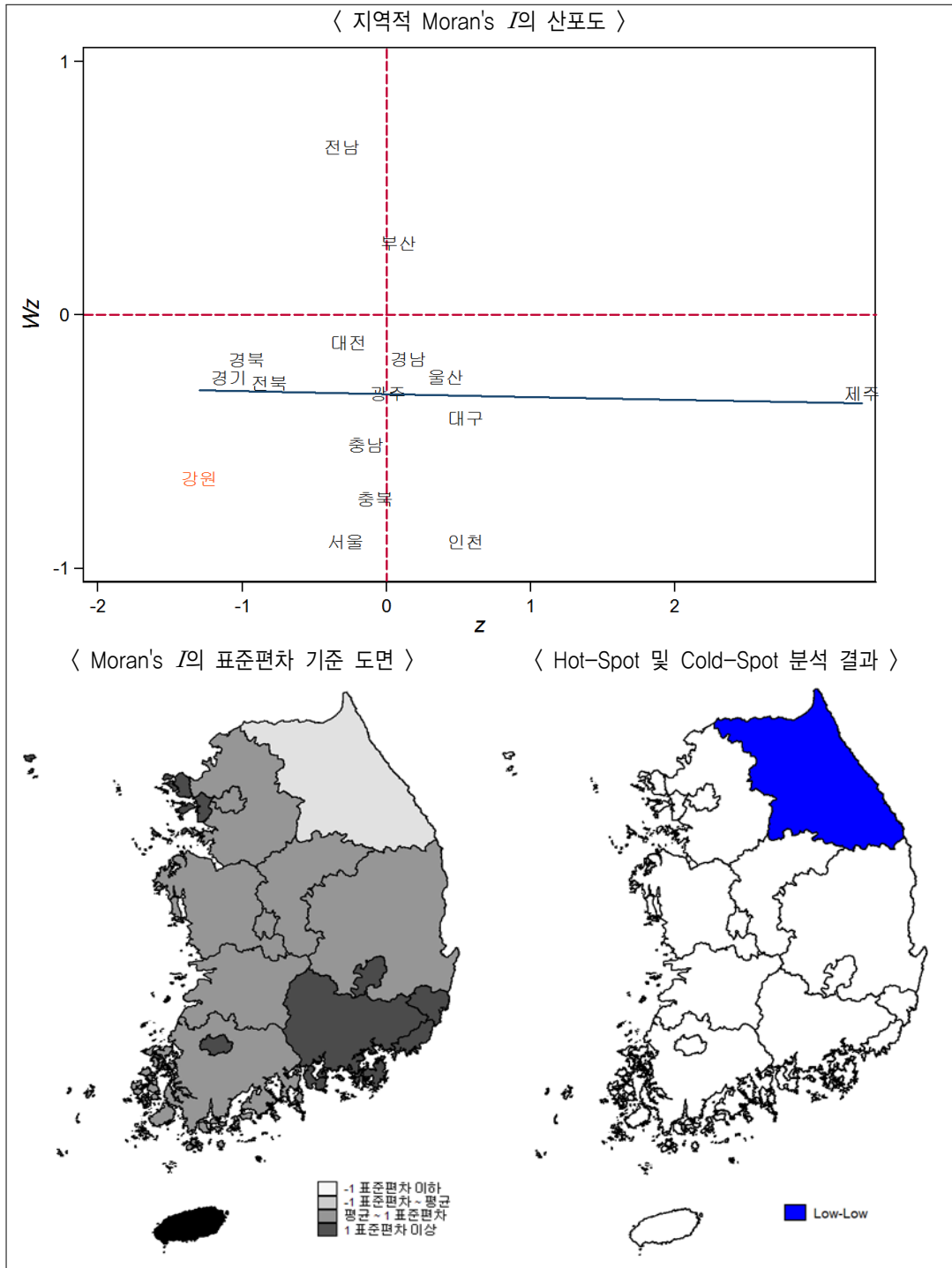
【그림 VII-24】 교육영역 내 교육효과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교육영역 전체에 대한 공간자기상관지수를 산출한 결과 아래의 <표 VII-16>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지역적 공간자기상관의 경우 강원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림 VII-25]의 결과를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교육지수가 94.8점으로 낮은 편이고, 인접 지역인 경기도(96.4점), 충북(99.7점), 경북(96.1점) 역시 교육지수가 낮은 편이다. 결국 강원도의 교육지수와 인접지역의 교육지수 모두가 낮기 때문에 정적인 자기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며, 이 지역이 콜드스팟(cold-spot)에 해당된다.

표 VII-16 교육영역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068	서울	0.254
		부산	0.023
		대구	-0.223
		인천	-0.492
		광주	-0.003
Geary' <i>C</i>	0.497	대전	0.029
		울산	-0.101
		경기	0.224
		강원	0.838*
		충북	0.057
Getis & Ord's <i>G</i>	0.212*	충남	0.072
		전북	0.219
		전남	-0.204
		경북	0.173
		경남	-0.027
		제주	-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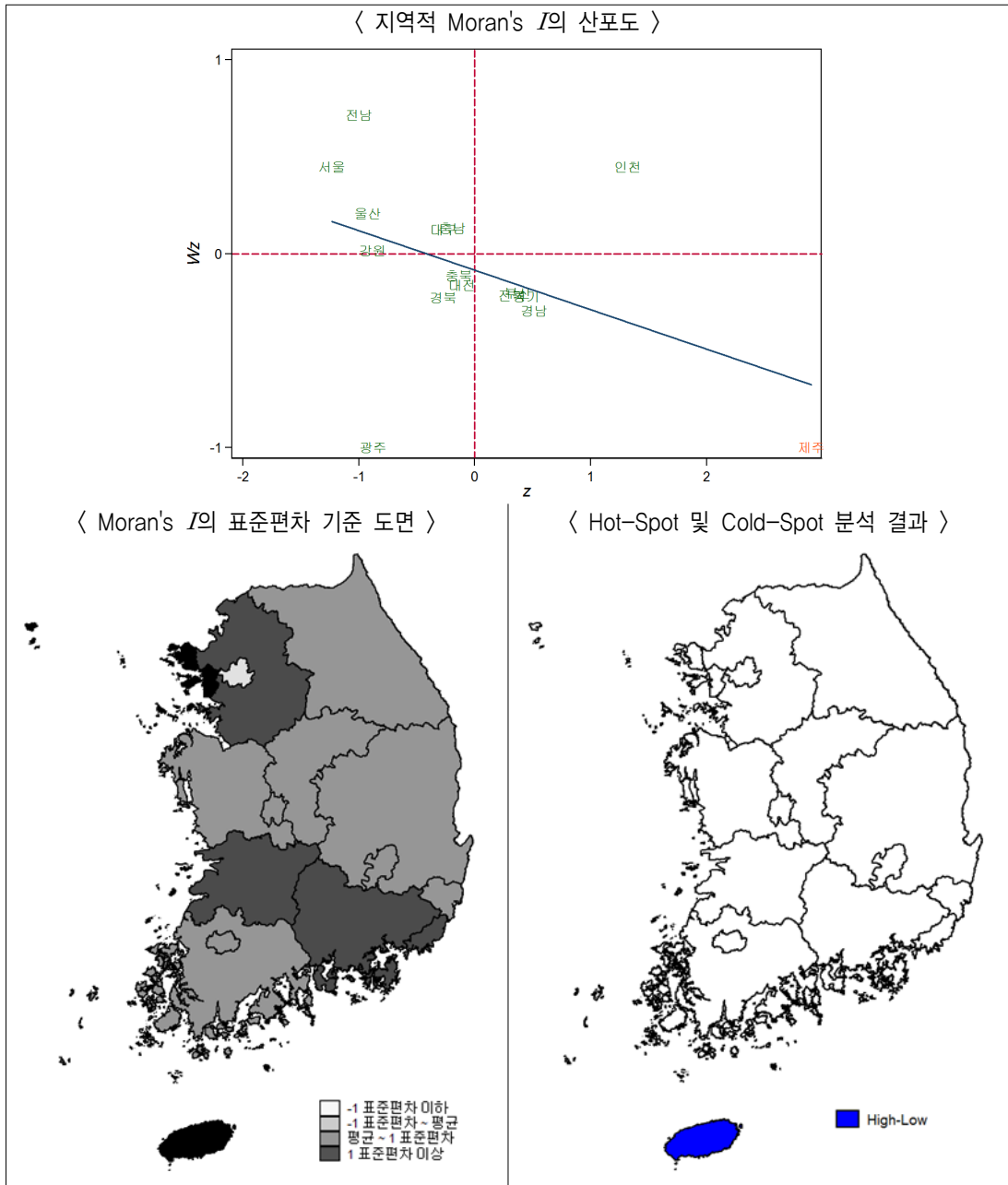
【그림 VII-25】 교육영역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5) 관계영역 및 영역 내 세부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 분석

관계영역은 크게 미시체계와 중간체계로 구성된다. 먼저, 관계영역의 세부지수 중 미시체계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 결과, 아래의 <표 VII-17>과 [그림 VII-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역적, 그리고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주지역에서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된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접지역 임의 설정의 문제로 의미 있게 해석하지 않음을 재차 밝힌다.

표 VII-17 관계영역 내 미시체계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135	서울	-0.551
		부산	-0.076
		대구	-0.033
		인천	0.592
		광주	0.874
Geary's <i>C</i>	0.588	대전	0.017
		울산	-0.190
		경기	-0.100
		강원	-0.013
		충북	0.015
Getis & Ord's <i>G</i> *	0.215	충남	-0.025
		전북	-0.069
		전남	-0.715
		경북	0.062
		경남	-0.152
		제주	-2.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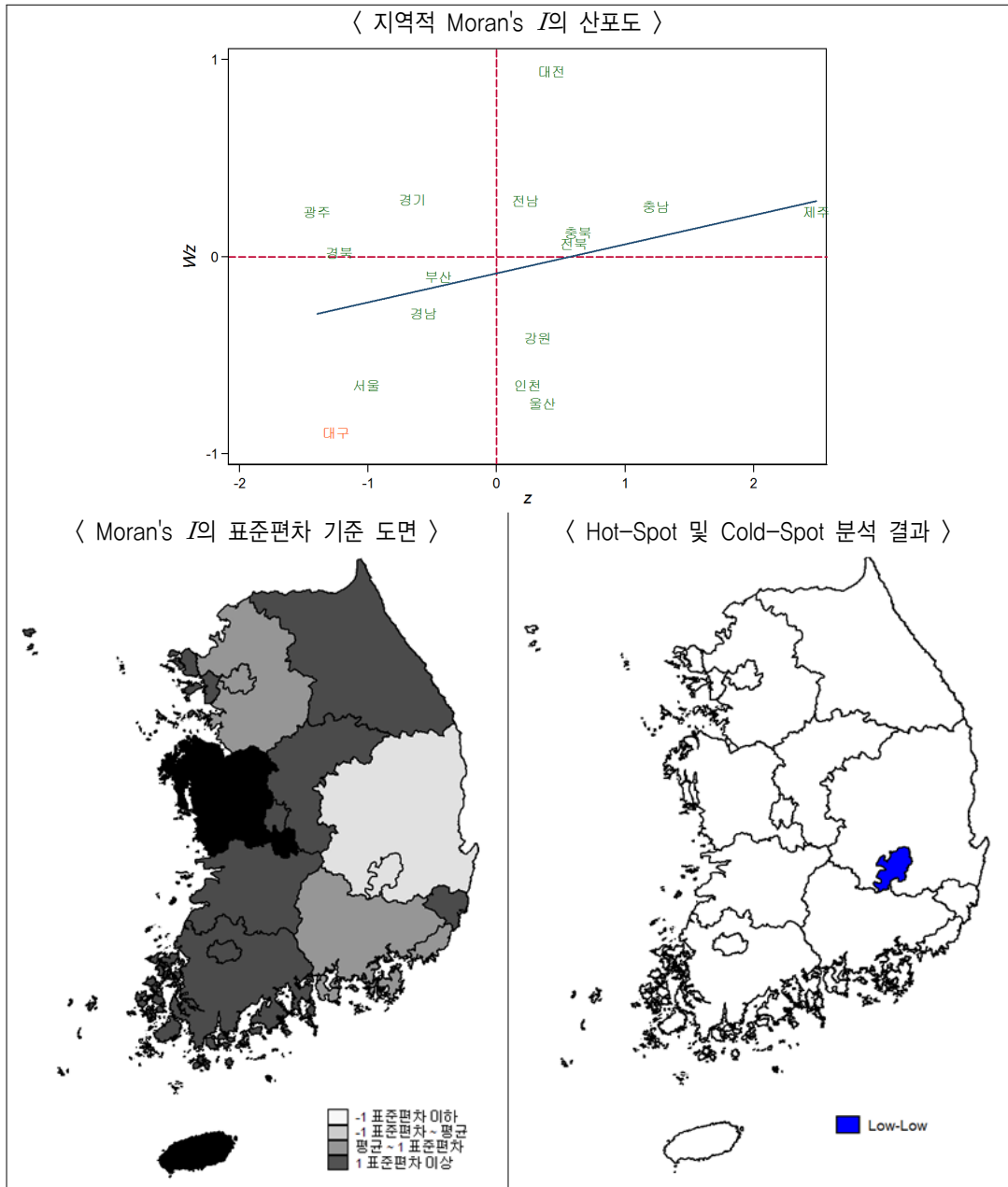


【그림 VII-26】 관계영역 내 미시체계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다음으로 관계영역의 세부지수 중 중간체계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 VII-18>과 [그림 VII-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대구지역에서 정적인 공간자기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의 경우 중간체계지수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인접지역인 경북 역시 낮기 때문에 이 지역이 콜드스팟(cold-spot)이 된다.

표 VII-18 관계영역 내 중간체계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091	서울	0.661
		부산	0.047
		대구	1.118*
		인천	-0.160
		광주	-0.315
Geary' <i>C</i>	0.590	대전	0.401
		울산	-0.268
		경기	-0.188
		강원	-0.134
		충북	0.076
Getis & Ord's <i>G</i>	0.216	충남	0.315
		전북	0.038
		전남	0.064
		경북	-0.021
		경남	0.164
		제주	0.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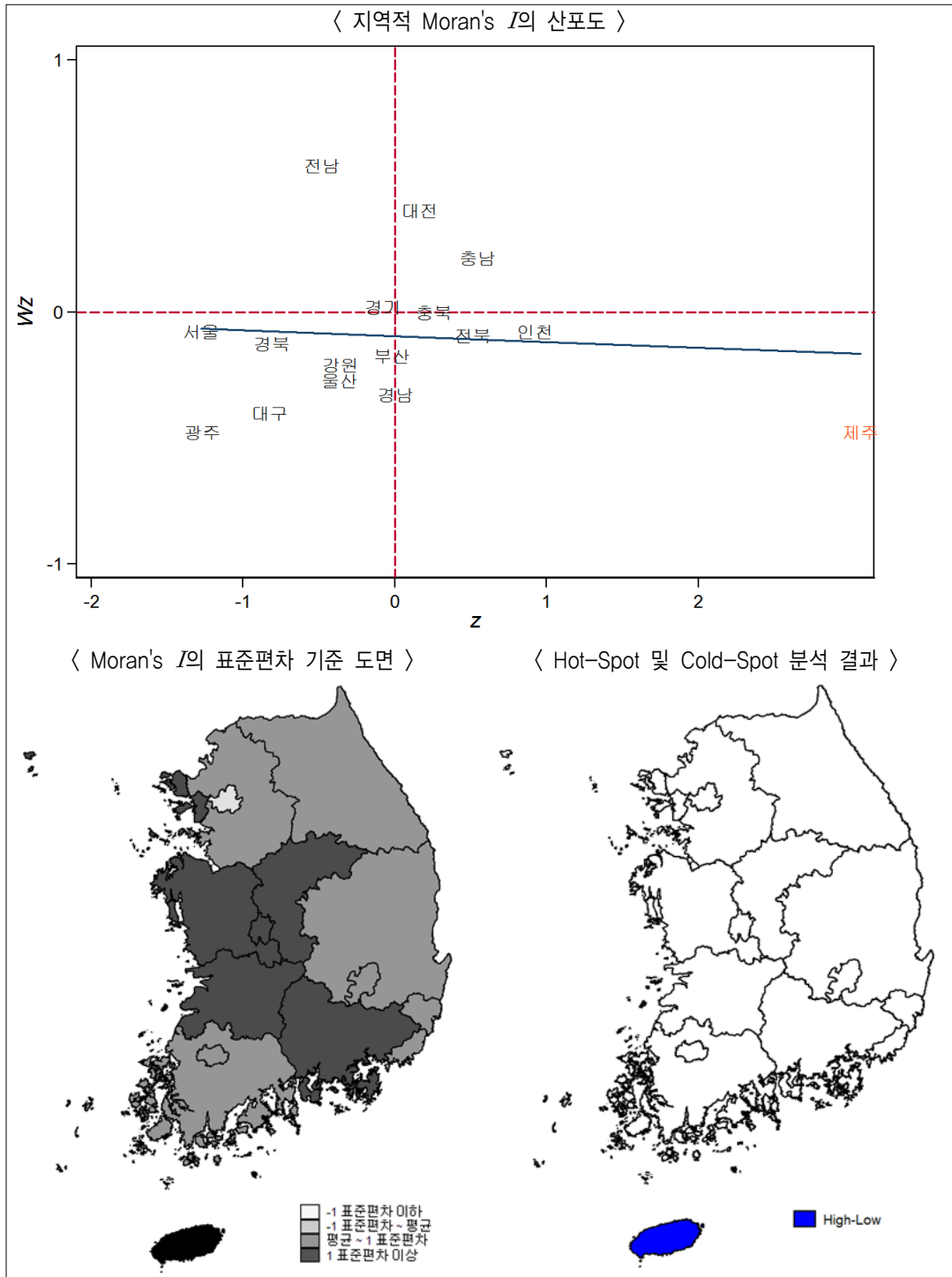


【그림 VII-27】 관계영역 내 중간체계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아래의 <표 VII-19>와 [그림 VII-28]은 관계영역 전체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제주도의 경우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도의 인접지역으로 전남을 임의적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은 하지 않기로 한다.

표 VII-19 관계영역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	0.004	서울	0.101
		부산	0.003
		대구	0.333
		인천	-0.073
		광주	0.609
Geary's C	0.421	대전	0.066
		울산	0.099
		경기	-0.001
		강원	0.076
		충북	-0.001
Getis & Ord's G^*	0.216	충남	0.117
		전북	-0.049
		전남	-0.278
		경북	0.104
		경남	-0.003
		제주	-1.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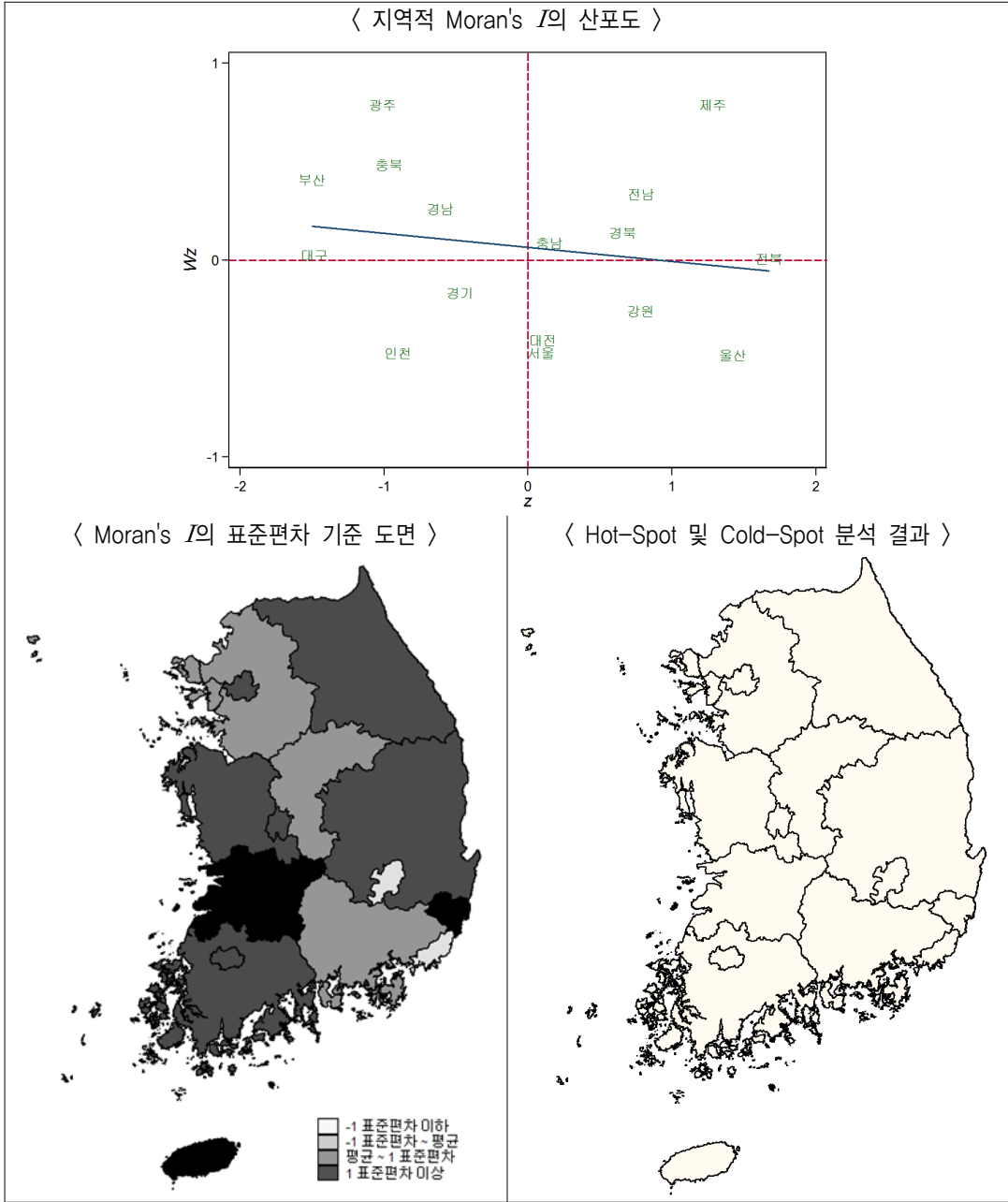
【그림 VII-28】 관계영역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6) 활동영역 및 영역 내 세부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 분석

활동영역은 크게 활동상태, 활동기반 및 활동인식 등 3개의 세부지수로 구성된다. 먼저, 활동영역의 세부지수 중 활동상태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 VII-20>과 [그림 VII-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역적 또는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II-20 활동영역 내 활동상태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099	서울	-0.043
		부산	-0.610
		대구	-0.035
		인천	0.426
		광주	-0.795
Geary' <i>C</i>	0.966	대전	-0.041
		울산	-0.689
		경기	0.080
		강원	-0.204
		충북	-0.465
Getis & Ord's <i>G</i>	0.218	충남	0.013
		전북	0.006
		전남	0.263
		경북	0.090
		경남	-0.158
		제주	1.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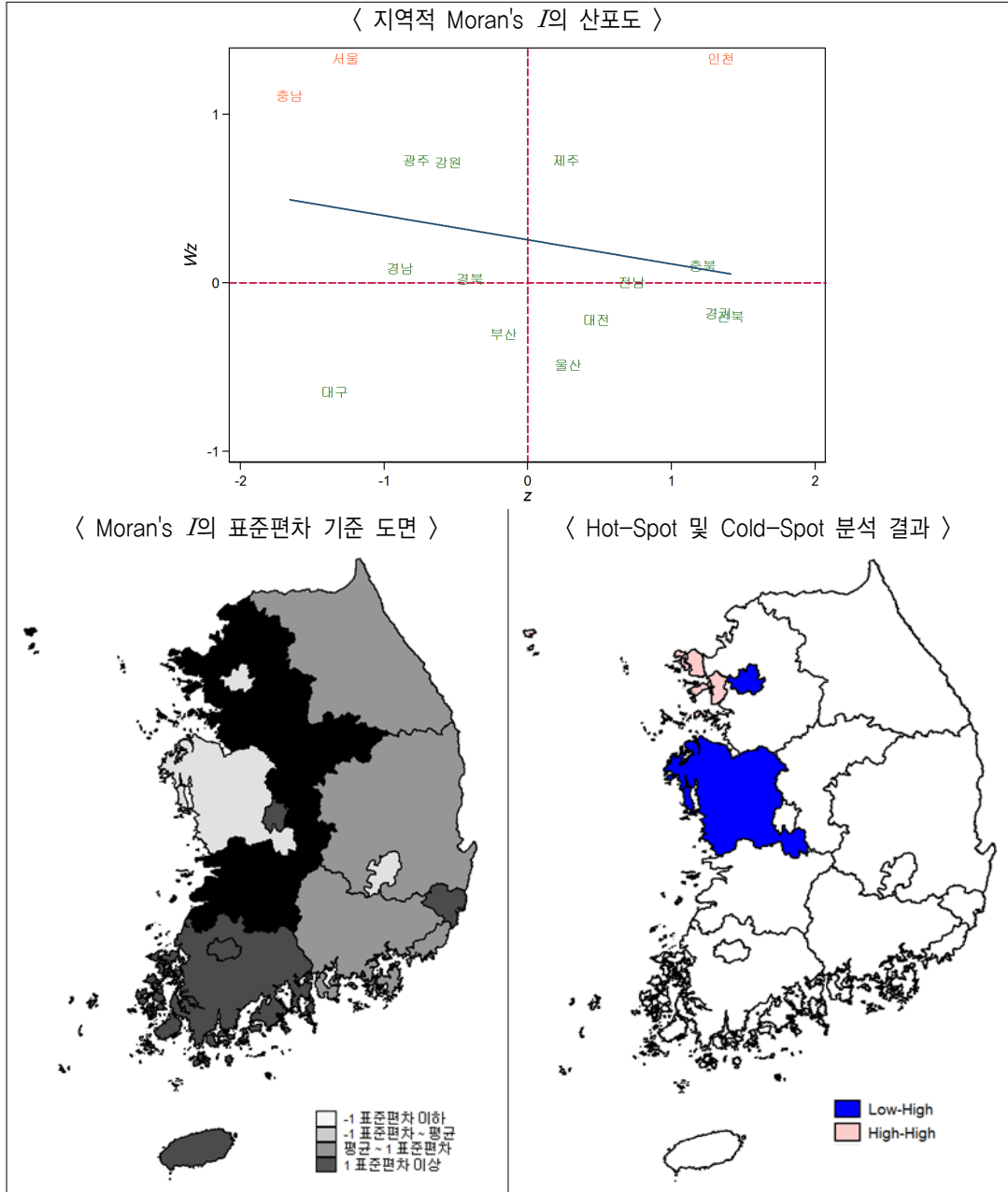


【그림 Ⅶ-29】 활동영역 내 활동상태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다음으로 활동영역의 세부지수 중 활동기반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 VII-21>과 [그림 VII-3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록 전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는 존재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서울과 충남은 부정적인 공간자기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인천은 긍정적인 공간자기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과 충남은 인근지역에 비해 활동기반지수가 낮은 편이나, 인천의 경우 인접지역인 경기도의 활동기반지수도 높으면서 인천 역시 높아 이 지역이 핫스팟(hot-spot)으로 나타났다.

표 VII-21 활동영역 내 활동기반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192	서울	-1.684*
		부산	0.050
		대구	0.869
		인천	1.788*
		광주	-0.562
Geary's <i>C</i>	1.187	대전	-0.104
		울산	-0.137
		경기	-0.243
		강원	-0.396
		충북	0.122
Getis & Ord's <i>G</i> *	0.219	충남	-1.836***
		전북	-0.284
		전남	0.003
		경북	-0.008
		경남	-0.075
		제주	0.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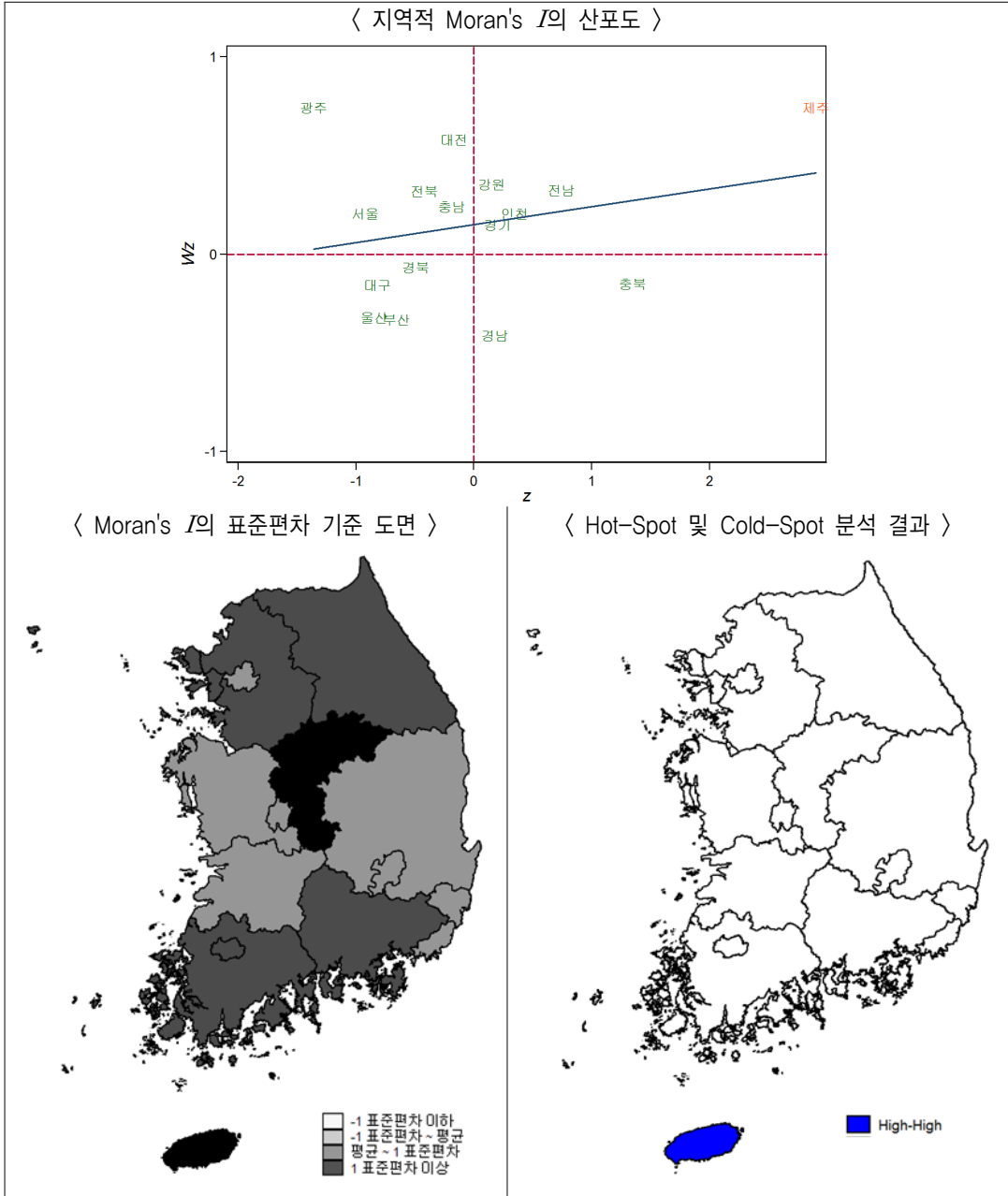


【그림 Ⅶ-30】 활동영역 내 활동기반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아래의 <표 VII-22>와 [그림 VII-31]은 활동영역의 세부지수 중 활동인식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공간가중치를 임의적으로 설정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역적 또는 지역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간자기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2 활동영역 내 활동인식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025	서울	-0.187
		부산	0.218
		대구	0.129
		인천	0.071
		광주	-1.010
Geary' <i>C</i>	0.548	대전	-0.097
		울산	0.273
		경기	0.030
		강원	0.053
		충북	-0.206
Getis & Ord's <i>G</i>	0.218	충남	-0.045
		전북	-0.134
		전남	0.241
		경북	0.034
		경남	-0.074
		제주	2.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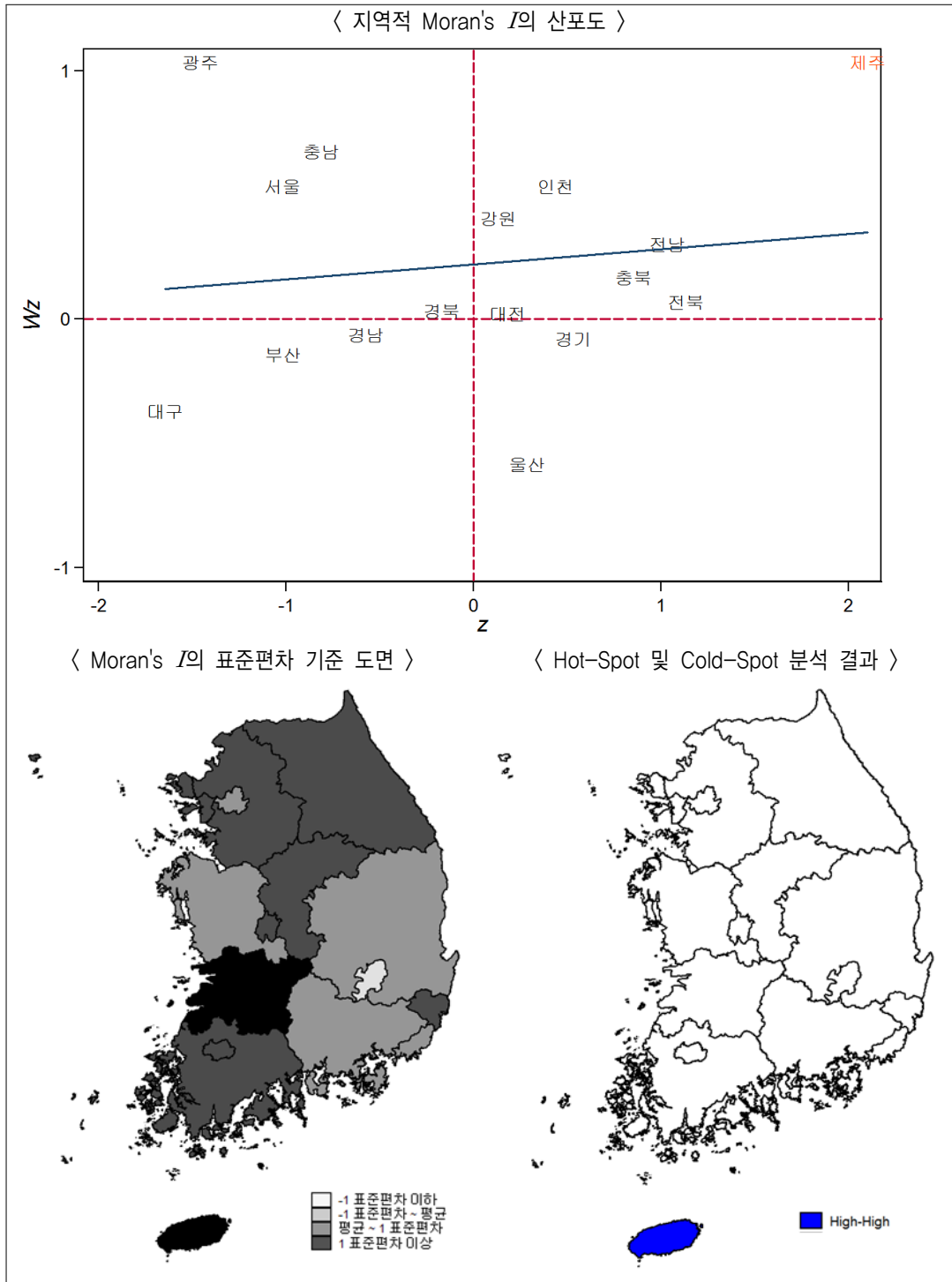


【그림 VII-31】 활동영역 내 활동인식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그리고 <표 VII-23>과 [그림 VII-32]는 활동영역 전체의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관계영역 전체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록 제주도의 경우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도의 인접지역으로 전남을 임의적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해석 역시 생략하기로 한다.

표 VII-23 활동영역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034	서울	-0.543
		부산	0.146
		대구	0.612
		인천	0.234
		광주	-1.501
Geary's <i>C</i>	0.632	대전	0.004
		울산	-0.168
		경기	-0.043
		강원	0.054
		충북	0.142
Getis & Ord's <i>G</i> *	0.218	충남	-0.547
		전북	0.075
		전남	0.310
		경북	-0.005
		경남	0.036
		제주	2.167**



【그림 VII-32】 활동영역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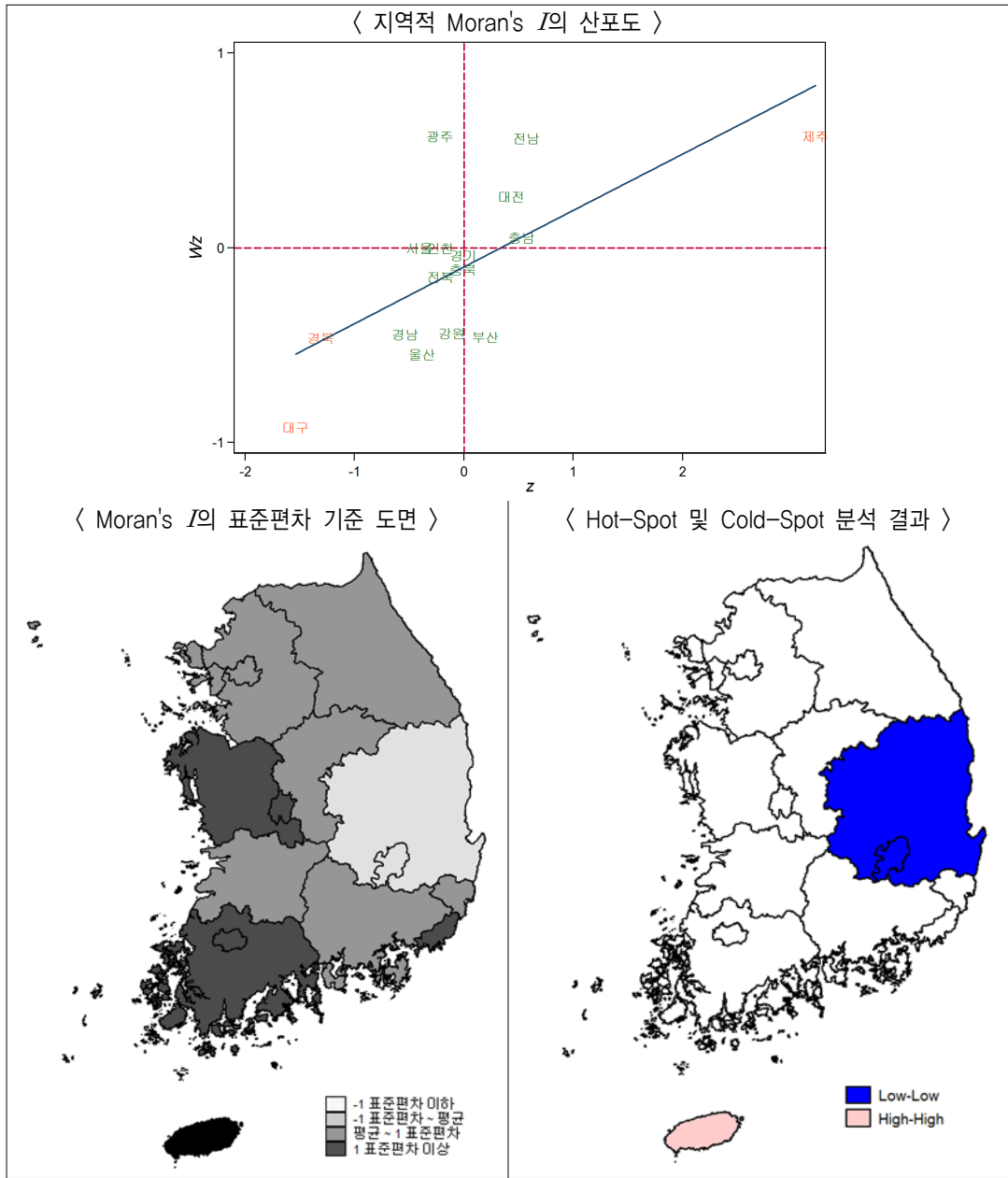
(7) 참여영역 및 영역 내 세부지표수 대한 공간자기상관 분석

참여영역은 크게 참여결정요인, 관용성, 역능성 그리고 사회참여 등 4개의 세부지수로 구성된다. 먼저, 참여영역의 세부지수 중 참여결정요인 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결과, 아래의 <표 VII-24>와 [그림 VII-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 및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도를 제외하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정적인 공간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지역은 인근 지역의 참여결정요인 지수가 낮은 편이면서 자신들 역시 해당 지수 또한 낮은 콜드스팟(cold-spot)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VII-24 참여영역 내 참여결정요인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231*	서울	0.001
		부산	-0.091
		대구	1.421**
		인천	0.001
		광주	-0.124
Geary' <i>C</i>	0.341	대전	0.113
		울산	0.210
		경기	0.000
		강원	0.048
		충북	0.001
Getis & Ord's <i>G</i>	0.213	충남	0.027
		전북	0.033
		전남	0.320
		경북	0.609*
		경남	0.239
		제주	1.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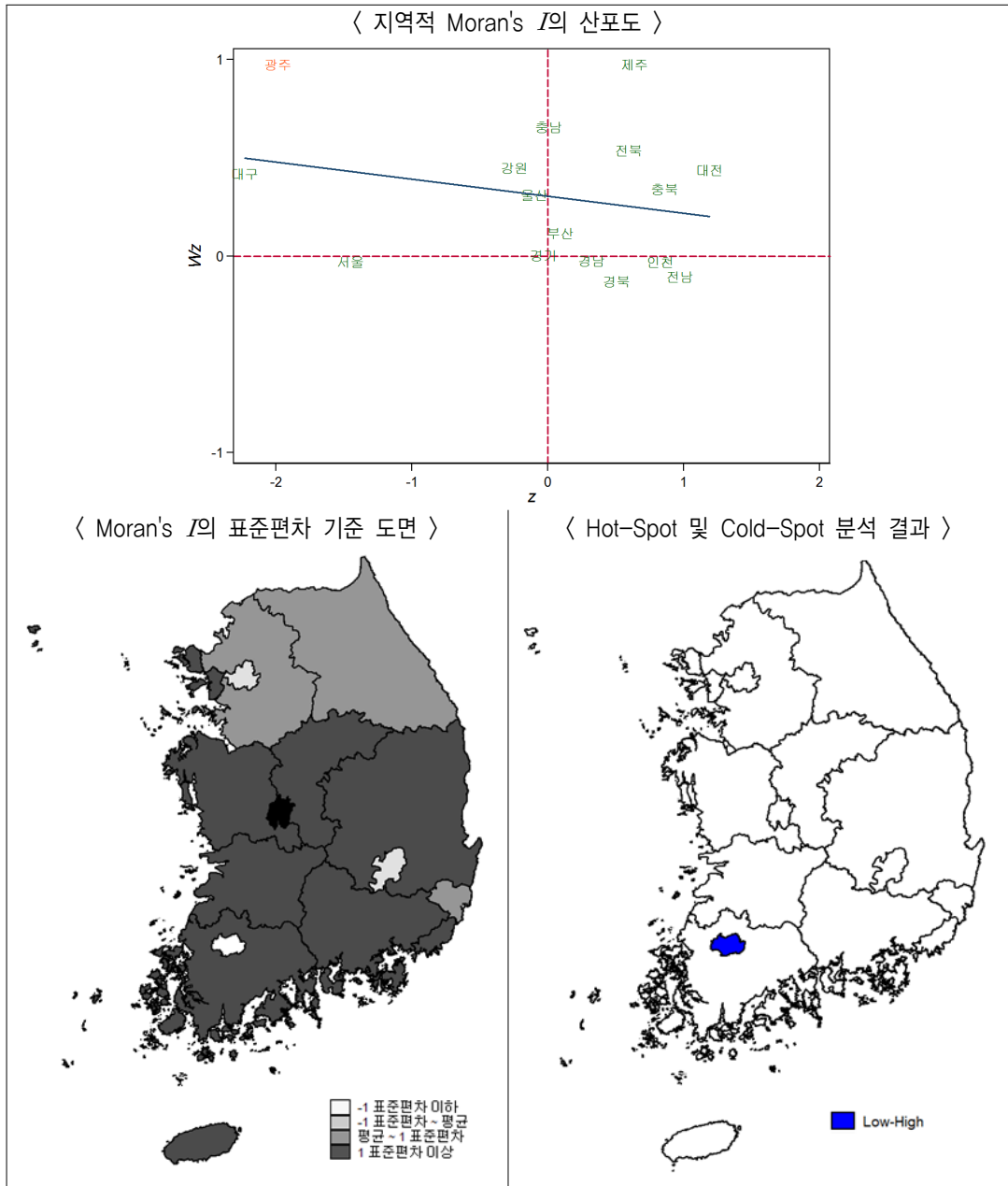


【그림 VII-33】 참여영역 내 참여결정요인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다음으로 참여영역의 세부지수 중 관용성 지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 VII-25>와 [그림 VII-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광주지역의 경우 인접 지역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공간자기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광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관용성 지수가 낮은 편이지만, 인근 전남 지역은 관용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VII-25 참여영역 내 관용성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000	서울	0.044
		부산	0.011
		대구	-0.928
		인천	-0.025
		광주	-1.929*
Geary' <i>C</i>	0.583	대전	0.520
		울산	-0.030
		경기	-0.000
		강원	-0.110
		충북	0.292
Getis & Ord's <i>G</i>	0.222	충남	0.006
		전북	0.320
		전남	-0.102
		경북	-0.066
		경남	-0.008
		제주	0.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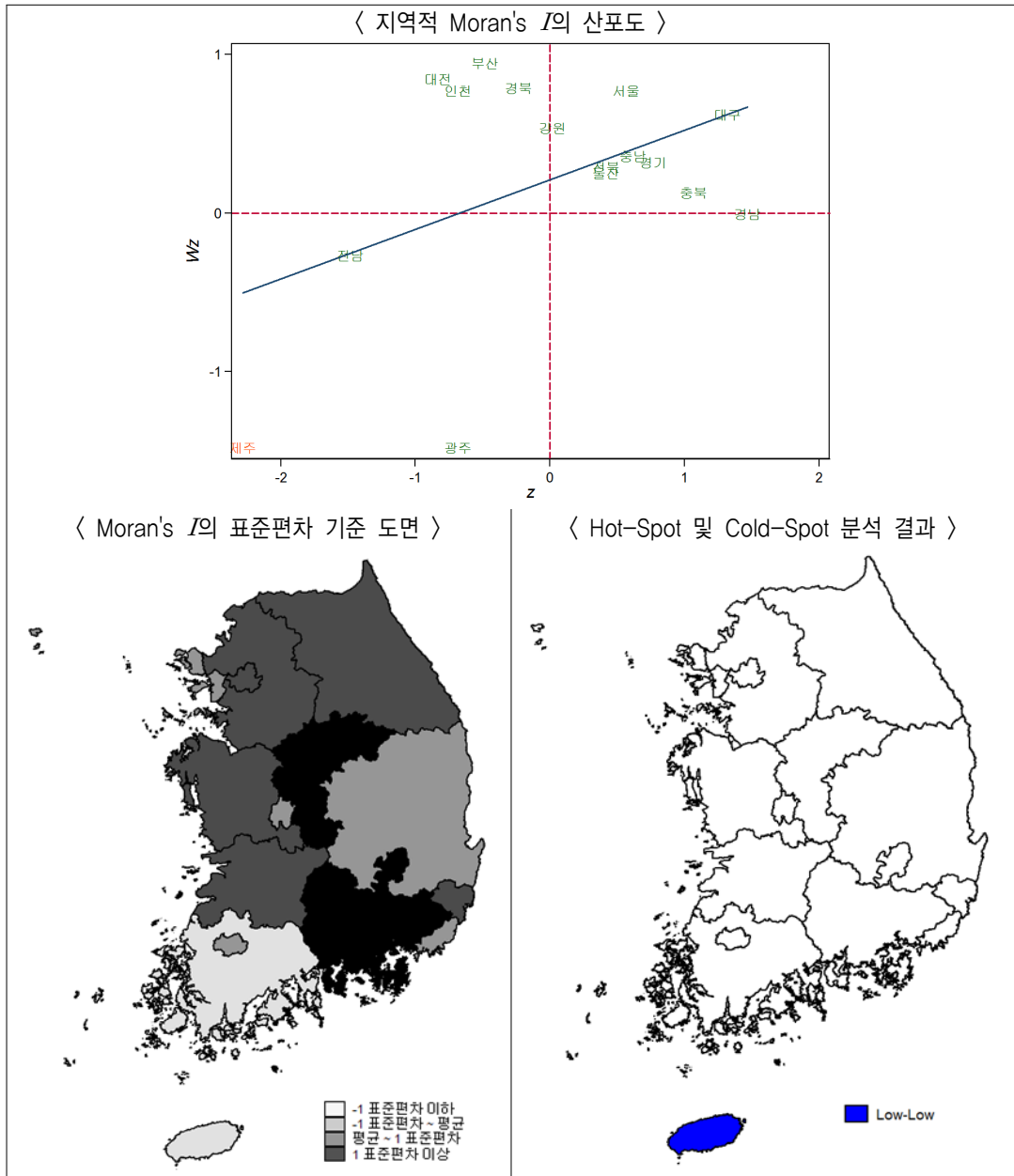


【그림 VII-34】 참여영역 내 관용성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다음으로 참여영역의 세부지수 중 역능성 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래의 <표 VII-26>과 [그림 VII-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간가중치를 임의적으로 부여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과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6 참여영역 내 역능성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153	서울	0.438
		부산	-0.454
		대구	0.817
		인천	-0.524
		광주	1.010
Geary's <i>C</i>	0.697	대전	-0.702
		울산	0.106
		경기	0.245
		강원	0.010
		충북	0.136
Getis & Ord's <i>G</i>	0.229	충남	0.221
		전북	0.121
		전남	0.398
		경북	-0.182
		경남	-0.009
		제주	3.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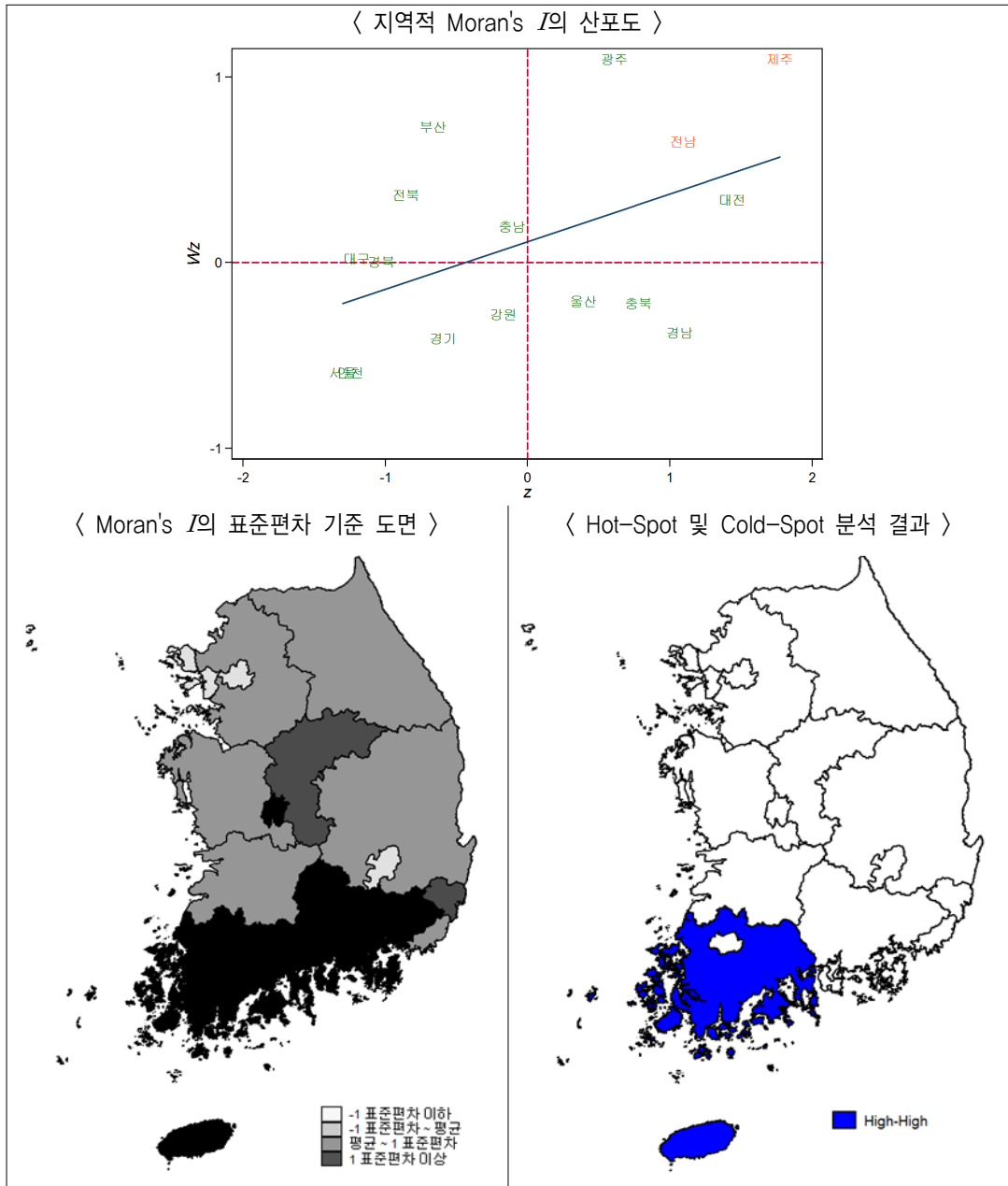


【그림 Ⅶ-35】 참여영역 내 역능성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다음으로 참여영역의 세부지수 중 사회참여 지수에 대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 VII-27>과 [그림 VII-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간가중치를 임의적으로 부여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남 지역에서 긍정적인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지역인 경남의 사회참여 지수가 높은 편인데, 전남 역시 사회참여 지수가 높기 때문에 핫스팟(hot-spot) 지역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VII-27 참여영역 내 사회참여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056	서울	0.770
		부산	-0.486
		대구	-0.026
		인천	0.739
		광주	0.669
Geary' <i>C</i>	0.710	대전	0.485
		울산	-0.081
		경기	0.242
		강원	0.047
		충북	-0.171
Getis & Ord's <i>G</i>	0.217	충남	-0.021
		전북	-0.310
		전남	0.712*
		경북	-0.003
		경남	-0.403
		제주	1.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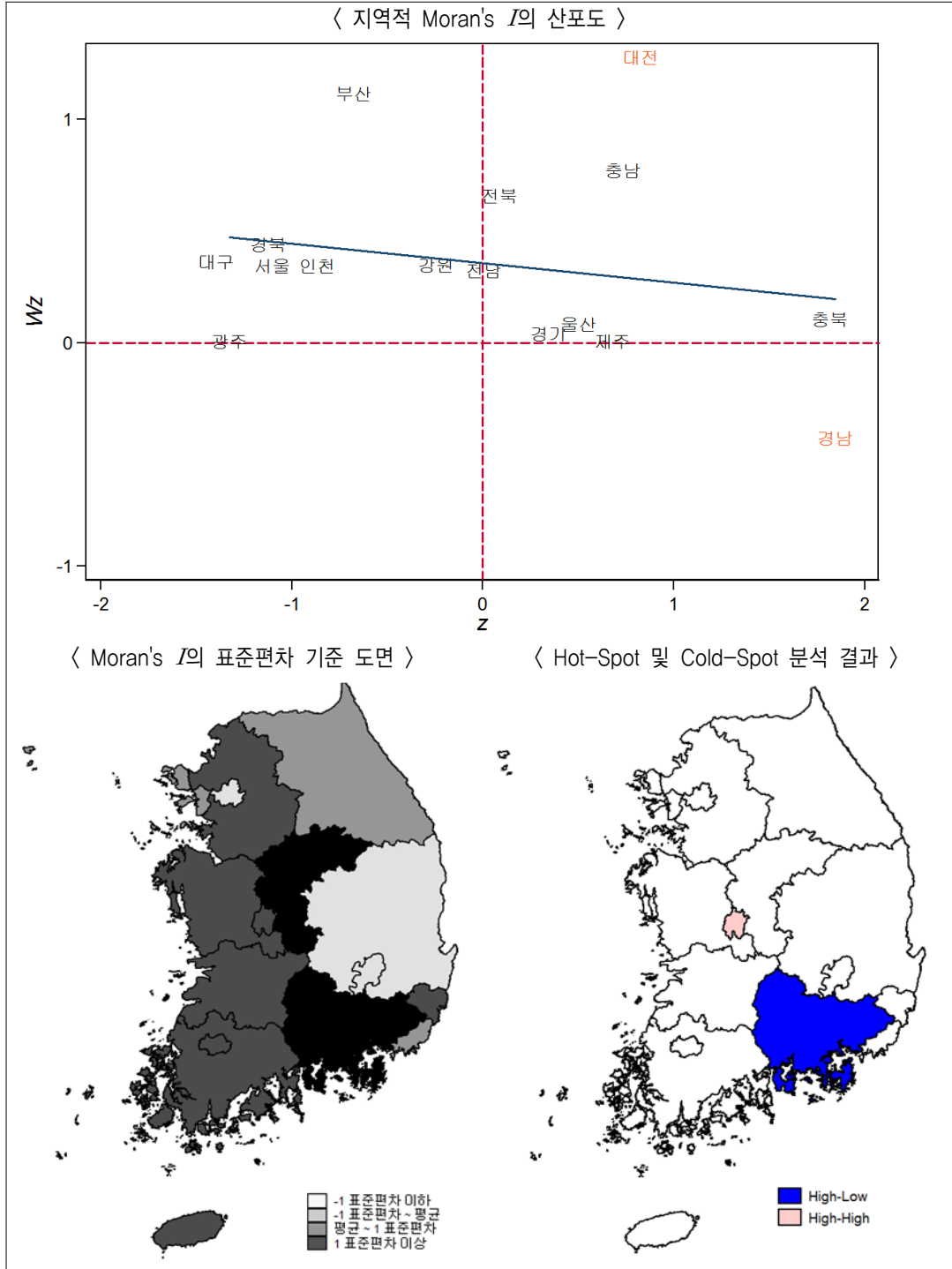
【그림 VII-36】 참여영역 내 사회참여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다음의 <표 VII-28>과 [그림 VII-37]은 참여영역 전체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앞서 관계영역과 활동 영역과는 달리 공간적 자기상관계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먼저,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지수를 보면 Getis & Ord의 G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두 전역적 지수값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는 달리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는 대전과 경남 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VII-17]을 살펴보면, 대전지역의 참여지수는 1022점으로 높은 편이며, 이와 인접한 충북지역 역시 104.9점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충북 인접 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경북 지역 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대전 지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공간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여 대전이 참여영역에 있어 핫스팟(hot-spot)이 된다. 한편 경남지역의 경우 참여지수가 105.0점으로 가장 높으나, 인접 지역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등의 참여영역지수는 낮은 편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공간자기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II-28 참여영역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	-0.100	서울	-0.378
		부산	-0.751
		대구	-0.451
		인천	-0.347
		광주	-0.008
Geary' C	1.195	대전	1.059*
		울산	0.006
		경기	0.014
		강원	-0.085
		충북	0.191
Getis & Ord's G	0.220*	충남	0.567
		전북	0.058
		전남	0.002
		경북	-0.494
		경남	-0.791*
		제주	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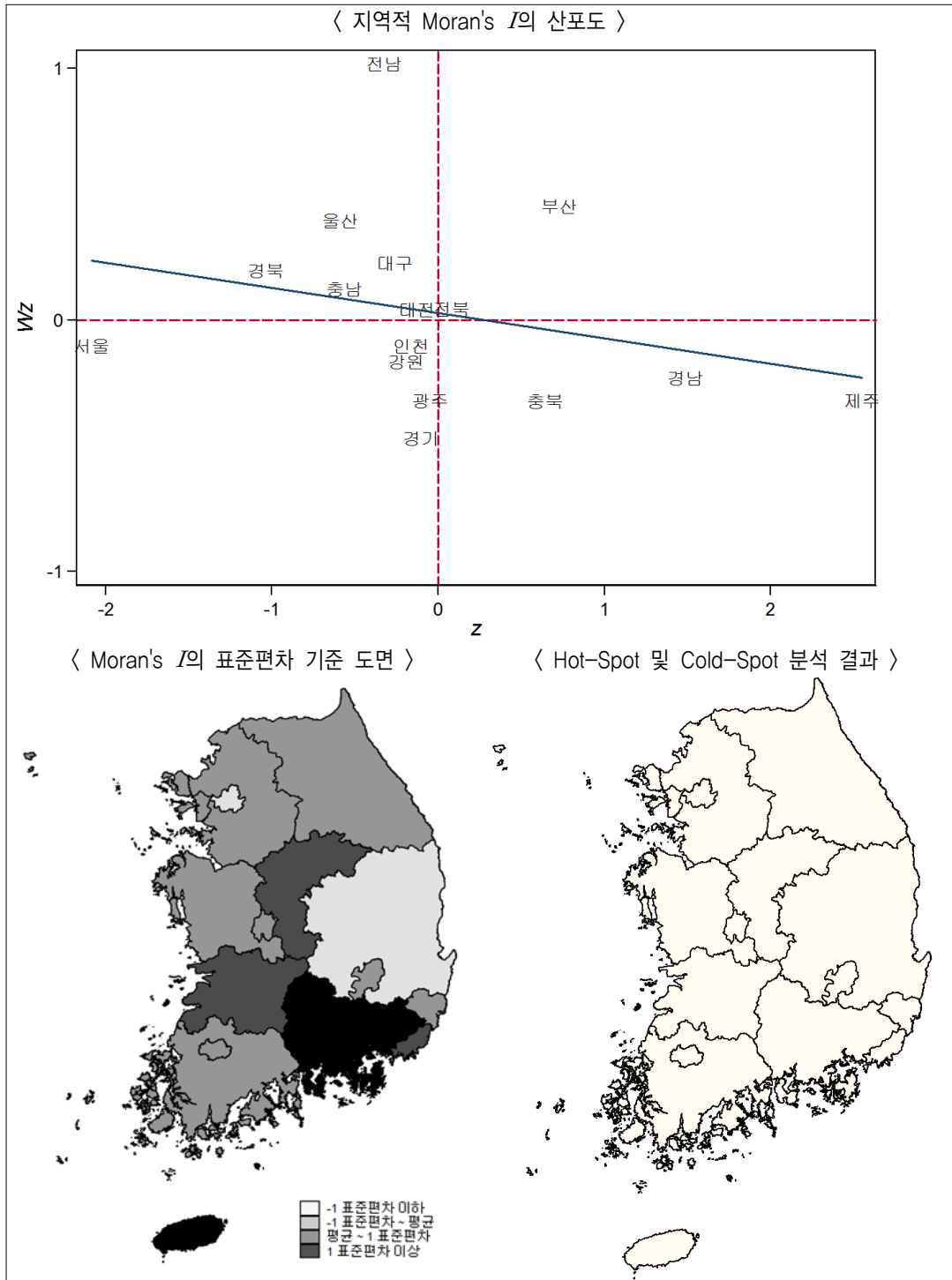
【그림 VII-37】 참여영역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8) 주관적 웰빙영역에 대한 공간자기상관 분석

주관적 웰빙영역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을 아래의 <표 VII-29>와 [그림 VII-38]과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나 지역적 공간자기상관관계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9 주관적 웰빙영역 지수의 공간자기상관지수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지수			
전역적 지수(Global index)		지역적 지수(local index)	
Moran's <i>I</i>	-0.125	서울	0.215
		부산	0.329
		대구	-0.059
		인천	0.017
		광주	0.015
Geary' <i>C</i>	0.788	대전	-0.005
		울산	-0.231
		경기	0.049
		강원	0.032
		충북	-0.209
Getis & Ord's <i>G</i>	0.217	충남	-0.069
		전북	0.003
		전남	-0.327
		경북	-0.203
		경남	-0.346
		제주	-0.820



【그림 VII-38】 주관적 웰빙영역 지수에 대한 지역적 Moran's I 의 산포도 및 Hot-Spot/Cold-Spot 분석

3. 종합지수에 대한 영역지수의 지역별 영향력 차이 분석

앞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을 진단하는 종합지수와 영역별 지수에 대해 지역자료가 갖는 속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공간가중상관지수를 산출하고 지역별로 인접지역과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산출된 8개 영역지수가 종합지수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역별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간가중회귀모델(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이하 GWR)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실증분석을 위하여 공간가중회귀모델 분석에 앞서, 8개 영역지수와 종합지수와 상관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간가중상관계수(Geographically Weighted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파악하고, 상관정도가 높은(0.7이상) 4개 영역(교육, 관계, 참여, 웰빙) 지수가 종합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와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1) 공간가중상관(Geographically Weighted Correlation) 분석

아래의 <표 VII-30>은 본격적인 공간가중회귀 분석에 앞서 종합지수와 각 영역별 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제시한 결과이다.

95%의 신뢰수준에서 종합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세부영역은 교육, 관계, 활동, 참여, 그리고 주관적 웰빙 영역이었다. 즉, 각 지역의 교육, 관계, 참여, 주관적 웰빙 영역의 지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종합지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세부 영역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교육영역과 관계영역, 교육영역과 주관적 웰빙 영역, 관계 영역과 활동 영역, 관계 영역과 주관적 웰빙 영역, 그리고 참여 영역과 주관적 웰빙 영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탐색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후의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수준(99%)에서 종합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교육, 관계, 참여, 및 주관적 웰빙 영역 등 총 4개 세부영역에 대한 공간가중상관계수와 공간가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VII-30 종합지수 및 영역별 지수의 공간가중상관관계 분석 결과

	종합지수	경제	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활동	참여	주관적 웰빙
종합지수	1.00								
경제	0.36	1.00							
건강	0.16	-0.01	1.00						
안전	0.14	0.03	0.11	1.00					
교육	0.73**	0.22	-0.18	0.09	1.00				
관계	0.85***	0.13	-0.06	-0.17	0.70**	1.00			
활동	0.61*	0.10	-0.07	-0.30	0.30	0.70**	1.00		
참여	0.71**	0.43	0.27	0.18	0.14	0.45	0.46	1.00	
주관적 웰빙	0.85***	0.07	0.08	-0.03	0.64**	0.74**	0.44	0.53*	1.00

*p<0.05, **p<0.01, ***p<0.001.

2) 공간가중회귀(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분석

(1) 종합지수에 대한 교육영역지수의 영향력

먼저, 종합지수와 교육영역의 상관관계 및 영향력에 대한 지역 간 이질성을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VII-31>은 OLS회귀분석과 공간가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모형 간 비교를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값을 살펴보면, OLS회귀분석보다 GWR 분석의 AIC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 GWR의 모형 적합도가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표 VII-31 종합지수에 대한 교육영역의 OLS 회귀분석 및 GWR 분석 결과 비교

구분	OLS 회귀분석		GWR 분석		
	b	s.e.	최소 b값	중위 b값	최대 b값
상수	65.15	(8.65)***	64.57	65.70	66.45
교육영역지수	0.35	(0.09)**	0.33	0.34	0.35
AIC	59.67		55.73		
R ²	0.537		0.541		

*p<0.05, **p<0.01, ***p<0.001.

17)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값이 작을수록 모형 적합도는 증가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공간가중상관분석과 공간가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II-3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공간가중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지수와 교육영역 간의 상관관계는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지수와 교육 영역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0.842)이고, 그 다음은 전남(0.728), 광주(0.706) 등의 순으로 이들 지역들은 교육영역의 지수 값이 클수록 종합지수의 증가폭이 큰 지역들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천(0.383), 서울(0.401), 경기(0.405)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작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VII-32 종합지수에 대한 교육영역의 지역별 영향력 차이 비교: GWR 분석 결과

〈GWR 분석 결과〉			〈국지적 회귀계수의 단계구분도〉
지역	상관계수 (GWPC)	국지적 회귀계수 (local coefficient)	
서울	0.401	0.337	
부산	0.653	0.346	
대구	0.606	0.344	
인천	0.383	0.337	
광주	0.706	0.348	
대전	0.576	0.342	
울산	0.611	0.345	
경기	0.405	0.337	
강원	0.414	0.335	
충북	0.515	0.340	
충남	0.557	0.341	
전북	0.650	0.345	
전남	0.728	0.349	
경북	0.539	0.342	
경남	0.665	0.346	
제주	0.842	0.355	

이러한 공간적자기상관계수의 결과는 공간가중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된 국지적 또는 지역별 회귀계수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앞서 종합지수와 교육영역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컸던 제주도에서 종합지수값의 증가에 교육영역지수값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0.355), 그 다음은

전남(0.349), 광주(0.3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들의 회귀계수는 모두 0.337로, 이들 지역은 종합지수의 증가에 교육영역지수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2) 종합지수에 대한 관계영역지수의 영향력

다음으로, 종합지수와 관계영역 간의 상관관계가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전자에 대한 후자의 영향력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 다른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OLS회귀분석과 공간가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 VII-33>과 같다. AIC값을 통해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OLS회귀분석보다 GWR 모형의 적합도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표 VII-33 종합지수에 대한 관계영역의 OLS 회귀분석 및 GWR 분석 결과 비교

구분	OLS 회귀분석		GWR 분석		
	b	s.e.	최소 b값	중위 b값	최대 b값
상수	55.815	(7.40)***	55.670	56.300	57.540
관계영역지수	0.442	(0.07)***	0.424	0.438	0.444
AIC	51.735		47.159		
R^2	0.718		0.738		

*p(0.05, **p(0.01, ***p(0.001.

아래의 <표 VII-34>는 종합지수와 관계영역 간의 공간가중상관분석과 후자가 전자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육영역과 마찬가지로 공간가중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종합지수와 관계영역 간의 상관관계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지수와 관계영역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0.988)였으며, 그 다음은 전남(0.871), 광주(0.827) 등의 순이었다. 반면,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작은 지역은 부산(0.653)이었으며, 그 다음은 부산(0.653), 대구(0.674) 등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합지수에 대한 관계영역의 영향력을 공간가중회귀모델로 분석한 결과, 공간적자기상관계수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앞서 울산, 부산, 대구 지역들의 경우 공간가중상관계수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지역별 회귀계수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

때문에 종합지수의 증가에 있어 관계영역의 영향력 차이가 지역별로 절대적으로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 VII-34 종합지수에 대한 관계영역의 지역별 영향력 차이 비교: GWR 분석 결과

지역	〈GWR 분석 결과〉		〈국지적 회귀계수의 단계구분도〉
	상관계수 (GWPC)	국지적 회귀계수 (local coefficient)	
서울	0.752	0.427	
부산	0.653	0.444	
대구	0.674	0.441	
인천	0.762	0.424	
광주	0.827	0.438	
대전	0.683	0.435	
울산	0.662	0.444	
경기	0.749	0.428	
강원	0.759	0.433	
충북	0.694	0.435	
충남	0.695	0.432	
전북	0.698	0.437	
전남	0.871	0.439	
경북	0.690	0.441	
경남	0.684	0.441	
제주	0.988	0.441	

(3) 종합지수에 대한 참여영역지수의 영향력

세 번째로 종합지수와 참여영역 간의 상관관계와 양자 간의 영향력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아래의 <표 VII-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OLS회귀분석보다 GWR 모형의 적합도가 더 우수함을 확인하였고, 이후의 분석에서는 지역별 상관계수와 회귀계수의 비교를 통해 지역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VII-35 종합지수에 대한 참여영역의 OLS 회귀분석 및 GWR 분석 결과 비교

구분	OLS 회귀분석		GWR 분석		
	b	s.e.	최소 b값	중위 b값	최대 b값
상수	49.832	(13.38)**	31.690	55.180	56.830
참여영역지수	0.502	(0.13)**	0.428	0.446	0.691
AIC	60.865		50.268		
R^2	0.501		0.693		

*p<0.05, **p<0.01, ***p<0.001.

<표 VII-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합지수와 참여영역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1.000)였으며, 광주(0.979), 전북(0.935), 전남(0.9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의 경우 종합지수와 참여영역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0.595로 가장 낮아 타 지역들이 0.7~0.9 수준의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표 VII-36 종합지수에 대한 참여영역의 지역별 영향력 차이 비교: GWR 분석결과

지역	<GWR 분석 결과>		국지적 회귀계수의 단계구분도
	상관계수 (GWPC)	국지적 회귀계수 (local coefficient)	
서울	0.750	0.433	
부산	0.876	0.449	
대구	0.880	0.445	
인천	0.595	0.428	
광주	0.979	0.496	
대전	0.904	0.448	
울산	0.841	0.440	
경기	0.781	0.435	
강원	0.951	0.439	
충북	0.896	0.442	
충남	0.868	0.447	
전북	0.935	0.466	
전남	0.933	0.513	
경북	0.869	0.439	
경남	0.903	0.460	
제주	1.000	0.691	

이러한 공간자기상관분석 결과는 공간가중회귀분석에서 산출된 지역별 회귀계수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인다. 즉, 앞서 종합지수와 참여영역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던 제주도의 지역별 회귀계수값이 0.691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전남(0.513), 광주(0.49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약했던 인천의 경우 회귀계수가 0.428로 참여영역 지수의 증가가 종합지수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작은 지역이었다.

(4) 종합지수에 대한 주관적 웰빙 영역지수의 영향력

마지막으로 종합지수와 주관적 웰빙 영역 지수 간의 공간가중상관분석과 공간가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VII-3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OLS회귀분석보다는 공간가중회귀분석의 모형 적합도가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 VII-37 종합지수에 대한 주관적 웰빙 영역의 OLS 회귀분석 및 GWR 분석 결과 비교

구분	OLS 회귀분석		GWR 분석		
	b	s.e.	최소 b값	중위 b값	최대 b값
상수	65.605	(5.82)***	64.690	66.160	66.910
주관적 웰빙 영역지수	0.344	(0.06)***	0.331	0.338	0.353
AIC	51.948		47.746		
R^2	0.714		0.722		

*p<0.05, **p<0.01, ***p<0.001.

아래의 <표 VII-38>에 제시된 공간자기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지수와 주관적 웰빙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0.886)이고, 그 다음은 전남(0.839), 광주(0.831) 등의 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간자기상관분석 결과는 공간가중회귀분석에서 산출된 지역별 회귀계수와도 일치하는데, 종합지수와 주관적 웰빙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던 제주도의 GWR분석의 지역별 회귀계수값이 0.353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전남(0.345), 광주(0.344) 지역이 상대적으로 큰 계수값을 갖는다. 이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회귀계수 값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종합지수의 증가에 있어 주관적 웰빙영역지수의 영향력이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 VII-38

종합지수에 대한 주관적 웰빙 영역의 지역별 영향력 차이 비교: GWR 분석결과

〈GWR 분석 결과〉			〈국지적 회귀계수의 단계구분도〉
지역	상관계수 (GWPC)	국지적 회귀계수 (local coefficient)	
서울	0.759	0.333	
부산	0.802	0.341	
대구	0.791	0.339	
인천	0.760	0.334	
광주	0.831	0.344	
대전	0.790	0.338	
울산	0.787	0.339	
경기	0.758	0.333	
강원	0.756	0.331	
충북	0.773	0.336	
충남	0.789	0.338	
전북	0.812	0.341	
전남	0.839	0.345	
경북	0.772	0.336	
경남	0.811	0.341	
제주	0.886	0.353	

제 VIII 장

종합 진단 및 정책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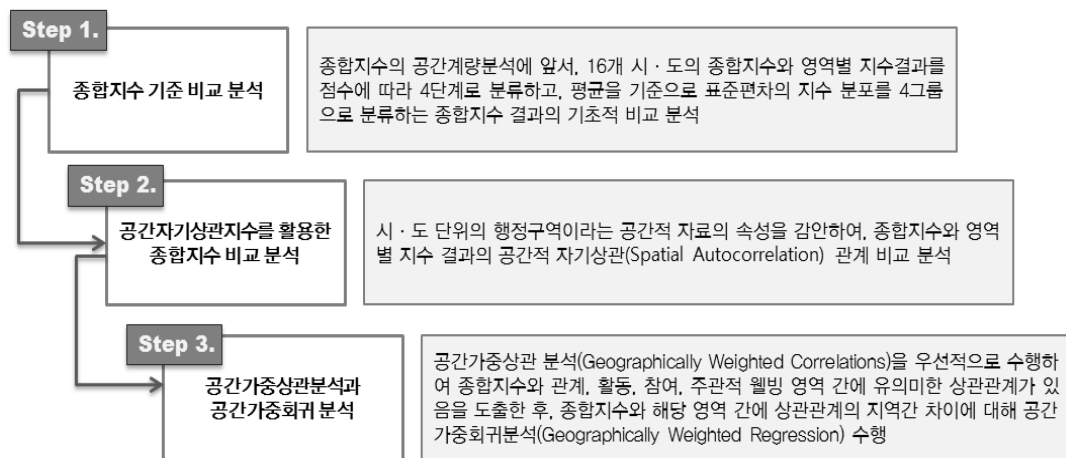
1. 종합 진단
2. 종합 진단 결과의 정책적 활용
및 정책 방안

제 VIII 장

종합 진단 및 정책방안*

1. 종합 진단

앞서 제6장에서는 청소년, 학부모, 교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주관적 지표와 행정통계 및 사회지표 등의 2차 자료에서 수집된 객관적 지표를 통합하여 정책 정보로서 활용성과 가독성이 높은 특성을 갖는 지수를 8개 영역 및 23개 세부영역단위에서 각각 생성하고, 이를 종합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종합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종합지수 및 영역지수를 기준으로 16개 시·도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 여건 및 각 지역 내 영역별 지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VIII-1】 단계별 종합지수 분석의 추진 과정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하현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가 집필하였음.

지표산출 및 비교분석에 이어 제7장에서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계되거나 수집되는 자료가 갖는 공간적자기상관성, 즉 한 지역의 속성이나 상태가 인접 지역의 속성 또는 상태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공간자기상관지수를 통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정책적 개입점을 실증적 증거자료에 기반하여 제안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공간가중상관계수와 공간가중회귀모형 분석을 통해 8개 영역지수가 종합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제6장과 제7장의 주요 분석 결과들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측면에서 16개 시·도를 종합 진단하고자 하며, 정부가 청소년들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본 연구의 종합 진단의 결과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1) 지수 비교 분석 결과에 기초한 종합 진단

① 16개 시·도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를 분석한 결과, 7개 지역만이 평균(100)이상이며, 전반적으로 도지역의 종합지수가 광역시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 시·도 종합지수가 평균 이상인 7개 지역(제주, 경남, 충북, 대전, 전남, 충남, 인천) 중 광역시는 2곳, 대도시가 현실적으로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상태에 있지 못한 상황
- 권역별로는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서울, 경기)의 경우 종합지수가 평균 이하이며, 대전-충청권(충청남북도)은 평균 이상임.

② 종합지수를 비롯하여 모든 영역의 지수가 평균 이상인 지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지역(경남, 제주, 대전, 충북)에서는 평균 이상의 지수가 다수임.

- 경남이 종합지수 및 7개 영역(경제, 건강, 안전, 교육, 관계, 참여, 주관적 웰빙), 제주가 종합지수 및 6개 영역(경제, 교육, 관계, 활동, 참여, 주관적 웰빙), 대전이 종합지수 및 6개 영역(경제, 건강, 안전, 관계, 활동, 참여), 충청도 종합지수 및 6개 영역(경제, 건강, 관계, 활동, 참여, 주관적 웰빙)의 지수가 평균을 상회함.
- 서울과 강원은 각각 1개 영역(서울-건강, 강원도-활동)만 평균 이상임.

③ 전국 평균 이하의 지수를 갖는 지역이 가장 많은 영역은 주관적 웰빙이며, 안전-교육-관계 영역의 경우도 평균 이하의 지수를 갖는 지역이 그 다음 순으로 많아, 국가수준에서 이들 영역의 수준을 최소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 추진이 요구됨.

- 각 영역별 평균 지수로 부터 -1 표준 편차 미만 지수를 갖는 지역의 수는 경제-안전-관계-활동-주관적 웰빙 영역의 경우 2개 지역, 건강과 참여영역은 4개 지역, 교육영역은 1개 지역임.

표 VIII-1 16개 시·도의 영역별 지수 수준 분류

	경제	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활동	참여	주관적 웰빙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주) ● : 지수점수 100 이상
 ● : 지수점수 100 미만이고, 평균을 중심으로 ±1 표준편차
 ⊙ : -1 표준편차 미만

④ 각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영역의 지수 값들이 일관성을 보이기보다는 평균 이상인 것과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들이 혼재되어 나타남.

- 구체적인 정책 수립 시, 세부영역지수 및 지표 분석의 결과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지수와 연계된 법률 및 정책 사업을 실효성 있게 검토·조정하는 것이 필요

㉔ 각 지역별로 평균보다 크게 상회하거나 크게 낮은 영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 추진 필요

- 서울특별시(안전영역(103.5)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평균보다 낮고, 부산광역시(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주관적 웰빙(103.4)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으로, 건강(101.1), 안전(100.9), 교육(100.3) 영역이 평균 이상임.
- 대구광역시는 건강(103.1), 안전(104.3), 교육(102.2) 영역이, 인천광역시는 건강(101.6), 교육(102.2), 관계(103.4), 활동(101.3) 영역이, 광주광역시는 경제(101.2), 교육(100.0)이, 대전광역시는 주관적 웰빙(99.4)과 교육(99.0)을 제외한 전 영역이, 울산광역시는 안전(101.5), 교육(101.6), 활동(100.8) 참여(101.0) 영역이 평균 이상임.
- 경기도는 건강(100.4), 안전(101.7), 활동(101.8), 참여(100.9) 영역이, 충청북도는 안전(98.9)과 교육(99.7)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이, 충청남도는 경제(103.4), 건강(100.6), 관계(102.0), 참여(102.0) 영역이, 전남은 경제(101.8), 건강(103.1), 활동(103.0)이, 활동지수(98.3)를 제외한 전 영역이, 제주도는 건강(96.4)과 안전(99.8)을 제외한 전 영역이 전국 평균 이상임.
- 전북은 경제(98.5), 안전(97.8), 교육(96.7) 영역이 전국 평균 이하이고, 경상북도는 경제(101.1)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이, 강원도는 활동(100.4)을 제외한 전 영역이 평균 이하임.

2) 공간분석 결과에 기초한 종합 진단

㉑ 종합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 표준편차가 +1 이상으로 종합지수가 높은 지역은 제주와 경남이며, 표준편차 -1 미만으로 종합지수가 낮은 지역은 경북과 서울임.

-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경북과 서울 지역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두 지역의 영역지수 및 세부영역 지수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각 영역지수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지역(-1 표준편차 미만)은 다음과 같음.
 - 경제 영역: 강원, 부산
 - 건강 영역: 울산, 제주, 광주, 경북
 - 안전 영역: 인천, 광주
 - 교육 영역: 강원
 - 관계 영역: 광주, 서울
 - 활동 영역: 광주, 대구
 - 참여 영역: 서울, 경북, 대구, 광주
 - 주관적 웰빙 영역: 경북, 서울
- 경북은 건강, 참여,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서울은 관계, 참여, 주관적 웰빙에서의 지수 개선이 필요
- 광주는 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활동, 참여의 6영역에서 모두 -1 표준편차 미만으로 지수 점수가 낮게 나타나 일부 영역만이 아닌,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중앙정부는 광주시가 전반적인 개선 노력을 하도록 유도·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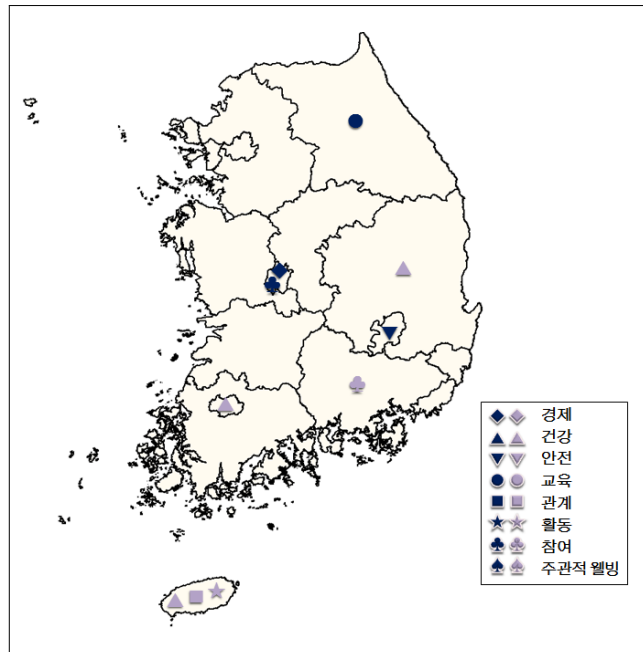
표 VIII-2 16개 시·도의 영역별 4단계 분류 종합

	경제	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활동	참여	주관적 웰빙
1분위	전북, 경기, 강원, 부산	제주, 광주, 경북	전남, 인천, 광주	경기, 경북, 강원	대구, 경북, 광주, 서울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서울, 경북, 대구, 광주	충남, 울산, 경북, 서울
2분위	울산, 대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서울, 울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강원	충남, 대전, 서울, 전남	울산, 전남	강원, 경북, 경남, 충남	전남, 강원, 부산, 인천	인천, 강원, 대구, 전남
3분위	경북, 제주	대전, 부산, 충남, 전북	울산, 부산, 제주	부산, 광주, 충북, 전북	충북, 대전, 경남, 부산, 경기	경기, 인천, 울산, 대전	제주, 울산, 경기, 전북	광주, 경기, 대전
4분위	대전 , 충남, 충북, 전남, 경남, 광주	전남, 대구, 충북, 경남, 인천	대구 , 경남, 서울, 대전, 경기	제주, 대구, 인천, 울산, 경남	제주 , 인천, 충남, 전북	제주 , 전북, 전남, 충북	경남 , 충북, 대전 , 충남	제주, 경남, 부산, 충북, 전북

주) 16개 시·도의 영역지수를 가장 낮은 1분위 지역부터 가장 높은 4분위 지역까지 4단계로 분류함.
 경제영역의 대전, 건강영역의 제주, 광주, 경북, 안전영역의 대구, 교육영역의 강원, 관계영역과 활동영역의 제주, 참여영역의 경남과 대전 지역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공간적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함.

② 공간자기상관 분석 결과 대전 지역은 경제 영역과 참여 영역에서 Hot Spot으로 나타났으며, 강원 지역은 교육 영역에서 Cold Spot으로 나타남.

- 대전 지역은 경제, 참여 영역에서 인접 지역들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으며 함께 높은 지수 값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 참여 영역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때 대전을 둘러싼 권역별 접근이 유효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강원 지역은 인접 지역들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으며 함께 낮은 지수 값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강원권의 교육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주: 범례 중 진한색은 +값의, 연한색은 -값의 공간자기상관지수를 나타냄.

【그림 VIII-2】영역별 지역특성 맞춤접근으로 정책 효과 높은 지역 종합 진단

③ 대구는 안전 영역에서 경남은 참여 영역에서 주변 지역들과 상호작용이 있으나, 경남의 경우 주변지역에 비해 높은 지수 값을 가지는 부적 자기상관관계를 가지며, 광주-경북-제주 지역은 건강 영역에서 주변지역에 비해 낮은 지수 값을 가지는 부적 자기상관관계를 가짐.

- 부적 자기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해당 영역에 대해 인접 지역과 반대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권역별 접근’보다는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개별적 접근’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건강 영역의 광주와 경북 지역의 경우, 주변지역 보다 건강 지수 점수가 낮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성 맞춤형 접근과 지원이 필요함.

㉔ 공간가중상관분석 결과, 종합지수는 교육, 관계, 활동, 참여, 주관적 웰빙 영역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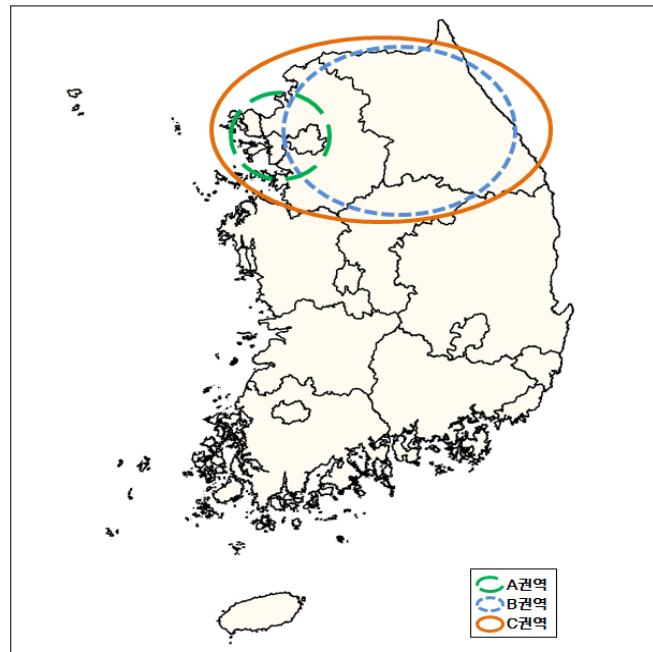
- 관계 영역의 경우 교육 영역과, 활동영역은 관계 영역과, 주관적 웰빙 영역은 교육, 관계, 참여 영역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취약한 영역들을 보완할 때 영역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지원해야하는 영역의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선정 가능함.

㉕ 공간가중회귀분석 결과, 종합지수와 교육 영역, 종합지수와 관계 영역 간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은 제주, 전남, 광주이며, 종합지수와 참여영역 간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은 제주, 광주, 전북이고, 종합지수와 주관적 웰빙 영역 간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은 제주, 전남, 광주로 분석됨.

- 공간가중회귀모형의 실증분석으로 종합지수에 영역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각 지역별로 정책효과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함.
- 종합지수 분석에서 광주광역시는 건강, 안전, 관계, 활동, 참여의 5영역에서 모두 -1 표준편차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수 점수가 낮았으나, 공간가중회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 관계, 참여 영역의 정책추진을 우선적으로 강화시킨다면 광주광역시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를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임.

⑥ 종합지수에 대한 교육 영역, 관계 영역, 참여 영역, 주관적 웰빙 영역의 공간가중회귀 분석 결과, 해당 영역의 약점을 보완하여 개선해야하는 지역으로 관계와 참여 영역에서는 서울과 인천,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이며, 교육 영역에서는 두 권역들을 포함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으로 분석됨.

-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서울과 인천 지역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와 참여 영역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며, 이들 영역에 있어 서울 및 인천을 묶어 정책을 추진하는 권역별 접근의 정책 추진 필요
-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개선을 위해 주관적 웰빙 영역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며 중부지역 벨트로 권역별 접근의 정책 추진 필요
-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영역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며, 인천-서울-경기-강원을 묶어 접근하는 권역별 접근 정책 추진 고려
- 3권역(서울, 인천 / 서울, 경기, 강원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당 영역(각각 관계, 참여 / 주관적 웰빙 / 교육)을 개선 할 수 있는 집중적인 정책 추진 필요



【그림 VIII-3】 공간자기상관계수를 고려한 권역별 전략적 정책 추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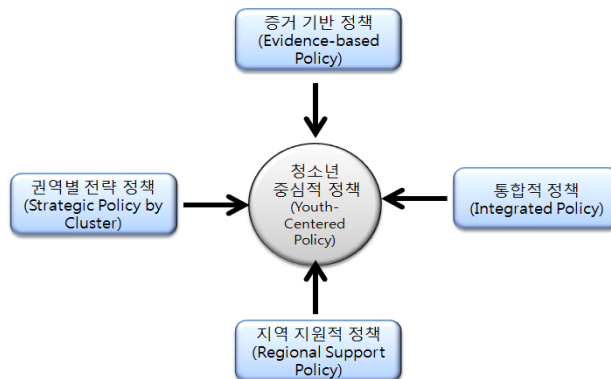
2. 종합 진단 결과의 정책적 활용 및 정책 방안

1) 정책추진 및 결과 활용의 기본방향

본 연구의 제3장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담긴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은 유해환경이나 학교폭력 또는 물리적 안전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로 매우 협소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기본계획을 틀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시행정책 또한 제한된 범위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현행 정책들이 이와 같이 한정된 주제의 협소한 물리적 환경 범주로 설정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이 청소년을 중심에 위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들을 둘러싼 환경체계들을 애초에 고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대상자 정책의 기본 방향이 통합적 접근을 취해야 함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수단으로서의 조직, 인력, 예산, 추진체계 등도 매우 중요하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기본 방향의 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도출된 종합 진단의 결과에 기초하여 국가정책으로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정책추진의 방향임과 동시에, 본 연구의 종합 진단의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원칙과 같이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방향을 5가지로 설정하였다.



【그림 VIII-4】 정책추진의 기본방향

이와 같이 설정된 기본방향 5가지 (①청소년 중심적 정책(Youth-Centered Policy), ②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③통합적 정책(Integrated Policy), ④지역 지원적 정책(Regional Support Policy), ⑤권역별 전략적 정책(Strategic Policy by Cluster))에 맞추어,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16개 시·도 종합 진단의 결과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활용 방안 및 결과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정책적 활용 및 정책방안

종합 진단의 결과를 정책수립이나 개선 또는 조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정보나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

(1) 결과 활용의 기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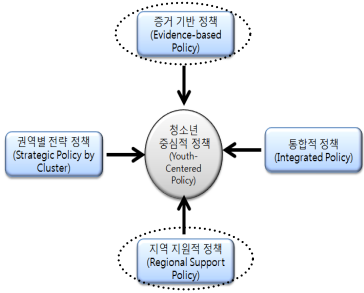
- ① 종합지수 및 영역지수의 16개 시도 비교는 지역의 서열화가 아닌, 전국 지역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 활용
- ② 각 지역 내 영역별 지수의 활용은 강점강화, 약점보완의 자료로 활용
- ③ 전 지역, 전 영역의 낮은 지수의 개선으로 지역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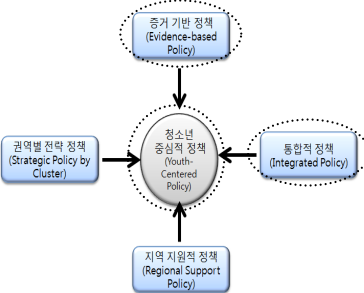
(2) 결과의 정책적 활용 및 관련 정책방안

본 연구에서 도출된 종합 진단의 결과는 정책적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하나는 ‘정책 분석·평가에 기초한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강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한 활용’ 측면이다.

다음에서는 이들 두 가지 측면 각각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결과의 정책적 활용 및 관련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내용과 앞서 설명한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그리고 정책제안 유형과 정책 추진의 수단과 근거를 하나의 틀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① 정책 분석·평가에 기초한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강화를 위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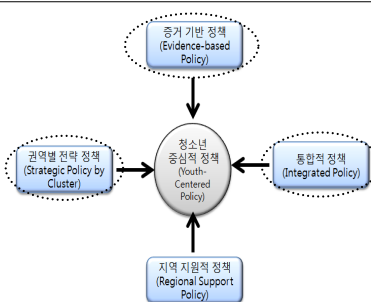
활용방안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시계열 측정 및 17개 시·도 증거 기반 정책수립 강화를 위한 지속적 정보 제공에 활용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에 최종 선정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종합지수를 산출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강화해 나아가는데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정보 및 자료 제공 OECD에서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측정하는 청소년의 행복 지수 및 UNICEF에서 산출되는 주관적 행복지표와 비교 가능하도록 지표가 구성되었으므로 국제 수준에서 비교 가능한 정책자료 제공 		■ 기본 방향  <p>The diagram shows a central circle labeled '청소년 중심적 정책 (Youth-Centered Policy)'. It is surrounded by four boxes: '증거 기반 정책 (Evidence-based Policy)' at the top, '지역 지원적 정책 (Regional Support Policy)' at the bottom, '권역별 전략 정책 (Strategic Policy by Cluster)' on the left, and '통합적 정책 (Integrated Policy)' on the right. Arrows point from each of these four boxes towards the central circle.</p>	
■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 도입()	■ 추진 수단	① 정책 연구 ②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정책협의회 ③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원 컨설팅
		■ 추진 근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추진 과제 5-3-3. 정책 분석·평가에 기반한 정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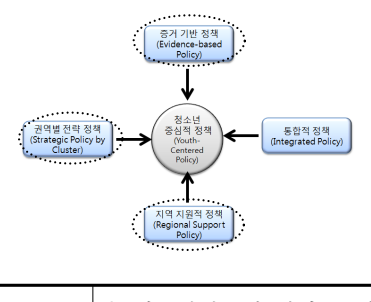
활용방안 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의 방향 설정 및 정책추진과제 개발 자료로 활용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추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의 변화 양상을 포착하고,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의 기본 방향설정과 설계,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추진과제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추진의 전 기간이 포함되지는 않으나 추진 기간 동안 정책현황과 환경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로 증거기반의 정책수립의 장점을 강화함. 		■ 기본 방향  <p>The diagram is identical to the one in the first table, showing a central circle for 'Youth-Centered Policy' with arrows pointing to it from 'Evidence-based Policy', 'Regional Support Policy', 'Strategic Policy by Cluster', and 'Integrated Policy'.</p>	
■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 도입()	■ 추진 수단	① 정책연구 ② 정책 추진과제 모니터링
		■ 추진 근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추진 과제 5-3-3. 정책 분석·평가에 기반한 정책 수립

활용방안 3 신규 정책도입 및 시행 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체계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의 제·개정 또는 새로운 정책 사업이 시작되기 전, 그 정책의 시행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시행 후 실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Youth Impact Assessment)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 • 유니세프(Unicef)의 ‘청소년친화도시’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친화환경 구축을 위한 원칙 준수에 해당함. 		■ 기본 방향 	
■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 도입(√)	■ 추진 수단 ①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분석·평가제 ② 청소년정책영향평가제	■ 추진 근거 ① 「청소년기본법」 개정 법률안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5-3-1. 청소년정책영향평가제 도입	

활용방안 4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서비스 전달기관의 설립 및 설치, 서비스 접근성 등 관련 정책수립 시, 지역적 공간을 고려한 과학적 실증분석 방법의 활용 및 체계적 분석 후 시행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정책분야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공간계량분석’ 모형을 청소년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지역의 물리적 생활공간이나 지리적 공간이 중심이 되거나 고려해야하는 유해환경지역 관련 정책, 국립시설 등 서비스 전달기관의 설립 및 설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해야하는 위탁기관의 지정 등의 정책 ‘도입-시행-평가’ 등의 단계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자료 생산 가능 		■ 기본 방향 	
■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 도입()	■ 추진 수단 정책연구	■ 추진 근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 과제 5-3-3. 정책 분석·평가에 기반한 정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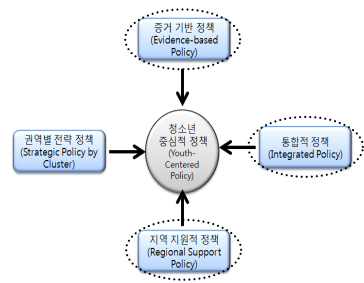
②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한 활용

활용방안 5		‘지표·지수경보제(가칭)’방식을 통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 지원 및 종합관리 도구로 활용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개 시·도 지역별 종합지수 및 8개 영역지수, 그리고 23개 세부영역지수 및 지표를 매년 취합하고 지수 변화를 연간 단위로 관찰하고,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또는 일정 수준 미만에 해당될 경우 그 지역의 정책추진에 경보(warning)를 색표기 등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함. 지자체가 경보를 받은 영역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추진이나 지원 요청 시 근거 자료로 활용 		■ 기본 방향 	
■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 도입(√)	■ 추진 수단	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지수 관리 체계 도입·운영 ②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내용 반영
		■ 추진 근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 과제 4-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활용방안 6		낮은 영역지수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정책추진과제 개발 유도 및 지원에 활용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국회 여성가족소위에 계류 중인 「청소년기본법」 개정 법률안이 확정되면,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추진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제출뿐만 아니라 시행의 성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이를 활용하여 낮은 지수를 지자체가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함. 		■ 기본 방향 	
■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 도입()	■ 추진 수단	① 「청소년기본법」 개정 법률안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 과제 4-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 추진 근거	① 「청소년기본법」 개정 법률안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 과제 4-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활용방안 7 '전략 지역 클러스터제(가칭)'도입으로 주요 영역별 정책 효과 및 확산성이 큰 지역을 전략 추진지역으로 선정, 지역별 강점 강화 및 약점 보완의 지원 정책에 활용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적 공간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책영역 또는 주제에 따라 개별 지역특성에 맞추거나 인접지역까지 묶어 권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정책적 효과 및 확산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전략 추진지역이나 지역 클러스터 등 정책추진의 방법을 다각화함.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개별적 접근이 보다 효과적인 지역과 권역적 접근이 요구되는 정책 영역이 도출되었음. 		■ 기본 방향	
■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 도입(√)	■ 추진 수단	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지수 관리 체계 도입·운영 ② 영역별 정책 추진의 '전략 지역 클러스터제(가칭)' 도입·운영
		■ 추진 근거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 과제 4-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활용방안 8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로 우선 선정하고 지원하는데 활용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지수 및 영역지수의 정보를 활용하여,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로 선정하고 시상하며, 타 지역과 추진과정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매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의 청소년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상 및 연수의 기회를 부여하여 지자체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활용 		■ 기본 방향	
■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 도입()	■ 추진 수단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선정
		■ 추진 근거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 과제 4-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선정

활용방안 9		광역 시/도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기초 시/군/구 진단의 기본 틀로 활용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주체이자 당사자인 청소년의 체감도 높은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된 지표보다는 지역사회 내 특성을 반영한 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개발된 지표는 가장 핵심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기본 틀로 활용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지역지표를 개발해야함. 		■ 기본 방향 	
■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 도입()	■ 추진 수단	①광역자치단체 지역특성 반영 지표개발 및 활용 관련 정책컨설팅 ②기초자치단체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선정
		■ 추진 근거	①「제5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 추진 과제 5-2-3.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정비 ②「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추진 과제 4-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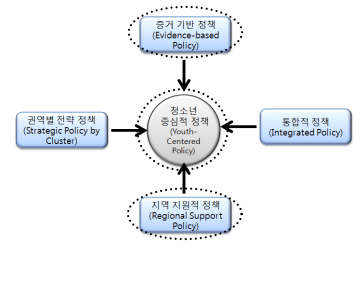
활용방안 10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역 청소년육성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에 활용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가 2014.8.25.일에 제출한 「청소년기본법」 개정법률안 제10조에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 육성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방정부로부터 지역사회를 진단한 종합지수 및 영역지수의 내용 등 정책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조례에 포함하여, 중앙단위 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기본 방향 	
■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 도입()	■ 추진 수단	지자체 조례 개정
		■ 추진 근거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점 과제 5-1-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 강화

표 VIII-3 정책적 활용 방안

□ 정책 분석·평가 기반 정책수립의 강화를 위한 활용 방안

활용 방안	정책 제안 유형	추진 수단	추진 근거	추진 일정*	
	①기존정책 강화 ②기존정책 확대 ③기존정책 개선 ④신규정책 도입			단기 (2015~2017)	중·장기 (2018~)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시계열 측정 및 17개 시·도 증거 기반 정책 수립 강화를 위한 지속적 정보 제공	①	①정책연구 ②정책협의회 ③지자체컨설팅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 추진과제 5-3-3.	○	
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의 방향 및 정책추진과제 개발의 기초자료	③	①정책연구 ②정책추진과제 모니터링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 추진과제 5-3-3.	○	
3. 신규 정책도입 및 시행 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체계 마련의 기초자료	③ & ④	①정책시행계획 분석·평가제 ②청소년정책영 향평가제	①청소년기본법 개정 법률 안 제14조 ②제5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5-3-1.		○
4.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서비스 전달 기관의 설립 및 설치, 서비스 접근성 등 관련 정책수립 시, 지역적 공간을 고려한 체계적 실증분석 후 시행	③	정책연구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 추진과제 5-3-3.	○	

②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활용 방안

활용 방안	정책 제안 유형	추진 수단	추진 근거	추진 일정*	
	① 기존정책 강화 ② 기존정책 확대 ③ 기존정책 개선 ④ 신규정책 도입			단기 (2015~2017)	중·장기 (2018~)
5. '지표·지수경보제(가칭)' 방식을 통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 지원 및 종합 관리	③ & ④	① 지표·지수관리 체계도입·운영 ② 시행계획수립 지침에 내용 반영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4-1-3.	○	
6. 낮은 영역지수 개선을 위한 17개 시·도 자율적 정책추진과제 개발 유도 및 지원	① & ③	① 지표·지수관리 체계도입·운영 ② 정책시행계획 분석·평가제 ③ 지자체컨설팅	① 청소년기본법 개정법률안 제14조 ②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4-1-3.	○	
7. '전략 지역 클러스터제(가칭)'도입으로 주요 영역별 정책 효과 및 확산성이 큰 지역을 전략추진지역으로 선정, 지역별 강점 강화 및 약점 보완 지원	④	① 지표·지수관리 체계도입·운영 ② 전략지역클러스터제 도입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4-1-3.	○	
8.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를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로 우선 선정·지원	① & ②	청소년 행복마을 선정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4-1-3.	○	
9. 광역시/도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기초시/군/구 진단	① & ②	① 지자체컨설팅 ② 청소년행복마을 선정	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5-2-3. ②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4-1-3.		○
10.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역 청소년 육성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	① & ②	조례 개정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5-1-2.		○

* 단기 정책 추진과제는 기존 정책의 개선 또는 확대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 기간(2013년~2017년) 내에 시행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이며, 중·장기 추진과제는 세부 정책연구, 신규정책 계획 또는 정책 조정 등이 요구되거나 향후 수립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국토연구원 (2011).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총괄보고서** (국토연 2011-35). 경기: 국토연구원.
- 김기현, 임희진, 장근영, 김혜영, 황옥경 (201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 2011-4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2(2), 1-33.
- 김명소, 한영석 (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개발. **조사연구**, 7(2), 1-38.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정윤미 (2013). 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1), 227-256.
- 김지경, 정윤미 (2014). 지방정부 청소년정책예산에서의 국고보조금 결정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1(6), 369-392.
- 김재호 (2007). 행정계획론 소고. **법학연구**, 18(1), 49-79.
- 김진희, 박일섭, 정진혁 (2011). 공간가중회귀분석을 이용한 통행발생모형. **대한교통학회지**, 29(2), 101-109.
- 노화준 (2008). **정책평가론: 프로그램성과와 정책혁신의 효과 평가**. 파주: 법문사.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2), 121-154.
- 박홍윤 (2012). **정책평가론: 실제와 사례**. 파주: 대영문화사.

-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Joan Yoo (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 이양재, 김선웅 (1997). **서울시 성장관리 모니터링 체계구축**.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익섭, 신은경, 이승기, 이준일, 유동철 (2009).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발간등록번호 11-1351000-000314-01).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이현송 (1997). 한국인의 삶의 질: 객관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1(1), 269-301.
- 이희길, 심수진, 박주언, 배현혜 (2013). 제 1장 국민 삶의 질 측정 2013. **2013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Ⅳ권**. 통계청.
- 이희길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콜로키움Ⅱ: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지표 작성방법**. 콜로키움자료집 (14-S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희연, 노승철 (2013). **고급통계분석론-이론과 실습- 제2판**. 서울: 문우사.
- 임지연, 최인재, 김형주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Ⅲ -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보고 08-R0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심수진, 이희길 (2010). **통계개발원 2009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Ⅶ권 -삶의 질 지수 작성방안-** (연구보고서 2009-09). 대전: 통계개발원
- 장근영, 이혜연, 배상률, 성은모, 이용교, 홍승애 (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3-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명림, 이재연, 김영옥, 안동현, 박수연, 김홍희 (2007).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방안 연구** (연구보고 2007-06).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장명림, 이윤진, 이정림, 민현숙, 이세원, 송윤정 외 (2010).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연구보고 2010-11).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정옥분 (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정길, 성규탁, 이장, 이윤식 (2006).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 조동기 (2009). 지역 단위 조사연구와 공간정보의 활용: 지리정보시스템과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10(3): 1-19.
- 참여연대 (2013).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참여연대 정책자료**.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4). 시행계획. **비공개 내부자료**.
- 최인재, 임지연, 김형주 (2008).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Ⅲ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08-R0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 (2013). **지역사회지표 작성 매뉴얼**. 통계청.
-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대전: 통계청
- 한국방정환재단 (2013). **2013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한성수, 윤문구, 정병국 (2009).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자 중심 모니터링체계 개발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한준, 강석훈, 김석호, 서은국, 홍종호, 이희길, 심수진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서울: 한국사회학회.
- 허승연 (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승애 (2013).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형득, 조은설 (2010). 정책모니터링을 위한 다원적 접근: 정보화마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3(4), 181-209.
- 황성원, 김용훈 (2004).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도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황옥경, 김영지 (2011).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연구보고(수시과제) 11-R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Ben-Arieh, A. (2008). The child indicators movement: Past, present, and future. *Child Indicators Research*, 1(1), 3-16.
- Bradshaw, J., Hoelscher, P. & Richardson, D. (2006).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the European Un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76.
- Bradshaw, J., & Richardson, D. (2009).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Europe. *Child Indicators Research*, 2(3), 319-351.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wla, L. (2002). *Growing Up in and Urbanizing World*. London: Earthscan.
- Chelimsky, E. (1985). Comparing and Contrasting Auditing and Evaluation Some Notes on Their Relationship. *Evaluation Review*, 9(4), 483-503.
- Cummins, R., & Lau, A. (2005). *Personal Wellbeing Index-School Children(Third edition)*. Melbourne:

- School of Psychology, Deakin University Press.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onnelly, S. (2004). How Bhutan Can Measure and Develop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Development, *The Centre for Bhutan Studies*, 347-374.
- EIU (200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Quality of life Index. *The World in 2005*,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Fotheringham, A. S., Brunson, C. & Charlton, M. (2002).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the analysis of spatially varying relationships*. NJ: Wiley.
- Geary, R. (1954). The contiguity ratio and statistical mapping. *The Incorporated Statistician*, 5(3). 115-145.
- Gollini, I., Lu, B., Charlton, M., Brunson, C., & Harris, P. (2014). *GWmodel: an R Package for Exploring Spatial Heterogeneity using Geographically Weighted Models*. <http://arxiv.org/pdf/136.0413.pdf>
- Hagerty, M. R., et al. (2001). Quality of life indexes for national policy: review and agenda for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1), 1-96.
- Hu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49-158.
- Marks, N., Abdallah, S., Simms, A., & Thompson, S. (2006). *The happy planet index*. New Economics Foundation, London.
- Moran, P. A. (1948). The interpretation of statistical map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10(2), 243-251.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 Ord, J. K., & Getis, A. (1995). Local spatial autocorrelation statistics: distributional issues and an application. *Geographical analysis*, 27(4), 286-306.
- Pfeiffer D., Robinson, T., Stevenson, M., Stevens, K., Rogers, D. & A. Clements (2008). *Spatial Analysis in Epidemi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he Children's Society (2013). *The Good Childhood Report 2013*. <http://www.childrengood.org.uk/well-being>.
- UNDP (2002). *Handbook on Monitoring and Evaluation for Results*. New York: UNDP Evaluation Office.

- UNDP (2006).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NY: UNDP.
- UNICEF (2004).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A Framework for Action*.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UNICEF (2006). *Comparing Child Well-being in OECD Countries: Concepts and Methods*. Innocenti Working Paper.
- UNICEF (2009). *Child Friendly Cities promoted by UNICEF National Committees and Country Offices - Fact sheet, September 2009*. <http://www.childfriendlycities.org>.
- UNICEF (2011a). Comprehensive 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 reporting tool. <http://childfriendlycities.org/research/final-toolkit-2011/>.
- UNICEF (2011b). The child friendly city governance checklist. <http://childfriendlycities.org/research/final-toolkit-2011/>.
- UNICEF (2013a).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arative Overview*. <http://www.unicef-irc.org>.
- UNICEF (2013b).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http://childethics.com/wp-content/uploads/2013/10/ERIC-compendium-approved-digital-web.pdf>.
- Veenhoven, R. (2007). *Measures of Gross National Happiness*. International OECD Conference Rome, 1-31.

[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qol.kostat.go.kr/blife/main.do>.
- CFC(Child Friendly Cities). <http://childfriendlycities.org>.
- UNICEF. <http://www.unicef.or.kr>.


부 록

1. 주관적 지표조사 설문지
2. 객관적 지표자료 수집 자료
3. 공무원 면접조사 질문지

부 록

1. 주관적 지표조사 설문지

1) 초등용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학교 ID									
-------	--	--	--	--	--	--	--	--	--

* 기록하지 마세요! (담당 조사원이 기록)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초등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위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올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청소년,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청소년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은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에 대략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설문의 각 문항들은 청소년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위험을 최소화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도중 거슬리거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등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문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시는 경우 소정의 기념품(필기구)을 드립니다.

학생 개인의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 문의처 :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2부 박선경 과장/박종경 대리 ☎ 080-674-1000
(주)한국리서치 자료조사부 염숙희 팀장 ☎ 02-3014-0131

Hankook Research1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4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 면 ①에, '별로 그렇지 않다' 면 ②에, '약간 그렇다' 면 ③에, '매우 그렇다' 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에 약간 그렇다고 생각해서 '③' 에 ○를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처음 답을 한 곳에 [보기2]와 같이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다시 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학년	① 4학년 ② 5학년 ③ 6학년
----	-----------	----	-------------------

□ 다음은 학생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몸은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먹지 않는다	가끔 먹는다	자주 먹는다	매일 먹는다
1) 나는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기 전에 밥을 먹는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콜라나 커피, 핫식스, 박카스 등과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신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행복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 문항을 읽고 질문에 대해 자신이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점수에 ○표 하여 주세요.

3. 나는 요즘 내 생활 전반에 만족한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인생에 가치(의미)가 있는 일이다.

전혀 가치없다	보통										매우 가치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5. 나는 어제 행복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나는 어제 근심 또는 걱정이 많았다.

전혀 없었다		← 보통 →									매우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나는 어제 우울했다.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우리 집의 경제적 생활형편이 넉넉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다음 문항을 읽고 각 항목별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13.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에서 나의 권리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학교 이외의 곳에서 나의 권리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벌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5)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에 대해 학생 회장이나 반장, 부반장이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나와 다른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평소 생활 중 활동(놀이, 여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에는 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5. 다음의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믿고 의지)하나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부모님	①	②	③	④
2) 친구들	①	②	③	④
3)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4) 이웃사람들	①	②	③	④

16.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청소년관련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믿지 않는다	별로 믿지 않는다	약간 믿는다	매우 믿는다
1)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국공립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2) 지방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시청, 도청, 군청, 구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①	②	③	④
3) 중앙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①	②	③	④

□ 다음은 평소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17.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가족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18.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골라 주세요.

- | | | | |
|---------|--------|---------|--------------|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친할아버지 | ④ 친할머니 |
| ⑤ 외할아버지 | ⑥ 외할머니 | ⑦ 형 | ⑧ 누나 |
| ⑨ 남동생 | ⑩ 여동생 | ⑪ 이모 | ⑫ 고모 |
| ⑬ 삼촌 | ⑭ 외삼촌 | ⑮ 사촌형제 | ⑯ 기타 (_____) |

귀하가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본 설문지는 자료처리 등을 위해 대행기관에서 약 6개월 보관된 후 주관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인적사항 등은 자료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위해 파악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통계법」 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34조 (통계 종사자의 의무)

통계조사자, 통계조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는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신다면, □안에 체크표시 해주세요.)

●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중고등용

학교 ID				
-------	--	--	--	--

* 기록하지 마세요! (담당 조사원이 기록)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중고등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위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올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청소년,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청소년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은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에 대략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설문의 각 문항들은 청소년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위험을 최소화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도중 거슬리거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등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문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시는 경우 소정의 기념품(필기구)을 드립니다.

학생 개인의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 문의처 :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2부 박선경 과장/박종경 대리 ☎ 080-674-1000
(주)한국리서치 자료조사부 염숙희 팀장 ☎ 02-3014-0131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4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 면 ①에, '별로 그렇지 않다' 면 ②에, '약간 그렇다' 면 ③에, '매우 그렇다' 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에 약간 그렇다고 생각해서 '③' 에 ○를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처음 답을 한 곳에 [보기2]와 같이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다시 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	-----------	----	-------------------

□ 다음은 학생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①	②	③	④

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먹지 않는다	가끔 먹는다	자주 먹는다	매일 먹는다
1) 나는 등교하기 전에 아침을 먹는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고카페인 음료 (예: 콜라나 커피, 핫식스, 박카스 등)를 마신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행복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 문항을 읽고 질문에 대해 자신이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점수에 ○표 하여 주세요.

3. 나는 요즘 내 생활 전반에 만족한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일이다.

전혀 가치없다	보통										매우 가치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5. 나는 어제 행복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나는 어제 근심 또는 걱정이 많았다.

전혀 없었다		← 보통 →									매우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나는 어제 우울했다.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우리 집의 경제적 생활형편이 넉넉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다음 문항을 읽고 각 항목별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과 지내는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13.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에서 나의 권리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학교 이외의 곳에서 나의 권리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징계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5)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에 대해 학생 대표(학생회장, 반장, 부반장)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나와 다른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평소 생활 중 활동(놀이, 여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에는 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5. 다음의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나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부모님	①	②	③	④
2) 친구들	①	②	③	④
3)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4) 이웃사람들	①	②	③	④

16.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청소년관련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믿지 않는다	별로 믿지 않는다	약간 믿는다	매우 믿는다
1)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국공립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2) 지방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시청, 도청, 군청, 구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①	②	③	④
3) 중앙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①	②	③	④

□ 다음은 평소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17.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가족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18.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골라 주세요.

- | | | | |
|---------|--------|---------|--------------|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친할아버지 | ④ 친할머니 |
| ⑤ 외할아버지 | ⑥ 외할머니 | ⑦ 형 | ⑧ 누나 |
| ⑨ 남동생 | ⑩ 여동생 | ⑪ 이모 | ⑫ 고모 |
| ⑬ 삼촌 | ⑭ 외삼촌 | ⑮ 사촌형제 | ⑯ 기타 (_____) |

귀하가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본 설문지는 자료처리 등을 위해 대행기관에서 약 6개월 보관된 후 주관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인적사항 등은 자료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위해 파악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통계법」 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34조 (통계 종사자의 의무)

통계조사자, 통계조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는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신다면, □안에 체크표시 해주세요.)

●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3) 교사용

학교 ID				
-------	--	--	--	--

* 기록하지 마세요! (담당 조사원이 기록)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교사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위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올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청소년,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청소년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은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에 대략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학부모나 학교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설문의 각 문항들은 응답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위험을 최소화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도중 거슬리거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등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문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시는 경우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 문 의 처 :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2부 박선경 과장/박종경 대리 ☎ 080-674-1000

(주)한국리서치 자료조사부 연속희 팀장 ☎ 02-3014-013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 다음은 귀하의 담당 학급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급 학생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급 학생들은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①	②	③	④

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해주세요.

	전혀 먹지 않는다	가끔 먹는다	자주 먹는다	매일 먹는다
1) 우리 학급 학생들은 등교하기 전에 아침을 먹는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급 학생들은 고카페인 음료 (예: 콜라나 커피, 핫식스, 박카스 등)를 마신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의 담당 학급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3. 우리 학급 학생들은 요즘 자신의 생활 전반에 만족한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우리 학급 학생들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가치없다	보통										매우 가치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우리 학급 학생들은 어제 행복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행복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우리 학급 학생들은 어제 근심 또는 걱정이 많았다

전혀 없었다		← 보통 →									매우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우리 학급 학생들은 어제 우울했다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O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학급 학생들은 가정의 경제적 생활형편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9. 귀하가 재직 중인 학교가 있는 지역의 경제적 수준(GNP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상의 상
- ② 상의 하
- ③ 중의 상
- ④ 중의 하
- ⑤ 하의 상
- ⑥ 하의 하

10. 다음 문항을 읽고 각 항목별로 귀하의 학급 학생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O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급 학생들은 평소에 가족 관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급 학생들은 평소에 친구 관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급 학생들은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의 관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지역 주민들은 우리 학급 학생들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11. 귀하는 다음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학교와 학부모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2)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가 재직 중인 학교의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기구 등의 시설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학생들이 밤중에 혼자 걸을 때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교사)는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가 재직 중인 학교의 교과과정 및 진로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13.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나(교사)는 우리 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4. 귀하의 학급 학생들은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학원, 방과후 학교, 과외 등)에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15.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는 아동 권리에 대해 가르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는 교내 징계 시 징계당한 학생에게 소명할 권리를 준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에서는 교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이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우리 학급 학생들은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의 담당 학급 학생들의 평소 생활 중 활동(놀이, 여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16.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급 학생들은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 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에는 학생들이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에는 학생들이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17. 귀하는 다음의 대상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우리 학급 학생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급 학생들의 학부모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의 주민	①	②	③	④

18. 다음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 주요 사회기관들입니다. 귀하는 이 기관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지 않는다	별로 믿지 않는다	약간 믿는다	매우 믿는다
1) 지역사회 전문기관 (예: 국공립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2) 지방정부 (예: 시청, 도청, 군청, 구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①	②	③	④
3) 중앙정부 (예: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19.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0.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치없다	보통										매우 가치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1.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2.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전혀 없었다		← 보통 →								매우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3.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현 학교 근무경력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7년 미만 ⑤ 7년 이상 ~ 10년 미만 ⑥ 10년 이상

귀하가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본 설문지는 자료처리 등을 위해 대행기관에서 약 6개월 보관된 후 주관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인적사항 등은 자료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위해 파악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통계법」 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34조 (통계 종사자의 의무)
 통계조사자, 통계조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는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신다면, □안에 체크표시 해주세요.)

●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4) 학부모용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위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올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청소년,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청소년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은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에 대략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귀댁의 자녀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설문의 각 문항들은 응답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위험을 최소화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도중 거슬리거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등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문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시는 경우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 문의처 :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2부 박선경 과장/박종경 대리 ☎ 080-674-1000
(주)한국리서치 자료조사부 연속희 팀장 ☎ 02-3014-0131

□ 다음은 귀하 자녀(학생)의 건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아이는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①	②	③	④

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해주세요.

	전혀 먹지 않는다	가끔 먹는다	자주 먹는다	매일 먹는다
1) 우리 아이는 등교하기 전에 아침을 먹는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아이는 고카페인 음료 (예: 콜라나 커피, 핫식스, 박카스 등)를 마신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 자녀(학생)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문항을 읽고 질문에 대해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점수에 ○표 하여 주세요.

3. 우리 아이는 요즘 자신의 생활 전반에 만족한다

전혀 만족해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해 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우리 아이는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5. 우리 아이는 어제 행복해 했다

전혀 행복해 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행복해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우리 아이는 어제 많은 걱정을 하였다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걱정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우리 아이는 어제 우울했다

전혀 우울해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우울해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다음은 귀하 자녀(학생)의 경제적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8.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아이는 우리 집의 경제적 생활형편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 자녀(학생)의 주변관계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9. 다음 문항을 읽고 각 항목별로 귀하의 자녀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아이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아이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우리 아이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 자녀의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0.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아이가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아이가 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걸을 때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1.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여러 직업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재미있어 한다	①	②	③	④

12. 귀하의 자녀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학원, 방과후 학교, 과외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예 → 문12-1로 이동

② 아니요 → 문13으로 이동

12-1. 귀하의 자녀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학원, 방과후 학교, 과외 등)을 재미있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13.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아동 권리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아이는 학교 이외의 곳에서 아동 권리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아이는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 자녀의 평소 생활 중 활동(놀이, 여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4.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에는 우리 아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아이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에는 우리 아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5.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매체(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우리 동네를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 다음은 귀하 자녀와 그 주변에 대한 귀하의 신뢰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귀하는 다음의 대상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우리 아이	①	②	③	④
2) 우리 아이의 친구들	①	②	③	④
3)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	①	②	③	④
4) 이웃사람들	①	②	③	④

17. 다음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 주요 사회기관들입니다. 귀하는 이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지역사회 전문기관 (예: 국공립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2) 지방정부 (예: 시청, 도청, 군청, 구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①	②	③	④
3) 중앙정부 (예: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항을 읽고 질문에 대해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점수에 ○표 하여 주세요.

18.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19.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치없다		←————— 보통 —————→									매우 가치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0.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행복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1.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전혀 근심 또는 걱정 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근심 또는 걱정이 많았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2.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우울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다음은 귀하의 경제적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23. 귀하는 귀댁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 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③ 약간 만족한다
- ④ 매우 만족한다

□ 다음은 귀하의 주변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24. 귀하는 다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나와 우리아이의 담임 선생님의 관계	①	②	③	④
2) 나와 이웃(지역사회)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 다음은 평소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25.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가족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26. 귀하의 자녀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 해당되는 번호를 자녀의 입장에서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만약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과 살고 있다면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⑨ 남동생' 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 | | | |
|---------|--------|---------|----------|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친할아버지 | ④ 친할머니 |
| ⑤ 외할아버지 | ⑥ 외할머니 | ⑦ 형/오빠 | ⑧ 누나/언니 |
| ⑨ 남동생 | ⑩ 여동생 | ⑪ 이모 | ⑫ 고모 |
| ⑬ 삼촌 | ⑭ 외삼촌 | ⑮ 사촌형제 | ⑯ 기타 () |

27.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아들만 있는 경우, 딸에는 '0', 딸만 있는 경우 아들에게는 '0'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	
----	--	---	--

귀하의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귀하의 생년	()년
귀하의 현 거주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귀하가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본 설문지는 자료처리 등을 위해 대행기관에서 약 6개월 보관된 후 주관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인적사항 등은 자료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위해 파악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통계법』 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34조 (통계 중사자의 의무)

통계조사자, 통계조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는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면, □안에 체크표시해주세요.)

●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5) 공무원용

ID				
----	--	--	--	--

* 기록하지 마세요! (담당 연구원이 기록)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공무원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위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올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세부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구성 및 조성사업 연구 II'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현황에 대해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보다 나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은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에 대략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설문의 각 문항들은 응답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위험을 최소화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도중 거슬리거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등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문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의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역량연구실 김옥태 ☎ 02-2188-889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 다음은 귀하의 관할 지역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관할지역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 관할지역 청소년들은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①	②	③	④
3) 관할지역 청소년들은 등교하기 전에 아침을 먹는다	①	②	③	④

2. 귀하는 관할 지역에 있는 다음 두 집단 간의 연계 및 협력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좋지 않다	별로 좋지 않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1) 학부모와 학교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2)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3)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의 관할 지역의 청소년의 안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3.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관할지역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관할지역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기구 등의 시설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관할지역 청소년들이 밤중에 혼자 걸을 때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관할지역 청소년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공무원)는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의 관할 지역의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4.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관할지역 청소년들은 아동 권리에 대해 배운다	①	②	③	④
2) 관할지역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관할지역 청소년들은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 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8. 청소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청소년 관련 직무교육
- ② 정책사업 아이디어(컨설팅 및 관련연구단체로부터의 아웃소싱)
- ③ 지역 내의 네트워크(민·관·학 연계 등)
- ④ 시·군·구와의 업무협조
- ⑤ 담당자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예: 단체설립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가이드 또는 매뉴얼)
- ⑥ 포상 및 인센티브
- ⑦ 기타 ()

9. 청소년정책, 특히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과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까?

- ① 있음 → **문9-1로 이동**
- ② 없다 → **질문 종료**

9-1. 있다면, 구체적인 명칭은 무엇이며, 제정 연월은 언제입니까?

명칭	제정 연월

귀하가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본 설문지는 자료처리 등을 위해 대행기관에서 약 6개월 보관된 후 주관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인적사항 등은 자료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위해 파악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통계법」 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34조 (통계 종사자의 의무)

통계조사자, 통계조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는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면, □안에 체크표시 해주세요.)

●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객관적 지표자료 수집 자료

<통계표 1> 지역경제수준: 상대소득지수 (2012)

구분	상대소득지수
전국	1.000
서울	1.085
부산	0.887
대구	0.932
인천	0.922
광주	0.941
대전	0.968
울산	1.311
경기	1.045
강원	0.890
충북	0.875
충남	0.918
전북	0.895
전남	0.971
경북	0.917
경남	0.983
제주	0.867

출처 : 통계개발원(2013). 한국의 사회동향 2013, p167.

주1) 상대소득지수는 전국 평균 소득 대비 해당 시도 평균 소득의 비임.

2) 2012년 전국 소득은 289만원이며,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지난 3개월 평균 월급여액) 기준임.

3)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2년 3분기 자료임.

<통계표 2> 지니계수 (2012)

구분	지니계수
전국	0.281
서울	0.300
부산	0.269
대구	0.277
인천	0.244
광주	0.279
대전	0.274
울산	0.304
경기	0.280
강원	0.279
충북	0.248
충남	0.243
전북	0.279
전남	0.262
경북	0.275
경남	0.240
제주	0.288

출처 : 통계개발원(2013). 한국의 사회동향 2013, p169.

주1)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으며,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더 평등함을 의미함.

2)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2년 3분기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8세-65세 임금근로자 중 남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였음.

<통계표 3> 사회복지지출 비율 (2014)

(단위: %, 천원)

구분	사회복지지출 비율	사회복지분야예산	자치단체예산규모
전국	26.1	33,004,144,101	126,464,637,765
서울	31.8	5,530,496,104	17,402,398,111
부산	30.5	2,091,379,944	6,861,195,945
대구	32.8	1,568,576,392	4,783,951,076
인천	29.2	1,738,805,594	5,946,987,563
광주	32.5	1,010,275,311	3,110,473,113
대전	35.5	982,394,911	2,770,158,407
울산	23.7	602,826,542	2,545,015,118
세종	23.6	115,042,287	486,731,728
경기	29.5	6,526,545,934	22,118,717,178
강원	19.8	1,331,740,935	6,729,871,029
충북	23.8	1,279,971,201	5,381,750,710
충남	20.9	1,582,630,593	7,560,005,292
전북	23.3	1,724,201,345	7,413,430,455
전남	19.5	1,825,227,616	9,340,323,043
경북	20.4	2,293,566,359	11,227,689,569
경남	23.7	2,421,847,298	10,239,496,488
제주	14.9	378,615,735	2,546,442,940

출처 : 재정고 홈페이지. http://lofin.mospa.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Sabok_03.jsp 에서 2014년 7월 17일 인출.

주1) 적용회계는 일반회계임.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은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2) 사회복지지출 비율 = 사회복지분야 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X 100

3) 사회복지 분야는 총 8개 부문 즉,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분야임

4) 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세출 기준임.

<통계표 4> 통학소요시간 (2010)

(단위: 분)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
전국	30.5	13.2	18.0	26.2	52.7	51.7
서울	35.4	14.7	18.5	27.4	63.1	56.1
부산	31.3	13.5	19.2	28.2	46.4	47.3
대구	29.7	13.1	17.2	24.9	43.0	52.3
인천	37.1	13.3	19.4	28.1	70.3	76.2
광주	26.7	12.5	18.3	27.3	34.9	38.8
대전	25.1	11.8	16.3	23.1	38.0	36.5
울산	26.6	11.9	17.4	25.5	50.6	48.4
경기	34.5	12.7	17.3	26.3	64.4	74.0
강원	21.6	13.2	18.5	22.5	32.1	24.3
충북	23.5	13.1	17.6	25.3	39.2	27.6
충남	24.1	13.2	18.8	25.8	38.1	28.5
전북	23.8	12.4	17.6	26.2	33.7	29.6
전남	23.1	13.8	18.7	23.8	35.1	35.1
경북	23.8	13.1	18.6	25.5	36.3	29.4
경남	25.4	13.0	17.6	25.0	42.5	43.2
제주	25.2	12.0	17.9	27.3	37.1	39.1

출처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A1018&conn_path=I3 에서 2014년 6월 7일 인출.

- 주1) 통학시간은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통행하는 데 걸리는 평균 통학시간을 의미함.
 2) 통학시간은 국민의 삶 지표(<http://qol.kostat.go.kr/blife/result-idx.do?oaYear=2011&idctId=201304903>) 통학/통근시간의 산식을 참고하여 계산하였음.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된 소요시간 계급별 인구 자료로부터 산출하였음. 단, 통학시간 120분 이상 계급은 120~150분 계급으로 설정하여 그 계급값을 135분으로 가정하였음.

$$3) \text{ 평균 통학소요시간} = \frac{\sum_{\text{계급 } i} \text{계급값}_i \times \text{도수}_i}{\text{총도수}}$$

<통계표 5> 경제활동 참가율 (2013)

(단위: 천명, %)

구분	15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42,096	25,873	61.5
서울	8,520	5,307	62.3
부산	2,946	1,710	58.0
대구	2,073	1,237	59.6
인천	2,363	1,505	63.7
광주	1,243	729	58.7
대전	1,276	759	59.5
울산	930	558	60.0
경기	9,987	6,172	61.8
강원	1,248	715	57.3
충북	1,298	792	61.0
충남	1,811	1,170	64.6
전북	1,507	893	59.3
전남	1,483	934	63.0
경북	2,246	1,430	63.7
경남	2,703	1,653	61.1
제주	462	310	67.1

출처: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5&com_path=I3 에서 2013년 7월 17일 인출.

주1) 경제활동 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

<통계표 6> BMI: 청소년 비만을 (2013)

(단위: %)

구분	청소년(중1~고3)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9.8	13.1	6.2
서울	9.2	12.2	5.9
부산	9.6	13.0	5.8
대구	9.6	13.2	5.4
인천	10.6	13.6	7.3
광주	9.4	13.1	5.5
대전	10.3	14.3	5.9
울산	10.4	14.0	6.4
경기	9.7	13.4	5.7
강원	10.3	13.8	6.4
충북	10.2	13.7	6.4
충남	10.1	13.7	6.2
전북	9.6	12.7	6.2
전남	7.9	8.9	6.8
경북	11.2	14.5	7.5
경남	10.0	12.9	6.6
제주	13.7	17.5	9.5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74-177.

주1) 비만율은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인 사람의 분율, 체질량지수(BMI)=체중(kg)/[신장(m)]

<통계표 7> 청소년 평균운동시간: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실천율 (2013)

(단위: %)

구분	청소년(중1~고3)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12.6	17.8	6.9
서울	13.1	18.5	7.3
부산	12.8	17.6	7.3
대구	12.8	18.2	6.6
인천	13.0	17.7	7.8
광주	12.1	16.8	7.0
대전	14.7	20.3	8.6
울산	12.7	16.9	7.9
경기	12.2	17.6	6.3
강원	12.2	17.4	6.5
충북	13.0	18.7	6.8
충남	12.6	18.6	6.0
전북	12.0	17.3	6.2
전남	12.2	16.9	7.1
경북	11.0	15.5	5.9
경남	12.3	17.1	6.9
제주	14.5	20.6	7.8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24-127.

주1) 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비율

<통계표 8> 청소년 평균 수면 시간 (2013)

(단위: 시간)

구분	청소년(중1~고3)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6.4	6.6	6.2
서울	6.3	6.5	6.0
부산	6.3	6.5	6.2
대구	6.4	6.6	6.1
인천	6.4	6.6	6.2
광주	6.2	6.4	6.0
대전	6.3	6.4	6.2
울산	6.3	6.5	6.0
경기	6.4	6.7	6.2
강원	6.7	6.8	6.5
충북	6.5	6.6	6.3
충남	6.5	6.7	6.3
전북	6.5	6.7	6.3
전남	6.5	6.6	6.4
경북	6.5	6.6	6.3
경남	6.4	6.6	6.2
제주	6.3	6.4	6.2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226-229.

주1) 평균 수면 시간은 조사시점 직전 지난 주 주중(월~금요일) 수면시간의 평균임.

2)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중1부터 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통계표 9> 청소년 흡연율 (2013)

(단위: %)

구분	청소년(중1~고3)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9.7	14.4	4.6
서울	8.5	12.1	4.5
부산	9.2	13.3	4.7
대구	8.6	12.9	3.6
인천	9.5	14.5	4.1
광주	11.0	17.2	4.4
대전	9.1	13.4	4.4
울산	11.8	16.6	6.3
경기	10.0	14.6	5.0
강원	11.5	17.5	4.8
충북	10.0	15.0	4.5
충남	11.7	18.5	4.2
전북	11.4	17.7	4.5
전남	8.8	12.8	4.4
경북	10.2	15.6	4.0
경남	9.7	14.6	4.1
제주	10.8	14.2	7.1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34-37.

주1) 청소년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임.

<통계표 10> 청소년 음주율 (2013)

(단위: %)

구분	청소년(중1~고3)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16.3	19.4	12.8
서울	15.1	17.7	12.2
부산	16.1	18.7	13.1
대구	14.6	17.6	11.2
인천	14.6	17.9	11.1
광주	13.5	17.8	8.9
대전	16.0	20.2	11.3
울산	16.7	19.3	13.7
경기	17.0	20.2	13.5
강원	17.8	21.2	14.1
충북	16.2	18.5	13.6
충남	18.9	25.5	11.7
전북	16.8	19.5	14.0
전남	16.4	18.3	14.3
경북	18.6	21.2	15.7
경남	16.6	19.9	12.9
제주	14.4	15.9	12.7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88-91.

주1) 현재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임.

<통계표 11> 미디어 중독률(2013)

(단위: %)

구분	미디어 중독률	인터넷 중독률(9~24세)			스마트폰 중독률(10~24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국	16.9	11.4	12.6	10.0	22.4	22.8	21.9
서울	21.3	15.5	16.8	14.1	27.1	29.0	25.2
부산	17.45	11.0	15.2	6.1	23.9	27.6	19.6
대구	10.45	7.8	8.2	7.2	13.1	11.7	15.0
인천	15.05	9.8	11.2	8.3	20.3	19.7	20.9
광주	10.3	6.4	8.3	4.3	14.2	18.8	9.3
대전	14.8	10.9	13.2	8.4	18.7	19.6	17.6
울산	16.65	13.7	15.0	12.2	19.6	20.0	19.1
세종	14.45	9.6	10.4	8.7	19.3	19.4	19.3
경기	20.25	13.8	14.0	13.5	26.7	26.3	27.1
강원	16.4	9.7	8.6	11.0	23.1	16.9	31.2
충북	12.2	7.0	7.4	6.5	17.4	15.7	19.5
충남	9.55	4.2	5.9	2.5	14.9	15.1	14.8
전북	14.7	9.8	12.3	6.8	19.6	18.3	21.0
전남	13.95	9.1	9.3	8.9	18.8	17.7	20.1
경북	14.15	9.8	11.1	8.3	18.5	18.8	18.2
경남	14.2	7.5	10.2	4.3	20.9	23.8	17.4
제주	13.05	11.1	11.1	11.2	15.0	14.6	15.4

출처: 인터넷진흥원(2013).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원자료.

주1) 미디어 중독률은 인터넷 중독률과 스마트폰 중독률의 합산평균임.

2) 인터넷 중독률과 스마트폰 중독률은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잠재적 위험자와 고위험자의 비율을 의미함.

<통계표 12> 유해환경 (2012)

(단위: 개, %)

구분	주점업소 수	주점업소 비율
전국	131,035	19.4
서울	23,820	19.5
부산	11,690	23.7
대구	7,011	21.7
인천	6,848	21.6
광주	4,297	24.2
대전	3,132	16.7
울산	3,802	22.8
세종	220	14.2
경기	24,721	18.8
강원	5,309	15.2
충북	3,943	16.4
충남	4,687	15.2
전북	4,451	18.2
전남	6,141	22.0
경북	7,507	16.8
경남	10,808	20.2
제주	2,648	22.5

출처: 통계청(2012). 도소매업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A3001&conn_path=I3 에서 2014년 7월 17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2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주1)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은 숙박 및 음식점점의 하위 항목임.

2) 주점업소 비율 = (주점업소 수/숙박 및 음식점점 수) * 100

<통계표 13> 청소년 도로사고율 (2012)

(단위: 명)

구분	청소년(15~24세) 교통사고 사상자			청소년 (15~24세) 인구	청소년(15~24세) 교통사고 사상률(십만 명 당)		
	전체	부상자수	사망자수		사상률	부상률	사망률
전국	116,464	116,044	420	6,761,532	1,722.4	1,716.2	6.2
서울	18,684	18,642	42	1,315,825	1,419.9	1,416.8	3.2
부산	6,543	6,521	22	468,654	1,396.1	1,391.4	4.7
대구	7,235	7,206	29	356,949	2,026.9	2,018.8	8.1
인천	7,002	6,991	11	397,464	1,761.7	1,758.9	2.8
광주	4,682	4,671	11	219,232	2,135.6	2,130.6	5.0
대전	4,214	4,204	10	219,101	1,923.3	1,918.8	4.6
울산	2,755	2,748	7	167,853	1,641.3	1,637.1	4.2
세 종	153	153	0	11,896	1,286.1	1,286.1	0.0
경기	23,997	23,909	88	1,620,699	1,480.7	1,475.2	5.4
강원	4,186	4,165	21	198,022	2,113.9	2,103.3	10.6
충북	3,925	3,908	17	205,990	1,905.4	1,897.2	8.3
충남	5,483	5,452	31	250,112	2,192.2	2,179.8	12.4
전북	4,578	4,556	22	247,539	1,849.4	1,840.5	8.9
전남	3,305	3,286	19	236,592	1,396.9	1,388.9	8.0
경북	6,096	6,051	45	335,925	1,814.7	1,801.3	13.4
경남	6,003	5,966	37	432,202	1,388.9	1,380.4	8.6
제주	1,362	1,354	8	77,483	1,757.8	1,747.5	10.3
기타	6,261	6,261	-	-	-	-	-

출처: 도로교통공단(2013). 2012년 지역별 교통사고 통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2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주1)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 15~24세 청소년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십만 명 당)

2) 지역 미상인 부상자수 6,261명은 전국 교통사고 사망률 계산 시 포함하였음.

<통계표 14>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2012)

(단위: 명)

구분	청소년(10~24세) 안전사고 사망자수	청소년(10~24세) 인구	청소년(10~24세) 안전사고 사망률 (십만 명 당)
전국	720	9,800,948	7.3
서울	84	1,842,539	4.6
부산	51	652,083	7.8
대구	35	512,989	6.8
인천	35	566,730	6.2
광주	26	326,048	8.0
대전	23	318,714	7.2
울산	16	243,266	6.6
세종	2	17,694	11.3
경기	170	2,400,465	7.1
강원	38	289,680	13.1
충북	30	302,422	9.9
충남	37	371,861	9.9
전북	29	364,516	8.0
전남	28	350,253	8.0
경북	46	485,146	9.5
경남	56	638,864	8.8
제주	14	117,683	11.9

출처: 통계청(2012).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I3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2년 주민등록인구연양인구. <http://kosis.kr/>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주1)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 = (10~24세 안전사고 사망자수 / 10~24세 주민등록연양인구) * 100,000

2) 안전사고사망원인에는 운수사고, 추락, 불의의 물에 빠짐,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기타 등의 원인이 포함됨.

3) 국외 사망자 인원은 제외함.

<통계표 15> 청소년 범죄피해율(2010)

(단위: %)

구분	14~19세 청소년 범죄피해율	14~24세 청소년 범죄피해율
전국	7.2	6.3
서울	3.3	4.5
부산	6.1	6.0
대구	5.2	4.0
인천	11.4	9.6
광주	9.7	8.9
대전	8.3	8.0
울산	10.4	8.5
경기	8.8	5.6
강원	7.1	8.4
충북	7.4	7.3
충남	8.4	7.7
전북	6.9	5.4
전남	11.3	9.7
경북	6.1	8.5
경남	6.7	4.8
제주	9.1	8.7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2010). 2010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원자료.

주1) 범죄피해율은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범죄피해(사기, 절도, 강도, 폭행 및 상해, 협박 및 괴롭힘, 성폭력 등)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통계표 16>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2013)

(단위: 건, 명)

	아동학대 발생건수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십만 명 당)
전국	6,796	9,548,871	71.2
서울	816	1,670,360	48.9
부산	295	565,815	52.1
대구	191	466,802	40.9
인천	340	546,194	62.2
광주	118	319,911	36.9
대전	208	313,051	66.4
울산	147	236,291	62.2
경기	1,516	2,503,666	60.6
강원	236	274,901	85.8
충북	387	300,664	128.7
충남	347	414,440	83.7
전북	641	353,223	181.5
전남	372	342,850	108.5
경북	470	465,468	101.0
경남	575	650,238	88.4
제주	137	125,003	109.6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주1)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129콜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현황 중 일반상담건수를 제외한 사례 중 아동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 학대, 방임)로 판정되어 보호된 사례건수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학대 및 방임 발생건수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주2) 세종시는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임. 세종시 인구는 충남에 포함하여 산출함.

주3) 연앙인구는 年央인 7.1일의 인구를 의미하며 캘린더의 7.1일 인구가 아닌 연초(1.1일)와 연말(12.31) 인구의 산술평균 개념을 사용하여 계산된 인구로서 소수점 이하 자리수도 반올림없이 그대로 사용

<통계표 17> 학교폭력 발생률 (2012)

(단위: %)

구분	학교폭력 발생률
전국	11.4
서울	11.7
부산	12.7
대구	9.5
인천	13.4
광주	12.5
대전	10.1
울산	9.9
경기	9.1
강원	12.7
충북	12.7
충남	14.6
전북	12.8
전남	14.0
경북	9.2
경남	14.6
제주	13.1

출처: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유해환경정착 종합실태조사.

주1) 학교폭력 발생률 : 중1~고3 청소년 중 최근 1년간 폭행, 갈취, 협박, 왕따 등의 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

<통계표 18> 청소년 범죄율 (2013)

(단위: 건, %)

구분	전체 범죄사건	소년범죄 사건	청소년 범죄율(%)
전체	3,103,221	132,550	4.2
서울	517,658	18,919	3.7
인천	193,447	9,880	5.1
대전	151,696	7,314	4.8
세종	151,696	7,314	4.8
대구	236,826	10,106	4.3
부산	179,884	8,560	4.8
울산	67,016	2,885	4.3
광주	173,166	6,981	4.0
경기	487,136	21,806	4.5
강원	75,655	2,829	3.7
충북	65,415	2,836	4.3
충남	151,696	7,314	4.8
경북	236,826	10,106	4.3
경남	131,232	4,225	3.2
전북	78,360	3,258	4.2
전남	173,166	6,981	4.0
제주	32,346	1,236	3.8

출처: 대검찰청 내부자료.

주1) 청소년 범죄율은 전체 범죄사건 대비 소년범죄사건의 비율을 의미함.

2) 소년은 만 19세 미만이지만, 형법에서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년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를 사건을 의미함.

3) 인천 지검의 관할지역 중 경기 지역 일부(부천, 김포) 포함

4) 의정부(경기) 지검의 관할지역 중 강원도 지역 일부(철원) 포함

5) 울산 지검의 관할지역 중 경상남도 지역 일부(양산) 포함

6) 전체 건수에서 중복 건수는 제외함.

<통계표 19> 학교 중단율 (2012.03.01 ~ 2013.02.28)

(단위: %)

구분	학교 중단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일반고	자율고	특성학교	특수목적고
전국	1.21	0.46	0.86	2.31	1.85	1.45	4.22	1.80
서울	1.43	1.09	1.23	1.98	2.08	1.31	2.46	0.89
부산	1.14	0.34	0.88	2.20	1.40	1.05	4.66	1.24
대구	0.89	0.30	0.58	1.79	1.02	0.77	4.92	1.78
인천	1.02	0.55	0.81	1.71	1.59	1.43	2.18	1.56
광주	0.93	0.33	0.67	1.80	1.59	1.40	2.88	1.85
대전	1.27	0.60	1.02	2.20	1.58	1.28	5.33	1.56
울산	0.87	0.31	0.74	1.55	0.99	0.63	4.18	1.54
세종	0.82	0.03	0.53	1.90	1.40	4.10	3.60	0.00
경기	1.41	0.68	1.09	2.46	2.23	2.15	4.07	1.00
강원	1.28	0.20	0.71	2.92	2.01	1.50	6.70	2.77
충북	1.33	0.26	0.81	2.91	2.16	4.85	2.98	5.97
충남	1.21	0.26	0.83	2.54	2.03	1.83	4.26	2.51
전북	1.16	0.33	0.73	2.42	1.94	0.66	4.68	1.60
전남	1.27	0.29	0.62	2.89	1.55	0.61	5.93	2.85
경북	1.13	0.21	0.69	2.50	1.71	0.61	5.08	2.04
경남	1.11	0.38	0.72	2.24	1.61	2.80	4.75	1.75
제주	0.94	0.20	0.61	2.00	1.92	0.80	2.84	0.50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3). 2013초중등학교 주요공시정보 분석보고서, p.7.
http://www.schoolinfo.go.kr/ng/pnngpa_a01_l0.do 에서 2013년 6월 7일 인출.

주1)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 학생수/학생수) *100

2) 학업중단 학생수는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유예, 면제, 자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요청 또는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사망, 자살 제외)를 의미함.

3) 자료기준일은 2012년 3월 1일 ~ 2013년 2월 28일임.

4) -는 대상학교가 없음, 0.0은 대상학교는 있으나 해당 값이 0 또는 제공되지 않음을 의미함.

<통계표 20> 학급당 학생수

(단위: 명)

구분	전체(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일반고	자율고	특성학교	특목고
전국	27.4	23.2	31.7	31.9	33.6	31.5	27.6	25.8
서울	28.2	24.5	31.4	31.9	34.1	30.4	25.9	29.5
부산	26.8	22.8	31.0	30.2	32.9	29.5	26.0	24.7
대구	28.0	22.8	32.7	33.6	35.5	34.6	29.1	26.0
인천	27.8	23.5	33.7	31.0	32.8	30.1	27.5	25.0
광주	29.2	24.0	33.6	35.4	36.7	33.7	32.3	25.4
대전	28.0	23.4	32.3	33.7	35.9	33.6	29.3	25.1
울산	28.2	23.9	30.9	34.0	35.7	31.1	31.8	22.8
세종	23.8	21.2	26.4	28.0	29.3	23.3	29.1	20.6
경기	29.7	25.9	33.9	33.4	34.2	32.1	30.4	28.9
강원	23.9	19.1	29.5	29.3	31.7	14.1	23.4	24.6
충북	25.9	21.3	30.0	32.3	34.8	31.2	29.6	21.4
충남	25.6	21.0	30.5	31.2	33.1	30.2	26.7	23.0
전북	24.8	19.9	30.3	29.8	31.2	30.7	26.3	22.7
전남	23.7	19.0	29.0	28.5	30.6	34.2	23.6	22.7
경북	25.0	21.1	28.7	29.3	30.4	31.4	26.2	22.7
경남	26.3	22.0	30.6	31.2	32.3	32.8	27.2	23.1
제주	27.7	22.8	32.8	34.4	36.3	33.8	29.6	22.9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2013 유초등통계. <http://kess.vedi.re.kr/stats/intro?menuCd=0101&survSeq=2013&itemCode=01> 에서 2014년 8월 4일 인출.

주1) 학급당 학생수는 학급 수 대비 학생 수

<통계표 21> 학업성취도 (2013)

(단위: %)

구분	중·고등학생 학업 미달 비율				중학생 학업 미달 비율				고등학생 학업 미달 비율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전국	3.7	2.4	5.5	3.4	3.3	1.2	5.4	3.3	4.2	3.5	5.5	3.5
서울	4.6	3.4	6.3	4.1	3.8	1.5	5.9	3.9	5.4	5.3	6.7	4.3
부산	2.4	1.3	3.7	2.4	2.7	1.0	4.3	2.9	2.1	1.5	3.0	1.9
대구	2.2	1.2	3.3	2.2	2.4	0.8	3.7	2.6	2.0	1.5	2.9	1.7
인천	2.1	1.2	3.3	1.9	2.0	0.7	3.3	2.0	2.2	1.6	3.2	1.8
광주	3.7	2.2	5.5	3.5	4.1	1.5	6.8	4.0	3.3	2.8	4.2	3.0
대전	2.8	1.8	4.2	2.4	3.2	1.4	5.1	3.1	2.3	2.1	3.2	1.6
울산	1.4	0.6	2.4	1.2	1.4	0.5	2.4	1.4	1.3	0.7	2.3	0.9
세종	4.7	2.5	8.4	3.4	3.6	1.1	6.7	2.9	5.9	3.9	10.0	3.8
경기	4.8	3.0	7.1	4.4	3.9	1.3	6.5	4.0	5.7	4.6	7.7	4.7
강원	4.7	2.6	7.5	4.2	4.2	1.4	7.2	3.9	5.3	3.8	7.7	4.4
충북	1.3	0.9	1.8	1.2	0.9	0.3	1.5	0.8	1.7	1.4	2.1	1.5
충남	2.6	1.6	3.7	2.5	2.6	0.8	4.6	2.5	2.5	2.4	2.8	2.4
전북	6.4	4.6	8.7	6.0	5.8	2.6	9.1	5.6	7.1	6.6	8.2	6.4
전남	4.0	2.1	6.5	3.6	4.1	1.2	7.2	3.8	4.0	3.0	5.7	3.3
경북	2.4	1.5	3.6	2.2	1.9	0.9	3.0	1.9	2.9	2.0	4.2	2.4
경남	3.5	2.2	5.1	3.2	3.1	1.2	4.9	3.1	3.9	3.1	5.3	3.3
제주	4.1	3.0	5.5	3.8	2.8	1.1	4.4	2.8	5.4	4.8	6.5	4.8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3). 2013초중등학교 주요공시정보 분석보고서, p.72-73.
http://www.schoolinfo.go.kr/ng/pnngpa_a01_10.do 에서 2013년 6월 7일 인출.

주1) 학업성취도는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이며, 자료기준일은 2013년 6월 25일임.

<통계표 22> 사교육비 지출액 (2013)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국	23.9	23.2	26.7	22.3	26.2
서울	32.8	28.4	34.9	37.1	42.7
부산	22.9	19.3	27.0	24.0	29.5
대구	24.2	21.9	26.7	24.9	29.9
인천	20.8	20.3	21.9	20.6	25.2
광주	23.9	25.9	28.0	17.3	20.3
대전	25.9	25.7	29.0	23.2	26.9
울산	22.4	21.5	26.2	20.2	24.0
경기	25.3	24.7	28.1	23.4	26.4
강원	17.2	17.5	21.1	13.0	15.0
충북	18.8	21.5	20.4	13.1	17.1
충남	17.4	20.0	19.5	11.1	13.0
전북	17.5	17.1	21.8	13.9	16.7
전남	16.8	16.9	21.3	12.5	16.2
경북	18.7	19.9	22.3	13.5	15.9
경남	20.8	23.1	23.2	15.0	17.2
제주	19.6	22.1	22.4	12.6	15.0

출처: 통계청(2013). 사교육비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05&conn_path=I3 에서 2013년 6월 8일 인출.

주1) 사교육비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통계표 23>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2013)

(단위: %)

구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음악연주회	연극, 마당극, 뮤지컬	무용	영화관람	박물관 (유물전시회 등 포함)	미술관 (공예, 서화, 전시회 포함)
전국	84.0	19.6	23.9	2.7	78.5	20.6	17.2
서울	86.9	23.7	33.9	3.7	82.2	22.9	22.8
부산	86.9	17.0	20.9	1.4	81.8	21.0	18.9
대구	83.9	18.7	25.4	1.6	76.9	19.1	14.5
인천	81.1	19.2	22.3	2.4	75.1	21.9	17.4
광주	85.5	16.9	12.5	1.8	81.9	16.3	15.8
대전	92.7	25.5	18.1	3.3	89.0	22.5	19.8
울산	83.0	22.2	15.4	2.2	78.5	19.8	12.1
경기	84.5	18.5	28.7	3.4	78.0	20.0	17.3
강원	78.3	26.0	19.4	0.7	73.6	20.4	12.9
충북	75.1	19.1	15.2	2.0	68.8	23.5	16.0
충남	81.2	15.3	18.0	2.3	75.3	18.5	13.3
전북	84.9	21.4	15.1	2.5	79.1	20.2	14.6
전남	73.2	13.4	15.0	1.6	66.2	22.9	15.1
경북	84.9	16.8	19.3	2.6	81.1	17.8	14.5
경남	82.4	18.4	16.5	1.8	76.7	18.2	10.8
제주	78.1	16.6	19.5	1.4	72.1	26.0	20.8

출처: 통계청(2013). 2013 사회조사 원자료.

주1)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 13~24세 청소년 중 지난 1년(2012. 5. 11.~ 2013. 5. 10.)동안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유물전시회 등 포함), 미술관(공예, 서화, 전시회 포함)을 1회 이상 관람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을 의미함.

<통계표 24> 문화여가 지출비용 (2012)

(단위: 원)

구분	문화여가 지출비용(월 평균)
전체	125,956
서울	133,699
부산	141,318
대구	130,308
인천	111,568
광주	128,482
대전	147,356
울산	224,096
경기	108,294
강원	89,184
충북	126,752
충남	124,139
전북	138,683
전남	142,580
경북	109,437
경남	115,932
제주	174,766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주1) 문화여가 지출비용(월평균)의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이며, 조사의 기준일은 2011.9.1부터 2012.8.31까지임.

<통계표 25> 동아리활동 참여율 (2011)

(단위: %, 회)

구분	청소년(9~24세) 동아리 참여율	청소년(9~24세) 동아리 활동 개수 (동아리 참여한 청소년만 분석)
전국	24.2	1.62
서울	28.8	1.47
부산	16.5	1.33
대구	22.7	1.26
인천	23.6	1.63
광주	21.9	1.06
대전	19.4	1.97
울산	22.1	1.06
경기	26.0	1.99
강원	29.6	1.46
충북	18.4	1.30
충남	21.1	1.19
전북	28.7	1.45
전남	20.9	1.24
경북	28.5	2.13
경남	16.8	1.93
제주	18.4	1.00

출처: 여성가족부(2011).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주1) 동아리활동 참여율 : 종교단체 제외한 청소년시설·단체(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등, 학교 등 공식기관을 포함),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예 : 인터넷 카페 등), 기타 단체나 동아리(종교단체 포함)에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

<통계표 26> 녹지 접근성: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및 녹지 면적 (2012)

(단위: m²)

구분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및 녹지 면적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인구 1인당 녹지 면적
전국	10.33	8.09	2.24
서울	8.95	8.48	0.47
부산	6.99	4.89	2.10
대구	6.04	4.44	1.60
인천	11.72	10.19	1.53
광주	7.54	5.90	1.64
대전	9.22	8.05	1.17
울산	15.18	10.41	4.77
세종	195.39	175.64	19.75
경기	10.46	8.10	2.35
강원	7.85	5.13	2.72
충북	10.10	5.52	4.58
충남	11.33	7.07	4.26
전북	11.14	8.77	2.37
전남	15.72	10.35	5.37
경북	9.13	6.53	2.60
경남	12.00	8.68	3.32
제주	7.63	6.72	0.92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내부자료.

주1) 녹지접근성: 인구 1인당 도시지역 안 시민의 건강/휴양을 위한 휴식공간과 녹지면적

<통계표 27> 문화예술 시설 수 (2012)

(단위: 개소)

구분	문화예술 시설 수	공연 시설	공연장				전시시설			문예 회관	문화원	도서관	2012년 인구	2012년 인구 대비 문화예술 시설 수 (십만 명 당)
			전체	대 공연장	중 공연장	소 공연장	전체	박물관	미술관					
전국	16,734	944	1,188	104	442	642	911	740	171	214	229	13,248	50,345,325	33.2
서울	2,742	352	435	24	119	292	142	110	32	16	25	1,772	10,062,309	27.3
부산	854	50	64	2	19	43	21	16	5	10	14	695	3,503,508	24.4
대구	631	50	57	7	15	35	17	14	3	9	8	490	2,484,825	25.4
인천	689	38	45	2	15	28	26	22	4	8	8	564	2,793,504	24.7
광주	430	28	31	2	11	18	17	10	7	7	5	342	1,456,950	29.5
대전	479	29	33	6	8	19	21	16	5	3	5	388	1,508,418	31.8
울산	304	14	16	1	8	7	8	8	-	4	5	257	1,134,134	26.8
세종	53	-	-	-	-	-	3	3	-	1	1	48	103,385	51.3
경기	3,103	119	160	25	73	62	163	127	36	28	31	2,602	11,911,181	26.1
강원	909	41	52	6	25	21	84	74	10	18	18	696	1,523,578	59.7
충북	654	23	26	2	15	9	50	43	7	13	12	530	1,550,498	42.2
충남	951	31	47	5	19	23	51	43	8	15	16	791	2,006,979	47.4
전북	940	30	40	6	14	20	37	34	3	17	14	802	1,860,939	50.5
전남	1,142	35	47	3	26	18	62	44	18	19	22	957	1,897,994	60.2
경북	1,248	35	49	3	32	14	70	63	7	25	23	1,046	2,680,452	46.6
경남	1,255	43	59	6	28	25	63	55	8	19	20	1,051	3,291,679	38.1
제주	350	26	27	4	15	8	76	58	18	2	2	217	574,996	60.9

출처: 통계청(2013). 한국의 사회지표, p342-343.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2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주1) 지역인구 대비 문화예술 시설 수는 지역 인구 십만 명 당 문화예술 시설(공연시설, 공연장(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 시설(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도서관) 수를 의미함.

2) 문화예술 시설 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실태조사」,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감」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청에서 작성한 자료를 발췌함.

3) 공연장 수는 모름과 무응답 포함됨.

<통계표 28> 청소년 활동시설 수(2012)

(단위: 개소, 명)

	전체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2012년 9~24세 청소년 인구	청소년 인구대비 청소년 활동시설 수 (십만 명 당)
전국	753	181	219	173	45	127	8	10,294,795	7.3
서울	61	33	17	2	0	4	5	1,928,362	3.2
부산	24	8	9	4	2	1	0	680,755	3.5
대구	13	5	6	1	0	1	0	537,377	2.4
인천	26	8	6	5	4	3	0	594,463	4.4
광주	11	5	4	1	0	1	0	342,978	3.2
대전	13	4	7	1	0	1	0	335,061	3.9
울산	9	1	6	2	0	0	0	254,917	3.5
세종	1	0	1	0	0	0	0	18,724	5.3
경기	144	28	41	47	4	23	1	2,531,503	5.7
강원	81	14	27	16	6	17	1	304,510	26.6
충북	46	9	9	15	2	11	0	317,918	14.5
충남	49	9	10	14	3	13	0	391,808	12.5
전북	54	11	20	13	3	6	1	383,163	14.1
전남	44	13	11	8	7	5	0	367,938	12.0
경북	63	16	11	14	7	15	0	508,901	12.4
경남	71	14	15	25	4	13	0	672,044	10.6
제주	43	3	19	5	3	13	0	124,376	34.6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2 청소년백서, p404.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2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주1) 9~24세 청소년 인구 십만 명 당 청소년 활동시설 수를 산출하였음.

2) 청소년 활동시설 수는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의 수를 의미함. 국립청소년시설 3개(중앙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평창수련원(강원도 평창군),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전라남도 고흥군))은 포함되었으며, '13. 7월 개원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경상북도 영덕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전라북도 김제시))는 상기통계 미포함됨. 자료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임.

<통계표 29> 청소년 자살률(2012)

(단위: 명)

구분	10~24세 청소년 자살 인원(명)	10~24세 청소년 인구	청소년 자살률 (십만 명 당)
전국	821	9,800,948	8.4
서울	145	1,842,539	7.9
부산	65	652,083	10.0
대구	33	512,989	6.4
인천	59	566,730	10.4
광주	34	326,048	10.4
대전	34	318,714	10.7
울산	20	243,266	8.2
세종	2	17,694	11.3
경기	180	2,400,465	7.5
강원	26	289,680	9.0
충북	21	302,422	6.9
충남	29	371,861	7.8
전북	30	364,516	8.2
전남	42	350,253	12.0
경북	46	485,146	9.5
경남	39	638,864	6.1
제주	16	117,683	13.6

출처: 통계청(2012).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12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2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주1) 청소년 자살률 = (10~24세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 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통계표 30> 자원봉사 참여율(2013)

(단위: %)

구분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유형별 비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	자녀교육 등	국가 및 지역 행사 등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전국	19.9	62.4	19.4	6.6	7.7	3.9	15.3
서울	17.7	64.6	16.0	8.2	7.9	3.3	14.3
부산	18.7	69.1	15.3	4.9	7.2	4.0	12.7
대구	19.0	77.2	11.0	5.1	6.6	2.0	8.4
인천	18.6	74.4	13.0	6.7	6.2	4.4	9.4
광주	23.5	65.4	14.4	7.7	6.8	4.9	17.4
대전	24.8	72.3	14.7	4.4	6.8	5.6	11.3
울산	21.5	65.7	14.2	4.2	10.7	3.1	26.7
경기	19.7	56.6	20.5	9.3	7.1	3.4	16.5
강원	19.4	62.7	17.4	6.2	11.3	3.5	20.1
충북	21.7	47.4	34.9	3.3	9.6	4.2	23.5
충남	23.0	52.8	34.3	5.2	8.8	4.7	13.5
전북	18.0	67.8	14.4	3.8	10.1	8.4	13.3
전남	22.1	68.4	21.1	6.2	10.3	4.4	7.5
경북	18.5	51.8	25.3	4.6	6.0	2.9	23.7
경남	23.4	56.9	25.2	4.0	7.3	4.2	18.3
제주	24.2	70.4	19.8	5.0	5.3	4.0	7.4

출처: 통계청(2013). 2013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3SP151R&conn_path=13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주1) 설문문항은 "지난 1년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참여 횟수 및 1회 평균 활동시간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로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각각의 항목(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관련, 환경보전/범죄 예방관련, 자녀교육 관련,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재해지역 및 시설 복구 관련,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에 대한 횟수와 평균시간으로 조사되었음

2) 자원봉사활동참여율 =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로 산출함. (지역별 자원봉사 참여율)

3)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3. 공무원 면접조사 질문지

17개 시·도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정책 추진여건 파악을 위한 주요 질문

1. 지역	
2. 청소년정책담당 조직체계	
3. 담당자(직급)	담당자(직급) _____ ①업무담당기간 _____년 _____개월 ②경력 _____년 _____개월 ③업무 중 청소년정책업무량 비중 _____%
4. 총 청소년정책 담당자(수)	_____명 (확인: _____)
5.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배치 - 시·도 예() 아니오() _____명 - 시·군·구 예() 아니오() _____명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직렬 - 시·도 일반행정직() - 사회복지직() - 교육직() - 기타() - 시·군·구 일반행정직() - 사회복지직() - 교육직() - 기타() •시·도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순환보직여부 예() 아니오() •시·군·구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순환보직여부 예() 아니오()
6. 업무순환주기	_____개월
7. 청소년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청소년 관련 교육 ②사업 아이디어 ③광역자치단체간 협력 및 정보공유 ④추진체계 네트워크 ⑤예산지원 ⑥기타: _____
8. 청소년정책 관련 교육 혹은 연수 받은 경험 유무 및 내용	①있다() ②없다() ①필요한 교육이 있다. () ②필요한 교육이 없다.()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어떤 교육? _____
9. 청소년정책 지역 추진체계가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①있다면 어떤 기관,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ex)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친화환경위원회
10. 시장 혹은 도지사는 청소년 정책, 특히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는지?	

<p>11. 청소년정책, 특히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과 관련한 조례가 있는지?</p>	<p>ex) 서울(성북구, 동작구,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p>
<p>12. 청소년정책, 특히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과 관련한 지역의 특화사업이 있는지?</p>	<p>①있다() ②없다() 특화사업이란 중앙정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제외한 <u>광역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임.</u> ①있다면 어떤 사업인지?</p>
<p>13. 청소년정책 예산이 충분한지?</p>	

Abstract

A Study of 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Project II - Focusing on the diagnosis and analysis of the community

This study attempted to diagnose the level of youth-friendly environment in a local community, which is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adolescents' lives and their healthy growth and suggest a policy plan to have the diagnosis results reflected on local community development policies. To measure youth-friendly environment conditions in 17 cities and provinces, special indexes were developed, and composite indexes which would be easy in promoting policies were estimated and analyz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kind of quantitative approach, in addition, there was qualitative approach to the analysis of youth policies in 17 cities and provinces and subjective assessment on policy monitoring and indexes against adolescents from the said reg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encouraged adolescents to actively participate and diagnose the local community's level of youth-friendly environment on their own, satisfying the basic premise of the youth-friendly environment polic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osite diagnosis, central government and 16 municipal & provincial authorities proposed a basic direction for a policy aimed to build local community environment where adolescents are happy. The index analysis and spatial analysis found the followings: First, according to analysis on 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 (YHCI) in 16 cities and provinces, 'average or higher' was found in seven (7) regions only. In general, provinces were higher than metropolitan cities in terms of the index level. Second, in terms of an area with the 'average or lower' index, 'subjective wellness' was the highest, followed by 'safety-education relation.' Third, when the regions were classified and compared based on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index, the areas with a certain level of the standard deviation or higher were Jeju and Gyeongnam. In contrast, the regions with relatively low composite indexes were Gyeongbuk and Seoul. Fourth, according to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Daejeon was a hot spot in economy and participation while Gangwon was a cold spot in education, which requires reinforcement and improvement through regional approach. Fifth, Daegu and Gyeongnam revealed a relatively high index in safety and participation respectively. In Gwangju, Gyeongbuk and Jeju, on the contrary, negative autocorrelations having relatively lower indexes were observed, which in turn requires reinforcement and improvement through regional approach as well. Sixth, according to spatially weighted regression analysis, the regions with high influence between education and relation indexes were Jeju, Jeonnam and Gwangju while the regions with high influence in participation were Jeju, Gwangju and Jeonbuk. In terms of influence among subjective wellness indexes, Jeju, Jeonnam and Gwangju were high. In terms of the regions which should be improved by making up for weakness, on the contrary, Seoul and Incheon were found in participation while Seoul, Gyeonggi and Gangwon were observed in subjective wellness. In education, Seoul, Incheon, Gyeonggi and Gangwon were detected. Based on the said results, the basic directions which should be observed along with principles in using the results of the diagnosis and assumed in promoting the Youth Happiness Community Policy were set as follows: i) youth-centric policy, ii) evidence-based policy, iii) integrated policy, vi) community-facilitated policy and v) regionally strategic policy. Under these policy directions, in addition, three basic principles were suggested. In terms of 'improvement in the establishment of policy analysis & evaluation-based evidence-based policy' and 'utilization for the promotion of the Youth Happiness Community Policy,' furthermore, specific use plan of the results and related policy plan were proposed.

Keywords: Development of Youth-friendly Environment, Diagnosis of Local Community, 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 (YHCI), Composite Diagnosis, Policy Utilization Plan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안선영 · 황여정 · 이수정 · 이로서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임희진 · 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I / 이경상 · 박선영 · 조남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정주 · 김정숙
- 14-R05 아동 · 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 · 조홍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 · 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 · 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 · 이창훈 · 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 · 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 · 조혜영 · 이태주 · 이덕난
-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 · 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 · 김희진 · 이민희 · 김유나
- 14-R14-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 · 이호균 · 서여정 · 김광혁 · 김형욱 · 윤상석 · 박병식 · 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 · 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 · 분석 / 김지경 · 하헌주 · 김옥태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 · 임영식 · 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신현욱 · 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오해섭 · 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 · 맹영임 · 문호영
- 14-R18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황진구 · 모상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허효주 · 문은옥 · 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 · 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I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김지연·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김혁진·김범구·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하시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이종원·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강태훈·류성창·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오해섭·백혜정·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김동일·김태완·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윤철경·최금해·김욱태
- 14-R49 2014년 또래조정사업 / 서정아·김영한·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조혜영·김용훈
- 14-R52 신고·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I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치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연구보고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
지역사회 진단·분석**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28-1 94330
979-11-5654-027-4(세트)